

경관보전직불제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2008.12.

목 차

I. 총 관	1
II. 2007년 동계작물 모니터링 보고서	13
1.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17
2.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26
3.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36
4.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43
5.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47
6.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53
7. 전라남도 나주시 공산면.....	63
8.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73
9.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83
10. 전라남도 강진군 움천면.....	92
11.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101
12.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109
13.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117
14. 대구광역시 동구 미대동.....	127
15. 경상북도 상주시 이안면.....	131
1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136
17. 경상북도 영천시 자영면.....	141
18.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145
19.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149
20.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157
21.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167
22.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175

23.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185
24.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195
25.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203
26. 경상남도 의령군 궁류면.....	208
27.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215
28.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224
29.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229

Ⅲ. 2008년 하계작물 모니터링 보고서 237

1.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241
2.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244
3.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255
4.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267
5.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276
6. 전라북도 고창군 공음면.....	287
7. 전라북도 익산시 함라면.....	295
8.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304
9. 전라남도 곡성군 겸면.....	312
10.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면.....	321
11.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328
12.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339
13. 경상북도 상주시 이안면.....	349
14.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359
15.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368
16.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378
17.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391

I. 모니터링 결과(총괄)

**농림수산식품부
농 촌 산 업 과**

경관보전직불제 모니터링 결과(총괄)

1. 사업개요

□ 2007예산 현황

- '07년 예산 : 800ha, 1,000백만원(직불금 952, 행정경비 48)
 - ※ 지급단가 : 170만원/ha (국고 70%, 지방비 30%)
- '07대상지 선정 현황
 - 10개 시·도, 2,303ha 신청 → 10개 시·도, 800ha 선정(60개마을)
 - 동계작물(유채, 자운영) 586.2ha(73.3%), 하계작물(메밀, 코스모스, 연, 야생화) 213.8ha(26.7%) 선정
 - 동절기 작물 식재지역 46개 마을(76.6%), 하절기 작물 식재지역 14개 마을(23.4%) 선정

계	대구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800ha	5.3	12.8	39.4	6.5	24.0	180.4	275.0	54.0	162.6	40.0

□ 2008예산현황

- '08년 예산 : 3,252ha, 2,646백만원(직불금 2,596, 행정경비 50)
 - 동계작물 2,600ha, 하계작물 652ha
 - ※ 지급단가 : 동계 100만원, 하계 170만원/ha(국고 70%, 지방비 30%)
- '08대상지 선정
 - 12개 시·도, 3,843ha 신청 → 12개 시·도, 3,357ha 선정(269개마을)

계	대구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357ha	16	30	7	29	90	48	87	892	1,412	306	302	137

- 작물별 선정 현황

- 유채 1,358ha(40.5%), 자운영 1,155ha(34.4%), 청보리 204ha(6.1%)메밀, 코스모스, 연, 야생화 등 844ha(19.0%)

2. 사업시행의 효과 분석

□ 농가소득 향상효과

- 정읍시 고부지구에 경관보전직불제 지원과 시의 추가지원 그리고 작물 수확에 따른 판매소득, 메밀꽃 축제로 인한 부가적 효과로서 지역 농산물 판매 등 소득향상에 파급적 효과를 주고 있으며
- 장흥군 선학지구는 대상지내 작물 재배에 따른 지원금 외에 부녀회에서 메밀등을 시장에 판매 이익금을 부녀회 기금을 조성하고ha당 300만원의 판매소득을 올림
- 익산시 소룡리의 야생화단지 5년간의 투자를 바탕으로 '08년 부터는 어느정도 기반이 조성된 상태이고 경관보전직불제의 지원이 도움이 되어 실질소득(투자비대비 실질소득 : 54백만원)에 도움이 되며
- 일부 지역에서는 단순한 경관작물식재로써농가소득 창출은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예가 발생되므로 경관작물 식재와 더불어 농가가 주체가 된 축제 및 이벤트전개, 경관작물과 연관된 특산품개발 및 브랜드화가 농가소득창출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

□ 경관조성 및 농촌어메니티 증진효과

- 선동지구의 경우 경관작물에 의한 경관조성 뿐 아니라 선동지구로 진입하는 도로변에 코스모스 등을 식재하는등 지역 전체를 아름답게 가꾸려는 의지 향상 및 지구내의 농업 가로시설물 등에 대해서도 지역경관을 고려하여 어메니티가 증진되는 효과가 있으며
- 정읍시 고부지구는 메밀꽃으로 일차적 경관조성을 하고 축제 등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변 경관을 부가적으로 가꿈으로써 지역 전체의 경관향상 효과 및 휴게공간 조성등의 경관관리 활동으로 어메니티가 증진됨

- 휴경논(다랭이논)을 경관작물 재배지역으로 유도 집단화시키고 지역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관관리를 하게 되고 이로써 마을 및 주변지역 어메니티가 향상됨
- 앞으로 경관작물을 통한 경관 형성 외에 주변 자연자원 등 좋은 경관 및 어메니티자원을 활용하여 경관직불제 지원의 효과를 높일 필요성에 대해 주민들의 인식 향상하는 것이 중요함

□ 공동체의식 함양 및 지역활성화 효과

- 익산시 소룡리는 야생화단지를 중심으로 마을주민들과의 공동체의식 증가 및 축제개최에 따른 체험 방문객등이 소룡지구 야생화단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 일회성 체험이나 판매가 아닌 지속적인 방문과 생산품의 판매로 이어짐으로 지역활성화에 효과가 나타남
- 정읍시의 고부지구는 기존의 농업방식으로 작물재배 만으로 소득을 얻던 농가들이 경관보전직불제를 통해 참여농가들이 공동작업에 의한 농업과 경관조성을 추진함으로써 공동체의식 함양 및 지역특산물의 판매 및 홍보에도 기여 하는 등 지역활성에 기여
- 장흥군 선학지구는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을 위해 매일 마을회의를 하면서 작물재배 및 관리를 위한 주민들의 역할 정리 및 공동체의식이 높아 지고, 사진작가등의 방문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함
- 계절별 경관작물을 시행하여 지역의 아름다운 이미지와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가꾸는 과정에서 마을주민 및 방문객들의 호응도가 높아짐

□ 경관작물 관련 축제 시행성과

- 태백시의 해바라기 축제기간은 1달간으로 2007년에는 23천명에서, 2008년에는 53천명으로 증가 하였고 1인당 7천원의 정도의 비용지불로 올해 371백만원의 수입을 올림
- 지역의 방문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축제에 따른 농산물 판매 소득 및 주변환경 정비활동이 활성화 됨
- 곡성군 칠봉지구는 매년 가을 목화축제 개최를 통해 유기농 목화생산 및 지역알기 행사를 개최 축제기간 동안5만여명의 방문객등이 증가 됨
- 장흥군 선학지구는2007년 시범사업 당시 방문객이1만여명 정도 였으나 2008년 에는 2만여명으로 방문객이 증가함(방송촬영지로이용 마을홍보의 매개체가 됨)

□ 지급단가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 전국적인 지원 기준임을 감안할 때 단가 인상보다는 우수 사례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등의 수단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바람직할 것임
- 지급단가의 적정성을 위하여 일반전작기준 평균 소득창출을 산정하여 각 경관작물별 지급단가의 세분화가 필요함
- 하계작물은 2회까지 재배가 가능하므로 경관농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하계작물의 지원이 필요
- 야생화는 작목특성상 화학비료 대신 인력으로 제초작업을 해야되므로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하며 식재관리활동 등 비용이 과대 발생되어 지급 단가의 상향조정 필요
- 농가가 지속적으로 경관작물 재배에 참여토록 하려면 지급단가 상향조정보다는 경관작물 재배와 연계한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 함

- 주민의 경관작물에 대한 이해도 및 재배기술을 향상할수 있는 작물 재배 매뉴얼 등을 통한 경관보전사업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매뉴얼 제작, 배부, 교육등 지원책이 필요함

□ 사업대상지역 적합성 및 확대방안

- 봉평의 메밀은 지역을 대표하는 작물이 되었으나 앞으로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집단화된 지역만을 선정하는 것이 아닌 적정한 면적을 대상지로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
- 지역, 기후와 풍토에 맞는 작목을 선택 할수 있는 폭을 확대해주어 사업 대상지역을 넓게 포괄하고 지역을 집단화 하면서 발생하는 임대농지 소작인문제 등 해결 필요
- 고창 공음면 “선동지구”는 하계 67ha, 동계 70ha를 경관보전직불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특히 경관특구지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어 대상지로 적합하며특구 진입로 지역까지 대상지를 확대 경관농업 고장의 특성화 추진을 강화
- 정읍 고부면 고부지구는 무농약 농업인증으로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있고, 생산메밀의 안전성을 인정받는데다 메밀 꽃밭 조성으로 축제행사과 함께 지역농산물 수익증대로 이어지는 지역으로 적합하며 현재 두승지구를 포함해 경관농업지구를 확대 조성할 계획으로 도로변 및 인근 두승산 일부의 주변 농경지 참여를 유도
- 무안 몽탄면 몽강지구는 사업대상지로는 적당하나 대상지는 농지뿐만 아니라 도로변, 공한지 또는 폐선 철도부지 등도 포함해 면적비를 높이고 면적기준에서 0.5ha의 면적 이상에 대한 이격거리 허용기준 30m를 100m 까지 연속성 효과를 높일수 있는 이격거리를 검토

- 하동 북천면 직전지구는 도로변에 위치접근성이 뛰어나 직불제의 효과가 있으며 그도안 통과하기만 하던 방문객이 마을에 접근하여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음.

앞으로 저수지나 마을숲 등 내세울만한 어메니티 자원과 연계한 탐방 체험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2008년부터 지역 특성에 맞는 작물지정 지역선정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부분 재량권을 주어 경관작물 재배지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패키지 화할 수있도록 하였으나 경관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집단화와 선형 점형적 연계공간을 조성하여 경관지구로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 경관조성 및 유지·관리 등 사업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직불금 신청할 때에 면적 접근로가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이를 해결 하기는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고 농가 신청서류가 복잡하고 농가 에서 쉽게 이해하기 어려움
- 경관보전위원의 구성도 좀더 현실적이고 현장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동비를 지원한다던가 하는 대책이 필요하고 보조금 지급은 초기에 80%, 재배후에 20%를 인센티브 혹은 페널티의 개념으로 지급하는 것이 초기 자금을 원활하게 하는 것임
- 작물 식재 후 재배관리를 위한 활동 소요일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시비, 잡초제거, 논, 밭두렁 등 탐방로 정비 등의 소요일수는 각 작목마다 다른 사항을 검토 반영 하여 최소재배 기간 등을 정리하면 경관보전직불제 기간의 합리적 배분이나 개화시기를 예측 모니터링이 가능 할 것임
- 직불제 관련 읍면담당자도 교육 및 직불제관련 설명회를 실시 일회성이 아닌 분기별로 대상자를 교육 실시

- 보리나 밀을 경관직불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생산보조금으로 오인시킬 소지가 있으므로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별도의 생산보조금 정책이 필요함
- 대상지선정 및 협약체결 등 지자체 주도적인 행정으로 진행되어 주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함 따라서 사업시행 전 주민들과 시군,면사무소 담당자등이 워크샵 등을 통해 사전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경비지원 필요
- 경관직불제를 통해 지역활성화나 경관가꾸기 농업소득화 등의 선도적인 사례를 소개해 주고, 마을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교육이나 연수가 필요
- 농촌주민의 소득보전 및 지역활성화를 유도하면서 지역의 자연환경을 관리,보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농촌주민들이 약속이행을 잘하고 스스로 관리, 감독이 잘 이행될 때 성공적으로 정책이 수행될것임
- 대상지 신청시 적절한 경관작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본자료가 필요하며 협약 체결 및 보조금지급 등에 있어 경관작물의 작황이나 이행 수준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 1>

모니터링 대상지구 및 조사 전문가

구분	도	시·군	읍·면	리·동	면적(m ²)	경관작물	전문가	
동절기 작물		23	23		101,224,616			
	경기	파주	교하	서패	98,168,000	야생화	김상범 박사 (농촌진흥청)	
		포천	일동	유동	30,200	야생화		
	충북	보은	수한	발산	65,000	유채		
	충남	공주	탄천	대학	84,216	유채		
		부여	초촌	신암	38,219	유채		
		홍성	서부	궁	41,834	유채,코스모스		
	전남	나주	공산	신곡	536,704	십자화과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나주	다시	신광	114,484	유채		
		장흥	회진	산저	208,000	유채,메밀		
		강진	음천	영산	140,000	자운영		
		영암	군서	도갑	540,000	유채		
		곡성	죽곡	연화	82,500	자운영		
		진도	의신	금갑	31,659	유채		
	대구	동		미대	53,000	자운영	박창석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경북	상주	이안	지산	98,977	백련		
		포항	구룡포	성동	60,000	유채		
		영천	자영	보현	60,000	유채		
		고령	쌍림	산주	39,315	자운영		
	경남	합천	가야	각사	121,830	유채	엄대호 (농어촌연구원)	
		남해	창선	적량	39,000	유채		
		남해	설천	왕지	33,000	유채		
		남해	상주	도모	52,000	유채,메밀		
		산청	단성	남사	50,000	유채		
		산청	단성	백운	90,000	유채		
		산청	생초	대포	72,000	유채		
		의령	궁류	평촌	126,578	자운영		
		하동	북천	직전	208,100	유채,메밀		
하동		악양	평사	40,000	자운영			

구분	도	시·군	읍·면	리·동	면적(m ²)	경관작물	전문가
하절기 작물		16	16		2,591,835		
	경기	파주	교하	서패	107,152	메밀,코스모스	김상범 박사 (농촌진흥청)
		포천	일동	유동	25,633	야생화 류	
	강원	태백		황지	73,360	해바라기	
		평창	봉평	봉평	425,080	메밀	
		평창	진부	탑동	20,587	도라지	
	전북	고창	공음	선동	670,000	메밀,해바라기	
		익산	합라	소룡	31,256	야생화 류	
		정읍	고부	고부	80,192	메밀	
	전남	곡성	겸	칠봉	56,111	목화, 연	
		무안	몽탄	몽강	20,130	해바라기	
		장흥	회진	선학	125,000	메밀	
	경북	봉화	소천	임기	381,000	메밀	박주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상주	이안	지산	115,586	백련,해배라기	
		안동	북후	신전1	86,000	메밀	
	경남	남해	상주	두모	60,949	메밀	
		하동	북천	직전	303,000	메밀,코스모스	
		함양	백전	오천	10,799	하고초	

Ⅱ. '07년 동계작물 모니터링 보고서

1.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2.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3.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4.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5.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6.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7. 전라남도 나주시 공산면
8.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9.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10. 전라남도 강진군 움천면
11.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12.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13.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14. 대구광역시 동구 미대동
15. 경상북도 상주시 이안면
1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17. 경상북도 영천시 자영면
18.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19.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20.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21.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22.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23.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24.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25.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26. 경상남도 의령군 궁류면
27.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28.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29.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모니터링 보고서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서패리-
-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유동리-
-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발산리-
-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대학리-
-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신암리-
-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궁리-

2008. 12.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 농촌환경자원과
김 상 범

1.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서패리

1) 사업 추진현황

□ 대상지 현황

-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서패리 일원
- 사업기간 : '07년 10월 ~ '08년 5월
- 사업량 : 98,168,000m²
- 사업비 : 16,689,000원
- 신청인 : 최은호 외 28명
- 참여농가수 : 28농가
- 경관작물 : 7종(유채, 꽃양귀비, 수레국화, 금영화, 끈끈이대나물, 안개초, 꽃아마)

□ 경관작물 파종 및 수확현황

- 신청 : 2007년 3월
- 파종 : 2007년 10월, 3월
- 협약체결 : 2007년 4월
- 이행자 점검 : '07년 10월 ~ '08년 5월
- 보조금 지급 : '08년 5월

□ 지자체 추가지원 현황

- 심학산 돌곶이 꽃축제와 관련한 마을 내 꽃밭 정원 가꾸기에 대한 추가지원

□ 사업추진관련 주민활동 상황(재배관리 및 경관관리활동)

- 심학산 돌곶이 꽃축제와 연계하여 야생화단지를 조성하고 2007년부터 꽃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작년에 이어 경관보전직불제 농가가 참여하는 꽃축제는 2회를 맞이 하였으며 다양한 행사가 시행되고 있다.
- 야생화의 경우 토질과 식물생태(양지성, 음지성)를 잘 구분하여 재배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파주는 경관보전직불지구와 꽃축제를 연결하여 경관적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 더불어 다양한 경관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경관에 대한 여러 가지 시험적 형태의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정원 가꾸기, 농로개선, 담장벽화, 꽃길, 마을정원 등 경관조성에 대한 여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 다년생, 일년생 화훼류가 어우러져 5월 꽃축제 이후 방문객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전 지역의 자랑거리로 자리를 잡았다

2) 사업 만족도

□ 사업추진 주민(대표) 의견

-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접근성 때문에 축제와 연계로 소득 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단지 현재의 적은 보조금으로는 경관이 자리를 잡기까지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어려움 점이다
- 야생화의 경우는 약 900원/m²(종자 약 450원/m², 관리 수거 약 450원/m²)의 비용이 필요한데 다른 수입을 감안하더라도 물가상승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하다.
- 작년 축제이후 경관형성에 따른 주민 만족도와 자긍심을 높여주었으며 이에 따른 경관보전직불제에 대한 관심과 이행의지는 매우 높다

□ 지자체 담당자 의견

- 1회 심학산 돌꽃이 꽃축제에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변을 화훼단지로 만드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지가가 높은 현실에서 창고 등 다른 수입원을 버리고 경관조성을 위한 직불제에 참여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 파주시의 노력으로 마을정원, 수로정비, 꽃길조성 등 다양한 경관사업을 진행하였고 농가 정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지원과 꽃씨 등 물리적 지원을 아끼지않은 결과 지금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 자금은 개별 농가의 정원이 특화되어 축제기간에는 오픈 스페이스로 개방하여 매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지만 방문객에 의해 훼손되는 것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 농가정원, 마을안길, 담장, 농로 등 경관을 관리하는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 수도권지역은 농지가격이 높아 경관보전직불제로는 소득이 적어서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힘들고 농지임대를 다년계약으로 해야 일정 경관을 유지할 수 있는 데 이도 매우 힘들다. 또한 일부 관외 지주의 경우 농지원보를 원하는 데 이 경우 야생화 재배는 농업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이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3) 사업시행 효과

□ 농가소득 향상효과

- 경관보전직불제에 의한 농가소득은 거의 없으나 꽃 축제를 통한 방문객들의 먹거리 소비, 농산물 구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였다. 특히 심학산 돌곶이 꽃축제를 찾아오는 관람객이 항시 있어 이를 이용한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

□ 경관조성 및 농촌어메니티 증진효과

- 심학산 돌곶이 꽃축제는 매우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주고 있으며 수도권 관광객들도 많이 들리고 있으며 도·농교류 및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 특히 정원가꾸기를 통하여 주변마을의 부러움을 받고 있으며 마을내 주거 만족도도 매우 높아졌다.

□ 공동체의식 함양 및 지역 활성화 효과

- 꽃축제와 다양한 농가정원을 계절별로 감상할 수 있어서 마을주민 및 방문객들의 호응도는 매우 높다.

□ 경관작물 관련 축제 시행성과

- 심학산 돌곶이 꽃축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는 경관직불제 농가는 물론 주변 농가도 참여하고 있다
- 1회 심학산 돌곶이 꽃축제는 약 60만 명이 다녀갔으며 파주시 각 지역의 마을이 참가 지역 축제로 자리 잡았다

- 심학산 돌꽃이 꽃축제의 장점은 경관보전직불제와 경관활동이 이루어낸 공간에 축제라는 이벤트가 어우러진 좋은 성공사례이다

4) 제도개선 및 사업 확대 방안

□ 지급단가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 야생화 재배는 종자, 작업비가 많이 드는 작업으로 약 900원/m²(종자 약 450원/m², 관리 수거 약 450원/m²)이 소요된다.
- 또한 개별 농가 혹은 공동구역에 대한 경관관리활동은 소득을 위한 활동이 아니므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 사업대상지역 적합성 및 확대방안면적기준 등)

- 야생화로 경관유지를 위해서는 2종의 야생화를 3월부터 10월까지 재배해야하므로 비용이 많이 들고, 수도권지역은 적어도 10ha 정도는 되어야 방문객이 찾아오기 때문에 유지/관리비용면에서 경제성을 가질 수 있다.
- 지금은 시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유지되고 있으나 향후 발전을 위해서는 임대농지, 소작인, 화훼사업자간의 참여 및 소득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 경관작물 다양화 방안

- 구절초, 해변국화, 바늘꽃, 양귀비, 꽃창포, 안개초, 코스모스 등 심학산 돌꽃이 꽃축제에 맞는 이미지를 지닌 화훼류와 일반인이 선호하는 꽃들을 검토하고 있다.

□ 마을 경관향상 방안

- 계절별 야생화를 테마로한 세계적인 꽃축제 경관지역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농가정원 마을정원 만들기 등의 자체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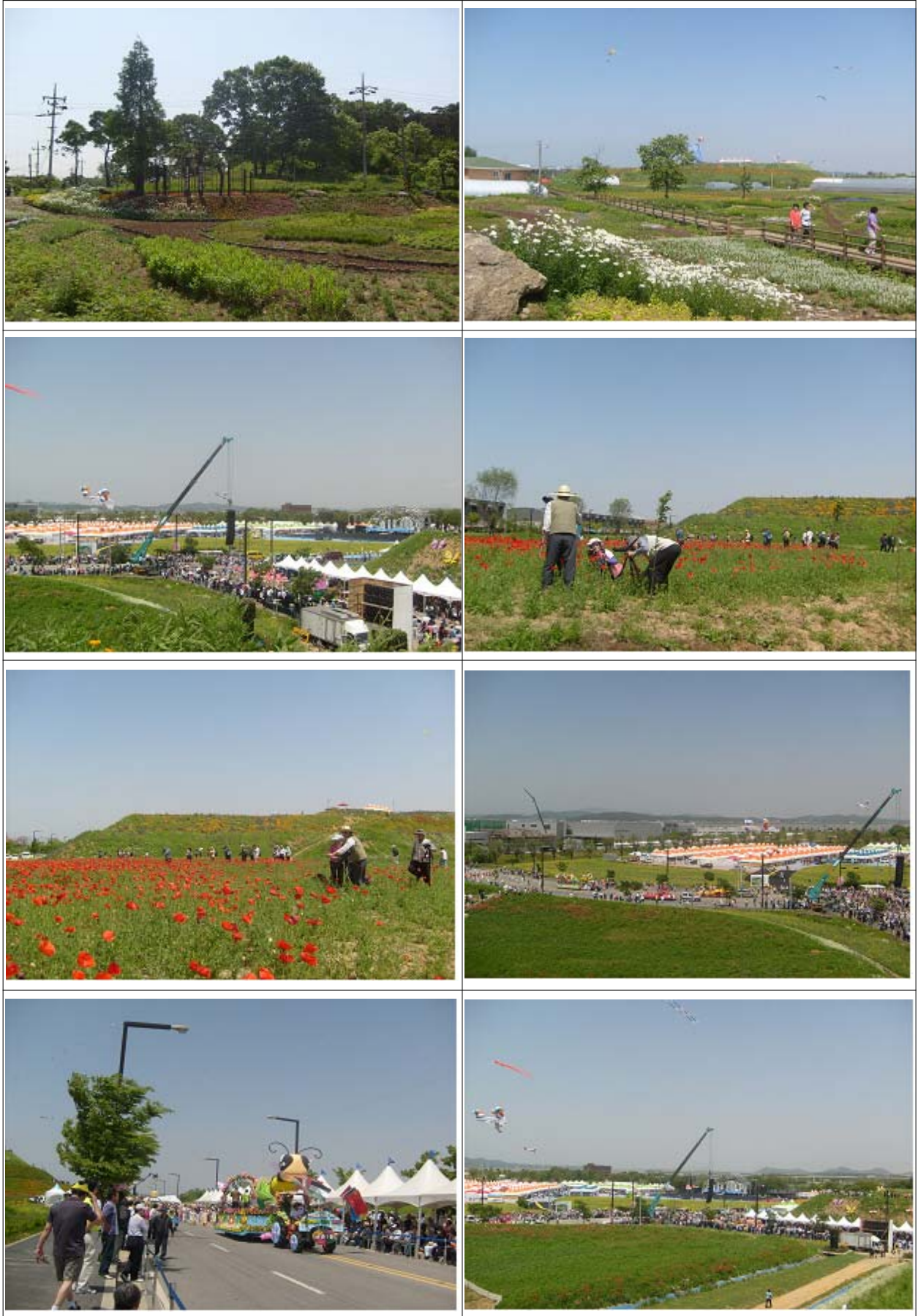
□ 경관 조성 및 유지관리 등 사업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현재 경관보전직불제 절차는 복잡하여 개인농가보다 영농단체 등이신청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고 야생화 재배를 농업활동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제도적 보완과 현실화를 요구하였다.
- 또한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 중 임대농지가 많은데 야생화의 경우 연작이 비 용절감에 절대적 요소로 농지임대관련 문제해결이 반드시 필요하다
- 자연경관 및 농촌경관과 어우러진 축제장은 농지전용 문제로 인한 영구적 으로 쓸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으므로 경관보전직불제 및 농 업관련 축제와 연계할 경우 일정범위 내 일정면적 이하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 똑같은 꽃을 심어도 농지에는 지원금이 나오고 잡종지에는 지원금이 나오 지 않는다. 경관효과를 높이려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5) 관련 현장사진



< 5월 8일 대상지 모습 >



< 5월 31일 대상지 모습 >



< 다양한 경관활동 및 사업 >

2.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유동리

1) 사업 추진현황

□ 대상지 현황

-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유동리(포천 류식물원 일원)
- 사업기간 : 3월~10월
- 사업량 : 30,200m²
- 사업비 : 5,134,000원
- 신청인 : 류인숙 외 6명
- 참여농가수 : 8농가
- 경관작물 : 야생화

□ 경관작물 파종 및 수확현황

- 신청 : 2007년 3월
- 파종 : 2007년 10월, 3월
- 협약체결 : 2007년 4월
- 이행자 점검 : '07년 10월 ~ '08년 5월
- 보조금 지급 : '08년 5월

□ 지자체 추가지원 현황

- 추가지원은 없음.(류식물원에서 지원)

□ 사업추진관련 주민활동 상황(재배관리 및 경관관리활동)

- 류식물원에서 지원하여 6농가가 야생화단지를 조성하고 다양한 꽃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작년에 이어 경관보전직불제 농가가 참여하는 꽃축제는 2회를 맞이 하였으며 올해는 축제를 위한 쉼터공간을 류식물원이 제공하고 토양에 맞고 관리재배가 수월한 야생화로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 야생화의 경우 토질과 식물생태(양지성, 음지성)를 잘 구분하여 재배하고 있으나 평당 3,000원정도의 경비가 많이 들고 관리가 힘들다고 한다

- 다년생의 경우 초기비용이 많이 들지만 관리비용이 적고 재배가 용의하여 도입하고 싶지만 다른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으면 수입면에서 타산이 맞지 않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 야생화 중 특히 다년생을 중심으로 적절한 비용이 보조된다면 고령화된 농업인에게는 매우 적합하며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일년초를 적절히 재배할 경우 경관적 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2) 사업 만족도

□ 사업추진 주민(대표) 의견

- 경관보전직불제의 지불단가가 매우 낮고 작년의 경험을 살려 비용을 줄이려고 했지만 기후(가뭄, 이상온도 등)로 한계가 있다.
-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접근성과 축제 등과 연계한다면 소득 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단지 현재의 적은 보조금으로는 경관이 자리를 잡기까지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어려움 점이다
- 올해는 농지원부를 작성하고자하는 지주가 임대를 연장하지 않아 대상면적이 작아졌다. 야생화재배는 농작물재배로 인정하지 않는데 경관작물 혹은 경관보전직불제를 받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업활동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 야생화의 경우는 약 900원/m²(종자 약 450원/m², 관리 수거 약 450원/m²)의 비용이 필요한데 올해는 물가가 올라서 10%정도 추가비용이 예상된다 따라서 다른 수입을 감안하더라도 지원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 수도권 부근이며 주변 관광지가 많아 경관보전직불제에 대한 관심과 이행 의지는 매우 높다.

□ 지자체 담당자 의견

- 뷰식물원을 중심으로 활동이 활발하여 2년차 사업에는 상당히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서울로 가는 국도변에 위치하여 꽃이 만개할 때 장관을 이루고 있어 식물원을 찾는 관광객이 많다
- 야생화는 일반 작물과는 특성이 달라서 재배가 매우 힘들고 어려워서 재배 방법이나 관리방법에 대한 매뉴얼, 지도가 필요하다.

- 대상지의 집단화도 중요하지만 도로에서 집단화 지역까지 연계할 수 있는 야생화길이나 중간에 포토존 같은 것이 연계되면 효과가 더 클 것이다
- 경관보전직불제의 경우 농지임대를 다년계약으로 해야 일정 경관을 유지할 수 있고 해지시에는 주변지역을 제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 또한 일부 관외 지주의 경우 농지원보를 원하는 데 이 경우 야생화 재배는 농업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이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3) 사업시행 효과

□ 농가소득 향상효과

- 경관보전직불제에 의한 농가소득은 거의 없으나 꽃축제를 통한 방문객들의 먹거리 소비, 농산물 구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였다. 특히 뷰식물원을 찾아오는 관람객이 항시 있어 이를 이용한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

□ 경관조성 및 농촌어메니티 증진효과

- 국도에서 바라보는 야생화 단지는 매우 아름다우며 뷰식물원을 중심으로 장관을 이루고 있다. 서울로 이어지는 국도변을 통과하는 관광객들도 많이 들리고 있으며 도·농교류 및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 공동체의식 함양 및 지역 활성화 효과

- 꽃축제와 다양한 행사로 야생화 경관을 계절별로 감상할 수 있어서 마을주민 및 방문객들의 호응도는 매우 높다

□ 경관작물 관련 축제 시행성과

- 뷰식물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축제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는 경관직불제 농가는 물론 주변 농가도 참여하고 있다

4) 제도개선 및 사업 확대 방안

□ 지급단가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 야생화 재배는 종자, 작업비가 많이 드는 작업으로 지급단가의 조정이 필요하며 약 900원/m²(종자 약 450원/m², 관리 수거 약 450원/m²)이 소요된다.
- 이상기온, 가뭄 등 기후에 따른 비용발생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파종시기의 평균기온, 강수량 등으로 작황에 대한 패널티 완화 등의 기준이 필요하다.

□ 사업대상지역 적합성 및 확대방안면적기준 등)

- 야생화로 경관유지를 위해서는 2종의 야생화를 재배해야하므로 비용이 많이 들고, 적어도 10ha 정도는 되어야 생육상태가 유지되어 관리비용면에서 경제성을 가질 수 있다.
- 이를 위해서는 임대농지, 소작인, 야생화 사업인의 문제가 해결되어야하는데 조합이나 주식회사형태의 단체가 운영해야한다

□ 경관작물 다양화 방안

- 포천의 경우 시화인 구절초, 해변국화, 바늘꽃, 양귀비, 꽃창포, 안개초, 코스모스 등이 고려되고 있다

□ 마을 경관향상 방안

- 집단화를 이루어 계절별 야생화를 1ha 정도씩 재배하여 포천의 명품마을로 만들려고 하고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등의 자체사업과의 연계하고 있다

□ 경관 조성 및 유자관리 등 사업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현재 경관보전직불제 절차는 복잡하여 개인농가보다 영농단체 등이신청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고령자가 쉽게 정서적 안정과 취미를 병행할 수 있는 야생화 재배를 농업 활동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제도적 보완과 현실화가 필요하다
-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 중 임대농지가 많은데 야생화의 경우 연작이 비용절감에 절대적 요소로 농지임대관련 문제해결이 반드시 필요하다

5) 관련 현장사진



< 포천 뷰식물원 전경 >



< 뷰식물원 중심의 체험활동 >



< 꽃향주머니 만들기 체험활동 >



< 야생화 가꾸기 활동 >

3.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발산리

1) 사업 추진현황

□ 대상지 현황

- 위 치 :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발산지구
- 사업기간 : '07년 10월 ~ '08년 5월
- 사업량 : 65,000m²
- 사업비 : 11,050,000원
- 신청인 : 이원국 외 17명
- 참여농가수 : 17농가
- 경관작물 : 유채

□ 경관작물 파종 및 수확현황

- 신청 : 2007년 3월
- 파종 : 2007년 10월 유채파종 (동해피해로 '08년 3월 10일 재파종)
- 협약체결 : 2007년 4월
- 이행자 점검 : '07년 10월 ~ '08년 5월
- 보조금 지급 : 2007년 5월

□ 지자체 추가지원 현황

- 추가지원은 없음.

□ 사업추진관련 주민활동 상황(재배관리 및 경관관리활동)

- 올해 파종시기가 다소 늦어져서 작년 가을 벼 수확 후 파종 개화 및 생장 상태 좋지 않아 봄에 다시 파종 추비 시비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기후변화에 의한 작물의 개화가 늦어지고 있어 5월말, 6월초로 기대되고 있다.
- 보은군 경관보전직불제가 시행되는 토지는 모두 본인 소유지로서 임대차에 의한 문제는 없으나 개화가 늦어져 벼농사에 지장이 크다
- 경관보전직불금 외에 지원되는 경제적 보조는 없고 다만 지역 축제로서 도 자체사업으로 해바라기, 청보리를 식재하여 축제 실시하고 있다.

-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역에서 1년차로 축제를 시행한 바는 없다.

2) 사업 만족도

□ 사업추진 주민(대표) 의견

- 기상여건이 불안하여(저온, 가뭄) 작년 가을에 직파한 유채의 생장 상태가 변변치 않다. (경관보전직불제 지역이 아닌 탄부면 임한리는 예로 작년 해바라기를 심어 해바라기 축제에 성공하여 청보리 6ha를 심고 수확한 후 다시 해바라기를 심어 축제를 피하였으나 기상여건으로 인하여 생장 및 개화 불량하다.)
- 기후변화에 의한 작물의 개화가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되어 벼 파종 시기와 맞물려 개화를 보기에 다소 어려운 상황이다
- 유채 파종시기와 벼 수확시기를 맞추기 위하여 '08년에는 유채 파종시기 이전에 수확할 수 있는 조생종 벼를 이용하여 다른 벼보다 일찍 수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 경관보전직불제를 신청한 이유는 유채재배를 통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여 대상지에서 생산하는 쌀을 직거래 하고자 하는 전략을 실현하고자 신청하였다

□ 지자체 담당자 의견

- 현재 경관보전직불제 작물 종자대를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받고 있는데 농가에게 지급되는 경관보전직불금은 소액일 뿐만 아니라 농가 수령 시 절차가 복잡하여 직불금을 분기마다 나누어주는 것은 문제가 있어 한번에 지급
- 지방자치단체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한 경관보전직불제 대상 작물 외 다른 품목을 선정하였을 때 단가 책정이 어렵지만 작물단가를 다양화하여 경관보전직불제와 축제를 연계하고 축제를 통한 경관작물 판매를 통하여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계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기후 및 토양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작목을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유채의 가을 파종은 벼 수확 시기 때문에 시기에 맞추어 파종하기가 다소 어려움이 있다. 유채 파종시기와 벼 수확시기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유채 파종시기 이전에 수확할 수 있는 조생종 벼를 이용하여 다른 벼보다 일찍 수확

-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다
- 보리와 파종시기가 겹쳐 배토기(파종기)를 임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파종시기를 놓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 경관보전직불금은 3.3m² 당 500원정도가 적정하다

3) 사업시행 효과

□ 농가소득 향상효과

- 유채재배를 통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여 대상지에서 생산하는 쌀을 직거래 하고자 하는 전략을 실현하고자 하였으나 올해는 개화가 너무 늦어져서 곧 바로 모내기를 해야함으로 축제는 보류하였다.
- 유채 사진과 일부 방문객들에 대한 홍보로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으며 향후 경관의 아름다움을 보러오는 관광객에게 농산물직거래 민박, 농촌체험 등을 계획하고 있다.

□ 경관조성 및 농촌어메니티 증진효과

- 전국적으로 농촌경관을 이용한 농촌관광이 대안관광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경관보전직불사업을 통하여 농촌다움을 한층 업그레이드시키고 농촌어메니티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접근성이 우수해서 경관형성 효과가 높은 지역이다.
- 이를 위하여 이장, 위원장을 중심으로 유채개화시기와 벼농사시기를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 공동체의식 함양 및 지역 활성화 효과

- 개화가 늦어져 다양한 행사나 축제는 불가능했지만 지역의 기대는 매우 높다. 다만 직불금의 현실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 경관작물 관련 축제 시행성과

- 1년차 지역으로 올해 행해진 축제는 없었고 친환경 쌀 재배와 관련 행사를 준비했으나 개화시기가 늦어져 보류하였다

4) 제도개선 및 사업 확대 방안

□ 지급단가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 경관보전직불사업 보조금 지급시기는 작물파종과 작물수확기에2회에 걸쳐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경관보전 작물의 파종시기에 일괄 지급하고 작황 및 관리정도에 따라 패널티를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경관작물의 재배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경관작물재배의 질적 향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 유채를 재배하면 농가들도 휴경지를 활용할 수 있고 유채박은 사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유채꽃은 양봉농가에 도움이 되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으나 이러한 생산물에 대한 판로의 문제가 해결되어야한다
- 이외에도 쌀과 보리 등의 과잉생산을 억제할 수 있는 간접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 유채, 메밀 등 경관작목은 조수입에서 경영비 및 자가노력비를 제외한 순소득이 거의 없으므로 기후, 토양특성, 용수공급상황, 경사도 등 지역별로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야하며 경관작물의 수확 물량에 대한 구매 또는 보상체계가 필요하다

□ 사업대상지역 적합성 및 확대방안(면적기준 등)

- '08년부터 지역 특성에 맞는 작물지정 지역선정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부분의 재량권을 주어 경관작물 재배지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패키지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경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집단화와 선형 점형적 연계공간을 조성하여 경관지구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 경관작물 다양화 방안

- 경관이라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기후, 지형, 재배작물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작물선정 및 작부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지자체의 판단에 따른 작물 선택과 전문가의 경관적 효과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경관작물 종류를 탄력적 선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관작물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한 재배관리 매뉴얼이 필요하다.
- 경관유지를 위하여 메밀, 유채 등의 이모작이 가능한 작목을 장려하고 지역 기후나 토양에 맞는 적절한 경관작물의 제시와 재배방법에 관한 사항을 제시가 필요하다.

□ 마을 경관향상 방안

- 마을경관은 유채재배이후 향상되었으나 경제적 측면으로 연계되지 않아 최소한의 소득연계가 필요하다

□ 경관 조성 및 유지관리 등 사업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농촌주민의 소득보전 및 지역활성화를 유도하면서 지역의 자연환경을 관리·보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농촌주민들이 약속이행을 잘하고 스스로 관리 감독이 잘 이행될 때 성공적으로 정책이 수행될 수 있다.
- .대상지 신청시 적절한 경관작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본 자료가 필요하며 협약체결 및 보조금지급 등에 있어 경관작물의 작황이나 이행수준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자연경관 및 농촌경관과 어울어진 축제장은 농지전용 문제로 인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음(행사 때 마다 새로 만들고 철거해야 하는 단점이 있으며, 예산낭비의 문제점이 있음), 이를 보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경관보전직불제 및 농업관련 축제와 연계된 지역은 일정범위 내 일정면적 이하 영구적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의 완화가 필요하다

5) 관련 현장사진



<대상지 현황 (5월 13일)>



<대상지 현황 (5월 31일)>

4.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대학리

1) 사업 추진현황

대상지 현황

-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대학1리(합 천)
- 사업기간 : '07년 10월 - '08년 5월
- 사업량 : 84,216m² (8.4ha)
- 사업비 : 14,317,000원
- 신청인 : 정종천 외 9명
- 참여농가수 : 9농가
- 경관작물 : 유채

경관작물 파종 및 수확현황

- 경지정리 이전에는 배수상태는 양호하였으나 2005년 경지정리 이후에는 배수가 불량한 상태로 변하였다.
- 2007년 경관작물(유채) 파종시기인 10월에는 잦은 강우로 물빠짐이 이루어지지 않아 식재치 못하였다.
- 2008년에 이월사업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재배 작목의 특성상 2008년 춘기파종의 어려움으로 사업을 포기한 상태이다.

지자체 추가지원 현황

- 면사무소로부터 재배방법 등의 기술지원을 받았으나 기후 물빠짐 등으로 파종을 하지 못하였다.

사업추진관련 주민활동 상황(재배관리 및 경관관리활동)

- 2007년 경관작물(유채) 파종시기인 10월, 2008년 3월 잦은 강우와 재배 작목의 특성상의 어려움으로 사업을 포기한 상태이다

2) 사업 만족도

사업추진 주민(대표) 의견

- 유채는 기후변화에 의한 작물 작황에 변화가 크고 양호한 경작지였으나 경지정리이후 물빠짐이 나빠져 유채재배가 불가능하였다

- '07년 10월 유채 파종시기에 잦은 강우로 파종시기를 늦추고 '08년 3월에 파종하려고 했지만 기온, 물 빠짐 등이 해결되지 않아 파종을 포기하였다

□ 지자체 담당자 의견

- 유채는 재배가 까다롭고 기후의 영향도 많이 받으므로 타당성 검토를 통한 재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기온, 강우 등에 의한 재배포기는 사업실패라기 보다는 작물재배에 대한 신중함으로 보고 이에 대한 지침 필요하다

3) 제도개선 및 사업 확대 방안

□ 지급단가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 기후 및 배수조건 불량으로 파종을 포기함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 사업대상지역 적합성 및 확대방안(면적기준 등)

- 유채는 재배가 까다롭고 기후의 영향도 많이 받으므로 타당성 검토를 통한 재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기온, 강우 등에 의한 재배포기는 사업실패라기 보다는 작물재배에 대한 신중함으로 보고 이에 대한 지침 필요하다
- 작물재배에 있어 기후, 토양 등의 조절이 불가능한 인자에 대한 지침을 두어야 경관보전에 대한 검토, 제재 등에 대한 논리가 생길 것이다.

□ 경관작물 다양화 방안

- 해당사항 없음

□ 마을 경관향상 방안

- 해당사항 없음

□ 경관 조성 및 유지관리 등 사업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경관작물을 선정하여 진행하더라도 충분한 이유가 생기면 작물을 전화하거나 즉시 중지하고 이러한 것들은 사업실패라기 보다는 작물재배에 대한 신중함에서 오는 예산절감차원에서 보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 사업실패라는 식의 접근은 사기저하 경관보전직불제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줄 수 있다.

4) 관련 현장사진



< 유채 경관보전직불제 현황(5월 14일) >

5.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신암리

1) 사업 추진현황

□ 대상지 현황

- 위 치 :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신암리
- 사업기간 : 3월~10월
- 사업량 : 38,129m²
- 사업비 : 6,482,000원
- 참여농가수 : 9농가
- 경관작물 : 유채

□ 경관작물 파종 및 수확현황

- 2007년 3월에 경관보전직불제를 신청하였으며 협약체결은 2007년 5월에 이루어졌고, 2007년 11월 9일에 파종, 기후가 좋지 않아 2008년 3월 봄 파종을 시행하였다.
- 유채는 기후변동, 가뭄으로 작황이 좋지 않을 것을 대비 2회 하였으나 5월 초에 개화가 부진하여 5월 중순까지 기다렸으나 모내기관계로 경관보전직불금을 일부 포기하고 모내기를 준비하고 있다

□ 지자체 추가지원 현황

- 면사무소로부터 재배방법 등 기술지원을 받았다

□ 사업추진관련 주민활동 상황(재배관리 및 경관관리활동)

- 경관보전직불제 협약에 따라 친환경 쌀 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파종 이식, 제초 작업 등을 농업기술센터 담당자의 지도하에 하였다
- 이상기온, 가뭄으로 유채재배가 매우 힘들고 봄 파종한 유채도 개화시기가 늦어져서 다음 작물재배에 영향이 크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경관보전직불금을 포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2) 사업 만족도

□ 사업추진 주민(대표) 의견

- 지역 특산물인 딸기를 이용한 매주 금요일 딸기 따기 행사와 친환경 쌀 홍보를 유채 작황이 정상적이었을 경우 연동할 계획이었으나 유채 작황의 불량으로 인한 차질로 유보하였다.
- 부근의 규합면도 지속적으로 유채를 재배했었는데 올해는 기온 강우 등으로 3.5ha 유채가 작황이 나빴다. 그러나 작년에 신암리는 대상지 주변 길가 해바라기 식재하여 경관적 효과를 보았으며 수확도 매우 양호하였다
- 그 결과 경관보전직불제를 통한 경제적 소득은 만족스럽지 않지만 마을경관을 가꾸고 주민간의 유대관계를 높이는 데는 경관보전직불제가 큰 몫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어 올해도 준비 중이다

□ 지자체 담당자 의견

- 경관보전직불제는 집단화도 중요하지만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주민들의 호응이 매우 중요하다.
- 친환경 농업과 연계하여 포토존, 산책로, 탐방로, 관찰장(오두막, 원두막 등) 등을 이용한 행사를 계획 중이며 이에 마을 스스로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 경관보전직불제의 정책적 효과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 경관보전직불제 외에 농수로, 농가주변 등 마을경관을 더 잘 가꿀 수 있는 사업, 활동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 것 같다

3) 사업시행 효과

□ 농가소득 향상효과

- 올해는 기후적인 영향(가뭄, 이상기온)으로 파종을 2회하여 경관보전직불제를 통한 소득은 없었다.

- 기계화가 되어 있어 시행에는 큰 어려움은 없으나 유류 물가 상승으로 현재의 직불금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 온도, 강우 등 자연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비용이 많이 드는 형편이어서 자원봉사가 아니면 힘들 정도이다. 소득으로 연계하기는 힘들더라도 노력에 대한 수고비 정도는 가능하도록 조정이 필요하다

□ 경관조성 및 농촌어메니티 증진효과

- 작년 해바라기재배로 경관조성 어메니티 증진효과는 매우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소득적 측면은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 적어도 작물을 열심히 가꾸었을때 드는 평균 비용은 주었으면 한다.
- 친환경농업지역으로 경관이 조성되면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 공동체의식 함양 및 지역 활성화 효과

- 마을대표를 중심으로 친환경농업 정보화마을 등 여러 사업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은 잘 형성되어 있다
- 친환경농업과 연계된 농업체험과 경관체험은 지역 활성화의 효과도 매우 클 것이다.

□ 경관작물 관련 축제 시행성과

- 친환경 농업과 연계한 행사를 계획 중이며 포토존, 산책로, 탐방로, 관찰장(오두막, 원두막 등) 등을 계획하고 있다.

4) 제도개선 및 사업 확대 방안

□ 지급단가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 씨앗을 구하기 힘들고 너무 고가여서 기본적인 비용이 크고 경관조성을 위

하여 파종시기를 맞추려면 유채를 일찍 베어내야하기 때문에 수확물이 없어서 경관보전직불제의 지급단가가 현재수준이면 매우 불리하다

- 현재수준으로 훌륭한 경관을 조성하려면 지급단가가 조정되어야지 올해처럼 작황이 좋지 않으면 거의 포기하고 다른 작물을 시행할 것이다 또한 물가가 너무 올라가서 매우 힘들다

□ 사업대상지역 적합성 및 확대방안면적기준 등)

- 사업대상지는 주변에 친환경농업단지로 경관조성시 활용도는 클 것으로 생각됨

□ 경관작물 다양화 방안

- 해바라기, 청보리를 생각하고 있지만 유채가 경관적으로 아름다움과 유입력이 커서 유채를 계속 할 계획이다.

□ 마을 경관향상 방안

- 유채 파종과 벼 수확시기와의 겹침으로 인한 파종 시기를 놓치는 문제의 해결책으로 현재 벼를 수확한 후 유채를 파종하는 방법에서 유채파종시기에 맞추어 유채를 파종한 후 벼를 수확하는 방법을 시험적으로 실시하여 파종시기 맞추는 것을 고려중이다.

□ 경관 조성 및 유지관리 등 사업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기후변화에 의한 작물 작황에 대한 변수가 매우 높고 유채 파종과 벼 수확시기와의 겹침으로 인한 종자 파종 시기의 문제이다 이에 대한 기술적 해결이 필요하다.

5) 관련 현장사진



<첨부> 충남 부여군 초촌면 신암리 경관활동



< 마을길 가꾸기 : 해바라기 >

6.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궁리

1) 사업 추진현황

□ 대상지 현황

- 위 치 :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궁리 하리마을
- 사업기간 : '07년 10월~'08년 5월
- 사업량 : 41,834㎡ (밭 4,673, 기타 37,161)
- 경관작물 : 동계 41,834㎡(유채)
- 사업비 : 7,112,000원
- 신청인 : 전용정 외 8인
- 참여농가수 : 9농가 (노인회가 추진)
- 경관작물 : 코스모스, 유채 2모작

□ 경관작물 파종 및 수확현황

- 2007년 3월에 경관보전직불제를 신청하였으며 협약체결은 2007년 5월에 이루어졌고, 2007년 10월초에 파종, 2008년 5월초부터 개회하였다.
- 관리활동은 2008년 3월부터 봄파종을 시행하였으며 이행자 점검은 2008년 5월중에 실시, 보조금을 2007년 5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 유채는 기후변동, 가뭄으로 작황이 좋지 않을 것을 대비 2회 하였으며 5월 초부터 5월 말까지 만개하였고 올해 경관보전직불제 준비를 위하여 코스모스를 준비하고 있다.

□ 지자체 추가지원 현황

- 면사무소로부터 재배방법 등의 기술지원을 받았으며 봄 파종 때 농기계가 없어 기계작업을 지원받았다

□ 사업추진관련 주민활동 상황(재배관리 및 경관관리활동)

- 경관보전직불제 협약에 따라 경관작물을 재배신청농가와 노인회를 중심으로 파종, 이식, 제초 작업 등을 면사무소 담당자의 지도하에 하였다
- 특히 이 지역은 노인회가 작업 등 전반적인 경관조성을 책임지고 이끌어가고 있어 올해 이상기온, 가뭄으로 전반적으로 유채재배가 힘든 가운데 매우 양호한 작황을 보였다.

- 경험에 따른 재배기법과 기술지원으로 작년 파종한 유채에 이어 봄 파종한 유채도 개화하여 개화시기가 길어지는 장점이 있었다
- 대하축제와 흥성방조제로 방문객은 많아 특색 있는 농촌경관지역으로 만들어 아름답게 가꾸려고 자체적 노력을 하고 있다
- 경관을 보러오는 방문객들이 사진촬영 등의 경관을 감상하고 일부 농산물판매 음식판매를 하고 있으나 소득 측면은 높지 않다 그러나 도시민에게 불거리 제공을 통하여 지역을 활성화하려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인상적이다
- 노인회를 통한 경관보전직불제의 추진은 지역사회에 대한 어르신들의 참여를 통하여 자긍심, 결속력, 지역건강증진 등 여러 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다
- 고령화된 지역에 경관보전 및 관리 활동을 도입함으로써 예상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고령자분들이 경관작물재배에 참여를 통한 자체적 소득 분배
 - 둘째, 치매예방, 건강증진
 - 셋째, 마을 어르신들이 공동작업을 통한 결속력 증진
 - 넷째, 차별화된 경관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자긍심
- 이를 계기로 작년에 확보된 조류탐사과학관사업이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올해 10월 경 준공되어 내년부터는 조류관찰과 연계한 농업체험 경관체험을 할 수 있게 되었다.

2) 사업 만족도

□ 사업추진 주민(대표) 의견

- 궁리마을은 경관보전직불제가 젊은이들이 하기에는 소득 측면이 적지만 코스모스, 유채재배를 통하여 우리 마을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마을 어른으로서 할 일이라고 판단하여 청년회의 도움을 받아 시행하고 있다.
- 경관보전직불제가 공동작업을 통한 마을 내 결속과 건강증진(치매예방, 운동 등)에 도움을 주고 있으나 지원금을 조금 더 현실화하면 농가소득이 이루어 질수 있을 것이다.
- 물가는 오르는데 직불금액은 그대로이면 경관작물을 재배하면 할수록 손해가 난다. 일단 다른 소득이 없어도 유지 혹은 약간의 이득이 있을 수 있도록 보완했으면 좋겠다.

- 작물재배는 기후와 여러 가지 환경적 여건에 좌우되는 경향이 커서 평년작 일 경우와 흉작일 경우 그 차가 심하다. 특히 올해는 유채재배는 너무 힘들었다. 경관작물은 눈으로 보이는 효과가 크므로 그것을 유지하기위한 인력과 정성은 다른 작물과는 다르다 올해의 경우 불안하여 봄과종을 도하였는데 그 비용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직불단가를 평년작보다는 흉년작과의 중간 수준으로 꼭 조정해 주고 소득부분도 고려했으면 좋겠다
- 앞으로 마을축제를 생각하고 있지만 젊은이들이 대하축제 등 지역에 큰 축제에 가고 나머지는 농사 등의 일에 바빠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 내녀에는 조류탐사과학관이 개관하기 때문에 조류탐사관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축제, 포토존, 산책로 등 다양한 참여를 고려 중이다.
- 경관보전직불제를 통한 경제적 소득은 만족스럽지 않지만 마을경관을 가꾸고 주민간의 유대관계를 높이는 데는 경관보전직불제가 큰 몫을 하고 있다

□ 지자체 담당자 의견

- 작년에도 건의했지만 경관보전직불제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참여농지의 집단화가 가장 어렵다 임대농지의 경우 연작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대상지의 확대가 매우 힘들다
- 궁리는 노인회를 중심으로 어르신들이 직접 경관을 가꾸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매우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경관보전직불제는 집단화도 중요하지만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주민들의 호응이 매우 중요하다.
- 조류탐사과학관이 완공되면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와 연계하는 포토존 산책로, 탐방로, 관찰장(오두막, 원두막 등)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에 마을 스스로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 경관보전직불제의 정책적 효과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 경관보전직불제 외에 농수로, 농가주변 등 궁리의 경관을 더 잘 가꿀 수 있는 사업, 활동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런 사업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3) 사업시행 효과

□ 농가소득 향상효과

- 올해는 기후적인 영향(가뭄, 이상기온)으로 파종을 2회하여 경관보전직불제를 통한 소득은 없고 경관을 감상하기위하여 찾아오는 방문객에게 먹거리 및 농산물 판매를 통한 소득이 있었다.
- 노인회를 통하여 노동력을 동원하고 있지만 인건비 없이 작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소득으로 연계하기는 힘들더라도 노력에 대한 수고비 정도는 가능하도록 조정이 필요하다.
- 인건비는 온도, 강우 등 자연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비용이 많이 드는 형편이여서 자원봉사가 아니면 힘들 정도이다. 이런 활동에 대한 보조금은 줄 수 없는지 검토했으면 좋겠다.

□ 경관조성 및 농촌어메니티 증진효과

- 국도변에 위치한 궁리 마을은 유채와 코스모스를 계절에 따라 볼 수 있어서 농촌경관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고 코스모스와 유채를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방문객이 다시 오는 경우가 많다
- 조류탐사과학관의 완공으로 경관, 교육, 체험 등을 통한 지역 어메니티 증진효과가 매우 클 것이다.

□ 공동체의식 함양 및 지역 활성화 효과

- 궁리마을은 노인회가 주축으로 공동작업을 수행하고 어르신들이 직접 경관을 가꾸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주민들의 호응이 매우 크다
- 조류탐사과학관이 완공되면 포토존, 산책로, 탐방로, 관찰장(오두막, 원두막 등) 등을 경관보전직불 대상지와 연계하는 조성계획하고 있어서 지역 활성화의 효과도 매우 크다

□ 경관작물 관련 축제 시행성과

- 현재 마을 내 축제는 없으며 주변에 대하축제(1996년부터 시행), 새조개 축제(2004년부터 시행) 중이며 경관지구 근처에 조류탐사과학관사업을 유

치하여 조류관찰교육 등과 연계(2008년 12월 준공완료)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덕거리와 지역 농산물을 개발하여 소득과의 연계 오신 손님으로 하여금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 할 예정이다

4) 제도개선 및 사업 확대 방안

□ 지급단가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 올해는 씨앗을 받아서 사용하여 씨앗비용은 덜 들었지만 봄과종을 1회 추가하고 재배활동이 더 많아서 결과적으로 작년 수준 4.1ha에 비용이 700만원정도 소요되었다.
- 특히 문제인 것은 이 지역이 농업보다 어업이 주 소득원으로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트랙터 비용이 대당 100만원씩 들어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유류가격이 올라서 이제는 더 든다
- 사람이 하려고 해도 작업 10명씩 10회로 인건비 500만원으로 매우 비용이 많이 들고 이것도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 또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과종시기를 맞추려면 유채를 일찍 베어내야하기 때문에 수확물이 없어서 경관보전직불제의 지급단가가 현재수준이면 매우 불리하다.
- 현재수준으로 훌륭한 경관을 조성하려면 8ha의 면적정도를 확보해야 유지관리비의 절감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요즘 같아서는 물가가 너무 올라가서 이것도 힘들다.

□ 사업대상지역 적합성 및 확대방안(면적기준 등)

- 사업대상지는 주변에 대하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며 관통하는 국도에서 대상지가 잘 관찰되어 경관보전직불제의 대상지로는 적지이며 특히 조류탐사 과학관이 완공되면 효과가 더 클 것이다.
- 궁리는 노인회를 중심으로 주민스스로 협약에 따라 경관을 조성 관리하고 있다. 이는 경관보전직불제를 시행할 때 구성해야하는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기존 마을에 존재하는 협의체를 활용한 좋은 예로 생각되며 특히 지역에 대한 어르신들의 솔선수범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 사업시작 후 소유자와의 문제로 변경필지가 발생하여 집단화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 임대농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 또한 물가 상승에 따른 보조금의 조정도 필요하다
- 경관작물 다양화 방안
- 궁리는 2003년부터 엽전을 농지로 전환하여 면에서 유채를 재배해오던 곳으로 2005년 경관보전직불제 실시이후 지금까지 수행해오고 있다. 따라서 작물재배내 운영에서는 노하우가 있어 현재는 코스모스 유채를 중점적으로 재배할 계획이다.
- 마을 경관향상 방안
- 조류탐사과학관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검토 중이며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포토존, 산책로 등을 계획하고 있다.
 - 조류탐사과학관의 완공을 대비하여 마을 유희지 공지, 담, 농로 등 주변 경관정리도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지원을 건의하였다.
- 경관 조성 및 유지관리 등 사업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경관보전직불제는 노인회 등 지역단체를 추진위원회로 구성하여 신청 및 활동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직불대상지역을 늘려주어야 비용절감효과를 통한 경관조성활동이 늘어날 것이다
 - 경관보전직불제의 대상작목에 대한 재배 매뉴얼과 제초제 등의 개발이 필요하며 농지의 임대차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도 필수적이다
 - 기후, 물가 등 외부여건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 비용상승에 대한 경관직불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5) 관련 현장사진



<그림> 유채 현황(5월 14일)



< 유채 경관보전직불제 현황(5월 14일) >

모니터링 보고서

- 전라남도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신평리-
-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산저리-
- 전라남도 강진군 음천면 영산리-
-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도갑리-
-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연화리-
-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금갑리-

2008.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 주 인

7. 전라남도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1) 사업 추진 현황

□ 대상지 현황

- 위치 : 전라남도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 신곡 1·2·3구 이외에 인접한 백사리, 중포리에서도 일부 참여하고 있음.
 - 사업지구 중 신곡1리 봉곡마을은 2005년 '영산나루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농촌진흥청 지정 전통테마마을 사업을 시행하였음
 - 또한 인근 8개 리를 권역으로 하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으로 2007년 선정되어 현재 계획 수립 중임
- 참여 농가 수 : 62호
 - 이 중 신곡리 소속 농가는 42호이며, 그 밖에 20호는 백사리 등 인접 마을에 거주하는 농가임.
- 참여 면적: 536,704m²
 -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대상지 53.7ha 이외에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새싹채소 채종단지 65ha가 연접해 있어 4월 중순이면 영산강변을 따라 118.7ha 면적에 걸쳐 꽃밭이 펼쳐짐.
- 경관작물: 십자화과
 - 십자화과는 유채와 유사하게 노란 꽃이 피는 9~10개 품종으로 구성됨.
 - 십자화과 씨앗을 이용해서 식물의 싹이나 눈을 의미하는 어린 채소를 일컫는 '새싹채소'를 생산하며, 녹즙, 비누, 청국장 등의 원료로도 쓰임. 새싹채소는 새싹비빔밥, 샐러드 등 웰빙식품 재료로 사용됨.

□ 경관작물 파종 및 수확 현황

- 벼 수확 후 2007년 10월 하순에 파종하여 2008년 6월 5~10일 사이에 채종 및 수확 실시
- 경관작물 개화기는 4월 초부터 5월 초임.
 - 만개기는 4월 중순부터이며, 경지에 따라 개화 시기에 다소 차이를 보임
 - 전체적으로 개화 상태가 양호함 다만 벼 수확 후 파종이 늦었던 일부 경지(전체 대비 약 15~20% 면적)에서는 다소 개화 상태가 다소 미흡함

□ 지자체 추가지원 현황

- 전통테마마을사업이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주요 농촌개발사업이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
 - 사업지구 일대는 경관작물 재배지일 뿐 아니라 삼한지 테마파크나 영산강 경관 등과 연계하여 지역 명소로 육성할 수 있는 곳이므로 지자체 차원에서도 다양한 농촌개발사업이 연계 시행될 수 있도록 유도해왔음
 - 전통테마마을사업을 통해서 방문객을 위한 체험장과 새싹채소 가공공장 쉼터 등이 조성되었음
 - 현재 진행 중인 마을종합개발사업을 통해서 마을 조경도로 및 담장 정비, 체험관 및 커뮤니티센터 조성 도자기 체험실 설치, 등산로 및 꽃길 개설, 원두막과 야외무대 설치 등의 다양한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음
- 축제 개최를 위한 별도의 사업비를 지자체에서 투자
 - 작물 개화기에 맞추어 시행한 '영산나루축제'를 위해 나주시에서 2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며, 행사 홍보 등 그 밖에도 다양한 지원을 함
 - 영산나루축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축제 지원 사업 대상으로도 선정되어 별도로 2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기도 함
-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지구와 연접한 새싹채소 채종단지 65ha에 대해 작물 재배 지원
 - 경운, 정지작업, 비료대, 퇴비, 인건비(제조) 등 생산비용을 고려하여 ha당 15만 원을 지원함

□ 사업 추진 관련 주민 활동 상황

- 경관직불추진위원장이 중심이 되어 경관작물 관리 활동 실시
 - 동절기 냉해 방지를 위해 밭아주기와 봄철 비배관리를 철저히 하여 개화율을 높이고자 함
- 경관작물 개화기에 맞춰 주민 주도로 방문객 맞이 축제 개최
 - 영산나루축제 개최를 위해 주민들도 2천만 원을 자부담하였으며, 행사 기간 동안 각종 체험행사를 마을에서 주도적으로 실시함
- 새싹작목반이 구성되어 사업지구 일대의 작물 재배 활동을 주관함
 - 작목반에는 인근 8개 마을에서 115 농가가 참여하며, 생산한 새싹채소 씨앗은 대농바이오영농조합에서 수매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마을 작목반에서는 전통테마마을사업으로 설치한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새싹 청국장환, 새싹 청국장 분말 등의 가공품을 자체 생산판매하고 있음

2) 사업 만족도

□ 사업 추진 주민 의견

- 축제 개최를 통해 마을 홍보에 많은 효과
 - 경관작물 개화기에 맞추어 마을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탐방객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됨.
 - 특히 현행 직불금과 씨앗 판매만으로는 보리작물 소득에 미치지 못하지만 영산나루축제를 통하여 대체효과를 거두고 있음
- 경관작물 재배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직불금의 상향 조정이 필요함
 - 경관작물 씨앗을 6월 초에 채종하므로 모 심기는 6월 중순이 되어야 가능한데, 이는 시기적으로 늦음(다른 곳보다 15일 가량 늦음). 그 결과 수확량이 떨어짐.
 - 또한 녹비작물인 자운영과 달리 경운비용 등이 들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1ha당 100만 원으로 조정되는 직불금 액수는 부족함 특히 마을 대표로서는 다수 농가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향후 십자화과 종자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도 과제임
 - 새싹채소는 웰빙식품이므로 수요가 유동적이어서 판로 불안 문제를 안고 있음. 현재는 대농바이오와 계약재배를 통해 씨앗을 판매하고 있으나 이러한 거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과제임
 - 특히 새싹채소 원료인 십자화과 작물 재배에 타 지역에서도 경쟁적으로 참여할 경우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어려워지고 농가의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음. 이 경우 지속적인 작물 경관의 형성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음

□ 지자체 담당자 의견

- 농가에서 지속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하는 것이 관건
 - 경관보전직불제 참여를 통해 광활한 면적에 경관작물 군락지가 조성되도록 유도하는 데 많은 효과가 있었음. 또한 관광객 유치와 지역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였음.
 - 그러나 새싹채소 채종단지가 나주시 공산면 이외에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경우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며, 경관보전직불금 액수도 하향 조정된다는 점이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됨
 -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할 때 경관작물재배를 통하여 농가소득 보전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직불금 상향조정이 필요함

3) 사업 시행 효과

□ 농가소득 향상 효과

- 경관보전직불금 이외에 새싹채소 종자 판매로 인한 수익 발생
 - 작목반에서 채종한 새싹채소 씨앗을 현재 대농바이오영농조합에서는kg당 4천 원에 수매하고 있음.
 - 씨앗은 200평당 약 50~60kg이 생산되며, 농가는 약 22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음(300평으로 환산할 경우 약 33만 원).
 -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지구 및 나주시에서 자체 지원하는 새싹채소 채종단지 전체를 합하여 약 4억 원 가까운 매출을 올리고 있음.

□ 경관 조성 및 농촌 어메니티 증진 효과

- 광활한 면적에 걸쳐 경관작물 군락지가 조성되는 점이 가장 큰 효과
 -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대상지 53.7ha 이외에도 새싹채소 채종단지 65ha가 영산강변을 따라 어우러지고 있음.
 - 작물 군락 일대에 탐방객을 위한 포토존이나 산책로도 개설되어 있음.
- 지역 전체가 십자화과 경관작물과 유채꽃 단지로 조성되는 효과가 나타남
 - 2007년도에는 대농바이오에서 종자를 지원하고 공산면사무소에서 인력 등을 지원하여 28km 구간에 걸쳐 유채꽃길을 조성한 바 있음(인건비 포함 4km당 50만 원 가량 소요).
 - 작물 군락지와 더불어 유채꽃길이 어우러지면서 개화 시기 동안 공산면 일대가 노란 꽃으로 덮인 명소로 떠오름.
- 마을 일대의 어메니티 자원의 연계 개발 효과를 높임
 - 경관보전직불제 참여를 계기로 축제가 개최되고 많은 방문객이 지역을 찾음에 따라 다양한 자원을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이 개발됨 그에 따라 마을 일대 어메니티 자원의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나타남.
 - 탐방로로 활용되는 영산강 제방길 젓갈 창고로 이용되는 인근의 금광굴 드라마 주몽과 태왕사신기 촬영세트장인 삼한지 테마파크 등 마을 일대 어메니티 자원의 활용도를 높임

□ 공동체의식 함양 및 지역 활성화 효과

-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마을 공동의 활동 기회를 제공

- 경관보전직불제 참여를 계기로 각종 체험 프로그램이 확대되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마을 단위 공동활동의 장이 마련됨
- 정부 지원 각종 마을 단위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에 기여
 - 마을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전통테마마을사업으로 조성된 마을 체험시설 활용도를 높이는 효과가 나타남
 - 또한 현재 계획 수립 과정이 진행 중인 마을종합개발사업에서도 마을 조경이나 담장 등 경관 정비, 탐방로나 꽃길 개설 등 경관 관련 사업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데, 이 역시 경관보전직불제 참여를 계기로 주민들의 경관 분야 인식이 높아진 영향이라 판단됨

□ 경관작물 관련 축제 시행 성과

- 영산나루축제 개요
 - 축제 기간: 2008년 4월 19일 ~ 5월 2일 (2주간)
 - 행사장 : 영산나루마을 일원
 - 주 최 : 영산나루축제 추진위원회 (위원장: 마을 주민 대표)
 - 주 관 : 나주시
 - 주요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공연, 전시, 음식 및 농특산물 판매 등
 - 행사 비용: 총 6천만 원 (농림수산식품부 및 나주시 각 2천만 원, 주민 자부담 2천만 원)

<영산나루축제의 주요 프로그램>

구 분	프로그램 세부 내용	비 고
체험프로그램	경운기타기, 영산강벚길탐험, 곤충체험, 짚풀공예, 떡메치기, 천연염색, 도자기 만들기, 자전거타기, 투호, 널뛰기, 제기차기, 다듬이질 등	
공연프로그램	농악놀이, 삼현육각공연, 각설이, 한춤, 길놀이, 판굿, 호남검무 공연, 판소리, 가요, 민요, 스포츠댄스 등	축제기간의 주말에 실시
방문객 참여행사	황금새싹 사진 찍기	
전시행사	방문객 참여 사진 전시, 전통도자기, 나주시 체험마을 소개 등	
먹거리	새싹비빔밥, 각종 전통먹거리 등	
농특산물 판매	젓갈 등 마을 주변 특산품, 나주시 대표 특산물	

- 2년째로 접어들면서 지역의 대표 축제 중 하나로 자리잡음
 - 총 6천만 원의 행사 비용을 투자하면서 축제 기간 동안 약 3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는 효과를 거둠.
 - 축제 첫해인 2007년에 5천 명이 방문한 것과 비교할 때 2회째를 맞이해서는 홍보 효과 등으로 방문객이 크게 증가하였음

4. 제도 개선 및 사업 확대 방안

□ 지급 단가의 적정성 및 개선 방안

- 직불금 단가의 하향 조정에 따라 주민들의 문제제기가 있으나 나주시 공산면 사업지구는 타 유채 재배 지역에 비해 여건이 나은 것으로 판단됨
 - ha당 100만 원으로 직불금이 조정되는 데 따라 농가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작물 재배 관리를 유도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 마을 대표의 의견임.
 - 하지만 사업지구에서는 새싹채소 종자를 계약 재배하여 일정한 수익을 얻고 있으므로, 별도 소득 확보가 힘든 유채에 비할 때 지원금이 하향 조정되더라도 여건이 한결 낫다고 판단됨.
- 새싹채소의 안정적인 생산과 판로 확보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보다 중요한 과제임.
 - 농가가 지속적으로 경관작물 재배에 참여토록 하려면 경관보전직불금 상향 조정보다 새싹채소 종자를 수매하는 대농바이오와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지속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됨
 - 따라서 지자체 차원에서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농가가 안정적으로 경관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는 일이 필요함
 - 경관보전직불금 하향 조정의 결과로 나주시에서 지원하는 새싹채소 채종단지에 대한 지원금 단가(m²당 150원)와 차액이 발생하는 데 대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보조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업 대상지역 적합성 및 확대 방안

- 작물 재배로 인한 경관 형성 효과 및 주민 소득 효과 등으로 판단할 때 사업 대상지역으로 적합함

- 사업지구는 정부 지원 마을개발사업이 시행된 바 있으며 지역 축제와 연계하여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의 효과가 높은 곳임 따라서 향후 사업 대상지역으로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추가적으로 사업지구를 확대할 필요성은 크지 않음
 -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 이외에도 이미 새싹채소 채종단지가 조성되어 118ha가 넘는 넓은 권역에서 경관작물이 재배되고 있음 작목반 역시 8개 마을을 포괄하여 구성되어 있음
 - 또 향후 새싹채소의 과잉 재배 우려가 있음을 감안할 때 추가적으로 사업지구를 확대하는 일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경관작물 다양화 방안

- 지역 여건을 감안할 때 현재의 경관작물로 충분함

□ 마을 경관 향상 방안

- 마을종합개발사업 등 정부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경관관리 활동을 확대 추진할 필요
 - 현재까지는 작물 군락지 이외에 마을의 주택이나 담장안길 등을 대상으로 해서는 경관관리 활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음 향후 마을종합개발사업 등을 활용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의 활동이 진행되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함.
- 현 작물 군락지 이외에도 경관작물 식재나 꽃길 조성을 확대하여 공산면 일대를 명소로 가꾸는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 좋은 경관자원인 영산강변 하천부지를 활용하여 경관 조성을 하며 공산면 진입 가로변을 유채꽃길로 지속적으로 가꾸는 노력도 필요함
 - 다소 단조로운 탐방로 동선도 다채롭게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함.

□ 사업 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현행 사업 추진 과정 자체에는 그다지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나주시 담당자는 사업 신청과 보조금 지급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 수

행 시 지자체 자율성을 높여서 사업이 보다 원활히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임.

-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경관보전직불제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새싹채소의 안정적인 재배가 지속되도록 하는 데 있음
 - 현재 주민들은 각종 마을개발사업 지원과 직불금 제공의 효과로 사업에 참여하는 면도 있으나, 더 우선적으로는 새싹채소의 판매처가 있어 일정한 소득을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경관작물을 재배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만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주민들이 경관작물 재배를 지속할 만한 동력이 있을 것인지 판단해보아야 함
 -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농촌 경관 형성이라는 경관보전직불제의 정책 취지 자체에 보다 많은 주민들이 공감하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농촌 환경문화경관 보전 활동 확대 가능성

- 대상지역의 자원 여건 면에서 경관작물 이외에 보다 다양한 경관관리 활동을 추진할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됨
 - 권역 단위의 경관작물 군락과 연계할 만한 다양한 경관요소(탐방로, 쉼터, 마을 인근 관광자원, 방문객 체험공간 등)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환경 및 문화경관 보전 활동의 추진 가능성이 높음
 - 다만 보다 많은 주민들이 경관관리 활동 참여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인 것으로 판단됨
 - 이를 위해 마을종합개발사업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임 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경관 분야의 활동 필요성에 대한 주민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또한 경관 분야에 중점을 두어 마을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학습 과정을 거친다면 주민들이 자율적인 경관관리 활동 추진 필요성도 한층 공감할 수 있을 것임

5) 관련 현장 사진



경관작물 군락지 전경



작물 개화기에 개최된 영산나루축제의 풍물놀이



경관작물 군락지에 마련된 포토존



마을 인근의 삼한지 테마파크 입구

8.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신광리

1) 사업 추진 현황

□ 대상지 현황

- 위치 :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신광리
 - 보광골이라는 자연마을 명칭으로 불리며, 마을은 2005년 농림수산식품부의 전원마을 조성사업 대상지로 지정되어 한옥 단지 조성이 계획되어 있음 현재 입주 가구 34호 모집을 완료하였음.
 - 다시면 신광리는 나주시에서 친환경농업 생산이 가장 활발한 곳으로 2008년 현재 유기농 재배 면적이 4ha, 무농약 재배 면적이 3ha에 이르고 있음.
- 참여 농가 수: 19호
 - 마을 전체 가구 수는 총 32호임.
- 참여 면적: 114,484m²
- 경관작물: 유채

□ 경관작물 파종 및 수확 현황

- 파종 : 10월 15일 ~ 11월 5일
- 개화 : 3월말부터 4월 중순 사이에 개화가 시작됨
 - 만개 시기는 4월 25일 경이며, 5월 15일 무렵까지 꽃이 남아 있음.
 - 2008년도의 전반적인 개화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수확: 5월 20일 ~ 25일
 - 종자 채종을 하지 않은 상태로 경지를 갈아엎고 있음 종자 수확기까지 기다리지 않으므로 5월 말부터 6월 5일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내기에는 별 다른 지장이 없음.

□ 지자체 추가지원 현황

- 주로 마을의 친환경농업 활동과 관련한 사업들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짐
 - 경관 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업은 아니지만 마을의 친환경농업 단지를 중심으로 2005~6년에 친환경지구 조성사업이 실시되어 2억4백만 원이 투자된 바 있음.

- 이 중 국비가 40%이며, 도비와 시비, 자부담이 각각 20%임. 도비와 시비를 합할 경우 친환경지구 조성사업에 지자체에서 약8천2백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집계됨.
 - 친환경지구 조성사업 이외에도 청정미생산 우리콩재배단지, 녹색관광고정 고객 유치 등 7개 분야 사업에 4천만 원 가량이 투자되었음.
 - 현재까지 나주시 관내에서 신광리 이외에는 친환경농업 활동이 대체로 미약했던 까닭에 상대적으로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데 유리했음
 - 마을에서는 향후에도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향을 지니고 있음
- 전남도의 행복마을사업 추가 지원을 통해 한옥형 지구로 전원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
- 신광리는 2005년 농림부의 전원마을 조성사업 대상 지구로 선정되어 도시민 유치를 통한 신규 주택 조성을 추진해왔음.
 - 특히 전원마을에 들어설 주택 35호를 모두 한옥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한옥형 전원마을 조성 지구에 대하여 전남도에서 자체 예산을 들여 추가로 지원하는 행복마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됨
 - 이처럼 한옥형으로 전원마을단지가 조성되는 행복마을 사업지구에서는 한옥 신·개축 시에 3천만 원의 융자금과 2천만 원의 보조금을 전남도에서 지급하고 있음.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4천만 원 한도)까지 포함할 경우 한옥 신·개축 시 가구당 최대 7천만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음
 - 한옥 조성 추진위를 구성하였으며, 이미 입주 가구들이 공사를 위한 일부 금액 입금을 완료한 상황임. 한옥은 7월말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설 예정
 - 전원마을 사업지구의 한옥을 짓는 데1채당 약 1억2천만 원이 들어감.
 - 전남도의 행복마을사업은 그 자체로는 농촌 경관 분야에 한정된 사업은 아니지만, 경관보전직불제와 연계되어 농촌 마을의 경관관리 활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임

□ 사업 추진 관련 주민 활동 상황

- 친환경농업과 연계한 도시민 교류 활동을 이전부터 진행
 - 마을에서는 경관작물 재배에만 국한되는 별도 활동을 진행하기보다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연계한 도농교류 사업을 경관보전직불제 참여 이전부터 추진해왔음.
 - 마을에서 생산한 친환경 쌀을 구매하는 회원이 현재 600명 있는데, 이들 회원들이 참여하는 체험행사를 진행하고 있음.
 - 2002년부터 친환경 쌀 재배 논에 오리를 입식하는 행사를 개최하였음
 - 2005년부터는 우렁이농법을 시행하면서 우렁이 입식 행사도 별임
 - 2008년에도 도시민을 초청하여 오리 입식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오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무산되기도 함.
 - 나주시 관내 및 광주시에 학교 급식으로 무농약 재배 농산물을 공급하는 사업도 벌이고 있으며,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체험농장도 운영함
- 마을에 있는 성모동산을 찾는 천주교 신도들을 중심으로 하여 지속적인 교류 활동이 이루어짐.
 - 마을 저수지 위에는 성모동산이 조성되어 있으며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이곳을 찾고 있음. 이들이 마을을 방문하면서 농산물을 구입하기도 하며 농사 체험활동에 참여하기도 함.
 - 매월 첫 토요일은 성모동산에서 미사가 이루어지며 이때 많은 신도들이 마을을 방문함 미사가 진행되는 날에는 마을 작목반에서는 식당도 운영하고 있음.
 - 마을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친환경 쌀 구매 회원 역시 주로천주교 신도가 많으며, 회원은 전국에 분포하고 있음.
 - 전원마을사업으로 조성되는 한옥단지에 입주하는 도시민들도 대개 천주교 신자들임.
 - 성모동산 방문객을 주 대상으로 하여 홍보를 했는데 105명이 입주 신청을 함. 이 중 34명을 선발하여 입주자를 결정함.
 - 입주 예정자 출신지는 경기 강원, 부산, 대구 등 전국적으로 분포
 - 입주 예정 가구 34호 중 경제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는 30-50대 연령층이

12명을 차지함. 나머지는 은퇴 연령층임.

- 입주자들은 경제활동 연령층이 많으므로, 마을을 찾는 천주교 신자들을 겨냥해서 목주 제작과 판매를 통해 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2) 사업 만족도

□ 사업 추진 주민 의견

- 마을 여건상 경관작물인 유채를 재배하는 데 적합
 - 마을이 산 아래에 위치해 있어 계절별로 기온 차이가 큰 편임 따라서 2모작을 하기는 어려우므로 벼농사만 짓고 동계작물로는 유채를 재배하는 것이 적합함
 - 마을에 다락논이 많고 농로가 취약한 점도 소득작물 재배에는 불리한 여건
- 향후 유채 이외에도 보다 다양한 경관작물을 재배할 계획
 - 현재는 유채만 재배하지만 앞으로는 경관작물로 해바라기 및 장미도 재배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 해바라기를 하계작물로 식재할 경우 오히려 수도작보다 소득 면에서 나올 수 있음. 마지기당 200kg이 생산되며 씨를 60만 원을 받을 수 있음. 농약이나 못자리를 안 해도 되며, 100일이면 수확이 가능하므로 2모작도 가능함(3월말 파종하여 수확하고, 장마가 지난 후에 다시 한번 파종함.
 - 장미는 마을 담장의 울타리용으로 식재할 만함
 - 유기농 단지 중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을 받지 않은 경지를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자운영을 식재할 계획임 유채보다는 자운영이 다소 일찍 개화하는데, 이 둘을 연계할 경우 경관 형성 효과가 더 높을 수 있음
- 한옥 주거단지 조성과의 연계하여 마을 경관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구상
 - 신규 조성되는 한옥형 전원마을과 더불어 기존에 있던 마을의 한옥을 정비하고 마을 담장을 전통 담장으로 개보수하는 활동을 진행할 계획임
 - 장기적으로는 마을 일대에 총 100호 한옥을 조성할 구상을 가지고 있음
 - 이를 위해 마을종합개발사업을 2008년말에 신청할 계획임

- 전통담장 등 한옥마을 조성을 지원하는 문화관광부 관련 사업에 :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등)도 추진할 계획임.
- 한옥을 활용하여 마을 주민들의 민박 활동 참여를 확대할 계획
 - 현재 마을에 민박 가구는 4호가 있음. 앞으로 조성되는 한옥과 연계하여 마을 주민들의 민박 활동 참여도 더욱 장려할 계획임

□ 지자체 담당자 의견

- 직불금 액수의 상향 조정
 - 경관작물 재배를 통하여 농가소득 보전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직불금의 상향 조정이 필요함 현재의 지원금 규모로는 농가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음.
- 농촌 주민들의 경관 관련 활동 추진 역량의 한계
 - 정부에서는 경관작물 개화기에 맞추어 방문객을 유치하여 축제를 개최하도록 장려하지만 기대하는 활동을 수행할 만한 여건을 갖춘 마을이 많지 않음. 이 역시 주민들의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참여에 제약이 됨.
 - 축제 같은 행사는 많은 역량이 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단지 행사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해서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는 없음
 - 참고로 전남도의 경우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추진 시 경관작물 연계 축제 개최 여부를 주요한 지원 조건으로 정하고 있음

3) 사업 시행 효과

□ 농가소득 향상 효과

- 메밀 재배에 드는 비용은 노동비를 제외하고 67,800원/ha로 집계
 - 종자대: 9,000원/ha (300평에 3kg이 투입되며, kg당 3천 원)
 - 유채 종자는 제주도에서 구입하는데 잘 아는 사람을 통하므로 다른 곳보다 저렴하게 조달함.
 - 경운비: 54,000원/ha
 - 마을 이장이 기계를 소유하고 있는데 마을 주민들의 경운작업을 대신해서 해주는 경우가 많아 비용이 더 절감됨
 - 비료(요소): 4,800원/ha (300평에 약 6kg이 투입되며, kg당 800원)

- 경관보전직불금 이외에 별도의 소득 창출은 없음
 - 유채 종자를 수확하지 않으므로 직불금 이외에는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함
 - 다만 마을 여건상 보리 이모작이 용이하지 않아 유채 재배 농지 중 상당 면적은 동절기에는 휴경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직불금이 미약하나마 농가 소득 향상에 보탬이 됨

□ 경관 조성 및 농촌 어메니티 증진 효과

- 경관작물과 마을의 어메니티 자원의 연계 개발이 가능
 - 마을에 천주교 신자가 상시적으로 방문하는 성모동산이 있는데 경관작물이 개화함으로써 방문객들에게 마을에 대해 좋은 인상을 남기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마을 뒤 금성산(해발 450m), 저수지인 신광제 등 마을 일대 어메니티 자원과 경관작물 군락이 어우러져 경관 형성 효과가 높음
- 작물 이외 타 경관자원을 가꾸는 활동으로 확대 전망
 - 마을에 새롭게 조성되는 한옥 단지와 연계하여 이전부터 존재하던 한옥과 전통적 경관 요소(돌담 등)를 보수하고 새로이 가꾸려는 주민들의 의지가 높음. 이처럼 경관작물 식재 이외에도 주민들이 다양한 경관 분야 활동을 추진함에 따라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 공동체의식 함양 및 지역 활성화 효과

- 경관보전직불제는 마을 공동체 단위의 사업 확대에 밑거름이 됨
 - 경관보전직불제 참여 이전에는 주로 친환경농업 생산과 관련하여 마을 공동체 차원의 활동 기반을 지니고 있었음
 - 무농약 재배를 처음에 열두 농가가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젊은 사람 7명이 중심이 되어 지속적인 활동을 수행 중임
 - 마을에서 경관보전직불제는 2005년부터 참여하기 시작했는데, 당시는 세 농가만이 경관작물을 재배하다가 현재는 19호가 참여하는 마을 공동체 차원의 활동으로 발전함.
 - 공동체 활동의 내용도 기존의 농업 생산활동에서 확대되어 어메니티 분

야로 확대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음

-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은 마을 차원에서 향후 다른 활동들을 진행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음.
- 마을 이장이 중심이 되어 마을 주민들이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마을 단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공동체 차원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 경관작물 관련 축제 시행 성과

- 경관작물 개화와 연계하여 별도의 축제를 개최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 인근 영산포의 영산강 둔치에 유채가 대규모로 개화하므로 같은 시기에 마을에서 축제를 개최하기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마을 대표 의견임
- 다만, 경관작물 개화기가 아니지만 마을에 도시민들을 초대하여 체험행사 (오리 입식 행사 등)를 벌이고 있음.

4) 제도 개선 및 사업 확대 방안

□ 지급 단가의 적정성 및 개선 방안

- 직불금 단가가 주민들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사업은 지속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제공될 100,000원/ha의 지원금 규모는 생산비용보다는 높은 액수이지만, 자가 노동비를 제한 액수이므로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특히 기존의 직불금에서 하향 조정되므로 지급 단가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은 분명히 존재함.
- 다만 신광리의 현 대상지는 유채 이외에 타 소득 작물 재배가 적합하지는 않은 지역이며, 경관보전직불제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들이 연계 추진되고 있음 따라서 주민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
- 주민들의 지속적인 경관 관련 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직불금 자체의 상향 조정보다는 경관작물 재배와 연계한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사업 대상지역 적합성 및 확대 방안

- 마을의 자원 여건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 타 사업 연계 가능성 등으로 판단할 때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대상지로 적합함
 - 마을에는 어메니티 자원 여건이 좋으며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경관 가꾸기 활동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높음
 - 2005년부터 추진해온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한옥형 전원마을로 조성되면서 전남도의 행복마을 사업 대상으로 지정되었다는 점도 향후 사업 추진에 유리한 조건임.
 - 행복마을 대상지에 대해서는 전남도 차원에서 다양한 농촌개발사업이 연계되도록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으므로 향후 경관 분야의 사업들을 확대 추진하는 데 보다 용이할 것임

□ 경관작물 다양화 방안

- 유채 이외에 해바라기 등 하계작물 확대 재배가 가능
 - 마을 이장의 경우 2ha 가량의 면적에 해바라기 재배를 개인적으로 이미 시작하였음.
 - 2008년부터 경관작물 집단화 조건이 완화되므로 이러한 하계작물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마을의 경관보전직불제 범위를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음
마을 대표만이 아니라 다른 주민들도 하계작물 재배에 참여토록 유도할 수 있을 것임.

□ 마을 경관 향상 방안

- 탐방로, 산책로 조성을 통해 마을의 다양한 경관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
 - 경관작물 식재 대상지 위에 위치한 저수지(신광제)의 경관이 빼어나므로 산책로를 조성하는 등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마을 뒷산으로 이어지는 탐방로 개발 등 마을의 어메니티 자원을 연계하는 동선을 다양하게 개발함
- 전통적인 경관자원을 보전하고 특히 주택을 중심으로 마을 전체 경관을 조화롭게 가꾸는 활동이 요구됨
 - 마을 일대에 한옥이나 돌담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으나 슬레이트 지붕이나

콘크리트 담장으로 이루어진 건축물과 뒤섞여 경관자원으로서 가치를 잃고 있음. 군데군데 공가나 폐가도 분포하고 있어 마을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경관을 살리는 데 제약이 됨.

- 향후 행복마을과 연계하여 다양한 농촌개발사업이 마을에서 시행될 경우 마을의 주택 경관을 정비하고 전통적인 건축물을 살리는 활동에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사업 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음
 - 경관작물의 파종, 개화 과정이 대체로 큰 무리 없이 진행됨
 - 평소 방문객들이 꾸준히 찾고 있는 편이지만 향후에는 경관작물과 연계한 축제 개최 노력을 통해 경관 형성 파급효과가 외부로 보다 확산되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됨.

□ 농촌 환경문화경관 보전 활동 확대 가능성

- 경관작물 재배 이외에도 다양한 요소를 대상으로 경관 보전 활동이 가능하리라 판단됨.
 - 특히 마을 대표가 농촌 경관관리에 관심이 높으며 어메니티와 관련되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음
 - 개별 가구 단위에서는 경관작물 재배 이외에도 돌담이나 지붕 등 주택의 경관 가꾸기, 공폐가 정비 등의 활동을 벌일 수 있을 것임
 - 인근의 어메니티 자원을 연계하는 탐방로 조성 및 꽃길 가꾸기 등의 활동 등 주민들이 큰 사업비를 들이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도 추진할 만한 여건을 지님.
 - 전원마을 사업이 완료되면 마을에 새롭게 이주하는 가구들이 있는데, 비농업인인 신규 유입 주민들이 경관 가꾸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임.

5) 관련 현장 사진



유채꽃 군락지 전경(1)



유채꽃 군락지 전경(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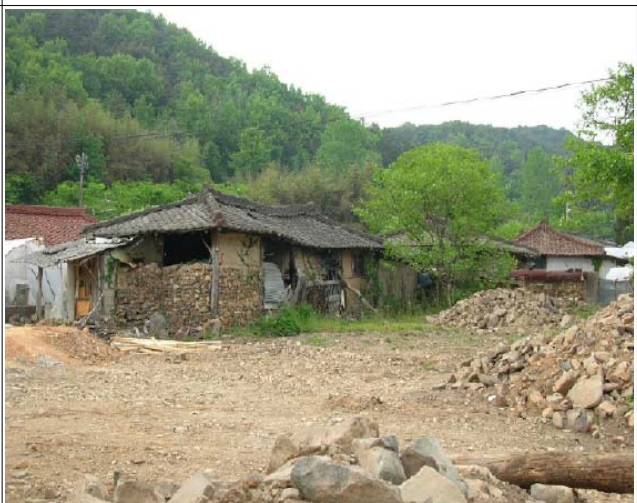
유채 군락지 상류에 위치한 마을 저수지



천주교 신도들이 찾는 마을 위 성모동산



한옥형 전원마을 사업 대상 부지



마을의 공폐가

9.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산저리

1) 사업 추진 현황

□ 대상지 현황

- 위치 :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산저리(선학동)
- 참여 농가 수: 27호
 - 마을 전체 가구 수는 40호(20호는 김 양식 등 어업에도 종사)
- 참여 면적 : 20.8ha
 - 마을과 산 사이 구릉지에 위치한 밭 지대가 경관작물 식재 지구임
 - 경관보전직불제 지원 대상지 이외에 추가로 논 일부(13ha)가 바이오디젤용 유채 생산 시범단지로 지정되어 유채가 재배되고 있음 따라서 실제 유채 단지 면적은 약 34ha에 이름.
 - 바이오디젤용 유채 단지까지 합산할 경우 전체 40호 중 35호가 유채 재배에 참여함.
- 경관작물 : 유채, 메밀
 -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지구로 처음 선정된 2006년에는 유채만 재배하였는데 2007년부터는 하계작물인 메밀도 경관직불 지원을 받아 식재함
 -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기 전에는 보리, 콩, 참깨 등의 작물을 재배해옴

□ 경관작물 파종 및 수확 현황

- 종자 파종 : 2007. 7. 20
- 개화 : 4월 5일경 개화하기 시작하여 4월 말까지 개화기 지속됨
 - 기후 조건 등이 좋았기 때문에 전체 사업지구에서 특별한 어려움 없이 유채가 개화함.
- 수확 : 유채를 수확하여 판매하지 않고 시범적으로 소 사료로 이용할 계획임

□ 지자체 추가지원 현황

- 장흥군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을 2008년 중에 시행할 계획임.

- 사업비는 2,200만 원이며, 이를 활용하여 기존에 주민들이 조성해둔 원두막 4동 중 2동을 반영구적인 시설로 보강할 계획임 이 밖에 구름다리 설치, 등산로 정비 작업을 추진할 계획임
- 그동안의 사업 성과를 감안하여 2008년 중 장흥군에서는 별도 예산을 들여서 마을에 특산물 판매장,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데 지원할 계획임

□ 사업 추진 관련 주민 활동 상황

- 경관작물 식재 이외에도 주민 자율적으로 별도의 경관관리 활동 시행
 - 2007년에 유채 군락지 내에 원두막 4동을 주민이 직접 조성하였음. 외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주민들의 노동력만으로 시설을 만들 마을 주민 전체가 참여하여 원두막 1동당 약 1일의 작업을 실시함.
 - 관광객과 사진작가 탐방을 위해 마을 일대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산책로를 유채 군락지 사이에 조성함.
- 유채꽃 개화 시기에 주민들이 주도하여 '선학동 유채꽃축제'라는 이름으로 방문객 맞이 마을 행사를 개최함
 - 마을 축제 시 음식을 장만하고 판매하는 일에 부녀회 전체가 동참하였으며 회진면 풍물 동호회를 참여시켜 농악 공연을 함.
- 인터넷 상에 마을 카페를 만들고 지인이나 향우 등에게 마을 소식을 전함으로써 공동체 결속을 다지고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임
 - '선학동마을'이란 이름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 카페 운영.
 - 외지에 나가 있는 출향 인사들 중에 최근 들어 마을이 많이 바뀌었고 활력이 높아진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함

2) 사업 만족도

□ 사업 추진 주민 의견

- 경관작물 개화기에 맞추어 마을 축제를 개최하고 마을이 명소로 떠오르면 서 지역 활성화 효과가 나타남
 - 특히 마을 대표이자 추진위원장은 마을의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보람도 느끼게 된 점을 강조함.

- 2008년부터 유채 직불금 단가 축소 조정에 따라 주민들의 열의가 식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 향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가장 걸림돌임
 - 마을 대표는 경관보전직불제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고 경관 분야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지를 지니고 있음
 - 그러나 일반 주민들의 경우는 지원되는 직불금 규모에 따라 경관작물 식재에 참여할 동기를 부여 받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일괄적으로 직불금을 축소할 경우 마을 대표 입장에서는 주민들을 설득하여 사업에 참여토록 하는 데 애로가 있음.
 - 유채, 자운영 등 동계작물을 식재해두는 것 말고는 별다른 활동을 진행하지 않는 여타 지역에 비할 때 장흥군 산저면에서는 기존의 밭농사를 경관작물로 대체하고 마을 축제와 방문객 유치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음. 이처럼 주민들의 경관관리 활동 참여가 활성화된 대상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차원에서도 추가 지원을 받을 길이 열리기를 희망함

□ 지자체 담당자 의견

- 장흥군 회지면 사업지구는 2년째 참여한 경관보전직불제 성과가 크며, 경관작물과 연계하여 지역 활성화를 모색하는 데 적지로 판단됨
 - 마을 일대에 연계 가능한 자원들이 풍부하며 한반도에서 봄이 제일 먼저 찾아오는 정남진의 이미지에 부합되어 유채꽃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다수 찾고 있음.
 - 유채와 메밀 개화 기간에 지역 축제(할미꽃축제, 전어축제) 및 다양한 어메니티 자원(천년학 소설 배경, 영화 세트장 등)과 연계함으로써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주민들의 참여 의지가 높은 것은 사실이나 지금 단가는 낮게 책정
 - 주민들의 참여 의지 높으며 지자체 자체적인 사업이나 다른 경관 관련 활동 지원까지 연계될 경우 지속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것
 - 그러나 경운, 시비 및 제초 작업, 병해충 방제, 배수로와 탐방로 설치 등에 예상 외의 관리비용이 소요되므로 지금 단가를ha당 100만 원보다 높여야 한다는 것이 지자체 담당자 의견임

- 경관보전직불제의 성과를 감안하여 장흥군에서는 향후 다른 마을까지 사업을 확대할 계획임
- 2007년 20.8ha 면적에 대해 경관작물을 식재했으나 다른 88ha 경지에 경관작물을 재배할 예정임
- 바이오디젤용 유채 단지도 현재 13ha를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지만 추가로 40ha를 더 재배하고자 함

3) 사업 시행 효과

□ 농가소득 향상 효과

- 자가 노동력 투입분을 비용에서 제외할 경우 1ha당 유채 재배 비용은 약 91,000원으로 집계됨.
- 종자대는 1ha당 약 10,000 원이 소요
- 경운작업은 10a 기준으로 2회 실시하는 데 75,000원이 투입됨.
 - 비용 경감을 위해 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마을 이장이 이러한 경운 작업을 1/2 가격에 마을 주민들 상당수에게 해주기도 함
- 제초제는 1ha당 3kg 1포가 들어가며, 가격은 5,000~6000원임.
 - 제초작업에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지만(1ha 기준으로 하루 작업량), 주민들 전체가 품앗이로 김매기 작업을 하고 있어 비용 산출에는 제외함

□ 경관 조성 및 농촌 어메니티 증진 효과

- 장흥군 사업 대상지는 구릉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마을 진입 전에 도로변에서 유채 군락지가 한 눈에 조망되어 경관이 빼어나
- 경관보전직불제 참여를 계기로 유채 식재 이전에 묵혀둔 휴경지에도 유채꽃이 식재되어 경관 개선 효과가 나타남
- 주변의 다양한 경관요소들과 연계되므로 경관 형성 효과가 높음
 - 마을 앞 논에서 바이오디젤용으로 재배되는 유채 단지와도 어우러지기 때문에 방문객들이 광활한 면적에 걸친 유채 군락지 경관을 감상할 수 있음
 - 마을 뒤의 산과 도로 건너의 바다 경관까지 어우러져 사진작가와 많은 방문객들이 유채 개화기에 마을을 찾고 있음

- 마을 일대의 어메니티 자원의 연계 개발을 위한 구상이 진행됨
 - 영화 천년학 세트장으로 조성된 주막 건물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새로운 활동을 진행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음 천년학 세트장인 주막집에서 음식이나 막걸리를 판매하고 특산물인 낙지를 판매할 계획을 추진 중임

□ 공동체의식 함양 및 지역 활성화 효과

- 마을 주민들의 경관 가꾸기 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대함
 - 마을 대표에 따르면 주민들 각자가 자신이 재배한 유채꽃이 더 아름답다고 사랑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고 함 주민들 스스로가 열의를 가지고 경관작물을 가꾸고 관리하려 노력한다는 의미임
- 마을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됨
 - 이전까지는 주민들이 마을을 떠나기만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마을에 이주하거나 고향으로 귀향하려는 생각을 하는 도시민들이 늘고 있음 이미 1가구 이사해왔고, 마을 집터나 토지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나타남
 - 오래 전에 마을을 떠난 출향민들도 최근의 마을 변화상에 관심을 나타내며 최근의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추진을 격려하기도 한다고 함.

□ 경관작물 관련 축제 시행 성과

- 유채 개화기에 '선학동 유채꽃축제'라는 이름으로 마을 행사를 개최
 - 행사 기간은 4월 12~13일이며, 향우모임과 일반인 방문행사를 겸함
 - 축제는 군청의 별도 예산 지원 없이 마을 주민들이 비용을 충당하여 개최
- 축제 개최로 경제적 성과도 일부 나타났지만 무엇보다 마을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기회가 됨.
 - 행사 비용은 약 300만 원이 소요되었는데 음식 판매로 약 300만 원 가량 매출을 올림. 그리고 방문객들의 찬조금 등을 지원 받아 전체적으로 1천만 원 가량의 소득을 올림
 - 2007년에는 마을에 1만 명 정도가 방문했는데 축제 홍보 효과로 2008년 유채 개화기간 동안 마을 방문객이 2~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사진동호회 회원들이나 사진작가들이 관광버스편으로 많이 방문하여 사진을 찍고 인터넷 상에 게시함

4) 제도 개선 및 사업 확대 방안

□ 지급 단가의 적정성 및 개선 방안

- 대상지 여건상 ha당 100만 원 직불금으로 유채를 재배하는 것은 무리이나 지자체의 추가 지원책이나 향후 안정적인지원 방안 마련으로 문제점을 보완해야 함.
 - 밭 작물 대신에 연중 경관작물(유채, 메밀)만 재배하는 대상지 특성을 감안하면 조정될 직불금 수준으로 주민들의 호응도를 얻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먼저 장흥군 차원에서 다양한 추가 지원 수단(축제 비용 지원, 홍보, 방문객 대상 시설 조성, 경관계획 수립 지원 등)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아울러 1년 단위가 아니라 3년 이상 기간 동안 안정적인 직불금 지원이 뒷받침되리라는 점을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중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소득 기회를 놓치는 데 대한 보완책으로서 경관작물 수확 이후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지원함
 - 시기를 잘 맞출 경우 메밀이나 유채 이외에도 그 중간에도 다른 작물 식재도 가능하다는 것이 마을 대표의 의견임 유채를 5월10일 이전에 수확하고 메밀을 8월15일경 파종할 경우 그 사이에 다른 작물을 심을 수 있음
 - 현재는 김, 미역, 메밀, 쌀 이외에는 팔 수 있는 제품이 없는 상황이므로 참깨 등을 재배하여 방문객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

□ 사업 대상지역 적합성 및 확대 방안

- 대상지의 경관과 주변 어메니티 자원 여건 주민들의 참여 의지, 마을 대표의 사업 추진력 등 제반 여건에서 장흥군 회진면 사업지구는 경관보전직불제 지원 대상으로 적합함

- 주변에 산과 바다가 어우러지며 유채 재배로 인한 경관 형성 효과가 뛰어나고 그리고 회진면은 작가 이청준의 고향인 동시에 이청준의 소설인 '선학동 나그네'의 배경임. 영화 '천년학' 세트장도 있어 방문객을 유치하는 데 유리한 어메니티 여건을 갖춘
- 경관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한 마을 대표의 열의가 있고 주민들도 이에 잘 호응하고 있다는 점도 강점임

□ 경관작물 다양화 방안

- 현재는 유채와 메밀 이외에 적합한 경관작물이 무엇일지는 주민이나 지자체 담당자들이 구체적인 대안을 지니고 있지는 않은 상황임
- 향후 경관작물지구로 보다 특화된 마을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해볼 수 있겠음.
 - 경관작물을 조망할 수 있는 여건이 좋으므로 일부 경지에는 유채 메밀과 구별되는 특색 있는 작물을 식재함
 - 특히 향후 집단화 면적 기준이 현재보다 완화될 것이므로 좀 더 다양한 경관작물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함
 - 또는 경관작물을 3모작으로 식재하거나 소득작물 중 경관 형성 효과가 있는 것을 유채 수확 후 메밀 파종 이전에 식재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함

□ 마을 경관 향상 방안

- 방문객 탐방로를 중심으로 다양한 경관요소 도입 필요
 - 이미 원두막이 4동 설치되어 있으며, 고랑에 작은 다리를 조성하는 작업도 계획 중임. 마을 뒤 학산 등산로와 연결되는 탐방로를 정비하는 사업도 계획되어 있음.
 - 이와 같이 다양한 탐방코스를 개발하는 동시에 유채꽃과 조화를 이룰 만한 특징 있는 꽃길 조성 작업도 추진할 필요 있음.
- 마을의 주택을 중심으로 한 경관 보전과 개선
 - 경관작물 군락지에서 마을의 전반적인 주택 경관이 한 눈에 조망되므로 주택 외관이나 색채를 조화롭게 유지하는 작업이 장기적으로 필요함

- 마을 내 일부 빈집이나 창고, 축사 등 개선이 필요한 경관요소는 공동체 차원에서 정비하는 노력이 진행되어야 함
- 세트장으로 쓰인 주막집 건물 등 특징적인 경관요소는 잘 보존하는 동시에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함

□ 사업 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장흥군 대상지에서는 유채의 파종 개화 같은 과정이 큰 무리 없이 진행되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별달리 제기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향후에는 직불금 지원 액수와 관련하여 일부 어려움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향후 경관보전직불제와 연계하여 마을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민박이나 방문객 대상 시설 확대가 필요함
 - 마을 여건은 좋으나 최근에 마을개발사업에 참여한 까닭에 민박 참여 가구가 없으며, 방문객들을 맞이할 만한 장소도 부족함 향후 지역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경관작물 식재 이외에 도농교류 시설 조성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농촌 환경문화경관 보전 활동 확대 가능성

- 현 사업지구는 경관작물 이외에 다양한 경관요소 보전과 관리를 위한 활동을 확대 추진할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됨
 - 현재 마을 대표의 경관보전직불제 추진에 대한 의지가 높으며 작물 재배 이외에 다양한 경관 가꾸기 활동을 개발하려는 계획을 지니고 있음
 - 다양한 어메니티 자원도 갖추고 있어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보전하기 위한 활동 추진의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5) 관련 현장 사진



유채꽃이 만개한 마을 전경(1)



유채꽃이 만개한 마을 전경(2)



주민들이 조성한 유채밭 사이의 원두막



유채 개화기의 마을 방문 차량



영화 '천년학' 세트장으로 활용된 마을의 오래된 건물

번호	제목	공시일	조회	날짜
01	유채가자! 2018년 유채꽃이 피고 열매맺기 (3)	08/05/24		선학동 이장
02	SBS 드라마 "장지행" 5월 22일 방송	08/05/23	99	선학동 이장
03	선학동 의 발흥 모습	08/04/19	51	선학동 이장
04	4월 15일 선학동 양재	08/04/15	84	선학동 이장
05	선학동의 세시풍속	08/02/06	61	선학동 이장
06	선학동 나그네들 찾아서 (남도시인 김명남 시)	08/01/29	84	방림굴
07	2008년 1월1일~2018년12월30일 까지 '선학동' 명예명단	08/01/12	97	선학동 이장
08	장흥 천년학 다고--- 노관 유채꽃만발	07/12/28	87	선학동 이장

다음(Daum) 카페에 개설된 마을 안내 게시판

10. 전라남도 강진군 옴천면 영산리

1) 사업 추진 현황

□ 대상지 현황

- 위치 : 전라남도 강진군 옴천면 영산리 계원마을
 - 2004년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되었으며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체험마을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팜스테이마을로도 지정되어 있음
- 참여 농가 수: 29호
 - 사업 참여자는 영산리의 계원, 영북, 동막 등 3개 자연마을에 거주
 - 체험시설이 있는 계원마을에서 21명이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에 참여하며, 영북마을은 7명, 동막마을은 1명이 참여
 - 전체 마을 가구 수는 계원마을이 68호, 영북마을이 28호임.
- 참여 면적: 14ha
- 경관작물: 자운영
 - 옴천면 전체가 2003년에 친환경농업특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참게, 우렁이 등의 농법 등으로 친환경 쌀을 생산함 '참게랑 쌀이랑' 및 '참게랑 잡곡이랑'이라는 브랜드명으로 쌀과 잡곡이 판매됨.
 -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을 받기 이전에도 강진군 자체적으로 녹비 용도로 자운영 종자를 신청한 농가들에게 지원하였음 현재는 경관직불금 지원 농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종자대를 지원하지 않음

□ 경관작물 파종 및 수확 현황

- 종자 파종 : 2007년 9월 20~30일경 파종(쌀 수확 전)
- 개화 : 자운영 개화 기간은 15~20일 가량 지속됨. 올해는 4월28일경 만개함.
 - 자운영은 기온에 민감하여 개화 시기 조절이 어려움 2008년의 경우 봄철의 이상 더위로 개화 절정기가 예상보다 10일 가량 빨라짐. 그로 인해 미리 예정됐던 마을 축제 개최 무렵에는 이미 자운영 만개 시기가 지나버림
- 경운 : 2008년 5월

□ 지자체 추가지원 현황

○ 경관작물과 연계한 축제 개최 지원

- 자운영 개화에 맞추어 진행한 행사 비용 1,500만 원 중 일부인 250만원을 지자체에서 지원 마을 주민들이 400만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1사1촌 교류 기업에서 부담함.
- 그 밖에 행사 개최를 위한 인력도 강진군에서 지원함

○ 경관과 관련되는 지자체의 별도 사업 추진 구상

- 강진군에서는 전라남도가 균특회계를 활용해서 자체 추진하는 '뚝봉(친환경 생태연못) 조성사업'을 올해 중 마을에 시행할 계획임 총 3천만 원을 투자하여 큰 웅덩이를 조성하며, 수생식물을 식재하고 다리도 설치할 계획임
- 경관작물과 직접 연계되지는 않지만 방문객 대상 시설로 30~40평 규모의 물놀이 시설을 2008년 중 마을에 조성할 계획(군비 1천만 원, 자부담 5백만원 투자)

□ 사업 추진 관련 주민 활동 상황

○ 주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 축제 개최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 2005년부터 1사1촌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해온 기업(광주시 하남농협, 수자원 공사 전남서남권관리단 등)의 임직원 및 가족들을 마을에 초청하여 '엄지 마을 꽃들의 잔치'라는 이름으로 마을 축제를 처음으로 개최함
- 축제 시에는 먹거리 장터를 열고 농특산물도 판매하며 축제 시 음식을 장만하고 판매하는 일에 부녀회 전체가 참여하고 있음
- 축제 기간을 시작으로 올해의 체험 프로그램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참깨, 우렁이 등을 이용한 농사 체험 프로그램 농약(전통문화)을 주민들과 방문객에게 전수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함.

○ 체험시설은 주민 대표가 폐교 부지를 구입하여 조성하였으며 운영을 담당

- 축제 및 도농교류 행사장으로 활용되는 현 체험시설 부지는 경관보전직불제 추진위원장이 자비를 들여 2005년에 폐교를 구입한 것임. 방문객 숙소 및 교육장 등의 시설들은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을 통해 조성함

2) 사업 만족도

□ 사업 추진 주민 의견

- 경관작물 개화기에 맞추어 마을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체험마을과 연계한 탐방객 유치에 많은 도움
- 작물 재배 관리 상의 문제점
 - 개화기 동안 경관작물을 유지해야 하므로 녹비작물로 재배할 때에 비해 개화 상태에서 갈아엎지 않고 더 오랜 기간을 놔두게 됨 그 결과 녹비용도로 재배할 때보다 식물이 좀 뻗뻗해지는 점이 문제임
 - 특히 기계가 없는 농가의 경우 자운영 경우 작업이 더 문제임
- 향후 안정적인 지원의 필요성
 - 몇 년 동안 꾸준히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참여자들이 기대할 수 있을 경우 주민들의 경관관리 활동 참여가 확대될 것임 3년 이상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협약이 추진되면 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데 도움될 것임.

□ 지자체 담당자 의견

-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도시민들의 농촌 체험 연계가 가능
 - 마을 축제가 개최하면서 기존의 마을 사업이 보다 활성화되는 계기가 됨
 -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체험시설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그동안은 여름철 체험객 위주로 한정적으로 운영되었음 그런데 이번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을 계기로 아름다운 경관과 연계한 농촌 체험활동이 가능해짐.
- 직불금 지원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 경관보전직불금 지원이 농가의 대체 소득원 역할도 하고 있음 동계작물인 보리의 작황이 좋지 않아 재배 면적이 축소되는 상황이었었는데 경관보전 직불제를 통하여 동절기 농가 소득이 발생하는 효과가 있음

3) 사업 시행 효과

□ 농가소득 향상 효과

- 투입비용에 대비할 때 경관보전직불금 지원은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
 - 실제 비용을 환산하면 10a당 생산비는 약 48,182원으로 집계되어 직불금에서

이를 제하더라도 참여 농가에 이익이 됨.

- 종자는 14ha 전체 면적에 대해 560kg이 투입되었으며, kg당 2천 원으로 112만 원이 소요됨(10a 기준으로 7,983원)
- 로터리(경운) 비용은 470만 원이며, 1ha당 33,500원
- 비료 및 퇴비 비용은 94만 원으로, 1ha당 6,700원
- 특히 자운영이 쌀 생산을 위한 녹비작물 기능도 한다는 점에서 농가에는 더욱 이익이 됨.

□ 경관 조성 및 농촌 어메니티 증진 효과

○ 경관작물의 집단화 재배 유도

- 마을에서 이전에도 녹비작물로 자운영을 부분적으로 재배해왔으나 경관보전 직불제 지원을 계기로 보다 집단화되어 경관작물이 식재되도록 유도됨 그 결과 일정한 면적에 걸쳐 작물 군락지 경관 형성이 가능해짐

○ 마을 어메니티 자원에 기반한 체험활동 기회의 확대

- 경관작물과 연계한 농촌 체험 및 도농교류 행사를 가짐으로써 마을 어메니티 자원의 발굴과 활용 기회가 확대됨 이전에 여름철에 한정해서 이용되었던 마을 체험시설에 경관작물 개화기에도 방문객을 유치함으로써 마을 어메니티 자원을 발굴 보전하는 활동 기회로 삼을 수 있음.

○ 다양한 경관 부문 사업 발굴의 기회 제공

- 향후 전라남도 시책 사업인 '듬병조성사업'이 연계 추진되면 보다 다양한 경관요소로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을 확대해갈 기회가 마련될 것임

□ 공동체의식 함양 및 지역 활성화 효과

○ 마을 주민들의 공동 활동 기회 제공

- 경관작물 개화와 연계하여 마을 행사를 개최하면서 형식적인 교류 관계에 머무를 수 있었던 1사1촌 자매결연 기업의 직원과 가족들을 마을에 초청해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짐.
- 또한 1사1촌 자매결연 기업뿐 아니라 외지에 나가 있는 마을 주민 자녀 인근 마을 주민 향우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함으로써 공동체 결속의 기회가 마련됨.

- 체험 프로그램 구상, 음식 장만 등 제반 행사 준비 과정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공동활동 기회도 생김.

- 방문객 증가로 인한 마을 활력 증대 기대

- 농촌체험시설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2007년에는 마을에 3천 명이 방문했는데,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을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을을 찾을 것으로 전망됨.

- 그에 따라 체험시설 활용도 제고 및 각종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마을 전반적인 활력 증대가 예상됨

□ 경관작물 관련 축제 시행 성과

- 축제 개요

- 축 제 명 : 엄지마을 꽃들의 잔치

- 개최시기 : 2008년 5월 17~18일

- 주 최 :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서남권관리단, 엄지마을행사추진위원회

- 후 원 : 움천면사무소, 자매결연단체, 움천면 주민자치위원회, 소방대 등

- 주요 프로그램 : 풍물한마당, 체육경기, 떡 만들기 체험, 노래한마당, 캠프 파이어, 맨손 고기잡기 체험, 경운기 타고 꽃길 달리기, 사진 촬영, 꽃의 여왕 만들기, 들꽃과 함께 하는 백일장, 농특산물 판매전

- 축제 방문객

- 양일 간 500명이 마을을 방문함 당초 행사를 계획했을 때는 400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더 많은 인원이 마을을 찾음

4) 제도 개선 및 사업 확대 방안

□ 지급 단가의 적정성 및 개선 방안

- 직불금 액수는 적정하다고 판단됨

- 자운영은 녹비작물이며 투입 비용이 사후 관리에 드는 비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m²당 170원 지원금뿐 아니라 2008년부터 조정되는 m²당 100원의 지원금도 적정한 수준임

□ 사업 대상지역 적합성 및 확대 방안

- 체험마을사업 기반 축적과 친환경농업지역 이미지에 비추어 경관보전직불제 지원 대상지로 적합
 - 사업지구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과 팜스테이마을 1사1촌 교류 등을 시행하면서 어느 정도 마을 단위 주민 활동의 기반은 갖추어져 있음 경관 분야 활동이 현재까지는 출발 단계이지만 기존의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경관관리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도 유리할 것임
 - 또한 친환경농업특구이기도 하므로 경관작물 재배가 지역 이미지 제고에도 효과를 발휘할 것임.
 - 강진군에서는 2007년 사업의 성과를 반영하여 2008년부터 자운영 재배 면적을 22ha로 더 확대할 예정이기도 함.

□ 경관작물 다양화 방안

- 마을 여건상 자운영 이외에 재배 가능한 적합한 경관작물이 없다는 것이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임

□ 마을 경관 향상 방안

- 현재 작물 식재에 한정되어 있는 경관관리 활동의 다변화가 필요
 - 강진군에서는 장차 마을 일대 주요 도로변에 다년생 화목류(초화류)인 금국이나 무궁화 등을 식재하려는 구상을 지니고 있음
 - 또한 지자체 사업 담당자는 마을 주민 참여를 통한 경관 보전활동 사례로서 안내 간판 및 포토존 설치, 탐방로 개설과 현지 안내인 배치 등을 제시하고 있음.
 - 마을 주민의 경우 향후 마을 아래 저수지에 연을 심는다는 구상을 지니고 있으며, 특산물인 토하도 기를 계획임.
- 다양한 지자체 사업의 연계를 통한 경관관리 효과 제고
 - 뚝방조성사업 등과 같이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나뭇의 경관 관련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경관보전직불제와 연계할 경우 사업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임.

□ 사업 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지자체 담당자의 작물 재배 관리 상의 문제점 개선 요구
 - 경관작물 파종 후 지원금의 1/2이 지급 가능토록 되어 있지만 현재 받아들이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임 그리고 개화 시에도 관리 상태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어 보조금 지급에 일관성을 기하기가 어렵다고 함.
 - 이에 대한 분명한 기준 제시가 필요함
- 향후 지자체 차원의 홍보 작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사업의 확대 추진을 위해서는 경관작물 재배지로서 마을의 이미지가 자리 잡도록 지금보다 홍보 활동이 더욱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현재는 강진군 홈페이지 뿐 아니라 및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에서도 자운영 군락지 경관 형성에 대해 그다지 충분히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편

□ 농촌 환경문화경관 보전 활동 확대 가능성

- 향후 환경이나 문화경관 분야의 활동 추진이 가능할 것임
 - 현재로는 농촌 경관 형성이라는 정책 취지 자체에 대해 마을 주민들 다수가 충분히 공감대를 이룬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마을에서 경관보전 직불제가 추진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으로는 그동안 녹비작물로 자운영을 재배해왔고 경관보전직불제 시행 과정에서 마을 대표추진위원장)의 역할이 컸던 것을 들 수 있음.
 - 이처럼 사업지구 주민들은 경관보전직불제 참여 경험이 길지 않고 경관관리 활동도 현재까지는 두드러지지 않으나 지자체의 지원을 바탕으로 제반 마을개발사업들의 연계가 가능하고 주민들의 공동활동 경험도 축적되어 있는 점은 강점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충분히 공감을 갖는 것을 전제로 할 때 향후 경관협약 방식으로 환경·문화경관 분야에 대해 주민 자율적인 활동 추진이 가능하리라 판단됨.

5) 관련 현장 사진



마을 입구 안내판 및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



자운영이 개화한 농지의 전경



마을 행사의 방문객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폐교 활용 체험장)



마을 체험시설 전경 및 자운영이 개화한 농지

11.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도갑리

1) 사업 추진 현황

□ 대상지 현황

- 위치 :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도갑리 일대
 - 총 7개 마을에서 참여(평리, 죽정, 신흥동, 고산, 학암, 동계, 서호정마을)
 - 자연마을로는 총 12개 마을이 사업에 참여
- 참여 농가 수: 87농가(273필지)
 - 원래 신청 농가는 227호(175ha)
- 참여 면적 : 540,000m²
 - 사업 대상지 일원의 전체 경지 면적은 597,229m²(308필지)이나, 이 중 57,229m²(35필지) 면적에서는 경관작물 식재에 참여하지 않음 이는 보리를 재배하는 경우임.
- 경관작물 : 유채
 - 사업지구는 쌀과 함께 보리를 이모작으로 재배해왔던 곳으로 2007년부터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함. 경관작물 식재 이전에는 자운영을 재배하는 농가도 상당수 있었음.

□ 경관작물 파종 및 수확 현황

- 품종 : 탐라, 내한, 한라, 탐미, 청풍
- 파종 : 2007년 10월 중·하순
 - 파종량 : 10a당 1.5 ~ 2.0kg
- 개화 : 4월 초순 ~ 중순에 개화가 시작되어 4월말까지 지속
 - 전체적으로 유채 개화 상태는 양호하나 약 10% 면적은 다소 작황 부진
 - 기계가 없어서 파종이 늦은 농가에서 작황이 부진한 경우가 있었음 특히 2007년 파종 시기에 비가 많았고 겨울철 기온이 낮았던 것도 작황이 부진한 원인이었음.
- 수확적기: 2008년 5월 하순 ~ 6월 중순

□ 지자체 추가지원 현황

- 유채 재배 농가에 종자대금을 전량 지원
 - 직불금 규모가 농가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를 감안하여 영암군에서 자체적으로 종자대를 지원함
 - 종자는 300평에 1.5~2.0kg 투입되며, kg당 3천 원이 소요
- 농업인 부담 경감을 위한 축산 농가와의 연계 지원
 -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해 관내 축산 단체와 연계를 이루도록 지자체에서 주선하고 유채 사료화 구상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음
 - 유채 사료화는 영암군 관내 젓소 사육 목장들이 중심이 되는 축산법인에서 마을에 와서 사료로 쓸 유채를 직접 수확해가도록 함으로써 농가들의 수확 비용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실시된 것임
 - 이들 축산 농가들은 기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수확을 전담할 뿐 아니라 파종 작업 시에도 일부 작업을 도왔음
 - 특히 유채의 사료화 비용은 총채보리 등 다른 사료작물보다 높음 결국 축산 농가 입장에서는 다소 손해를 보면서도 이러한 구상에 참여하도록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유도함
 - 한편 축산 농가에서는 기계를 이용해서 유채를 베어낸 후 검불까지 남김 없이 모두 수거해가고 있음. 따라서 유채 재배 농가 입장에서는 유채 수확 후 땅의 비옥도를 높이도록 정부나 지자체에서 유기질 비료를 지원해 주기를 희망함.
- 주민 토론회, 교육 등의 기회를 수차례 마련하여 주민들의 사업 참여 유도
 - 많은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교육 및 토론회를 군청 주도로 개최함
 - 특히 직불금 규모가 줄어드는 2008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자 주민 대상 설명회 등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함

□ 사업 추진 관련 주민 활동 상황

- 경관작물 재배 이외에 타 경관자원을 가꾸는 활동은 두드러지지 않음
 - 작물 개화를 위한 배수 관리 등의 작업이 농가 단위로 이루어짐
 - 일부 구간에는 방문객들이 유채단지에 들어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됨.

- 별도의 경관작물 연계 축제는 개최하지 않았으나 자체적인 마을 행사 실시
 - 유채 개화 시기에 관내 노인들을 모시고 경로잔치를 개최함

2) 사업 만족도

□ 사업 추진 주민 의견

- 행정의 적극적인 권유를 계기로 사업에 참여
 - 경관작물로 유채를 재배하는데 자치단체장의 관심이 높아 행정에서는 주민들이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음.
 - 2008년부터 직불금이 줄어들면서 앞으로 유채를 포기하고 생산비용이 덜 드는 자운영을 재배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함 그러나 향후에도 유채를 재배하기로 결정한 상태임.
 - 경관 형성 효과 면에서 유채가 자운영보다 나으며 자치단체장도 유채를 계속 심어서 마을 일대를 명소로 가꾸어야 한다는 의지를 보였음
- 직불금 축소와 생산비 증가로 농가 설득과 지속적인 참여 유도가 문제
 - 자운영의 경우 벼 베기 전에 종자를 뿌리기만 하면 되는데 유채를 파종하려면 땅을 미리 세 번이나 갈아야 하는 등 비용이 많이 들어감
 - 더구나 유류가 급등 여파로 경운비와 비료값이 인상되는 등 향후 유채 재배에 드는 비용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음
 - 이런 상황에서 직불금 단가가 10만 원으로 축소되어 농가들은 향후 경관작물 재배에 참여하는 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임
 - 경관보전직불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민설명회 등이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는데, 앞으로 주민 설득이 당면한 과제임.
- 공동활동에 대한 지원 수단 필요
 - 개별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고 말 것이 아니라 추진위원회 등 공동체 조직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종자 구입이나 경운·정지 작업 등 준비 단계에서 마을 공동체 차원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이며 이를 위해 공동 기금이 필요함 현재는 각 개인에게 직불금이 입금되기 때문에 공동활동 추진이 어려움

□ 지자체 담당자 의견

- 유채 재배 확대를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벌일 계획
 - 경관작물로 유채를 지속적으로 재배한다는 영암군수의 의지가 있으며 유채의 경관 형성 효과도 뛰어나므로 지속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것임
 - 직불금 인하에 따라 경관작물을 자운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한 바 있으나 유채를 계속 식재하는 것으로 결정함
 - 경관보전직불제 참여 면적도 2008년부터는 75~80ha 규모로 확대할 예정임
- 낮은 직불금 액수가 사업 추진의 걸림돌
 - 그동안 행정에서 주민들로 하여금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도록 권유하여 끌고 왔음. 그런데 2008년부터 책정된 ha당 100만 원 규모 지원금으로는 주민 참여를 유도해서 사업을 지속해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음
 - 특히 사업지구 내에 보리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도 일부 있는데 경관보전 직불금 인하로 이들을 설득하는 데 특히 어려울 전망이다
 -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종자 지원이나 축산 농가와 연계 주선 등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여 유채 재배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노력하고 있음
- 지역 여건에 맞도록 경관작물 재배의 유연화 필요
 - 유채를 5월말까지 유지할 경우 수도작 농가들은 모내기 시기가 6월 20일 무렵으로 늦어진다는 문제가 있음
 - 6월 5일 이전이 모내기 적기이므로 유채 경관을 5월말까지 유지하지 않고 5월10일 전에 수확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사업 시행 효과

□ 농가소득 향상 효과

- 메밀 재배에 드는 비용은 농가당 약167,000원/1ha으로 집계됨.
 - 종자대 : 6,000원/1ha (종자대는 영암군에서 지원하므로 생산비 집계에서는 제외)
 - 경운비 : 66,700원/1ha
 - 비료 및 제초 : 100,000원/1ha
- 경관보전직불금 이외에 별도의 소득 창출은 없음.
 - 유채 종자를 수확하지 않으므로 직불금 이외에는 별도 소득이 없음

□ 경관 조성 및 농촌 어메니티 증진 효과

- 광활한 면적에 걸쳐 유채단지가 형성되어 경관이 우수
 - 54ha에 이르는 넓은 면적의 유채단지가 이루어지며 월출산 경관과도 어우러져 작물 개화 시에 경관 형성 효과가 우수함
- 인근 관광 자원과 연계할 수 있어 경관작물 개화 시 파급효과가 높음
 - 사업 대상지구는 월출산 국립공원 도갑사로 이어지는 도로변에 있어 관광객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임. 따라서 유채 개화 시 마을을 지나가는 많은 방문객들이 들러서 경관을 감상할 수 있음
 - 주말에는 1000명, 평일에는 300~400명 가량이 유채 군락지를 방문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그 밖에 왕인박사 유적지, 한옥들로 이루어진 구림마을 등이 사업지구 주변에 자리잡고 있는 등 인근에 연계 가능한 자원들이 풍부함

□ 공동체의식 함양 및 지역 활성화 효과

- 공동체 단위의 활동 추진을 위한 지역 주민들의 논의의 기회 제공
 - 직불금 액수나 생산 비용 문제 등으로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참여를 꺼리는 주민들도 있었지만, 지자체 담당자와 마을 대표, 일반 주민 등이 모여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수차례 가지면서 다수 농가들의 참여를 이끌어냄.
 - 특히 2008년부터 직불금 단가 인하로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향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에 합의를 이루기도 함
 - 관내 축산 농가 단체와 연계가 이루어지는 등 사업지구 내에서만이 아니라 보다 넓은 지역 차원에서 협력의 기회가 마련되기도 함
 - 축산 농가 역시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투입되지만 지역 활성화 도모에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유채 사료화 작업에 참여함

□ 경관작물 관련 축제 시행 성과

- 경관작물 개화와 연계하여 별도의 축제를 개최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 벚꽃 개화기인 4월 상순에 왕인문화축제가 지역에서 열리고 있음 따라서 그에 이어서 곧바로 경관작물 연계 축제를 개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4) 제도 개선 및 사업 확대 방안

□ 지급 단가의 적정성 및 개선 방안

- 생산비용 등을 감안할 때 직불금 단가가 낮으므로 보완책 필요
 - 종자를 지자체에서 지원 받으며 유채 수확 작업을 축산 농가에서 하도록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끄는 데는 2008년부터 적용될 직불금 액수로는 어려움이 많음
 - 당장 직불금 인상은 힘들더라도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추가 지원을 하거나 타 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경관작물과 연계한 별도의 소득원이 창출되지 않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해야 할 것임

□ 사업 대상지역 적합성 및 확대 방안

- 경관작물과 연계할 수 있는 지역 자원 여건 타 사업 연계 가능성 등이 양호하므로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대상지로 적합함
 - 월출산과 어우러진 경관이 빼어나서 홍보 작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면 대상지가 장차 명소로 발전할 수 있음
 - 월출산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방문할 수 있는 위치에 유채단지가 형성되어 경관작물 개화로 인한 외부효과가 높음
 - 왕인박사 유적지, 전남도 지정 한옥마을인 구림마을 등 사업지구 인근에 위치한 어메니티 자원과의 연계도 가능함
 - 특히 구림마을의 명소화 사업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60억 원을 투자하여 돌담 정비와 전통 경관 가꾸기 사업이 이루어지기도 함

□ 경관작물 다양화 방안

- 현재 유채 식재에 주력하나 일부 다른 작물도 도입 가능
 - 지자체 차원에서 유채 식재에 역점을 둘 계획이지만 이와 더불어 다른 색채의 작물도 도입할 경우 경관 형성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임
 - 예컨대 일부 경지에서는 자운영을 재배한 바 있으므로 비용이 적게 들고 녹비 효과가 있는 자운영도 식재 가능
 - 다만 자운영은 녹비 효과가 때로는 지나치게 커서 벼의 도복 우려도 있으므로 특정 경지에 지속적으로 식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마을 경관 향상 방안

- 유채단지 일대에 보다 다채로운 탐방 동선 조성이 필요
 - 현재는 일부 농로 외에 유채단지를 거닐 수 있는 동선이 제한됨
- 사업지구 주변 마을들과 유채단지의 연계 방안 검토
 - 현재 유채단지를 둘러싸고 있는 마을들로 탐방 동선이 이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임.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
 - 예컨대 유채단지 주변 죽정마을에는 전통적인 돌담이 있고 마을 경관도 잘 가꾸어져 있는 등 방문객들이 찾을 만한 요소가 있으나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있음
 - 마을의 전통적인 경관자원을 잘 살려서 보전하고 특히 주택이나 돌담 등 보전 상태가 양호한 경관요소들을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가꾸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 사업 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사업 추진 과정 자체에서는 그다지 큰 문제점은 없음
 - 경관작물의 파종, 개화 과정 자체는 대체로 큰 무리 없이 진행됨
- 공동체 차원의 활동 활성화 필요성
 - 유채단지를 둘러싸고 있는 복수의 마을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만큼 마을 간 협력과 공동활동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로는 마을 간 긴밀한 협력 관계가 형성되지는 않고 있음
 - 사업 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마을 내 주민들 간의 공동활동만이 아니라 마을들 간의 협력과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농촌 환경문화경관 보전 활동 확대 가능성

- 경관작물 재배 이외에도 다양한 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경관 보전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 대상지 일대에는 유서 깊은 마을들이 분포하며 전통적인 경관요소가 다수 남아 있어 경관작물 식재 이외에도 다양한 경관관리 활동을 벌일 수 있음
 - 다만, 이러한 활동을 현 단계에서 바로 진행하는 데는 무리가 있음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역량을 충분히 계발하여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 경관관리 활동 필요성에 대해 주민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학습하고 모범 사례들을 충분히 둘러보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임

5) 관련 현장 사진



유채꽃 군락지와 월출산 경관(1)



유채꽃 군락지와 월출산 경관(2)



유채 군락지를 찾은 방문객



축산 농가와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유채 수확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죽정마을의 경관



인근 구림마을의 전통 담장 경관

12.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연화리

1) 사업 추진 현황

□ 대상지 현황

- 위치: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연화리
- 참여 농가 수: 15호
 - 마을 전체 가구 수는 27호이며, 노령 가구를 제외한 농가는 15호임. 따라서 경관보전직불제에는 마을의 농가 전체가 참여하고 있음
- 참여 면적: 82,500m² (지목은 답)
- 경관작물: 자운영
 - 녹비작물로 약 10년 전부터 자운영을 계속 식재해왔으나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은 2007년(개화는 2008년)에 처음으로 참여함.

□ 경관작물 파종 및 수확 현황

- 종자 파종: 9월말 경 나락이 있을 때 추수 1주일 전쯤에 파종을 실시함.
- 개화기는 4월20일경에서 5월10일 무렵까지임.
 - 벼 수확 과정에서 파종을 해둔 자운영 일부가 손상되기는 했으나 전체적으로 개화에는 큰 문제가 없었음
 - 자운영은 파종 후 배수만 잘 해주면 잘 자라므로 작물 재배와 관련한 어려움은 크지 않은 편임.

□ 지자체 추가지원 현황

- 경관보전직불제 추진과 관련하여 최근에 지자체에서 별도로 규모 있는 지원 사업을 시행하지는 않았음.
 - 경관보전직불 지원 대상지임을 알리는 안내문 설치 등 소액의 지원사업을 제외하면 별도로 지자체에서 시행한 사업은 없음.
 - 마을 아래 보성강변에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과거 군청 지원으로 실시된 바 있음. 소공원에는 정자나무를 중심으로 벤치가 조성되어 경관작물과 연계하여 마을 방문객들이 쉬어갈 수 있음

- 군청 홈페이지에서도 섬진강 기차마을이나 심청마을 등 보다 지명도 있는 자원 위주로 소개되고 있으며 마을의 경관작물 개화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음.

□ 사업 추진 관련 주민 활동 상황

- 경관작물 관리 이외에 축제나 방문객 대상 행사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은 까닭에 주민들의 두드러지는 경관관리 활동은 이루어지지 않음.

2) 사업 만족도

□ 사업 추진 주민 의견

-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을 받음으로써 녹비작물 재배와 경관 형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아울러 마을에 벼농사 이외에는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소득을 얻는 효과도 있음
 - 자운영은 종자대 이외에는 그다지 큰 비용이 들지 않아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임.
- 마을 일대에 다양한 유무형 자원들이 분포하고 있어 경관보전직불제와 연계 개발이 가능함.
 - 신라시대 사찰인 태안사, 신승겸 장군 관련 유적(탄생지, 장군바위와 장군샘, 훈련장소 등), 신도들이 많이 찾는 연화사 등의 문화유산이 분포하며 마을에 화가인 아산 조방호 선생의 거처가 있어 방문객들이 아산 선생을 찾아오기도 함.
 - 이러한 자원들과 경관작물 재배지를 연계할 경우 자연스럽게 탐방로가 형성될 수 있음.
- 다만 마을이 고령화되고 젊은 인력이 부족하여 마을 단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지자체 담당자 의견

- 현 사업지구는 인근의 관광 명소와 인접해 있어 경관 형성의 효과가 높음
 - 고속도로 IC가 있는 곡성군 석곡면에서 구례군으로 가는 도로변에 마을이 위치함.

- 연간 30만 명 가량 관광객이 방문하는 섬진강 기차마을이 약 8km 거리에 있으며, 화엄사는 20km, 송광사는 14~15km 거리에 있음.
- 향후 곡성군에서는 죽곡면 연화리 이외에도 다른 지구에 대해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을 확대해갈 계획임.
- 2008년부터는 곡성군 전체적으로 247ha 면적에 대해 경관보전직불 지원을 받고자 신청함. 대상 작물은 유채, 자운영, 연 등임.
- 특히 명소인 기차마을 주변 88ha 면적에 유채를 식재할 계획임

3) 사업 시행 효과

□ 농가소득 향상 효과

- 자운영을 재배할 때는 종자 파종과 경운 외에 별도의 품이 들지 않으므로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이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됨
 - 사업지구는 벼농사 이외에는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마을임
 - 종자는 kg당 1만 원 가격에 농민이 구입하고 있음 1ha 면적에 약 2kg의 종자가 소요됨
- 다만 경관작물 재배와 연계하여 주민들이 마을 축제 등 별도의 활동을 벌이지 않는 상태여서 직불금 이외에 추가적인 소득 기회를 만들지는 못함

□ 경관 조성 및 농촌 어메니티 증진 효과

- 주민들의 경관관리 활동은 대부분 경관작물 재배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을 받기 이전에도 녹비작물로 자운영을 재배했기 때문에 마을의 경관이나 어메니티 여건 자체는 경관보전직불제 참여 전후에 그다지 두드러진 변화는 없다고 판단됨

□ 공동체의식 함양 및 지역 활성화 효과

- 마을의 농가 전체가 경관작물 재배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경관 관리 활동 필요성을 느끼는 주민이 늘어남 그러나 마을 공동체 차원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음.
- 마을에서는 2007년 무농약재배 인증을 받아 쌀 생산을 하고 있음 그러나 마을에 작목반 등의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도시 소비자와 직접적인 교류는 없는 상황임

- 따라서 경관작물 재배와 연계한 도농교류 활동을 마을 차원에서 추진하지 않고 있음.

□ 경관작물 관련 축제 시행 성과

- 경관작물 개화와 연계하여 별도의 축제를 개최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4) 제도 개선 및 사업 확대 방안

□ 지급 단가의 적정성 및 개선 방안

- 자운영은 농한기를 이용해서 재배되는 동계작물이며 동시에 녹비작물 기능도 하고 있음. 따라서 2008년부터 1ha당 100만 원으로 책정된 지급 단가는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다만 곡성군에서는 섬진강 기차마을 인근을 대상으로 유채 재배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때는 1ha당 100만 원으로 조정될 현행 직불금 수준으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군 관계자의 의견임

□ 사업 대상지역 적합성 및 확대 방안

- 사업지구 주민들은 경관작물 재배를 계기로 마을 단위 경관관리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직불금 지원에도 만족도가 높음. 그러나 경관 분야 활동은 현재로는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음
- 그러나 경관작물 재배 이외에 별도의 공동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함
- 사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경관관리 활동 확대가 필요함
- 마을 주민들은 2007년 경관작물 식재 대상지인 8.2ha 면적 이외에도 추가로 도로 아래 일부 면적(1.5ha)과 마을 뒤 2000평 면적에 대해서도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마을 차원의 경관관리 활동 확대를 전제로 해야 할 것임.
- 곡성군 차원에서는 농촌관광 및 마을 단위 공동체 활동의 기반이 갖추어진 사업지구를 경관보전직불제 지원 대상으로 발굴하는 작업이 필요함
- 녹색농촌체험마을이나 전통테마마을 등 기존에 마을 차원의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 활동 경험이 갖추어진 곳에서 농촌 경관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경관작물 다양화 방안

- 마을 여건상 현재 재배하고 있는 자운영이 경관작물로 가장 적합하며 별도로 고려 중인 작물은 없다는 것이 주민과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임
- 현재와 같이 경관 형성 목적과 동시에 녹비작물 용도로 자운영을 재배하는 상황에서는 다른 경관작물을 식재할 여지가 크지 않을 것임

□ 마을 경관 향상 방안

- 작물 재배 이외에 보다 다양한 경관요소를 포함한 경관관리 활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예컨대 보성강가에 조성되어 있는 마을 쉼터가 관리되지 않고 있음이 공간을 경관작물과 연계하여 휴식장소로 가꾸는 활동이 우선될 필요가 있음 그것은 별도의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임
- 경관작물 식재 대상지 사이로 난 농로를 꽃길로 조성하는 활동도 약간의 지원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추진할 수 있을 것임

□ 사업 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의 목적에 대해 경관작물 재배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많은 주민들이 사업 목적을 소득 보전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음
- 녹비작물 재배와 경관작물 재배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음 그동안 주민들이 녹비작물로 자운영을 10년 가량 재배해왔기 때문에 경관보전직불제 자체의 고유한 정책적 목적에 대해 충분히 공감을 갖고 활동하는 수준까지 이르지 못함.
- 경관관리 활동과 더불어 주민 공동체의 역량 형성을 위한 노력이 병행하여 진행되어야 함.
- 2007년부터 친환경농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마을 차원에서 도농교류나 농촌관광 등을 추진한 경험이 없어 제반 활동 추진에 제약이 됨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관작물 재배를 계기로 삼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수준의 활뿔예컨대 마을 쉼터 풀베기와 휴식 공간 조성 등)부터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함.

- 지자체 차원에서는 마을 공동체 역량 수준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 작업이 필요함

- 농촌 환경문화경관 보전 활동 확대 가능성
 - 농촌의 경관 형성이라는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사업지구 주민들이 경관 보전직불제 참여를 통해 경관활동 필요성을 깨닫고 학습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임.
 - 현재로는 주민들의 농촌개발사업 참여 경험이 적어 개선이나 보전이 필요한 경관요소가 무엇인지 발굴하고 찾아내는 단계에 이르지 못함
 - 현재 마을 대표는 주민들이 고령화되어 일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점이 경관 관리 활동을 보다 다양한 범위로 확대하는 데 가장 큰 제약이라 지적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대부분의 농촌 마을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서 주민과 지자체가 공동의 노력을 통해 극복해야 할 사항임

5) 관련 현장 사진



자운영이 만개한 마을 농지의 모습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 자운영 재배단지



자운영이 개화한 농지와 마을 전경



자운영 재배 농지와 접한 마을 쉼터

13.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금갑리

1) 사업 추진 현황

□ 대상지 현황

- 위치: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금갑리 445번지 외 6필지
 - 바다와 접한 18번 국도변에 대상지가 위치함
- 신청자 수 : 1호
- 참여 농가 수 : 1호
 - 대상지가 마을에 접하지 않고 바다와 면한 도로변 필지에 위치해 있어 해당 토지 소유자 외 인근 마을 주민은 현재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음
 - 법정리인 금갑리에는 연육교로 연결된 접도도 포함되며, 사업 참여자는 접도에 거주하고 있음.
 - 금갑리 주민들은 대개 농업과 어업을 겸하고 있음 주 소득원은 김, 미역, 다시마, 굴 등 해산물 양식임. 사업 참여자 역시 농업과 수산업, 가공업 등의 분야에 종사하며 과거 군의원을 지낸 경력이 있음
- 참여 면적: 31,659m²
 - 사업 참여자 소유의 7개 필지가 지원 대상이며 지목은 대부분 전으로 분류됨. 1개 필지(509m²)만 과수원임.
- 경관작물: 유채
 - 2007년에 처음으로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로 선정되어 유채를 식재하였으며, 그 전에는 경지에 유자나 배 등 과수를 심기도 하고 한약재를 재배하기도 하였음.

□ 경관작물 파종 및 수확 현황

- 경관작물 파종 : 2007년 9월 상순
- 개화기 : 2008년 4월 15~20일 사이에 만개함. 만개기 전후를 포함해서 약 한달 간 개화가 지속됨.
- 수확 : 2008년 6월 상순

□ 지자체 추가지원 현황

- 유채꽃 개화 시기에 맞춰 군청에서는 진도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중요한 지역 관광자원으로 사업지구를 소개함
- 농경지 내에 탐방객이 거닐 수 있는 산책로 조성 작업을 하도록 건설 장비 지원
- 마을 단위로 참여하는 사업이 아니라 개인이 추진하는 활동인 까닭에 지자체에서 별도 사업 연계를 통해 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데는 제약이 있었음

□ 사업 추진 관련 주민 활동 상황

- 대상지는 바다 경관을 조망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을 받기 이전부터 쉴 수 있는 평상과 간이화장실 등의 시설을 개인이 조성해왔음.
 - 특별한 거점시설은 없는 상태이나 사업지구 입구에 '관광농원'이라는 표지석이 조성되어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사업 참여자는 이전부터 관광사업 추진에 관심을 가져왔음.
- 유채 개화기에 방문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개인이 직접 탐방로를 개설하고 벤치, 안내 팸말, 평상 등을 조성함.
 - 유채꽃단지 경관을 감상하는 산책로를 조성하는 동시에 해안으로 내려갈 수 있는 접근로 개설 작업을 벌여서 대략 40분 가량의 탐방코스를 직접 개발함.
 - 사업 참여자가 직접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홍보를 하였으며 사업지구와 인접한 접도 관광지에 방문객 유치를 위한 활동을 벌이기도 함

2) 사업 만족도

□ 사업 추진 주민 의견

- 사업지구는 해안에 접해 있어 유채꽃과 바다 경관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음.
 - 의신면 일원에는 윤림산방, 접도 웰빙등산로, '신비의 바닷길' 등 빼어난 관광자원이 많이 분포하므로 이와 연계한 개발 여건도 좋음
- 그동안 개인이 직접 나서서 유채꽃단지를 명소로 가꾸는 일에 앞장섰지만 향후 진도군청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음

- 경관작물 식재 이외에도 산책로 안내판 조성, 홍보 등의 활동을 개인적으로 추진해왔는데, 유채꽃단지가 인터넷에서 명소로 각광받는 지역 자원으로 부상한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지난 2~3년 동안 개인적으로 작업을 한 결과 일부 시설이 갖추어졌지만 파골라, 화장실 등 편의시설 조성 작업이 앞으로 더 이루어져야 함
- 동계작물인 유채를 재배하지만 밭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업지구 여건상 다른 평야지역과 동일한 직불금 단가 적용은 곤란함
- 밭에서 유채를 재배하면 봄철에 고추 등 다른 소득 작물을 재배할 수 없으므로 벼농사를 짓는 평야지대와 비교해서 경관작물 재배 여건이 상이함
- 따라서 2008년부터 조정되는 100만 원 직불금 규모로는 현 사업지구에서 지속적으로 유채를 재배하는 것이 쉽지 않음

□ 지자체 담당자 의견

- 지자체장과 주민을 포함해서 지역 내에서 경관작물 식재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향후 여건이 좋은 마을을 대상으로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을 더욱 확대해갈 계획임.
- 앞으로 진도군 내에서 추가적으로 10ha 이상 면적에서 경관보전직불제를 시행할 계획임.
- 바닷길이 열리는 모도에서 10~13 농가가 유채 재배에 참여하고자 하며 운림산방이 있는 사천리에서는 더욱 많은 농가가 경관작물을 재배할 계획임
- 진도군과 같은 섬 지역은 밭이 많아 유채 재배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큼
-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유채 식재로 인해 봄철에 다른 소득작물을 재배할 수 없어 손실이 생기기도 함.
- 2008년부터 ha당 직불금이 100만 원으로 조정되면 지자체의 별도 지원이 없을 경우 더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3) 사업 시행 효과

□ 농가소득 향상 효과

- 진도군 사업지구의 1ha당 경관작물 재배 비용은 약 10만 원으로 집계됨.
- 종자대는 총 300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1ha 기준으로는 약 9,400원임.

- 경운비는 150~200만 원이 들었으며, 1ha에 약 54,800원으로 집계됨.
- 제초제는 28만 원이 들었고 1ha 면적에 약 8,800원임.
- 제초(예치기) 비용은 85만 원이며, 1ha 기준으로 26,700원임.
- 탐방로, 안내판, 벤치, 쉼터(평상) 등을 조성하는 데 자비를 추가 부담함
 - 최근 2년 동안 관련 시설들을 조성하는 데 약 200~300만 원을 투자
- 2007년 직불금 단가(170만 원/ha)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원 받은 액수와 투자한 액수가 비슷하게 집계됨.
 - 직불금 액수는 약 538만 원이며, 투자 비용이 약 568만 원(작물 재배 비용이 약 318만 원, 시설 조성비가 250만 원)으로 집계됨.
 - 경관작물 수확이나 방문객 유치를 통해 별도 소득을 올리지는 못했으므로 경관직불제 참여를 통해 농가 소득에 직접 보탬이 되지는 않았음

□ 경관 조성 및 농촌 어메니티 증진 효과

- 지원 대상 부지의 입지 여건이 좋아 경관작물 재배의 결과 나타나는 외부 효과가 높은 편임.
 - 해안도로변에 대상지가 위치하므로 바다 경관을 조망할 수 있음 또한 개화 시에는 도로에서 유채꽃단지가 한 눈에 들어오므로 이 일대를 지나가는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 수 있음.
 - 특히 경관작물 식재 이전에 대상지는 다른 농작물이나 과수를 재배하던 곳이었음을 감안하면 경관보전직불제의 결과 경관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음.

□ 공동체의식 함양 및 지역 활성화 효과

- 유채 단지가 조성된 이후 인터넷 다음(Daum) 카페의 진도군 향우모임인 “내고향진도”에서 사업지구의 개화 모습이 여러 차례 소개되었음 이처럼 온라인 상에서 주민이나 진도군에 연고를 가진 사람들이 지역에 대해 자긍심을 갖는 기회가 마련됨
 - 다만 인근 마을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상황은 아닌 까닭에 경관작물 재배와 연계한 지역 공동체 차원의 활동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있음

- 이 지역 방문객들 중 상당수가 인터넷 상에 유채꽃단지 사진을 게시하면서 4월 중에 진도군에서 방문할 만한 대표적인 명소 중 하나로 인식되게 됨
- 정확한 방문객 수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간접적인 지역 활성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 경관작물 관련 축제 시행 성과

- 경관작물 개화와 연계하여 별도의 축제를 개최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4) 제도 개선 및 사업 확대 방안

□ 지급 단가의 적정성 및 개선 방안

- 현재 사업 참여자는 밭과 과수원 지목으로 이루어진 경작지 여건상 2008년부터 조정될 직불금 액수로는 사업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임
- 벼농사의 전작으로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평야지대와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경관직불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직불금 액수를 조정하는 대안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먼저 진도군에서 경관작물 재배가 지속되도록 추가 지원 의지를 갖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임
- 진도군 전체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현 사업지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자체 나름의 지원책을 우선 도입하여 경관작물을 유지토록 해야 할 것임
- 완도군의 경우에도 관광명소인 명사십리 인근의 논 60ha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직불금(ha당 170만 원)을 지원하여 주민들이 유채단지를 조성토록 유도한 바 있음(2008년 개화).
- 직불금 상향 조정 방식으로 경관작물 재배에 한정되는 대안 마련보다는 다양한 경관관리 활동에 참여토록 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
- 중장기적인 비전이 뒷받침될 경우 사업 참여자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경관관리 활동에 대해 경관협약 방식으로 지원하는 대안 마련이 필요함
- 특히 현재 사업 참여자는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기보다 관광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더욱 관심을 두고 있으므로, 적절한 지원책이 마련된다면 경관작물을 계속 재배할 수 있을 것임

□ 사업 대상지역 적합성 및 확대 방안

- 현 사업지구는 농촌 경관 부문 사업 추진 대상지로 적합한 여건을 갖춤
 - 주변에 연계 가능한 관광자원이 다수 분포하며 이미 많은 관광객이 이 일대를 방문하고 있음.
 - 포구, 해안, 등산로, 해수욕장 등이 마을에 모두 분포하고 있어 연간 낚시 동호인 4만 명, 등산객 10만 명, 해수욕장 이용객 1만 명 가량이 사업지구 일대를 찾고 있음.
 - 진도군 전체적으로도 향후 경관 부문 시책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추진에 적합한 여건임.
- 현재는 마을에서 떨어진 지대에 농지가 위치해 있어 주민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여지가 없음. 향후 사업의 확대 추진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접도 일원은 어촌체험마을 및 정보화마을 사업 등이 실시되는 등 이미 농촌개발사업 추진 경험을 지니고 있음. 그런데 현행 경관보전직불제에는 1명의 주민만이 참여하고 있어 마을과의 연계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음
 - 향후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 명분을 획득하고 사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주민 공동체 차원의 활동과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 경관작물 다양화 방안

- 사업 참여 첫해인 까닭에 현재까지는 유채 이외에 다른 작물을 식재하는 방안에 대해 사업 참여자나 지자체 담당자가 검토해본 바 없음
 - 또한 진도군에서는 2003~4년 무렵 '신비의 바닷길'로 연결되는 모도에 유채단지를 조성한 바 있어, 현 지자체장이 이 지역의 대표적인 경관작물로서 유채를 선호하기도 함.

□ 마을 경관 향상 방안

- 대상지 자체가 마을과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현 사업지구의 경관관리 사업과 마을 경관관리 활동을 바로 연계시켜서 추진하기는 어려움
 - 여건상 현 사업지구에 한정해서 탐방로 정비나 휴식공간과 포토존 정비 편의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우선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임

- 인근 어촌 마을의 경관 정비는 별도의 사업과 연계 하에 추진하는 방안도 있음. 예컨대 난대림과 동백림이 분포하고 희귀 야생화가 서식하는 '접도 웰빙등산로' 일원에 대해서는 산림청의 숲 가꾸기 사업이 2008년 중 계획 되어 있기도 함.

□ 사업 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사업 전반적인 추진 절차 상의 문제나 어려움은 없음
- 다만 현 사업지구와 같이 단일 농가만을 대상으로 경관보전직불제가 시행 될 경우 주민들의 공동활동을 조직하는 데 제약이 있고 활동의 범위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음. 이는 경관보전직불제의 파급효과를 높이는 데도 걸림돌이 될 수 있음.
- 향후 경관보전직불제의 확대 추진을 위해서는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지역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지자체에서 판단하는 과정이 요구됨.
- 현 사업지구와 같이 소수 농가만이 경관보전직불제 지원 대상으로 참여할 경우는 해당 참여자들이 지역에 파급효과를 미칠 만한 사업계획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계획이 지역의 전체적인 비전과 합치하는지 여부를 따져본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임.
- 또한 관련 주체들이 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을 추진할 만한 역량과 재원 투자 여력을 갖추었는지도 고려 사항이 되어야 할 것임

□ 농촌 환경문화경관 보전 활동 확대 가능성

- 현 사업지구의 참여자는 개인 차원에서는 경관작물 식재 이외에 보다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갈 만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됨
- 농사 이외에도 군 의원 활동 경험이 있어 지자체 행정을 알고 있고 여러 가지 개인 사업(수산물 가공 등) 경험을 지니고 있음. 또한 개인적인 대내외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음.
- 따라서 경관작물 식재 이외에 다른 분야의 사업을 확대 추진할 만한 역량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됨

- 다만 마을 공동체 차원의 경관관리 활동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상태로는 한계가 있으며, 별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임.
- 개별 사업 차원에서 진행되는 경관작물 단지 주변 정비사업과 지역 차원의 경관관리 활동은 그 성질을 달리함. 후자의 경우 주민 참여에 바탕을 둔 사업 추진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는 과정을 거쳐야 함

5) 관련 현장 사진



만개한 유채꽃 군락지와 바다 경관



유채꽃 군락지 사이에 조성한 탐방로

모니터링 보고서

- 대구광역시 동구 미대동-
- 경상북도 상주시 이안면 지산리-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성동리-
- 경상북도 영천시 자영면 보현리-
-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산주리-

2008. 1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 창 석

14. 대구광역시 동구 미대동

1) 사업 추진현황

□ 대상지 현황

- 위 치 : 대구광역시 동구 미대동
 - 도농 IC에서 북측으로 약 5km에 위치하고, 909번 지방도와 능선천이 마을 앞을 흐르고 있음
 - 팔공산 도립공원(동화사, 태조왕건과 공산전투), 방짜유기 박물관, 불로그분군, 신수점장군유적지, 갯바위(한기지 소원은 들어줌 등) 등이 인접하여 위치
 - 현재 준농촌지역이며,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
- 농림부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 참여농가수 : 19농가
 - 당초 신청 농가 수는 45농가이며, 이 중 34농가가 구암 팜스테이 체험마을에 참여하는 농가임
 - ※ 구암 팜스테이 체험마을은 공산농협과 대구광역시가 함께 협력적 관광개발모델 창출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전문가 초빙교육, 전통혼례 시연, 장수풍뎅이 체험학습 등의 프로그램을 해당됨. 사업비는 130백만원(국비 50백만, 시비 25백만, 민자 55백만)으로 구성
- 참여면적 : 5.3ha(앞뜰에 위치)
 - ※ 마을 전체 농지면적은 전 35ha, 밭 50ha가 분포하고, 앞뜰에 31ha 위치
- 경관작물 : 자운영

□ 경관작물 파종 및 수확현황

- 파종 : 1차 파종 9월 5일-20일, 2차 파종은 10월 말
- 개화 : 4월 말 - 5월 초 (6월 5일 모내기 추진)
- 수확 : 녹비작물

□ 지지체 추가지원 현황

- 국고지원 비율 대비 지방비 지원 현황: 30%
 - 별도의 추가 지원 없음
 - 친환경농업지구로 지정하여 지원중이며 공산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종자대를 지원하여 총 16ha(경관직불제 참여 면적 5.3ha 포함)에 자운영을 재배

- 사업추진관련 주민활동 상황(재배관리 및 경관관리활동)
 - 팜스테이 활동과 같이 배수로 정비, 마을 대청소, 촌길정비(잡초제거, 2001년 이후) 등을 경관관리 활동을 하고 있음
 - 자운영 동해 방지를 위하여 개인별로 짚덮기를 실시
 - 파종 공동작업을 추진하였지만 벼를 밝고 자운영 종자를 뿌린다는 반대의견으로 인해 추진되지 못하였음

2) 사업만족도

- 사업추진 주민(대표) 의견
 - 선정기준 : 연접농지 기준 완화
 - 전체 호수로 확대하자는 요구가 높지만 경관작물직불제의 연접기준과 경작자의 소유관계 등 관련 규정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실정
- 지자체 담당자 사업추진 주민(대표) 의견
 - 지역주민은 자운영을 벼 수확전에 파종하여 재배하고 있으나 전년도의 경우 벼 도복으로 인하여 재차 파종한 지역은 꽃이 피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문제점 발생
 - 균일한 발아를 위해서는 파종시기와 도복이 중요한데, 올해의 경우 벼 도복으로 인해 발아에 제한이 발생하였음

3) 사업시행 효과

- 농가소득 향상효과
 - 녹비효과에 따른 비료대 절감 등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
 - 2004년 자운영을 도입한 후 330㎡에 1만원 가량의 비료대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
- 경관조성 및 농촌어메니티 증진효과
 - 자운영의 작황이 좋지 않고 비닐하우스 등으로 경관조성 효과가 반감
- 공동체 위식 함양 및 지역활성화 효과
 - 경관작물 대상지 방문객 추정의 경우 구암 팜스테이 마을에 직접적인 상승 효과는 없다고 판단됨

□ 경관작물 관련 축제 시행성과

○ 관련 축제 없음

- 자운영 집단화 이후 사생대회 등 개최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추진되지 못하였음

4) 제도개선 및 사업확대방안

□ 지급 단가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 현재의 지급 단가를 적정한 수준으로 평가하지만 축소된 지원규모(170-100만원/ha)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제시

- 주민들은 더 많은 농가들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사업지구 확대를 희망함

□ 사업대상지역의 적합성 및 확대 방안

○ 구암 팜스테이 체험마을로 지정되어져 있지만 구암팜스테이 체험마을의 운영 및 활성화와 경관직불제의 연계가 미흡한 실정

○ 2004년부터 농협의 자운영 종자대 지원으로 인하여 경관직불사업의 경우 자운영 파종에 따른 녹비효과에 만족하고 있음

□ 경관작물 다양화 방안

○ 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자운영 외에 다른 작물의 도입은 불가능한 실정

○ 탐방로나 마을 안길 가꾸기 목적의 작물 식재는 검토 가능

- 구암 팜스테이 방문객들을 위해 산책로 주변이나 마을 안길에 경작 작물이나 꽃을 식재하여 꽃길을 조성하는 등의 활동은 지원 가능

□ 마을 경관향상 방안

○ 자운영 경관작물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요소(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관리 필요

□ 경관조성 및 유지관리 등 사업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마을 주민들이 주로 녹비효과 차원에서 자운영 경관작물을 파종하고 있어 마을경관 향상과 구암 팜스테이 체험활동 등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

□ 농촌환경문화경관보전 활동까지 확대할 경우 적지 여부

- 북측의 팔공산과 남측의 문암산으로 둘러싸인 분지형 경관이고 마을 앞뜰에 경관작물재배지인 경작지가 분포하는 등 시각적 접근성과 개선효과는 높을 것으로 기대
- 주민들도 자운영 파종의 확대를 희망하고 있는 등 지구단위 협약의 대상으로서 잠재력은 높지만, 경관보전직불제의 현행 토지소유 및 연접규정 등으로 인해 지구화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

5) 관련사진

사업명	2007년 경관보전직불제		
장 소	대구 동구 구암마을(자운영 전경)	일 시	2008. 5. 9
			
			

15. 경상북도 상주시 이안면 지산리

1) 사업 추진현황

□ 대상지 현황

- 지구명 : 지산마을 지구
- 위 치 : 경북 상주시 이안면 지산리 일대
- 면 적 : 10ha(논 98,977m², 밭 5,507m²)
 - '07년 8.5ha에서 '08년에 10ha로 확대하였고, 해바라기 1ha도 추가
- 작물명 : 백련(하계 104,484m²)
- 참여농가수 : 22농가 22명

□ 경관작물 파종 및 수확현황

- 경관작물 식재 : 2008. 5월 초 · 중순
- 재배관리 : 2008. 4 ~ 10월
 - 작물생육에 적정한 시비 및 제초작업
 - 작물 병충해 방제작업
 - 작물생육에 양호한 토양 수분 조건유지 관개 및 배수작업
- 수확현황

지구명	시행실적(㎡)		'08시행면적	연계프로그램	방문객	소득창출 (백만원)
	국고	지자체				
지산마을	84,277	20,207	113,570	1사1촌운동	20,000	40

□ 지자체 추가지원 현황

- 경관보전직접지불제사업 직불금 : 3,435천원('07)
 - 면 적 : 20,207m²(논 : 15,728m², 밭 : 4,469m²)
 - 직불금 : 3,435천원(논 : 2,676천원, 밭 : 759천원)

- 쌀 소득차액보상금 지원 : 22농가 38,181천원('07, 지방정부 자체 재원)
 - '07년도에 쌀농사에서 연 경관작물로 전환하면서 쌀 생산량 소득의 차액 (74.6만원/ha)을 일정정도 지원하였음 현재 면사무소에서 3년 동안의 시정부에 예산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확정되지 않은 상태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인센티브 지원: 가구당 120천원
 - 22농가 2,640천원
- 국고지원비율 대비 지방비 지원 현황
 - 국비보조 : 14,327천원, 지방비보조 : 44,256천원

□ 사업추진관련 주민활동 상황 (재배관리 및 경관관리활동)

- 논둑제초작업에 제초기(2대, 4-5명)를 월 1회 사용하는 등 재배 및 경관 관리 비용으로 40-60만원/ha 소요

2) 사업 만족도

□ 사업추진 주민(대표) 의견

-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FTA협정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에 적극 대처할 수 있고,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로 선정되어 농가소득 향상 기여는 물론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 벼를 재배하여 발생하는 수익률 대비 경관작물 재배 수익률이 높아2008년에도 경관작물재배 더욱 활성화 할 계획임

□ 지자체담당자 의견

- 농산물 수입개방에 적극 대처하고자 시행한 경관작물 재배로 농가의 소득 창출 효과가 있음
- 웰빙시대에 부응하는 기능성 식품 개발 먹거리 제공 및 관광자원화 기여

- 도시민(관광객)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휴식공간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한방산업단지 연계 관광산업육성 활성화로 관광객 유치 상주이미지 제고

3) 사업시행 효과

□ 농가소득 향상효과

- 연 관련 제품(연비누, 연국수, 연잎차) 개발 홍보, 판매하고 있으나, 홍보에 한계가 있어서 농가소득 연계는 미흡한 실정
- 2007년 연제품(국수, 비누, 생화, 잎 등) 판매실적 : 40백만원(판매액)
 - 농민신문에 종근분양 광고를 게재하여1,200만원(3,000-5,000원/축)의 소득을 확보
 - 면사무소에서 연 시범포(10종)인 연 하우스를 운영하여 품종범식과 연 종근 (15-20축) 분양을 추진중
 - 2008년 연꽃과 연잎의 장기 보관을 위한 저온저장고(10평)을 마을회관에 설치할 예정이고, 상주대학교에 건연화(연꽃을 말려 꽃을 보는 효과를 높이는 작업)를 의뢰한 결과 200송이에 15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산정

□ 공동체의식 함양 및 지역활성화 효과

- 경관작물 대상지 방문객 30,000여명(5월 말-9월 중순) 방문 예정으로 상주 이미지 제고
- 무농약 친환경재배로 안전한 먹거리 확보 및 백련 제품 개발 및 상품화로 부가가치 제고
- 경관작물 대상지 지역활성화를 위한 편의 및 판매시설 설치 확대
 - 지산2리에 주차장, 파라솔(시비, 기술센터), 정자(시비, 산림과), 화장실 등에 8,000만원을 지원, 진입도로(800-900m) 정비와 연 전문식당 개설을 추진중
 - 문창리의 경우 연 탐방을 위해 정자와 데크시설을 주민 자율적으로 설치

4) 제도개선 및 사업확대 방안

지급단가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 농가소득보전 차원에서 ha당 3,000,000원 확대지원 요망

경관작물 다양화 방안

- 2008년에 연 경관작물지 경계부 밭에 해바라기를 식재(1ha)하여 농촌경관을 더욱 아름답게 유지·개선하고 다양한 볼거리 제공
- 연 경관작물지 중앙의 경작로에 관상식물 식재(수세미, 호박 등) 통한 자연친화적 환경을 도시민 및 탐방객들에게 제공

마을 경관향상 방안

- 마을의 경관향상을 위해 연꽃절정기 주1회 청소 실시
- 마을주민 자율로 관상식물수세미, 호박, 초롱박, 별꽃을 식재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
- 꽃길, 담장, 정자 등에 경관작물이나 꽃을 심어 경관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경관 조성 및 유지·관리 등 사업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경관작물단지 관리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촌일손돕기 활성화 관리인력 배치 등 필요
- 연 제품 판매 홍보 전문요원 양성 적극적 판매활동으로 농가에게 직접적인 소득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 요구됨
- 연 제품 생산시설 및 부대시설 비용 등 지원 요구

농촌환경문화경관보전 활동까지 확대할 경우 적지 여부

- 경작지경관, 마을내 및 주변경관, 역사문화경관(안룡저수지, 함창 향교, 명주 박물관)등이 조화를 이루어 지구단위 경관 협약이 가능한 지역이고
- 주민들 스스로가 소득을 창출하고자 노력하는 의지가 강함

5) 관련 현장사진



1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성동리

1) 사업 추진현황

대상지 현황

- 위 치 :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성동3리
- 참여농가수 : 12호(대상마을 총 농가수 32호) - 참여율 38%
- 참여면적 : 60,000m²
- 작물명 : 유채(동계)

경관작물 파종 및 수확현황

- 경관작물 파종 : 유채 1차 10월말, 2차 3월말
- 수확현황 : 4월말 ~ 5월 중순, 꽃 감상과 유기농 거름으로 활용

지자체 추가지원 현황

- 지원액 : 10,200천원(국비 7,140, 시비 3,060)
- 지원율 : 국비 70%, 시비 30%

사업추진관련 주민활동 상황 (재배관리 및 경관관리활동)

- 대형트랙터 동원하여 공동파종
- 잦은 강우 대비 배수로 확보
- 겨울생육기 동해로 작황이 좋지 않아 재파종 하여 관리

2) 사업 만족도

사업추진 주민(대표) 의견

- 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녹색농촌체험마을, 팜스테이, 전통혼례)에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농외소득인 체험마을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됨과 주민 화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지자체 담당자 의견

- 녹색농촌체험마을에 경관작물을 재배함으로써 내방하는 도시민들에게 아름다운 농촌풍경과 추억을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은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됨으로써 지속적인 확대추진이 필요

3) 사업시행 효과

농가소득 향상효과

- 금년에 유채꽃 축제도 계획하였으나 작황이 좋지 않아 사업을 통한 실질적인 주민소득 향상효과는 미약하였으나 지속적인 녹색농촌 체험행사, 전통혼례 등 농촌관광사업을 통하여 점차로 주업인 쌀농사에 농외소득 증대향상이 기대됨

경관조성 및 농촌어메니티 증진효과

- 유채를 재배하므로써 농촌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 농촌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어 농촌체험행사와 더불어 효과 증대

공동체의식 함양 및 지역활성화 효과

- 농촌체험행사, 전통혼례행사 등 방문객이 500여명 정도 방문하였으나 금년 작황이 좋지 않아 호응도가 낮았으며, 1/4분기 농특산물판매 소득액이 9백여 만원으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음
 - 농촌체험행사에 200명, 전통혼례행사에 300명 등 500명 방문
 - 1월부터 3월까지 730명(1월), 615명(2월), 315명(3월) 등 총 1660명 방문

경관작물 관련 축제 시행성과

- 경관이 아름다운 유채꽃 개화기에 전통혼례행사를 개최 300여명이 방문하여 마을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

4) 제도개선 및 사업확대 방안

지급단가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 '07년 지급단가가(170만원/ha당)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08년 사업도 현 수준으로 지급되길 희망

- 사업대상지역 적합성 및 확대방안면적기준 등)
 - 2006년 녹색농촌체험마을, 2007년 팜스테이로 선정되어 지속적인 체험 방문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관보전직불제사업 적지라 판단됨.
 - 2007년 6ha에서 2008년 10ha로 확대할 계획임.

- 경관작물 다양화 방안
 - 기후와 지역특성(토양, 토질등)을 감안 현재까지 성동지구에서는 유채가 가장 적합한 작물이라 판단됨

- 마을 경관향상 방안
 - 전통담(토담)쌓기와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여 복개된 실개천을 복원시켜 아름다운 경관조성
 - 지붕(컬러강판) 개량 및 도색, 돌담설치, 전봇대 매립, 황톳길 설치 등 요구
 - 돌담(1.2m*10m) 설치를 위해서 150-200만원의 비용 필요
 - 마을방문객을 위한 도로변 및 마을 주변 풀베기 폐농자재 수거 등 공동작업 실시

- 경관 조성 및 유지·관리 등 사업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일반적인 행정 절차에 따른 문제점은 거의 없으나 농촌인구 고령화와 일반 경제작물처럼 관리에 따른 애착을 갖지 않는 등 농업인들의 인식이 낮아 작황부실로 이어질 경우가 높아 경관보전 마을 대상을 대상으로 재배관리 기술 자료, 현지방문 교육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농촌환경문화경관보전 활동까지 확대할 경우 적지 여부
 - 성동지구 마을에 광남서원 등이 있고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높아 농촌환경 문화경관보전 활동까지 확대할 경우 적지라 판단됨

5) 관련 현장사진

사업명	2007년 경관보전직불제		
장 소	구룡포읍 성동3리(성동지구)	일 시	2008. 5. 2(금)



유채밭 전경(1)



배수로 설치

사업명	2007년 경관보전직불제		
장 소	구룡포읍 성동3리(성동지구)	일 시	2008. 5. 2(금)



유채밭 전경(2)



작황부진으로 재파종

17. 경상북도 영천시 자영면 보현리

1) 사업 추진현황

대상지 현황

- 위 치 : 경북 영천시 자영면 보현2리
 - 영천댐 상류지역으로 보현산 천문대가 있는 보현산(1,124m), 기룡산(961m) 사이의 산간지역에 위치
- 참여 농가 수 : 21호(신청자수 21명)
- 참여면적 : 60,000m²(38필지)
- 작물명 : 유채(동계작물)
 - 특산품으로 산나물, 약초(어성초, 인진쑥, 오가피 등), 약초 청주가 생산됨

경관작물 파종 및 수확현황

- 경관작물 파종 : 2007년 9월 하순경 파종
 - 9월 20일 이전에 파종하여야 월동에 무리가 없지만 벼수확 시기와 맞지 않음
- 수확현황 : 4월말 ~ 5월 중순, 작황은 불량한 실정
 - 기후 조건과 재배 기술 및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해 월동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판단

지자체 추가지원 현황

- 지원액(사업비) : 10,200천원(국비 7,140, 시비 3,060)
- 추가 지원 : 정월대보름 행사(3월) 지원액 3,000천원, 산나물 축제 행사(5월) 지원액 5,000천원 등 총 8,000천원

사업추진관련 주민활동 상황 (재배관리 및 경관관리활동)

- 생육초기 발아 및 상태가 양호하였고 경지정리 지구라 배수로에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동해 등으로 인해 발아율이 떨어져 봄에 대파하였음
 - 월동을 위한 비료주기와 쪼갬기 등이 필요한 것으로 설명

2) 사업 만족도

□ 사업추진 주민(대표) 의견

- 동계 농외소득 및 농촌경관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주민들은만족하고 있으나 영천댐의 영향으로 기온이 평균 이하로 떨어져 받아들여 낮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정됨

□ 지자체 담당자 의견

- 자양면 보현리는 농림부 지정 '04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별빛축제, 전국전원생활박람회, 정월대보름 축제, 보현산 산나물 축제 등 각종 축제행사를 치르는 곳으로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이 위의 축제와 연계하여 도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농가에는 농외소득 증대에 꼭 필요한 사업이나 작물 파종시기 및 재배관리 측면에서 교육을 받는 등 노력이 필요함

3) 사업시행 효과

□ 농가소득 향상효과

가. 방문객

(단위 : 명/연인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11월		
	계	내국인	외국인	계	내국인	외국인	계	내국인	외국인
계	2100	2100	0	51443	51446	0	41382	41382	0
숙 박	350	350	0	1837	1837	0	9053	9053	0
비숙박	1750	1750	0	49609	49609	0	32329	32329	0

나. 조수입

(단위 : 천원)

2005년				2006년				2007년 11월			
계	숙식	특산물 판매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계	숙식	특산물 판매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계	숙식	특산물 판매	체험 프로그램 운영
193,000	12,800	1,500	5,000	67,248	38,783	16,065	12,400	357,932	1,837,680	150,475	23,689

□ 경관조성 및 농촌어메니티 증진효과

- 전형적인 농촌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 농촌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

□ 공동체의식 함양 및 지역활성화 효과

- 경관작물 대상지 방문객 추정: '08년 1/4분기 1386명 정도
- 호응도 : 양호
- 경제적 효과

기간	방문객수(명)			매출액(천원)			
	민박	비민박	체험관광 관련 프로그램 운영	체험관광 관련 프로그램 운영	민박운영	농특산물 판매	기타 (식대 등)
2008년 1/4분기	396	990	990	1,905	3,284	5,260	10,116

□ 경관작물 관련 축제 시행성과

- 제4회 정월대보름 한마당 개최
 - 도시민으로 하여금 아름다운 농촌사회의 전통문화 체험기회 제공 및 미풍양속 재현이 목적임
 - 2008년 2월 21일 정월대보름날에 보현청소년 야영장에서 개최
 - 기관단체장 및 자매결연 기업체 주민 등 500명 정도 참여하였고, 도시민이 300명 정도 참여한 것으로 파악
 - 소요예산은 5,000천원(시지원 3000, 자부담 2000)으로 진행
 - 2008년 대보름을 맞아 전통문화 및 미풍양속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명절 분위기를 고취하고 도시민들을 초청하여 농촌문화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잠재적 고객확보 및 도농교류의 장을 마련

4) 제도개선 및 사업확대 방안

□ 지급단가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 동계작물일 경우 보조금 지급시기 및 이행여부 확인시 제재기준을 판단하는데 주민간의 애로사항이 있음

- 사업대상지역 적합성 및 확대방안면적기준 등)
 - 사업대상 선정시 지역 축제와 연계하여 도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경관을 보여줄 수 있는 지역이면 대상지역신청시 가능하게 하고 집단화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경관작물 다양화 방안
 - 현재 동계작물의 경우 유채와 자운영 정도로 한정되어 있고 재배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최근 애그인플레이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들을 위해 동계 작물 중 사료작물 재배방안도 고려할 필요
- 마을 경관향상 방안
 - 마을의 경관향상을 이해서 우선적으로 마을 주민 대상으로 경관작물 재배 관리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함
 - 경관작물 개최기에 맞추어 마을축제 및 마을정비사업 실시
 - 경관을 연계한 농촌상품개발 등 농외소득 증대방안 모색
- 경관 조성 및 유지·관리 등 사업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대상지 신청 및 선정, 협약체결 등 절차가 복잡하고 사업지역내 재경부나 환경부 소유의 농지가 있을 경우 무상으로 경관작물을 식재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고려할 필요
- 농촌환경문화경관보전 활동까지 확대할 경우 적지 여부
 - 현재 영천시 보현리의 경우 동양최대인 보현산 천문대와 포항시민이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잇는 영천댐 상류지역으로 '04 농림부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정 및 '07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선정등으로 주민들의 참여의식과 의지가 높음
 - 또한 마을진입도로를 중심으로 농경지가 선형으로 배치되어져 시각적 접근성이 높고 집단화할 경우 경관개선효과가 높을 수 있음
 - 농촌환경문화경관보전활동까지 확대할 수 있는 물리적·사회적 여건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되나, 유채의 작황이 좋지 않아 미기후 등을 충분히 고려한 경관작물의 선정과 재배기술 및 경험의 제고가 필요
 - 만대산 방문객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계곡부 농경지에 경관작물을 지구화하여 과중하고 있어 농촌환경 및 문화경관의 개선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판단

18.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산주리

1) 사업 추진현황

□ 대상지 현황

- 위 치 : 경북 고령군 쌍림면 산주리 (2005년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
- 참여농가수 : 16호(대상마을 총 농가수 65호) - 참여율 24%
- 참여면적 : 39,315m²
- 작물명 : 자운영(동계)

□ 경관작물 파종 및 수확현황

- 경관작물 파종 : 2007년 10월 22일(10월 2일 종자구매)
- 수확현황 : 4월말 ~ 5월 중순, 작황은 불량한 실정
 - 재배기술과 경험 부족 기후 조건 등으로 인해 월동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판단
 - ※ 경운기로 로타리 치면서 파종을 할 경우 종자가 밑으로 들어가 발아가 늦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월동기 전에 비료를 한 번 뿌리고 쟁기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특히, 골짜기일수록 1모작이 일찍 들어가서 자운영 관리시기와 맞지 않는 경향이 있음
 - '06년에는 유채, '07년에는 자운영을 재배하였고 올해 작황이 좋지 않아 '08년도에는 신청하지 않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

□ 지자체 추가지원 현황

- 지원액 : 6,683,510원(국비 4,679,000, 군비 2,004,510)
- 지원율 : 국비 70%, 군비 30%

□ 사업추진관련 주민활동 상황 (재배관리 및 경관관리활동)

- (주)덕창농축산(경기도 소재) 종자구입 : 8포(20kg) / 종자대금: 560,000원
- 비료살포기로 벼 베기 전 공동파종 후 로타리 작업 실시

2) 사업 만족도

사업추진 주민(대표) 의견

- 2005년도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 2006년도 사업추진으로 그해 10월 개원하였으며 관광마을로 육성하여 농산물 판매 농촌 체험 등으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농촌 경관 조성에 열의를 다하였으나 자운영 파종 시기를 놓쳐 본 사업이 성공적이지 못하였기에 주민 모두 반성을 하고 다음에 본 사업이 마을에서 시행 될 시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알찬 계획을 세우겠다는 각오를 보임

지자체 담당자 의견

- 녹색농촌체험마을에 경관작물을 재배함으로써 관광마을 체험마을로 육성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선용 등 볼거리를 제공함과 동시 농산물판매 등으로 주민에게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본 사업의 지속적 확대추진이 요구됨

3) 사업시행 효과

농가소득 향상효과

- 본 사업이 성공적일 경우 녹색농촌체험마을로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되어 농가소득과 직결될 수 있으나 본 마을은 2007년도 사업이 미흡하여 금년에는 실질적인 농가소득 효과가 미비함

경관조성 및 농촌어메니티 증진효과

- 전형적인 농촌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 농촌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어 증진 효과는 월등함

공동체의식 함양 및 지역활성화 효과

- 2007년도 본 마을을 찾은 관광객은 900여명 정도이며 금년부터 알찬 프로그램 운영으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음.

경관작물 관련 축제 시행성과

- 없음

4) 제도개선 및 사업확대 방안

지급단가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 동계작물일 경우 지급단가(170만원/ha당)가 적절하나, 하계작물일 경우 다소 지급단가가 낮다는 견해임
- 휴경지, 유휴지, 공한지에 활용할 경우 현재 지급단가 수준은 적합한 것으로 평가

사업대상지역 적합성 및 확대방안면적기준 등)

- 2005년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되어 경관보전직불제사업 적지라 판단되나 2007년도 본 사업 실패와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열의가 부족함으로 추진이 잘된 마을에 견학, 주민 의식변화 후 본 사업에 참여코자 2008년도 경관보전직불제본사업 미신청하였음

경관작물 다양화 방안

- 농경지 외곽의 휴경지, 유휴지, 공한지 등에 야생화 단지를 만들어 운영할 필요

마을 경관향상 방안

- 2008년 ~ 2009년 6월까지 마을 전체 하수도 설치공사 및 하수처리시설로 쾌적한 농촌, 깨끗한 마을 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경관 조성 및 유지·관리 등 사업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농촌인구 고령화와 주민들의 경관보전 사업 인식도가 낮은 것이 사업 실패의 원인이 되며 농가소득과 직결 되지 않으므로 사업에 대한 열의가 부족하여 대상마을 참여 주민의 의식 변화가 요구됨

농촌환경문화경관보전 활동까지 확대할 경우 적지 여부

- 2008년도에 본 사업의 성공 마을 견학 등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증대 후 결정할 사항임
- 만대산 방문객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계곡부 농경지에 경관작물을 지구화하여 과종하고 있어 농촌환경 및 문화경관의 개선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판단

5) 관련 현장사진

사업명	2007년 경관보전직불제		
장 소	고령군 쌍림면 산주리	일 시	2008. 4. 23
			
			
			

19.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각사리

1) 사업 추진현황

대상지 현황

- 가야면 각사마을은 해인사에 인접하며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
- 가회면 대기마을은 황매산 군립공원(영암사지 삼층석탑)의 남측 계곡부에 위치

시.군	위 치	신청자수	참여농가수	참여면적	경관작물	비고
계	2개소	27	27	121,830㎡		
합천군	가야면 각사	17	17	84,765㎡	유채	
	가회면 대기	10	10	37,065㎡	유채	

경관작물 파종 및 수확현황

- 파종결과 : 가야('07.10.26~11.4), 가회('07.11.2~11.3)
- 수확현황 : '08. 5. 9일 현재 미수확
 - 각사마을은 작황이 불량하고 대기마을은 작황이 다소 불량

지자체 추가지원 현황

- 국비 48%, 지방비52%(도비26%, 군비26%)

사업추진관련 주민활동 상황(재배관리 및 경관관리활동)

- 협약에 정한 재배관리

2) 사업 만족도

사업추진 주민(대표) 의견

- 깊이갈이 및 봄가뭄으로 인해 작황이 나빠 생육상태 불량
 - 유채 작황이 좋지 않는 등 사업추진 효과가 낮고 소득을 기대할 수 없다는 등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가야면 각사마을)
 - 올해는 작황이 좋지 않지만 마을 경관개선 및 탐방객 만족도가 높은 등 사업 추진효과를 기대하고 있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가회면 대기마을)

지자체 담당자 의견

- 전년도에 비해 작황 불량으로 경관을 기대할 수 없어 도시민 체험활동과의 연계 미약(가야면 각사마을)
- '08.5.9일 현재 작물(유채)의 꽃이 지는 상태로 경관작물로서의 기능을 다함(가회면 대기마을)

3) 사업시행 효과

농가소득 향상효과

- 전반적으로 타 작물과 비교 큰 소득효과 없음

경관조성 및 농촌어메니티 증진효과

- 농촌체험과 연계하지만 실제 연계효과는 미비한 실정임

공동체의식 함양 및 지역활성화 효과

- 사업초기라 별 성과를 올리지 못함

경관작물 관련 축제 시행성과

- 마을내 녹색농촌체험과 연계한 경관조성 효과
- 체험마을주변 경관조성으로 마을 이미지 상승 효과를기대하고 있지만 작황 불량 등으로 인해 실제 이미지 및 경관개선효과는 낮은 실정임

4) 제도개선 및 사업확대 방안

지급단가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 '07년도에 비해 '08년도 사업비 지원축소로 재배관리 애로가 있으므로 별도 자재비, 관리비 지원이 필요함

사업대상지역 적합성 및 확대방안면적기준 등)

- '07년도에 비해 '08년도 사업비 지원축소로 재배관리 애로가 있으므로 별도 자재

□ 경관작물 다양화 방안

- 농업활동에 자운영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어 유채 외의 다른 작물로 조정하기 어려움(가야면 각사마을)
- 마을도로(안길)와 주차장, 군립공원 탐방로 주변에 꽃을 식재하거나 경관작물을 식재하여 경관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가회면 대기마을)

□ 마을 경관향상 방안

- 마을의 경관향상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사항
 - 참여주민 교육 및 컨설팅 등 의식전환(지자체 담당자 타업무 과중으로 지도역부족)
 - 마을 중앙에 위치한 농기계 창고 및 수리센터의 색채를 조정할 필요(가야면 각사마을)

□ 경관 조성 및 유지·관리 등 사업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가야면 각사마을의 경우, 주민들의 경관보전 사업 인식도가 낮은 것이 사업 실패의 원인이 되며 농가소득과 직결 되지 않으므로 사업에 대한 열의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대상마을 주민의 의식변화와 녹색농촌마을과의 연계 필요)
- 가회면 대기마을의 경우, 농촌인구 고령화와 주민들의 경관보전 사업 인식도가 낮은 것이 사업 실패의 원인이 되며 농가소득과 직결 되지 않으므로 사업에 대한 열의가 부족하여 대상마을 참여 주민의 의식 변화가 요구

□ 농촌환경문화경관보전 활동까지 확대할 경우 적지 여부

- 가야면 각사마을의 경우, 주민 참여 의지가 다소 낮고 녹색체험마을과의 연계가 미흡하여 농촌환경문화경관보전 활동까지의 확대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 가회면 대기마을의 경우, 황매산 군립공원의 칠쭉축제와 벚꽃 가로수, 유채꽃 등이 연계되어 경관개선효과가 높고 계곡부에 위치하여 지구화에 유리한 입지조건을 지니고 있음

5) 관련 현장사진

○ 가야면 각사마을(깊이파종 및 가뭍으로 발아불량)



○ 가야면 각사마을(유채꽃 개화후 지는 상태)





유채꽃 만개시기에 사업지구를 찾은 방문객들



대상지 일대에 개인이 조성한 각종 시설(벤치, 풋말, 쉼터 등)

모니터링 보고서

-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적량리-
-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왕지리-
-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두모리-
-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백운리-
-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대포리-
- 경상남도 의령군 궁류면 평촌리-
-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오천리-

2008. 12.

한국농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엄 대 호

20.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적량리

1) 사업 추진현황

대상지 현황

구분	위치	신청자수	참여자수	참여농가수	참여면적	경관작물	비고
적량마을	남해군 창선면 적량리	4	4	4	3.9ha	유채	

경관작물 파종 및 수확현황

○ 유채씨 수확 판매

구분	위치	경관작물	면적(ha)	파종	수확
국비지원	남해군 창선면 적량리	유채	3.9	'07. 10월	'08. 5월

지자체 추가지원 현황

○ 경관작물 ha당 지원비 : 2,500천원

※ ha당 국·도비 지원액 : 국비 1,190천원, 지방비 1,310천원

사업 추진 관련 주민 활동상황

- 경관작물 식재를 위한 경운 파종, 수확 및 정리 작업을 마을주민 공동으로 수행
- 경관농업으로 수확한 농산물을 농촌체험관광과 연계 공동 판매
-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음식을 공동으로 만들어 판매 마을 공동 수익 창출
- 올 여름에는 다양한 꽃을 심어 출향 문인 예술인과 함께 한여름밤 음악축제를 계획중에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경관식물제와 연계한 체험 축제 등을 발전시켜나갈 계획에 있음.

2) 사업 만족도

사업추진 주민(대표) 의견

- 본 마을은 2007년도에 '해비치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되어 2억원의 예산으로 친환경농업 체험장, 다목적 야외 체험장, 바다체험용 뗏목 등 체험시

설을 비롯한 산책로, 공동체험관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도시민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음.

- 본 지역은 작년까지 고령화로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 휴경상태였으나 경관보전직불금 지원으로 농지로 회복시켜 유채농사를 지었음
- 휴경지를 농지로 복구시켜 농사를 짓다보니 경작비용이 많이 들어갔음
- 전체 비용은 58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풀베기, 로타리작업 등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었으며, 구체적 내역을 보면 트랙터 2일 35만원이 들어갔으며, 풀베기에 인건비가 12만원(1일 일십만원+2만원)이 그리고, 예치기(사람 + 장비) 작업, 점심대, 기름유류대, 예치기 톱날 등에 비용이 들어갔음 유채농사를 마치고 벼농사를 위해 묘내기 하기 위해 로타리작업을 해주는데도 비용이 소요되고, 일부는 갈아엎었지만 일부는 수확을 하기 때문에 수확하는데도 수확인건비가 많이 소요되었음
- 경관보전직불금으로 경종작업, 수확 및 관리 작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부족한 실정이므로 다른 경관보전 활동은 하기가 어려움
- 경관보전직불금으로 유채를 심고 홍보를 하니, 어디서 알고 찾아왔는지 모르지만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왔으며, 관광객들의 유형은 가족단위로 오는 경우가 많고 관광버스도 하루에 십여대가 오는 경우도 있었음
- 많은 관광객들이 오지만 방문하는 것으로만 그치고 상품을 구입한다든지 숙박을 하는 경우가 없어 돈과 연계가 되지 않는 점은 아쉬움이 있음
-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반응은 경관이 좋은 아름다운 바다와 동네뒤의 산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유채밭 경관이 형성됨으로써 감탄을 하는 등 만족감을 나타냄
- 유채만 심어놓다보니, 조망대, 야외화장실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불만이 있음
- 작년에 체험마을사업을 마치고 경관보전직불금으로 유채를 심어 올해 봄까지만 해도 방문객수가 1천명을 넘어섰음. 본 지역은 남해한려수도 관광지로 주변의 볼 만한 자연경관, 관광거리가 많아 주변 지역을 가는 길에 들리는 경우가 많음
- 올해는 유채꽃과 연계하여 축제를 개최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유채꽃 필 쫓에 축제가 있어야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생각됨

- 본 마을의 특산물로는 홍합과 고사리가 있는데 홍합으로 마을 전체적으로 소득을 2억정도 올리고 있고, 고사리로는 마을 전체적으로 4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음. 이러한 마을 특산물이 전국에 알려져 MBC전국시대에 방영된 적도 있음
- 이 마을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젊은 사람들은 들어오지 않아 고사리밭을 공짜로 경작을 하도록 해줘도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려 들어오지 않음
- 본 마을의 총가구수는 127가구인데, 빈집이 무려 22호에 달함
- 이 마을사람들은 바다고기 낚시를 많이 하여 어업소득도 올리고 있으므로 체험프로그램으로 뗏목을 이용한 낚시체험을 개발 할 계획인데 사람 실어나를 수 있는 배를 검사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허가가 날 것임
- 체험프로그램은 향우회 중심으로 운영을 하면 운영이 잘될 것으로 생각됨
- 본 마을의 주 소득원 중의 하나인 바다낚시의 경우는 낚시하는 사람중 큰 배를 가진 사람은 5-6천만원 소득을 올리고, 2톤정도의 배를 가진 사람들은 2~3천정도의 소득을 올림
- 이 마을에는 양식장도 있으나 일을 할 젊은 사람들이 없어 남아돌고 있는 실정임
- 이 마을의 특산물인 건고사리는 전국적으로도 이름이 있어1톤당 45천원에서 5만원까지 받고 직판을 하고 있으며 농협수매가만 하더라도 41천원에 달하여 산에 고사리를 심어면 돈이 되지만 고령화로 더 이상 할 수가 없음 해마다 좀 나이가 젊은 사람한테 경작을 주고 있으나, 농사지를 사람이 부족하여 외지인들한테 고사리 밭이 평당 4만원정도에 팔리기 있음.
- 고사리는 고사리국수로도 개발중에 있으며 고사리는 일반적으로 정력 감퇴제로 알려져 있으나, 연구결과로는 영양가가 많은 것으로 나왔음. 고사리는 특히 단백질, 유기질이 많아 다이어트 식품으로 연구결과가 나왔음. 특히, 고사리를 갈아서 만든 분말은 맛이 좋아 고사리국수를 만들면 상품화가 성공할 것으로 생각되나, 고사리가 비싸기 때문에 얼마의 적정 고사리를 넣어 고사리국수를 만드는가가 관건이므로 고사리국수를 만들 때 얼마의 비율로 해야하는지 연구를 하고 있음.
- 이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체험거리는 일반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고사리 꺾기 체험을 개발하여 체험관광과의 연계를 계획하고 있음

- 이 마을의 체험프로그램으로는 뗏목체험 돌이 많은 해변이기 때문에 해삼찾기, 고동잡기, 해초따기, 수생식물 교육, 생태체험, 조류생태학습 등이 있음
- 경관보전직불금은 1년에 2회밖에 지원이 되지 않는데 4번까지도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좋겠음
- 앞으로 유채를 수확한 후에는 계단식논의 특색을 이용하여 다양한 꽃을 심어 특색 있는 경관을 조성할 계획에 있음 올해는 금국을 파종할 계획에 있음
- 이 지역에 자라는 특색 있는 수종인 이판나무는 꽃피는 기간이 길고 아름다우므로 경관보전직불금의 지원도 필요함
- 하천정비, 배수로정비 시에도 지원을 하면 하천을 정비하여 참게를 서식시켜 체험용으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을발전에 도움이 될 것임
- 올 여름에는 다양한 꽃을 심어 출향 문인 예술인과 함께 한여름밤 음악축제를 계획중에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경관직불제와 연계한 체험 축제 등을 발전시켜나갈 계획에 있음.

□ 지자체 담당자 의견

- 휴경지였던 본 지역이 아름다운 유채꽃을 볼수 있는 경관농업관광지로 변모하게 된 것은 경관보전직불제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음 본 지역은 경사지라 경작비용이 많이 들고 적정 작목을 경작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한데 마을 인구의 고령화로 농사지을 인력이 없어 한동안 휴경지로 방치해 놓음으로서 잡풀만 번성하여 마을주변 경관도 좋지 않게 되었음
- 그런데, 2006년부터 경관보전직불제의 시행으로 봄에 유채꽃을 볼 수 있어 사진작가 등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마을 전체적으로 활기가 되살아나고 있음
- 이렇듯 직불제는 새로운 경관농업을 창출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공동체 형성에도 큰 기여를 하면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본 경관보전직불제의 목적이 경관작물을 식재하여 경관을 창출하고 창출된 경관으로 인해 방문객이 증대하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임 본 지역은 이러한 경관직불제의 목적에 부합되게 모범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효과측면에서도 좋은 성과가 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3) 사업시행 효과

□ 농가소득 향상효과

- 경관보전직불금 지원으로 휴경지를 농사지을 수 있는 농지로 복구하는데 트랙터, 인력 등이 투입됨으로써 그기에 따른 비용지불로 농가에 일부 도움이 되고 있음
- 경관직불금으로 유채를 경작하여 체험마을사업과 연계할 수 있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으나, 지역의 상품판매, 체험거리 개발 등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 현재는 농가소득과의 연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나 향후에는 농가소득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 본 마을은 고사리, 홍합 등이 특산물로서 마을소득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나 젊은 인력부족으로 어려운 농사일을 할 사람이 없고 체험을 추진할 인력도 부족하므로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상품개발이 필요하여 고사리를 이용한 고사리국수가 상품화되면 이마을의 특산품으로 유채경관과 연계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경관조성 및 농촌어메니티 증진효과

- 이 지역에서 경관보전직불로 유채를 재배하여 정서 순화 및 감성적 추억 소재를 제공함으로써 도시민들에게는 옛날의 향수를 자아내게 하고 학생들에게는 심미적 교육 효과를 거양하고 아름다운 경관창출은 많은 관광객의 유인을 하는 효과가 있음
- 이 지역은 아름다운 섬과 바다경관을 가지고 있어 집단화된 꽃경관은 아름답고 조화로운 해변 경관을 창출함으로써 지역 특유의 관광지를 조성하는데 경관보전직불제가 기여하고 있음
- 이 지역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경사지 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인력이 부족하여 휴경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에 따라 휴경화에 따른 주변경관의 훼손, 황폐화가 진행되고 있었으나, 경관보전직불제의 시행으로 휴경화된 농지를 복원하여 경관농업으로 활용함으로써 관광객을 유인함과 동시에 농업적 활동으로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음

□ 공동체의식 함양 및 지역활성화 효과

- 경관협약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경관농업 활동을 공동으로 시행함으로써 마을 공동체 의식이 되살아 나면서 농촌체험관광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음
- 경관작물 식재를 위한 경운, 파종, 수확, 주변정리 등을 마을 주민 스스로 공동 작업을 하면서 마을 협동 정신과 화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마을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욕과 함께 공동체의식, 협동심, 단결력 함양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이 마을은 농촌체험마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로서 경관직불제 활동을 농촌체험관광 활동과 연계함으로써 마을주민들의 단결심과 의욕은 농촌마을의 운영이 활성화되는데도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경관작물 관련 축제 시행성과

- 유채꽃경관으로 이 마을이 많이 알려져 방문객들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유채를 수확후 다양한 꽃작물을 심어 출향 문인 예술인 등과 함께 한여름밤의 축제를 계획하는 등 경관직불제와 연계한 축제 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음

4) 제도개선 및 사업확대 방안

□ 지급단가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 현재는 국비, 지방비를 포함하여 1ha당 2,500천원이 지원되고 있으나 경사지 농지라 소요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더 많은 지원수준을 요구하고 있음
- 현행 지원 수준은 작목별로 동일하게 설정하였음 그 이유는 지역별 특성, 작목별 경작비용, 소득 등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 할 뿐 아니라 지역별로 재배작목이 달라 지역별 지원단가를 달리 결정한다는 것은 형평성 제도 시행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면 어려운 점이 많음 지역별 차별화는 지자체에서 추가지원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제도의 성격상 바람직하다고도 할 수 있음. 그런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은 추가지원할 여력이 되지 않아 더욱 지역의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음 지역의 재정자립도, 낙후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예산지원과 연계한 제도의 발전도 필요하다고 사료됨

□ 사업대상지역 적합성 및 확대방안면적기준 등)

- 이 지역은 2007년부터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마을로 경관보전직불제 효과가 농촌관광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대상지역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됨
- 경관작물을 재배함으로써 다원적 기능 증진과 농가소득증대 기여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업으로서 농촌체험관광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경관창출효과는 관광객의 증가를 유도하고 마을 소득과 지역의 경제에 기여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농촌체험마을을 시행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경관보전직불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경관보전직불제의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별 작목별 지원수준을 적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그리고 대상작목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지원수준을 적정하게 결정하는 방법론에 대한 심층 검토가 필요함 대상작목도 현재의 소득이 얼마인지를 고려하여 적절한 지원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경관창출효과가 좋은 화훼작물에 대해서는 경관창출효과를 고려하여 대상작목에 포함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경관작물 다양화 방안

- 이 지역은 가을에는 메밀꽃 봄에는 유채꽃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진작가 등 많은 방문객이 방문을 하고 있음 섬지역으로서 바다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메밀과 유채가 좋은 작물로 주민들은 인식하고 있음
- 본 마을은 녹색농촌체험마을로 바다체험중의 하나인 개매기 축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바다와 섬의 아름다운 경관과 조화된 유채경관을 창출하기에 적절한 지역으로서 체험축제와 연계하여 시행하게 되면 사업효과가 증대될 것이므로, 유채, 메밀 재배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업대상지 선정이 요구되는 지역임
- 남해는 섬지역으로서 남해대교를 통해 섬으로 연결되는 지역으로 제주도와 비슷한 아름다운 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라 유채 재배의 증대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경관보전직불제의 확대가 요망되고 있음 이 지역은 여타 농촌지역과 마찬가지로 고령화가 심각하므로 기계화영농에 의한 경관작물의

경작, 관리가 요구되므로 유채등 특정작목의 확대를 통해 생산비 절감 및 수확 비용 절감으로 경관농업의 원만한 추진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작목별로 생산비용, 소득 발생 여건, 지역에 기여할 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 수준을 결정할 필요는 있음 각 지역별로 어떤 작목을 심는데 얼마의 지원이 필요한지 계획서를 제출받아 승인을 한 후에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됨.

□ 마을 경관향상 방안

- 본 마을은 아름다운 바다경관을 가지고 있으며 갯벌에서 생산되는 바닷고기는 특산물로서 판매도 하고 축제를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아름다운 바다경관을 보전하고 관리하는 활동도 필요하다고 사료됨
- 본 마을 주변에 있는 농지는 경사도가 급한 다락논으로서 경관이 아름다우므로 고령화로 휴경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경관보전직불제의 지원으로 영농도 하고 다락논의 보전을 위한 논둑관리를 위한 활동도 필요하므로 다락논 논둑관리 활동에 대한 지원도 필요함

□ 경관 조성 및 유지·관리 등 사업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보조금 지급 방법은 농가별 개별 지급하는 경우와 경관보전직불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경관농업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는 경관보전직불 추진위원회로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경관 작물 식재와 관리에 있어서도 농가별 고령화로 개별적으로 농작업과 경관관리가 어려우므로 마을단위로 공동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마을공동으로 직불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경관보전직불제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본 지역과 같이 다락논들이 많고 집단화된 농지가 적은 지역은 집단화 규모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제도하에서는 지역별 특화된 작물을 일정 규모이상 재배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지원수준의 상하한선만 설정하고 지원수준, 재배면적, 경작비용, 발생 소득, 마을활성화계획 등에 대한 계획을 제출 받아 중앙정부에서 승인을 하고, 계획대로 사업이 잘 진행되는 지에 대해서 감독지도하는 방안도 하나의 사업 방안이라고 사료됨.

○ 유채, 야생화, 해바라기 등 경관작물에 대한 소득 생산비, 재배기술 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제도 시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경관작물에 대한 연구를 확대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농촌환경문화경관보전 활동까지 확대할 경우 적지 여부

○ 본 마을은 바닷체험을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추진중인 농촌체험마을로서 아름다운 바다경관과 주변의 산림경관 그리고 다락논으로 형성된 농지 경관은 천혜의 조건을 가진 아름다운 지역으로서 이러한 경관자원을 보전 관리할 수 있도록 직불금을 지원한다면 고령화로 농업 및 어업을 담당할 인력이 없는 이 마을에 큰 도움이 될 것임

5) 관련 현장사진



작 목 : 유채	유채경관
면 적 : 3.9ha	위 치 : 남해군 창선면 적량리



작 목 : 유채	유채경관
면 적 : 3.9ha	위 치 : 남해군 창선면 적량리

20.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왕지리

1) 사업 추진현황

대상지 현황

구분	위치	신청자수	참여자수	참여농가수	참여면적	경관작물	비고
왕지마을	남해군 설천면 왕지리	6	6	6	3.3ha	유채	

경관작물 파종 및 수확현황

구분	위치	경관작물	면적(ha)	파종	수확
국비지원	남해군 설천면 왕지리	유채	3.3		

유채씨 수확 판매

지자체 추가지원 현황

○ 경관작물 ha당 지원비 : 2,500천원

※ ha당 국·도비 지원액 : 국비 1,190천원, 지방비 1,310천원

사업 추진 관련 주민 활동상황

- 경관작물 식재에 위한 경운 파종, 수확 및 정리 작업을 마을주민 공동으로 수행
- 경관농업으로 수확한 농산물을 농촌체험관광과 연계 공동 판매
-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음식을 공동으로 만들어 판매 마을 공동 수익 창출
- 본 마을에서는 바지락 축제 체험마을 운영을 마을 주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경관보전직불제사업과 연계하여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2) 사업 만족도

사업추진 주민(대표) 의견

- 본 마을은 한려해상 국립공원 내에 있는 자연마을로 남해대교에서 연결된 왕지 벚꽃 길과 숲,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풍부한 자연 자원 등대야경에 취할 조용함과 감미로움이 있는 마을임

- 마을의 특산물로는 마늘 유자, 치자, 매실, 시금치, 굴, 키조개, 낙지, 게, 각종활어 등 농산물 및 특산물이 있음
- 주요문화재로는 노량총렬사, 대원군척화비 등이 있고, 무형문화재로는 마을 동제가 있음
- 내방 관광객수는 연간 10,000명에 달하며, 민박관광객수는 500명, 단순 내방객수는 9,500명 정도에 달함
- 주요관광자원으로는 벚꽃길 2km, 낚시터(바지선 12척, 해안선 3km), 왕지 고개 해돋이, 구두산 등산로, 큰넛골 폭포, 해안산책로, 남해대교, 총렬사, 거북선 등이 있음
- 본 마을은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총가구65가구중 민박 참여농가 13호, 농사 체험농어장 20호, 주말농장 7호, 농수산물판매 34호가 참여하여 농촌관광 소득을 올리고 있음
- 체험프로그램으로는 갯벌체험(갯벌에서 속잡고 바지락 잡고), 국사봉 일출(새로운 날을 다짐하여), 뗏목체험(뗏목타고 널뛰기, 맘에 드는 사람 물에 빠뜨리기), 개막이(고기를 손으로 낚는다, 회도 쳐서 먹는다), 유람선 승선(남해노랑 일주, 광양만을 유람선을 타고 돌아본다), 거북선 관람(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북선 모형 실내 관람), 농사체험(옥수수 따고, 토마토, 다래, 참깨 등 식물 농원관람), 캠프화이어 등이 있음
- 본 마을을 방문하는 방문객은 4월까지 1만명, 체험객 4월까지 1,500명, 체험객은 낚시하든가 민박하든 사람임
- 유채를 수확하고 메밀 심을 계획으로 있으며 메밀은 한달 보름이면 수확이 가능하므로 10월초에 메밀을 수확하고는 유채를 심을 계획에 있어 메밀과 유채를 이목작으로 재배를 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여 체험마을 사업과 연계하여 방문객을 유치할 것임
- 올해 사진동우회반만 1천명이나 왔다 갔어 유채경관에 대해 많은 홍보가 될 것으로 생각됨
- 본 마을에서는 체험마을행사로 바지락 축제가 있는데 유로인원만 1천명에 달함
- 본 마을 체험 유료인원기준으로 2006년도 5천명, 2007년 7500명, 총방문객 2만명에 달함

□ 지자체 담당자 의견

- 휴경지였던 본 지역이 아름다운 메밀꽃과 유채꽃을 볼수 있는 경관농업관 광지로 변모하게 된것은 경관보전직불제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으며 본 지역은 경사지라 경작비용이 많이 들고 적정 작목을 경작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한데 마을 인구의 고령화로 농사지을 인력이 없어 한동안 휴경지로 방치해 농음으로서 잡풀만 번성하여 마을주변 경관도 좋지 않게 되어 체험마을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마을을 방문하는 방문객도 적은 편이였어서, 그런데, 경관보전직불제의 시행으로 가을에는 메밀꽃을 볼 수 있어 메밀꽃을 보러오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봄에는 유채꽃을 볼 수 있어 사진작가 등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마을 전체적으로 활기가 되살아나고 있음
- 이렇듯 직불제는 새로운 경관농업을 창출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활기를 불어 넣고 지역공동체 형성에도 큰 기여를 하면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본 경관보전직불제의 목적이 경관작물을 식재하여 경관을 창출하고 창출된 경관으로 인해 방문객이 증대하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임 본 지역은 이러한 경관직불제의 목적에 부합되게 모범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효과측면에서도 좋은 성과가 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3) 사업시행 효과

□ 농가소득 향상효과

- 경관보전직불금 지원으로 휴경지를 농사지을 수 있는 농지로 복구하는데 트랙터, 인력 등이 투입됨으로써 그기에 따른 비용지불로 농가에 일부 도움이 되고 있음

□ 경관조성 및 농촌어메니티 증진효과

- 이 지역에서 경관보전직불로 유채를 재배하여 정서 순화 및 감성적 추억 소재를 제공함으로써 도시민들에게는 옛날의 향수를 자아내게 하고 학생들에게는 심미적 교육 효과를 거양하고 아름다운 경관창출은 많은 관광객의 유인을 하는 효과가 있음

- 이 지역은 아름다운 섬과 바다경관을 가지고 있어 집단화된 꽃경관은 아름답고 조화로운 해변 경관을 창출함으로써 지역 특유의 관광지를 조성하는데 경관보전직불제가 기여하고 있음
 - 이 지역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경사지 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인력이 부족하여 휴경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에 따라 휴경화에 따른 주변경관의 훼손, 황폐화가 진행되고 있었으나, 경관보전직불제의 시행으로 휴경화된 농지를 복원하여 경관농업으로 활용함으로써 관광객을 유인함과 동시에 농업적 활동으로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음
- 공동체의식 함양 및 지역활성화 효과
- 경관협약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경관농업 활동을 공동으로 시행함으로써 마을 공동체 의식이 되살아 나면서 농촌체험관광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음
 - 경관작물 식재를 위한 경운, 파종, 수확, 주변정리 등을 마을 주민 스스로 공동 작업을 하면서 마을 협동 정신과 화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마을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욕과 함께 공동체의식, 협동심, 단결력 함양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이 마을은 농촌체험마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로서 경관직불제 활동을 농촌체험관광 활동과 연계함으로써 마을주민들의 단결심과 의욕은 농촌마을의 운영이 활성화되는데도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경관작물 관련 축제 시행성과

- 본 마을에서는 체험마을행사로 바지락 축제가 있는데 유료인원만 1천명에 달함
- 본 마을 체험 유료인원기준으로 2006년도 5천명, 2007년 7500명, 총방문객 2만명에 달함

4) 제도개선 및 사업확대 방안

□ 지급단가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 현재는 국비, 지방비를 포함하여 1ha당 2,500천원이 지원되고 있으나 소요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더 많은 지원수준을 요구하고 있음

- 현행 지원 수준은 작목별로 동일하게 설정하였음. 그 이유는 지역별 특성, 작목별 경작비용, 소득 등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 할 뿐 아니라 지역별로 재배작목이 달라 지역별 지원단가를 달리 결정한다는 것은 형평성 제도 시행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면 어려운 점이 많음. 지역별 차별화는 지자체에서 추가지원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제도의 성격상 바람직하다고도 할 수 있음. 그런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은 추가지원할 여력이 되지 않아 더욱 지역의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음. 지역의 재정자립도, 낙후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예산지원과 연계한 제도의 발전도 필요하다고 사료됨

□ 사업대상지역 적합성 및 확대방안면적기준 등)

- 이 지역은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되어운영되고 있는 마을로 경관보전직불제 효과가 농촌관광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대상지역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됨
- 경관작물을 재배함으로써 다원적 기능 증진과 농가소득증대 기여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업으로서 농촌체험관광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경관창출효과는 관광객의 증가를 유도하고 마을 소득과 지역의 경제에 기여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농촌체험마을을 시행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경관보전직불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경관보전직불제의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별 작목별 지원수준을 적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그리고 대상작목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지원수준을 적정하게 결정하는 방법론에 대한 심층 검토가 필요함. 대상작목도 현재의 소득이 얼마인지를 고려하여 적절한 지원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경관창출효과가 좋은 화훼작물에 대해서는 다년생 작물이더라도 경관창출효과를 고려하여 대상작목에 포함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경관작물 다양화 방안

- 이 지역은 가을에는 메밀꽃 봄에는 유채꽃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진작가 등 많은 방문객이 방문을 하고 있음 섬지역으로서 바다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메밀과 유채가 좋은 작물로 주민들은 인식하고 있음.
- 본 마을은 녹색농촌체험마을로 바다체험중의 하나인 바지락 축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바다와 섬의 아름다운 경관과 조화된 유채경관을 창출하기에 적절한 지역으로서 체험축제와 연계하여 시행하게되면 사업효과가 증대될 것이므로 유채, 메밀 재배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업대상지 선정이 요구되는 지역임.
- 남해는 섬지역으로서 남해대교를 통해 섬으로 연결되는 지역으로 제주도와 비슷한 아름다운 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라 유채 재배의 증대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경관보전직불제의 확대가 요망되고 있음
- 작목별로 생산비용, 소득 발생 여건, 지역에 기여할 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 수준을 결정할 필요는 있음 각 지역별로 어떤 작목을 심는데 얼마의 지원이 필요한지 계획서를 제출받아 승인을 한 후에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됨.

□ 마을 경관향상 방안

- 본 마을은 아름다운 바다경관을 가지고 있으며 갯벌에서 생산되는 바지락은 특산물로서 판매도 하고 축제를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아름다운 바다경관을 보전하고 관리하는 활동도 필요하다고 사료됨
- 본 마을 주변에 있는 농지는 경사도가 급한 다락논으로서 경관이 아름다우므로 고령화로 휴경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경관보전직불제의 지원으로 영농도 하고 다락논의 보전을 위한 논둑관리를 위한 활동도 필요하므로 다락논 논둑관리 활동에 대한 지원도 필요함

□ 경관 조성 및 유지·관리 등 사업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보조금 지급 방법은 농가별 개별 지급하는 경우와 경관보전직불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경관농업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는 경관보전직불 추진위원회로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경관 작물 식재와 관리에 있어서도 농가별 고령화로 개별적으로 농작업과 경관관리가 어려우므로 마을단위로 공동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마을공동으로 직불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경관보전직불제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본 지역과 같이 다락논들이 많고 집단화된 농지가 적은 지역은 집단화 규모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제도하에서는 지역별 특화된 작물을 일정 규모이상 재배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지원수준의 상하한선만 설정하고 지원수준, 재배면적, 경작비용, 발생 소득, 마을활성화계획 등에 대한 계획을 제출 받아 중앙정부에서 승인을 하고, 계획대로 사업이 잘 진행되는 지에 대해서 감독지도하는 방안도 하나의 사업 방안이라고 사료됨.
- 유채, 야생화, 해바라기 등 경관작물에 대한 소득 생산비, 재배기술 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제도 시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경관작물에 대한 연구를 확대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농촌환경문화경관보전 활동까지 확대할 경우 적지 여부

- 본 마을은 바지락 캐기 등 바닷체험을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추진중인 농촌체험마을로서 아름다운 바다경관과 주변의 산림경관 그리고 다락논으로 형성된 농지경관은 천혜의 조건을 가진 아름다운 지역으로서 이러한 경관 자원을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직불금을 지원한다면 고령화로 농업 및 어업을 담당할 인력이 없는 이 마을에 큰 도움이 될 것임

5) 관련 현장사진



작 목 : 유채	유채경관
면 적 : 3.3ha	위 치 : 남해군 설천면 왕지리



작 목 : 유채	유채경관
면 적 : 3.3ha	위 치 : 남해군 설천면 왕지리

21.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두모리

1) 사업 추진현황

대상지 현황

구분	위치	신청자수	참여자수	참여농가수	참여면적	경관작물	비고
도모마을	남해군 상주면 두모리	31	31	31	5.2ha	유채/메밀	

경관작물 파종 및 수확현황

구분	위치	경관작물	면적(ha)	파종	수확
국비지원	상주면 두모	메밀	5.2	'07.8월 중순	'07.11월 초순
	"	유채	5.2	'07.11월 초순	'08.5월

○ 메밀 수확 판매

- 2006년/강원도 평창군 봉평농업가공공장 600kg/kg당 3,000원 판매
- 2007년 남해군내 및 외지인 500kg/ kg당 5,000원 판매

○ 유채씨 수확 판매

- 왕지녹색농촌체험마을 및 인근 체험마을에 무상 공급 올해부터는 판매 계획임

지자체 추가지원 현황

○ 경관작물 ha당 지원비 : 2,500천원

※ ha당 국·도비 지원액 : 국비 1,190천원, 지방비 1,310천원

사업 추진 관련 주민 활동상황

- 경관작물 식재에 위한 경운 파종, 수확 및 정리 작업을 마을주민 공동으로 수행
- 경관보전직불에의 홍보를 위한 프랜카드 등 설치
- 경관농업으로 수확한 농산물을 농촌체험관광과 연계 공동 판매
-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음식을 공동으로 만들어 판매 마을 공동 수익 창출

- 유채개화기에는 갯매기 축제를 마을공동으로 개최하여 사진촬영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음식물 판매 행사 등을 실시

2) 사업 만족도

□ 사업추진 주민(대표) 의견

- 체험마을의 주요체험은 선상체험 조개체험, 농사체험 등이 있음.
- 두모마을의 총가구수는 81가구이며, 그중에서 민박은 9가구가 운영을 하고 있으며, 민박을 운영하는 가구는 5백만원에서 9백만원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음. 이 마을의 소득은 농업소득 어업소득, 축산업소득, 그리고, 농외 소득으로 공사장에 인부로 일을 하고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구성된다 농업 소득은 평균 800평에서 1000평 정도의 농사를 지어 평균 5백만원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어업을 하는 가구는 14가구로 평균 2천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고, 소를 키우는 가구가 몇가구되는데 연간 몇백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음.
- 그리고, 주변의 토목, 건축공사 현장이 많아 신체가 건장한 사람은 공사장에서 하루별이로 한달에 15일 정도 일을 하며, 하루 일당은 8만원정도라 한달에 120만원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공사장 인부가 모자라는 형편이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은 그것도 하지 못하고 있음.
- 이 마을에 지원되는 경관직불금은 25백만원정도가 되므로 한번에 5-6십만원 적자가 발생함. 그렇지만 마을주민들이 노동을 제공함으로써 소득을 올리는데 일정부분 기여를 하고 있다. 콤파인 작업을 하는 사람은 1백만원, 예치기 작업을 하는 사람은 70만원, 그리고 인건비로 일부 벌어들일 수 있어 일정부분 소득증대에도 기여한다고 할 수 있음
- 올해 경관직불제 시행으로 마을을 방문한 방문객은 1만명정도로 메밀꽃이 피었을때는 7-8백명정도 유채개화기는 25-30일정도이므로 4천명정도 방문하였음.
- 유채개화기에 맞추어 개매기 축제를 하루동안 했는데 많은 방문객이 왔다 갔음. 내년에는 갯매기 축제를 1박 2일 동안 할 계획이며, 토요일 오후에 유채음악회, 사진촬영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등을 개최하고 다음날에 갯매기 축제를 할 계획임. 경관보전직불제와 연계한 이 마을의 독특한 갯매기

체험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해나간다면 체험방문객들이 늘어나 마을소득 증대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임.

- 경관직불제로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논두렁 풀베기 나뭇가지정리, 수로정비 등 주변환경개선이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의 지원도 필요함 그리고 방문객들을 위한 화장실 주차장, 촬영장소, 원두막, 음식판매장 등 방문객들에게 불거리에 대한 편리함을 제공하고 마을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농촌관광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함

□ 지자체 담당자 의견

- 휴경지였던 본 지역이 아름다운 메밀꽃과 유채꽃을 볼수 있는 경관농업관광지로 변모하게 된것은 경관보전직불제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으며 본 지역은 경사지라 경작비용이 많이 들고 적정 작목을 경작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한데 마을 인구의 고령화로 농사지을 인력이 없어한동한 휴경지로 방치해 농음으로서 잡풀만 번성하여 마을주변 경관도 좋지 않게 되었음. 그런데, 2006년부터 경관보전직불제의 시행으로 가을에는 메밀꽃을 볼 수 있어 메밀꽃을 보러오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봄에는 유채꽃을 볼 수 있어 사진작가 등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마을전체적으로 활기가 되살아나고 있음.
- 이렇듯 직불제는 새로운 경관농업을 창출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활기를 불어 넣고 지역공동체 형성에도 큰 기여를 하면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본 경관보전직불제의 목적이 경관작물을 식재하여 경관을 창출하고 창출된 경관으로 인해 방문객이 증대하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임 본 지역은 이러한 경관직불제의 목적에 부합되게 모범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효과측면에서도 좋은 성과가 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3) 사업시행 효과

□ 농가소득 향상효과

- 1인당 두모마을 농업인 소득변화
 - 경관보전직불제와 연계하여 친환경마을을 재배하여 농협에 납품하든지 인

터넷 및 전화주문판매로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고 있음 농협에 한가마당 1등이 2만원을 받고 10kg짜리 3800가마를 납품하였으며, 인터넷판매 및 전화주문은 한가마당 택배비 포함 3만원을 받고 110가마를 판매하여 농가소득을 올렸음

□ 경관조성 및 농촌어메니티 증진효과

- 이 지역에서 경관보전직불로 메밀과 유채를 재배하여 정서 순화 및 감성적 추억 소재를 제공함으로써 도시민들에게는 옛날의 향수를 자아내게 하고 학생들에게는 심미적 교육 효과를 거양하고 집단화된 경관농업지구를 조성함으로써 아름다운 경관창출은 많은 관광객의 유인을 하는 효과가 있음
- 이 지역은 아름다운 섬과 바다경관을 가지고 있어 집단화된 꽃경관은 아름답고 조화로운 해변 경관을 창출함으로써 지역 특유의 관광지를 조성하는데 경관보전직불제가 기여하고 있음
- 이 지역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경사지 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인력이 부족하여 휴경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에 따라 휴경화에 따른 주변경관의 훼손, 황폐화가 진행되고 있었으나, 경관보전직불제의 시행으로 휴경화된 농지를 복원하여 경관농업으로 활용함으로써 관광객을 유인함과 동시에 농업적 활동으로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음

□ 공동체의식 함양 및 지역활성화 효과

- 경관협약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경관농업 활동을 공동으로 시행함으로써 마을 공동체 의식이 되살아 나면서 농촌체험관광사업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음
- 경관작물 식재를 위한 경운, 파종, 수확, 주변정리 등을 마을 주민 스스로 공동 작업을 하면서 마을 협동 정신과 화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마을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욕과 함께 공동체의식 협동심, 단결력 함양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이 마을은 농촌체험마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로서 경관직불제 활동을 농촌체험관광 활동과 연계함으로써 마을주민들의 단결심과 의욕은 농촌마을의 운영이 활성화되는데도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마을전체

구 분	방문객수 (명)					소 득 액 (천원)							참 여 가구수 /전체 가구수
	계	체험방문		견학 (교육)	기 타*	계	숙 박	음 식	농특산물 판 매	체험프로그램 운 영	기 타**		
		당일 체험	숙박										
°08년실적	202	157	4	15	26	1,529	30	577	370	552	0	44/80	
- 1/4분기	202	157	4	15	26	1,529	30	577	370	552	0		
°07년*	7,161	1,955	1,486	220	3,500	30,970	11,230	6,390	3,800	9,450	100	40/81	
- 연 간	5,316	2,105	1,161	270	1,780	28,180	9,540	5,495	4,220	8,725	200		
- 월평균	443	175	97	23	148	2,349	795	458	352	727	17		
°06년*	3,470	2,255	835	320	60	25,390	7,850	4,600	4,640	8,000	300	43/85	
- 연 간	3,470	2,255	835	320	60	25,390	7,850	4,600	4,640	8,000	300		
- 월평균	289	188	70	27	5	2116	654	383	387	667	25		

□ 경관작물 관련 축제 시행성과

○ 경관사업을 통해 소득이 오른 부가사업(먹거리 산업, 지역 관광업 등) 함께 홍보함으로써 농촌체험사업이 활성화가 되고 있음

- 민박 운영에 따른 소득 증가: 공동민박 3동, 개별민박 9가구

-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소득 증가: 9,450천원/2007년

《 체험프로그램 》

- 타마을과 차별되는 대표 프로그램: 정치망고기잡이체험(4월~12월)

- 봄 : 선상어구체험(봄 도다리)

- 여름 : 상남시/정치망고기/갯벌체험/등

- 가을 : 정치망/갯벌/친환경농산물수확체험

- 겨울 : 선상문어잡기/바닷가고동잡기체험

4) 제도개선 및 사업확대 방안

□ 지급단가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 현재는 국비, 지방비를 포함하여 1ha당 2,500천원이 지원되고 있으나 소요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더 많은 지원수준을 요구하고 있음

- 현행 지원 수준은 작목별로 동일하게 설정하였음. 그 이유는 지역별 특성, 작목별 경작비용, 소득 등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 할 뿐 아니라 지역별로 재배작목이 달라 지역별 지원단가를 달리 결정한다는 것은 형평성 제도 시행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면 어려운 점이 많음. 지역별 차별화는 지자체에서 추가지원을 통해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그런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은 추가지원할 여력이 되지 않아 더욱 지역의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음. 지역의 재정자립도, 낙후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예산지원과 연계한 제도의 발전도 필요하다고 사료됨
 - 본 제도의 지원수준은 WTO협정문에 근거한 환경계획에 따른 지불로 명백하게 정의된 정부의 환경보전계획에의 일환으로 생산방법 또는 투입요소에 관련된 조건을 포함하여 특정조건 이행에 따른 추가비용 또는 소득손실에 한정하여 지원수준을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지원수준에 대한 검토도 이러한 제도 시행의 근거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임.
- 사업대상지역 적합성 및 확대방안면적기준 등)
- 이 지역은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되어운영되고 있는 마을로 경관보전직불제 효과가 농촌관광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대상지역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됨
 - 본 제도는 WTO협정에 의한 정부의 공공재정에 의해 지불되는 보조금으로 생산자에 대한 가격지지 효과가 없는직불금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소득작물을 심는 대신 소득이 되지 않는 경관작물을 재배함에 따른 소득손실에 대한 부분을 정부의 재정으로 지원하여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이므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이 동시에 지원될 필요가 있음
 - 지역별 불균형 상태의 재정자립도, 소득수준, 생활여건 등으로 지자체에서 추가적인 지원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으므로 지역별로 낙후도를 감안하여 차별화된 지원 정책 방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본 직불제는 경관작물을 재배함으로써 다원적 기능 증진과 농가소득증대 기여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업으로서 농촌체험관광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경관창출효과는 관광객의 증가를 유도하고 마을 소득과 지역의 경제에 기여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농촌체험마을을 시행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경관보전직불사업을 적극 추

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경관보전직불제의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별 작목별 지원수준을 적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그리고 대상작목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지원수준을 적정하게 결정하는 방법론에 대한 심층 검토가 필요함 대상작목도 현재의 소득이 얼마인지를 고려하여 적절한 지원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경관창출효과가 좋은 화훼작물에 대해서는 경관창출효과를 고려하여 대상작목에 포함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경관작물 다양화 방안

- 이 지역은 가을에는 메밀꽃 봄에는 유채꽃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진작가 등 많은 방문객이 방문을 하고 있음 섬지역으로서 바다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메밀과 유채가 좋은 작물로 주민들은 인식하고 있음.
- 본 마을은 녹색농촌체험마을로 바다체험중의 하나인 개매기 축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바다와 섬의 아름다운 경관과 조화된 유채경관을 창출하기에 적절한 지역으로서 체험축제와 연계하여 시행하게되면 사업효과가 증대될 것이므로, 유채, 메밀 재배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업대상지 선정이 요구되는 지역임
- 남해는 섬지역으로서 남해대교를 통해 섬으로 연결되는 지역으로 제주도와 비슷한 아름다운 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라 유채 재배의 증대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경관보전직불제의 확대가 요망되고 있음
- 작목별로 생산비용, 소득 발생 여건, 지역에 기여할 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 수준을 결정할 필요는 있음 각 지역별로 어떤 작목을 심는데 얼마의 지원이 필요한지 계획서를 제출받아 승인을 한 후에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됨

□ 마을 경관향상 방안

- 본 마을은 아름다운 바다경관을 가지고 있으며 갯벌에서 생산되는 바닷고기는 특산물로서 판매도 하고 축제를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아름다운 바다경관을 보전하고 관리하는 활동도 필요하다고 사료됨

- 본 마을 주변에 있는 농지는 경사도가 급한 다락논으로서 경관이 아름다우므로 고령화로 휴경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경관보전직불제의 지원으로 영농도 하고 다락논의 보전을 위한 논둑관리를 위한 활동도 필요하므로 다락논 논둑관리 활동에 대한 지원도 필요함

□ 경관 조성 및 유지·관리 등 사업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보조금 지급 방법은 농가별 개별 지급하는 경우와 경관보전직불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경관농업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는 경관보전직불 추진위원회로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경관 작물 식재와 관리에 있어서도 농가별 고령화로 개별적으로 농작업과 경관관리가 어려우므로 마을단위로 공동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마을공동으로 직불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경관보전직불제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본 지역과 같이 다락논들이 많고 집단화된 농지가 적은 지역은 집단화 규모를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경사가 급한 다락논의 경우는 영농의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는 측면을 고려하여 지원단가도 달리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제도하에서는 지역별 특화된 작물을 일정 규모이상 재배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지원수준의 상하한선만 설정하고 지원수준, 재배면적, 경작비용, 발생 소득, 마을활성화계획 등에 대한 계획을 제출 받아 중앙정부에서 승인을 하고, 계획대로 사업이 잘 진행되는 지에 대해서 감독지도하는 방안도 하나의 사업 방안이라고 사료됨.
- 유채, 야생화, 해바라기 등 경관작물에 대한 소득 생산비, 재배기술 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제도 시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경관작물에 대한 연구를 확대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농촌환경문화경관보전 활동까지 확대할 경우 적지 여부

- 본 마을은 개매기 축제, 바다낚시 등 바닷체험을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추진중인 농촌체험마을로서 아름다운 바다경관과 주변의 산림경관 그리고 다락논으로 형성된 농지경관은 천혜의 조건을 가진 아름다운 지역으로서 이러한 경관자원을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직불금을 지원한다면 고령화로 농업 및 어업을 담당할 인력이 없는 이 마을에 큰 도움이 될 것임

5) 관련 현장 사진



작 목 : 유채	유채경관
----------	------



작 목 : 유채	유 채
----------	-----



작 목 : 메밀,유채	유채경관
-------------	------

23.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1) 사업 추진현황

대상지 현황

구분	위치	신청자수	참여자수	참여농가수	참여면적	경관작물	비고
남사마을	남사리 539외 25필지	21	12	12	5ha	유채	

경관작물 파종 및 수확현황

- 2007월 11월하순 파종, 2008년 4월말 개화

지자체 추가지원 현황

사업면적(ha)	사업비내역(단위:ha/천원)			
	계	국비	도비	군비
9.4	23,500	11,186	6,157	6,157

사업 추진 관련 주민 활동상황

- 유채종자 파종 및 시비, 논두렁 보수, 수로정비 등
- 경관보전직불추진위원회 구성 및 협약체결로 경관작물 재배 공동 노력
-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음식을 공동으로 만들어 판매 마을 공동 수익 창출

2) 사업 만족도

사업추진 주민(대표) 의견

- 이 마을의 총가구수는 140가구로 80%이상이 70세이상의 고령인으로 기초 생활수급자가 많음. 움직일 수 있는 사람 50%정도가 체험마을사업에 참여 하고 있음. 60세미만은 10가구 정도 밖에 안됨
- 이 마을의 소득은 벼농사, 딸기 농사 등 농업소득임 축산 농가는 없음. 청 정 딸기 생산으로 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10농가 정도로 몇천만원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음. 그리고, 농지 소유면적이 적어 농사를 지은 소득은

평균 1천만원 미만으로 생각됨

- 고령으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50%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마을 전체적으로 소득이 적어 힘든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
- 농촌체험마을사업으로 인해 민박 가구 7가구를 제외하고는 방문객들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 부녀회에서 참여하여 인건비를 벌어들여 있으며 재배한 딸기를 직판함으로서 소득을 올리고 있으나, 체험마을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미미한 실정임
- 이 마을의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작목으로는 유채가 좋으나 재배기술이 모자라 잘 되지 않음. 습기가 많은 곳이라 이 곳에는 앞으로는 자운영을 재배하고 습기가 적은 마을앞과 부근에 유채를 재배하면 마을 경관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나, 집단화 기준을 만족시키기가 어려움 최소 집단화 기준을 완화하여 마을 주변 공한지 기계화 영농이 어려운 농지에 유채 등을 재배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보완해주면 좋겠음
- 면적이 적은 200평에서 500평 정도 되는, 소출이 적게 나는 농지에도 경관작물을 심을 수 있어 마을 경관조성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관보전직불제의 추진이 요망됨
- 이 마을에는 전통돌담이 많은 마을임 이번에 돌담이 일부 붕괴되었는데, 이 마을 돌담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 복원하는 비용은 문화재청에서 군을 통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복원에 문제가 없음 그런데, 주변의 잡초를 제거한다든지, 평소에 돌담을 수선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는 비용은 지원되지 않으므로 농림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지원을 해주면 좋겠음
- 마을 경관조성을 위해서는 꽃나무, 경관수 등을 심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마을내 또는 부근에 나무를 심어 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쉼터조성, 마을꽃길조성 등에 대해서도 농림부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음.
- 이 마을옆에는 마을 숲이 있어 경관이 좋으나 유실되어 보기 좋지 않은 곳이 있으나, 마을숲은 산림이라 산림청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음
- 이 마을에는 폐가가 일부 있음 폐가로 인해 마을의 경관이 흉해지고 있으므로 폐가를 유지관리할 수 있는 비용도 필요하다고 생각됨 폐가를 철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자식들이 자기네 조상이 살았던 곳이라 오래 보존하고 싶으나 유지관리할 수 있는 비용이 없어 그냥 방치하게되고 그래서 보기 흉한 폐

- 가로 되어버려 마을 경관을 해치게 되므로 마을내 빈집을 보존관리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면 마을경관이 좋아질 것이라 생각됨
- 이 마을에는 최씨고가 이씨고가, 오래된 고목, 돌담 등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많아 손상이 되면 문화재청에서 복구할 수 있는 비용은 지원이 되나 평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비용이 없어 잡초가 나고 손상이 되고 있음 그래서, 평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잡초제거, 수선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국화는 가을에 심어 꽃길을 조성하면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할 수 있으므로 꽃길조성에 필요한 비용 지원이 필요함 그런데, 국화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하우스재배를 통해 묘종을 길러야 하는데 묘종 재배에 필요한 비용이 없어 어려움이 있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원도 필요함
 - 경관직불제는 소득사업과 관련한 작목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꿀, 음식 등의 가공품을 판매를 통해 일정 부분 소득을 올릴 수 있어야 손해를 보고 경관작물을 재배할 수 있음
 - 여름철에는 메밀이 괜찮은 작물이나 소득이 벼 콩 등과 못하기 때문에 벼 콩 등을 심지 않는데 대한 손실 보전을 해줘야 여름철 경관작물을 재배할 수 있을 것임. 그래서 봄에는 울옥수수를 심어 수확을 빨리한 후 가을 메밀을 심게 되면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일부 소득도 되면서 경관효과가 좋은 작물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유채의 경우 종실을 수확하여 기름용으로 팔 수가 있으나 그렇게 되면 벼 경작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종실 수확은 계획하지 못하고 있음 벼 경작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경작해야 할 것임
 - 작년에 파종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벼가 서 있는 상태에서 10월 중순에 유채를 파종하여 실패했기 때문에 올해는 벼를 수확하고 경종작업을 한후 유채를 파종했음. 그런데, 일부 지역은 보통 작황을 보였으나 나머지는 작황이 좋지 않음. 작황이 좋지 않는 이유는 기후의 영향도 있어 추운겨울에 싹이 동사하여 봄에 올라오지 않는 것 같음. 그리고 토양이 점토질이라 배수가 잘되지 않고 토양의 통기성이 좋지 않아 밭아 및 성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인 것 같음. 벼를 수확한 후에 경운작업과 배수처리작업을 한 후에 파종을 하면 유채 작황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 지역에서 유채를

재배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작황이 좋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을 모르지만 기후 영향, 토양 등이 주요인으로 생각됨.

- 지역별로 유채 재배 기술에 대해서도 유채재배 요령 등을 만들어 발간 보급, 교육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됨.

□ 지자체 담당자 의견

- 도시민에게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농촌관광인프라를 조성하여 농촌관광 활성화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 본 마을은 농촌전통테마마을로서 방문하는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농가소득과는 곧바로 연결이 되지 않고 있어 농촌관광소득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농촌관광소득은 농특산물판매, 음식판매, 체험, 민박 등이 있으나, 본 마을 방문객들은 많으나 이러한 농촌체험관광 소득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으므로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으로 아름다운 경관도 보고, 경관농업으로 수확물을 가공 판매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추진이 필요함
- 이 마을에는 전통고가 담장이 많아 옛날 역사전통을 느낄 수 있어 앞으로 방문하는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방문객을 위한 방문자센터 휴식공간, 볼거리, 체험거리, 판매를 위한 특산물 개발이 필요함. 그리고, 옛날 전통가옥을 보전관리 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지원도 요망됨
- 경관작물 중 유채의 경우 파종시기 및 기후여건 등에 따라 작황에 많은 영향을 끼치므로 대상경관작물의 다양화를 통해 이 마을의 특성에 맞는 경관작물을 개발하여 재배를 해야 할 것이라 생각됨
- 본 마을과 같이 마을부근에 경지면적이 적은 산골마을에서는3ha이상 집단화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경관대상 작물의 다양화와 함께 단지별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경작여건이 좋지 않은 농지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이 좋겠음

3) 사업시행 효과

□ 농가소득 향상효과

- 남사에담촌의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등으로 지속적인 탐방객 증가로 농가 소득 활성화 유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본 마을은 마을방문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이 미약하므로 농촌관광과 연계한 딸기 등 특화된 농특산물의 판매 추가적인 농특산물의 가공품 개발로 농촌관광과 연계한 농가소득원의 개발이 요구됨
-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가 농촌체험마을 인근 지역으로 농촌체험마을을 방문한 방문객 등에게 어메니티를 증진시켜 더 많은 방문객을 유도하여 경관농업체험으로도 연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으로 영농작업에 마을 농가들이 직접 참여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아름다운 유채 경관조성으로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심미적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어 방문객의 체제를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본 마을은 전통가옥, 돌담, 고목 등의 어메니티 자원을 보유한 마을로 최근에는 외국인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전통문화자원의 보전 및 개발로 국내외 관광객의 방문과 체류를 유도할 수 있는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에 의한 농특산물의 개발 아름다운 경관농업 연출, 경관농업과 연계한 축제, 음식시설, 숙박시설, 체험시설, 쉼터, 휴양시설 등의 농촌관광기반시설의 확충도 요구됨.
- 본 마을이 보유한 전통문화자원 등 어메니티 자원과 함께 경관직불제의 경관농업의 육성으로 전통어메니티 자원과 경관농업이 어울어지는 특색 있는 마을을 연출할 수 있어 그린투어리즘의 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경관조성 및 농촌어메니티 증진효과

- 남사에담촌, 도지정 문화재인 최싸이씨 고가, 700여년 된 매화나무 등 생태적·문화적·역사적 가치를 지닌 환경과 어우러져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으로 인한 유채 경관은 농촌어메니티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

- 이 마을의 전통돌담은 특색있는 경관자원으로서 지속적으로 보전관리가 필요하며, 전통돌담과 어울리는 마을경관조성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마을 주변의 농지에 유채 등 경관작물을 재배하고 마을내부의 빈집, 폐가 등의 경관에 해가 되는 요소에 대한 지원으로 마을을 잘 가꾸어 나간다면 전국적으로 전통문화와 경관농업이 결합된 마을 경관을 조성하여 농촌어메니티 증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공동체의식 함양 및 지역활성화 효과

- 본 마을은 농촌전통테마마을로 월 평균 3,000명의 방문객이 마을 방문을 하고 있어 이러한 방문객의 안내 체험행사, 음식제공 등을 마을공동으로 하고 있어 공동체 의식이 잘 함양되고 있음
- 참여농가 전체의 경관작물 식재 참여 영농작업을 위한 협의회 개최 농촌 체험관광 활동과 연계한 공동체 활동 등으로 공동체의식 함양에 기여함
- 마을 앞에 위치한 경관직불 대상지에 유채 경관의 조성은 방문객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여 방문객의 증가를 유도하고 증가된 방문객으로 민박 수요 증가, 음식체험 및 농특산물 수요 증가 등으로 농촌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본 마을의 농가 연령구조를 보면 70세 이상이 50%이상을 차지하고 60세 미만은 10%정도밖에 되지 않아 농사일을 할 수 있는 농민이 부족하고 기초생활지원대상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평균 소득도 낮아 마을 활력이 떨어져 있었으나 체험마을사업 시행으로 마을 공동체가 살아나고 경관보전직불제는 체험마을의 활성화와 마을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됨.

4) 제도개선 및 사업확대 방안

□ 지급단가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경비(종자구입비, 경운, 파종, 시비 등)를 감안하여 지원 금액이 부족한 상황임. 그런데, 공한지 등 농지로서 가치가 떨어지는 농지에 화훼류의 경관작물을 재배할 경우에는 충분하나, 콩 등의 소득 작물을 재

배하는 농지에 소득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경관작물을 재배하기에는 턱없이 지원금액이 부족함.

- 현재는 재배작물을 고려하지 않고 중앙정부에서는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지역특성에 따라 추가 지원을 하고 있음 경남도의 경우 70만원을 추가하여 250만원(ha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하절기에 경관작물을 재배하기에는 크게 부족함. 소득작물과의 손실 차이를 전부 지원한다면 보조금을 과다지급할 수도 있고, 작물에 따라 만족도가 큰 차이를 발생하고 있으므로 작물별, 재배시기별로 차별화가 필요함. 그렇다고 중앙정부에서 전부 지원하기 보다는 지역활성화 정책임을 감안하여 지자체에서 작목별 추가적인 지원이 요구됨.
- 지자체별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작목별로 추가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재정 형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경우는 지자체에서 감당할 수 없어 더욱 불균형을 유발 할 수 있음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중앙에서 별도의 추가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급방법은 각 농가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경우와 추진위원회 구성에 의한 추진위원회에 일괄지급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개별지급을 요구할 경우는 개별로 지급하고, 추진위원회에 일괄지급을 요구할 경우는 일괄지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좋을 것임. 농가 개별지급은 개별적으로 영농관리를 하는 경우이고 추진위원회 일괄지급은 추진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영농작업을 할 경우임. 공동의 영농작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으나 참여농가의 불만과 갈등의 소지가 있으므로 참여농가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임.
- 지급시기는 경관작물의 수확후 관리를 포함하여 전 과정에 대한 점검 후 지급하는 것이 경관직불제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사업대상지역 적합성 및 확대방안(면적기준 등)

- 본 마을은 농촌전통테마마을로서 전통문화어메니티 자원이 많아 방문하는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숙박을 유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 다른 볼거리와 놀거리가 부족하며 딸기외는 특별한 농특산물이 없어 농가소득

과 직결되지 않고 있음. 아름다운 볼거리를 조성하여 많은 방문객의 유도 숙박 및 체험 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경관보직불제 대상지로 적합한 지역임.

- 직불제는 면적기준 지급과 작물기준 지급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방법에 대한 장단점이 있음. 본 직불제는 면적기준 직불제로 ha당 지급단가를 지급 하나, 작물별로 차별화가 되지 않아 유채 메밀, 자운영 등의 작물에 집중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면적기준에 의한 작물별 차별화된 지급단가의 설정이 필요함

□ 경관작물 다양화 방안

- 대상작물은 경관조성 및 농업소득증대가 동시에 가능한 작물로 확대할 필요성은 있으나 기존에 소득 작물로 경작을 하고 있는 작물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화훼류는 소득작물로 재배하고 있으나 경관조성후 볼거리 제공 및 관리에 따른 추가비용 및 손실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지원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음. 경관조성 효과가 뛰어나므로 지원 가능한 방향으로의 검토가 필요함. 본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하는 것이므로 경관창출효과가 높은 화훼작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함

□ 마을 경관향상 방안

- 마을주민 참여를 통한 경관보전활동 유형
- 현재는 경관작물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으나 빈집, 폐가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마을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잡초제거 하천 및수로 정비 등의 마을환경정비 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도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농촌경관자원은 역사·문화경관자원, 농업경관자원, 농촌마을경관자원, 자연경관자원 등으로 구분을 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경관자원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그러나, WTO협정 등 국제적 약속 사항에 어긋나지 않고 국가간의 외교적 마찰 OECD국가로서의 신의 등을 감안하여 지원범위를 결정해야 할 것임

□ 경관 조성 및 유지·관리 등 사업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경관직불제 대상 작목 중 메밀은 지원수준 측면과 효과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유채는 재배기술의 미숙과 기후적인 요인으로 작황이 좋지 않는 지역이 발생함.
- 재배기술의 전파와 지형과 기후에 맞는 작목 선정으로 남부지방에서는 훌륭한 경관작목으로 평가할 수 있음. 자운영에 비해서는 경관조성 효과와 관광효과가 뛰어나므로 남부지방의 유채는 적절한 경관작물로 판단됨
- 목화의 경우는 재배기술이 미숙하고 재배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현행 지원수준으로는 참여지역이 없을 것 같고 코스모스의 경우도 벼등 소득작목을 재배하지 않고 재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손실이 과다하여 참여지역이 매우 적을 것임. 해바라기의 경우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경관 조성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기상의 영향을 고려한 재배기술로 재배를 해야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 소요로 참여가 제한적일 것임
- 야생화의 경우는 재배기술이 일반화되어있지 않고 여타 소득작물을 심지 않고 재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손실에 대한 부담이 있음 야생화재배로 일정 부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면 좋은 대상작목이라고 사료됨.
- 지원수준은 작목별로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 대상작목도 2008년도부터 다년생작목인 초화류는 포함되었으나 화훼류도 포함하면 경관창출효과도 높이고, 농가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농촌환경문화경관보전 활동까지 확대할 경우 적지 여부

- 남사예담촌은 농촌전통테마마을로 지정된 한옥마을로 각종 문화재 및 전통 자원이 풍부하여 마을전체가 관광자원이므로 예담촌에 어울리는 적정위치에 경관보전 작물 재배 및 경관보전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5) 관련 현장사진



24.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백운리

1) 사업 추진현황

대상지 현황

구분	위 치	신청자수	참여자수	참여농가수	참여면적	경관작물
백운마을	백운 53-1외46	15	15	15	9ha	유채

경관작물 파종 및 수확현황

- 2007월 10월, 11월 파종, 2008년 4월말 개화

지자체 추가지원 현황

사업면적(ha)	사업비내역(단위:ha/천원)			
	계	국비	도비	군비
9.0	22,500	10,710	5,895	5,895

사업 추진 관련 주민 활동상황

- 유채종자 파종 및 시비, 논두렁 보수, 수로정비 등
- 경관보전직불추진위원회 구성 및 협약체결로 경관작물 재배 공동 노력
-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음식을 공동으로 만들어 판매 마을 공동 수익 창출

2) 사업 만족도

사업추진 주민(대표) 의견

- 백운동 계곡은 관광지라 사람들이 많이 오는 지역임
- 식재를 늦게한(11월10일경) 곳은 잘되고 10월초 일찍 심은 곳은 비교적 잘 되었음. 식재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됨
- 씨앗은 제주도에서 갖어왔어 좋은 씨앗이라고 생각되고 겨울에 많이 동사한 것 같음
- 갈구리로 굵으면 씨앗이 묻히기 때문에 동사가 잘 안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발아가 오히려 늦어 역효과가 난 것이라고 생각됨

- 가구수는 주민등록상으로는 98가구인데, 100가구가 넘음
- 경관직불제 참여농가수는 15가구로 대부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함
- 트랙터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트랙터 가지고 있는 5농가가 대부분 작업을 하고 인력작업이 필요한 부분은 각자가 참여하여 서로 협력하여 추진을 함
- 들어가는 비용은 비료, 제초, 경운 작업등에 들어가는데 1000m²(300평) 기준으로 약 50만원정도가 들었는데, 배수로작업, 시비작업, 풀베기 등에 추가적으로 더 비용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1000m²(300평) 기준으로 약 50만원 정도 들어간 내역을 보면 트랙터 작업 3만원, 비료 1포 1만원, 제초제 4천원, 경운인건비 6천원 정도임
- 마을전체가 협동하여 집단적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들어갔다고 생각이 되며, 면적이 작고 참여 농가가 적으면 비용이 더 많이 들것이라고 생각됨
- 보리와 비교해서는 보리는 수확비용이 들지만 경관목적으로 재배를 하는 유채는 수확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현재 지원되는 직불금(국비, 지방비 포함 ha당 250만원)은 보리를 재배한 경우와 비슷한 소득을 농가에 가져다 주기 때문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됨. 그런데, 이보다 단가를 더 줄이면 수입원이 없어 농촌으로 인구가 유입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됨
- 올해는 대부분 시기를 늦게 파종을 해서 개화기가 늦어 5월 말에 활짝 핀 곳이 많음. 다음부터는 파종시기를 앞당겨 재배를 하면 4월중으로 정상적인 개화가 되고 벼농사에도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 농촌에서 빚을 지는 이유는 농기계 구입 용자 주택개량 용자금 등으로 약 1억 정도의 빚을 지게 되는데 이자와 원금을 갚다보니 농촌가계가 어려운 실정임. 정부정책이 농가의 빚을 양산했다고 생각됨
- 본 마을의 인구는 250명 정도이며, 50대 미만은 3-4명 정도 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 60대 이상으로 농사지을 노동력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는 실정임
- 작년에 경남지역 벼농사가 흉년이라서 요즘 쌀값이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됨. 농가에도 재고 물량이 없고 미곡처리장에도 재고 물량이 없어 쌀 값은 계속 올라갈 것으로 생각됨. 예년에는 200평기준 240-300kg이 생산되었으나 작년에는 200kg정도 밖에 생산되지 않았음. 본인 생각에는 일조시간

- 이 짧고, 기후여건이 좋지 않아 흉년이었다고 생각됨. 5.5ha 정도의 농사를 짓는 저도 평년보다 약 1천만원 정도 소득이 줄어들었음
- 백운동 계곡은 경관이 아름다운 계곡으로 도시민들에게 좋은 휴양처가 되기 때문에 여름철에만 2만명 정도의 사람들이 오는 관광지임. 이 마을에는 민박을 하는 농가가 6농가인데, 여름철에 민박으로 소득을 올리고 있으나 숙박을 하는 기간이 10일에서 15일로 소득에는 큰 기여를 못하고 있음. 숙박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숙박일수를 늘려 민박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농촌체험마을사업 추진이 필요함
 - 본 마을은 친환경 무농약 찹쌀로 2.5ha에 생산하여 부산, 경남 지역 학교급식 연대에 제공을 하고 있는데, 체험마을사업을 한다면 친환경 찹쌀로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을 것임
 - 친환경 찹쌀을 학교급식으로 제공을 하다보니 학부모들이 우렁이농법에 의한 친환경 찹쌀농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견학하러 많이들 와서 우리애들이 좋은 쌀을 먹고 있구나 하고 직접 확인을 함으로써 만족감을 나타냄
 - 체험마을사업 추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촌체험마을로 육성한다면 자연조건이 좋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본 마을은 지리적으로도 대전진주간 고속도로의 단성IC에서 지리산 입구 쪽으로 10km 위치에 있고 이 마을을 지나면 지리산 청학동으로 해서 하동으로 넘어갈 수 있어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음
 - 이 마을의 영농상황은 과거에는 논농사를 700마지기 정도 했으나, 요즘은 450마지기 밖에 안됨. 250마지기 정도는 산골짜기에 위치하고 있어 노동력이 부족해 감나무를 심어 곱감을 생산하고 있음. 이 마을 곱감은 옛날에 고종황제한테 진상하는 농특산품이었는데 그래서 고종씨감이라고도 함.
 - 곱감수익으로 보통 가구당 5백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30가구에서 40가구 정도가 곱감 농사를 짓고 있음. 이 마을 곱감은 전국적으로 맛이 제일 좋다고 알려져 요즘 가격도 괜찮은 편이라 쌀농사의 약2배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음
 - 평야지대에도 곱감나무를 심어도 좋을 것이나, 먹을 식량도 생산을 해야하고 곱감 가격이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농사지을 여건이 되는 평

야지대는 쌀농사를 하고 있음. 과거 이 마을에서 밤을 생산하여 소득을 많이 올린 적이 있으나, 전국적으로 밤생산이 늘고, 수입 밤의 증대로 밤 가격이 떨어져 소득이 많이 줄어들었던 적이 있으므로 곳감도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평야지대는 안정적인 쌀농사를 하고 있음

- 그리고, 조식선생이 백운계곡에 와서 안사아 놀면서 시를 읊었다는 흔적이 있으므로 조식선생이라는 인물 문화 유산과 연계한 체험마을 추진도 할 수 있음. 이 마을에서 6km떨어진 곳인 시천면 덕산마을에 조식선생이 세운 서당도 있고, 묘도 있으므로 역사문화자원도 갖추고 있음
- 경관직불금의 추가적인 지원은 풀베기 돌담정비, 담장이 넝쿨, 쉼터, 경관 조성 수목 심기 등에 지원이 되면 좋을 것임

□ 지자체 담당자 의견

- 이 지역은 사질토로 배수는 잘되기 때문에 유채경작에 있어 배수작업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됨
- 비료시비, 배수작업 등에 좀더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임
- 벼농사, 보리농사 짓는 것보다는 신경이 덜 들어가는 점은 인정하지만 지원되는 직불금이 적고 농사를 지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건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됨
- 수입원이 없어 빚을 진 농가들이 많은 농촌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직불금 단가를 현재 수준(1ha당 250만원)은 유지되어야 할 것임

3) 사업시행 효과

□ 농가소득 향상효과

- 1000㎡(300평) 기준으로 약 5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농가소득이 되었으므로 보리를 재배하여 얻었던 소득과 비슷하여 보리는 수매를 받아주지 않아 판로가 없어 재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유채재배시 경관보전 직불제 지원은 농가소득에 큰 도움일 될 것임
- 마을전체가 협동하여 집단적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들어갔다고 생각이 되며, 면적이 작고 참여 농가가 적으면 비용이 더 많이 들것

이라고 생각됨

- 보리와 비교해서는 보리는 수확비용이 들지만 경관목적으로 재배를 하는 유채는 수확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현재 지원되는 직불금(국비, 지방비 포함 ha당 250만원)은 보리를 재배한 경우와 비슷한 소득을 농가에 가져다 주기 때문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됨. 그런데, 이보다 단가를 더 줄이면 수입원이 없어 농촌으로 인구가 유입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면 불만의 소지가 많을 것으로 사료됨

□ 경관조성 및 농촌어메니티 증진효과

- 체험마을사업 추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촌체험마을로 육성한다면 자연조건이 좋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본 마을은 지리적으로도 대전진주간 고속도로의 단성 I.C에서 지리산 입구 쪽으로 10km 위치에 있고 이 마을을 지나면 지리산 청학동으로 해서 하동으로 넘어갈 수 있어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음
- 이 마을의 영농상황은 과거에는 논농사를 700마지기 정도 했으나, 요즘은 450마지기 밖에 안됨. 250마지기 정도는 산골짜기에 위치하고 있어 노동력이 부족해 감나무를 심어 꽃감을 생산하고 있음. 이 마을 꽃감은 옛날에 고종황제한테 진상하는 농특산물이었는데 그래서 고종씨감이라고도 함.
- 그리고, 조식선생이 백운계곡에 와서 앉아 놀면서 시를 읊었다는 흔적이 있으므로 조식선생이라는 인물 문화 유산과 연계한 체험마을 추진도 할 수 있음. 이 마을에서 6km 떨어진 곳인 시천면 덕산마을에 조식선생이 세운 서당도 있고, 묘도 있으므로 역사문화자원도 갖추고 있으므로 유채경관은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됨

□ 공동체의식 함양 및 지역활성화 효과

- 마을전체가 협동하여 집단적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들어갔다고 생각이 되고, 유채농사 작업을 통해 지역발전을 함께 노력하려는 공동체 의식이 되살아 나고 있음

- 본 마을의 인구는 250명 정도이며, 50대 미만은 3-4명 정도 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 60대 이상으로 농사지을 노동력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트랙터를 가진 5농가가 경작을 대신하면서 인력작업은 함께 참여하여 공동체의식이 높아져 농촌체험마을사업추진등을 통해 농외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노력하고 있음

4) 제도개선 및 사업확대 방안

□ 지급단가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 벼농사, 보리농사 짓는 것보다는 신경이 덜 들어가는 점은 있으나 지원되는 직불금이 충분하다고는 참여농가가 생각하지 않고 있으므로 농촌에 수입원이 없어 빚을 진 농가들이 많은 농촌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직불금 단가를 현재 수준(경남도의 경우 국비와 도비를 합하여 1ha당 250만원)은 유지되어야 할 것임

□ 사업대상지역 적합성 및 확대방안(면적기준 등)

- 본 지역은 백운동 계곡이라는 자연경관자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로서는 적합하다고 사료됨
- 경관보전직불사업이 잘 추진이 되면 농촌체험마을사업등도 잘 될 것으로 사료됨

□ 경관작물 다양화 방안

- 이 마을 상부에 있는 백운동 계곡은 경관이 아름다운 계곡으로 도시민들에게 좋은 휴양처가 되기 때문에 여름철에만 2만명 정도의 사람들이 오는 관광지이므로 유채등 경관작물 식재로 방문객 증대에 기여할것으로 사료됨
- 본 마을은 친환경 무농약 찹쌀로 2.5ha에 생산하여 부산, 경남 지역 학교급식 연대에 제공을 하고 있는데, 체험마을사업을 한다면 친환경 찹쌀로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고, 친환경 찹쌀을 학교급식으로 제공을 하다보니 학

부형들이 우렁이농법에 의한 친환경 찹쌀농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견학 하려 많이들 와서 우리애들이 좋은 쌀을 먹고 있구나 하고 직접 확인을 함으로써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는 등 농촌체험마을 추진을 위한 친환경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유채등의 경관작물 식재로 친환경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마을 경관향상 방안

- 경관직불금의 풀베기, 돌담정비, 담장이 넝쿨, 쉼터, 경관조성 수목 심기 등에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면 농촌경관이 좋아져 방문객들도 증가하고 체험시설, 체험관광사업 추진으로 마을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임

□ 경관 조성 및 유지·관리 등 사업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경남도의 경우 경관직불금은 국비 및 지방비를 합하여ha당 250만원 정도는 지원되어야 직불제도에 대한 만족도도 향상되고 농촌의 어려운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지원단가를 줄이면 참여의욕도 떨어지고 지원해주고도 정책의 만족도 저하로 불평의 소지가 클 것으로 사료됨

□ 농촌환경문화경관보전 활동까지 확대할 경우 적지 여부

- 풀베기, 친환경하천정비, 배수로정비, 돌담정비 등에도 지원이 되면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임
- 농촌환경문화경관보전 활동에 대한 지원은 농촌경관의 전반적인 향상에 기여하고 이 마을도 농촌마을의 전통자원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5) 관련 현장사진



25. 경상남도 산청군 생초면 대포리

1) 사업 추진현황

대상지 현황

- 위 치 : 산청군 생초면 대포지역
- 신청자수 및 참여자농가 : 15농가 15명
- 참여 면적 : 72,000m²
- 경관 작물 : 유채

경관작물 파종 및 수확현황

- 2007월 10월중순 파종, 2008년 4월말 개화

지자체 추가지원 현황

- 국고지원비율 대비 지방비 지원 현황

사업면적	사업비 내역(단위:ha/천원)			
	계	국비	도비	군비
7.2	18,000	8,568	4,716	4,716

사업 추진 관련 주민 활동상황

- 유채종자 파종 및 시비, 논두렁 보수, 수로정비 등
- 경관보전직불추진위원회 구성 및 협약체결로 경관작물 재배 공동 노력
-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음식을 공동으로 만들어 판매 마을 공동 수익 창출

2) 사업 만족도

사업추진 주민(대표) 의견

- 당초 유채꽃이 피면 관광객도 유치하고 지역을 널리 홍보하여 주민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유채가 제대로 피지 않아 계획에 차질이 생겼으며, 보조되는 금액이 적고 유채를 수확해도 판로가 없어 관리에 대한 주민 관심도가 낮은 편임

□ 지자체 담당자 의견

- 경관보전 직불제는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하여 주 작물 수확 후 경관 작물을 파종하면 경관보전직불금(m²당 250원)을 지급하고 이듬해 봄 경관작물의 생육상태 및 개화를 확인 후 나머지50%을 추가 지급토록 하고 있으나, 지원금액이 적고 농민들이 수확해도 판로가 없어 파종만하고 나면 관심도가 떨어져 관리가 부실해 질 수 있으므로 수확물의 판매로 일정부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

3) 사업시행 효과

□ 농가소득 향상효과

- 경관직불금은 영농작업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일정 부분 소득에 도움이 되고 있음

□ 경관조성 및 농촌어메니티 증진효과

- 기후조건, 토양조건 등이 좋아 경관상태가 좋은 경우는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을 것이나, 기후조건 및 토양조건 등이 좋지 않아 경관작물이 잘 성장하지 않는 이 지역은 주민들도 경관작물재배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작물의 선정 및 재배로 농촌체험마을 추진 및 지역축제 등과 연계가 된다면 지역주민들도 의욕이 높아지고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임

□ 공동체의식 함양 및 지역활성화 효과

- 대단지 유채꽃 단지 조성으로 관광객 유치를 통한 마을을 홍보하여 지역친환경 특산물 판매 증대, 민박 활성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수익 증대 등을 통해 농촌 발전 모델상 확립을 위해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경관작물 선정 및 재배기술 기후여건, 토양조건 등의 문제로 아직 효과가 미미함.

□ 경관작물 관련 축제 시행성과

- 산청한방약초축제와 연계 사진 콘테스트를 가질 계획이었으나 유채꽃이 제대로 피지 않아 행사를 진행하지 못해 아쉬움이 많음. 경관작물의 재배·관리·기술의 노하우 축적과 함께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경관작물 선정 재배하여 산청 한방약초축제와 연계한 행사 추진 계획

4) 제도개선 및 사업확대 방안

□ 지급단가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 경관보전직불금은 m²당 100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그 금액이 적고 농민들 또한 유채의 경우 수확해도 판로가 없어 파종만하고 나면 관심도가 떨어져 관리가 부실해 질 수 있으므로 지원금액의 상향조정 및 수확물 판로 확보가 요구됨
- 경관조성만이 목적이라면 관리가 수월하고 밀원이면서 땅심도 높일 수 있는 작물을 식재하거나 경관조성과 함께 수확물을 생산하여 수확물 판매를 통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함으로써 농가의 관심도를 높이고 잘가꾼 농가가 수익도 많이 내는 시장논리 개념의 접근도 요구됨

□ 사업대상지역 적합성 및 확대방안(면적기준 등)

- 녹색체험마을 및 1사1촌 자매결연마을 등을 추진하는 마을로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이 잘 추진되면 이 마을의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나 재배기술, 기후여건, 토양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경관작물이 선정되지 않아 큰 효과를 못 거두었다고 사료되므로 경관작물의 변경을 통하여 경관작물 식재 효과가 잘 나타나는 방향으로 추진

□ 경관작물 다양화 방안

- 이 지역은 현재 경관작물 이외에 마을 경관형성에 가장 적합한 작물과 추천 사유

□ 마을 경관향상 방안

- 경관직불금의 풀베기, 돌담정비, 담장이 넝쿨, 쉼터, 경관조성 수목 심기 등에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면 농촌경관이 좋아져 방문객들도 증가하고 체험시설, 체험관광사업 추진으로 마을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임

□ 경관 조성 및 유지·관리 등 사업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경남도의 경우 경관직불금은 국비 및 지방비를 합하여ha당 250만원 정도는 지원되어야 직불제도에 대한 만족도도 향상되고 농촌의 어려운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지원단가를 줄이면 참여의욕도 떨어지고 지원해주고도 정책의 만족도 저하로 불평의 소지가 클 것으로 사료됨

□ 농촌환경문화경관보전 활동까지 확대할 경우 적지 여부

- 풀베기, 친환경하천정비, 배수로정비, 돌담정비 등에도 지원이 되면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임
- 농촌환경문화경관보전 활동에 대한 지원은 농촌경관의 전반적인 향상에 기여하고 이 마을도 농촌마을의 전통자원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5) 관련 현장사진



26. 경상남도 의령군 공류면 평촌리

1) 사업 추진현황

대상지 현황

위치	참여자수	참여농가수	참여면적(㎡)	경관작물
공류면 평촌리 예동마을	31	31	126,578.9	자운영

경관작물 파종 및 수확현황

- 파종작물 : 자운영
- 파종시기 : '07.10
- 수확현황 : '07.12 발아상태확인후 미수확 상태

지자체 추가지원 현황

- 국고 70%, 도비 15%, 군비 15%(1,700천원/ha)
- 경관보전 직불제로 편성된 목 이외에 추가 지원은 없는 실정

사업추진관련 주민활동 상황 (재배관리 및 경관관리활동)

- 위원장을 주축으로 한 경관직불제 참여 농가들의 주기적인 관리로 재배상태 확인 및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2) 사업 만족도

사업추진 주민(대표) 의견

- 경관보전 직불제 실시로 농가소득이 늘었고 마을의 풍경이 아름다워져 마을을 찾는 외지인들의 호평을 받았음
- 자운영은 논외 지력을 증진하는데 도움을 주고 아름다운 경관을 가꾸어 체험 방문객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으므로 현행 경관보전직불제의 방향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지원금액은 피부로 느낄 정도가 되지 못하고 있음
- 농민들이 받는 여러 가지 직불금등 지원금이 있음 예컨대, 노령연금, 쌀소득보전직불금, 경관보전직불금 등이 있는데,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다보니

어떤 지원금이 어디서 무엇 때문에 들어왔는지 잘 모름

- 작년 초겨울부터 이 지역은 많이 가물어서 작황이 좋지 않다고 생각됨 그리고 종자구하기도 어려웠음. 작년에 이 지역의 자운영의 작황상태가 좋았지만, 올해에는 좋지 않음. 인근 지역에도 작황상태가 좋지 않음
- 이 지역 자운영이 도복병에도 걸렸는데, 도복병은 거름성분이 많아서 걸린다고들 함. 그래서 다음부터는 밑그름을 절반정도로 줄일 계획임
- 축산하는 사람들은 청보리가 친환경 축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므로 청보리를 심는 쪽이 좋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다음부터는 청보리를 경관작물로 검토할 계획
-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자운영을 경작하는 노하우가 부족하므로 작황이 좋지 않을 때 대처능력이 부족하므로 자운영 재배매뉴얼을 개발 보급해주고 교육도 시켜주면 좋겠음
- 올해는 어찌된 일인지 독새 풀이 많이 났음. 제초제를 사용해야 하나 자운영도 함께 죽을까봐 제초제도 사용하기 어려움
- 이 마을은 산천렵체험마을로 체험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임
- 주요체험 프로그램으로는 미꾸라지 잡기, 대나무 낚시하기, 토끼몰이, 한평지기 농사꾼, 메뚜기랑 자연공부, 마당놀이, 추억의 망개떡, 손두부만들기, 벼짚공예체험 등이 있음.
- 체험마을사업비 2억으로 체험관, 화장실, 돌담정비 등을 했으며, 기존의 블록담의 경관이 좋지 않아 벽면을 무늬가 생기도록 얇은 돌을 부쳐 미관이 좋아져 경관이 아름답도록 조성하였음
- 그리고, 한국농촌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한 마을 앞 친환경수로는 이 마을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물놀이 체험을 할 수 있어 좋은 시설사업이라고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음

□ 지자체 담당자 의견

- 경관 보전 직불제 시행지구에 대한 행정 및 마을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요구됨
- 이 마을은 산천렵농촌전통테마마을로 남해고속도로 의령나들목에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산골마을로 전체주민은 30가구 38명에 불과하며 대부분 60세 이상이므로 언제까지 마을이 지속될 지 모르겠음

- 이 마을에서 행해지는 체험은 전통사냥 놀이인 덮치기 놀이 집풀공예만들기 등이 있는데, 집풀공예시간에는 너도 나도 짚을 꼬아 새끼부터 만들고 새끼로 줄넘기놀이도 함.
- 마을 입구에는 소나무가 우거진 새청당이 있음 정자나무는 당산마무로 동신제를 올리던 곳으로 한 때는외적을 막고 악귀를 쫓아내는 장소였음 마을 초입에 있는 봉황대는 명승지로서 일봉사와 접해 있음
- 마을과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의령예술촌은 폐교를 활용해 만든 곳으로 5개 분야 상설 전시관과 운동장의 돌탑 장승, 솟대 등이 잘 어우러져 있음. 예술촌 남쪽 담장 들에는 크고 작은 장승들이 세워져 있어 조화됨
-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미꾸라지 잡기 체험장, 원두막 2동, 조롱박 터널 등의 체험장과 우천을 대비한 실내체험장 단체 체험객을 위한 샤워실과 화장실이 마련돼 있음
- 이 마을은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만 1000명 정도가 찾아왔으며, 첫째 198명을 시작으로 매년 3000명 안팎의 방문객들이 찾아오는데 경관보전 직불제사업으로 자운영 경관이 잘 조성되면 더 많은 방문객들이 방문하여 농가경영과 지역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3) 사업시행 효과

□ 농가소득 향상효과

- 2007년도 이 마을에서 거둔 도농교류소득으로는 친환경 쌀 직거래 및 현장 판매로 4천만원, 민박 및 식사제공으로 28백만원,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25백만원으로 총 7천3백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음 총 방문객은 약 3000명으로 2006년도 약 2천명으로 약 1천의 방문객이 늘었음. 방문객이 늘고 소득이 증가한 이유는 2003년도 체험마을사업을 한후 기간이 경과하여 홍보가 잘되어 증가한 측면도 있지만 경관보전직불제로 자운영을 재배함으로써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방문객들의 흥미를 유발했기 때문이라고 사료됨

□ 경관조성 및 농촌어메니티 증진효과

- 자운영 파종으로 예동지구는 산천립테마 마을과 주위의 관광지와 어우러져 예동을 찾은 관광객의 눈을 즐겁게하여 또다른 관광객 유치와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함
- 2007년도 봄에는 자운영이 잘되어 꽃이 너무 아름다워 아름다운 꽃을 감상하고 사진도 촬영하고 애들은 꽃밭에서 딩굴기도 하는데, 자운영 꽃밭이 애들한테 훌륭한 자연체험장이 되었음. 2008년도에는 병충해도 입고 잡풀이 많이 자라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기후 탓도 있지만, 시비를 많이 해서 자운영이 튼튼하게 성장하지 못했지 않았는가라고 생각됨

□ 공동체의식 함양 및 지역활성화 효과

- 이 마을은 농촌테마마을로 매년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으며2007년도에는 약 3천여명이 방문하여 2006년도 2천여명에 비해 50%정도 방문객이 증가했음. 이러한 방문객의 증가에 경관보전직불제가 기여했다고 사료됨
- 주위 관광지를 찾은 관광객들은 자운영을 배경으로 사진 촬영 등을 하여 추억을 담아가는 지역으로 인정 받고 있음

□ 경관작물 관련 축제 시행성과

- 의령 예술촌 문화행사가 있으나 경관보전직불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4) 제도개선 및 사업확대 방안

□ 지급단가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 동계작물의 지급단가가 하향 조정으로농가의 어려움호소 하고 있으므로 기존 단가(1,700천위/ha)로 지원되길 희망하고 있으므로 지원단가의 조정이 필요함
- 경관지역주민의 경관작물에 대한 이해도 및 재배기술 부족으로 인한 파종 상태가 불량한 경우가 종종 발생 하므로 경관 작물 재배 매뉴얼 등을 통한 경관보전사업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매뉴얼 제작배부, 교육이 필요함

□ 사업대상지역 적합성 및 확대방안면적기준 등)

- 본 마을은 블록돌담을 친환경돌담으로 정비한 좋은 사례지역이므로 본 마을을 참고하여 경관이 좋은 돌담으로 정비할 경우에도 경관보전직불제의 지원이 필요함
- 대상지역의 논둑이 돌로 되어 있어 경관이 좋은데 일부 허물어진 곳이 있으므로 돌로 된 논둑을 보수하여 아름다운 농지경관을 연출할 경우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검토가 필요함

□ 경관작물 다양화 방안

- 이 지역은 자운영을 재배하고 있는데 2007년도에는 자운영이 잘 성장했으나, 올해는 도복병, 잡풀 등이 생기고 개화도 잘 안되었으므로 다른 작목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음
- 다른 작목으로 청보리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재배관리가 용이하고 기후의 영향도 적게 받으며, 축산농가들한테 사료작물로도 제공을 할 수 있어 친환경 축산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경관을 조성하여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어 방문객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임
- 청보리와 유채 및 자운영 모두 지원되는 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대부분 청보리를 재배할 가능성이 많아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조성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지원단가의 차별화가 요망됨

□ 마을 경관향상 방안

- 본 마을은 블록돌담을 친환경돌담으로 정비한 좋은 사례지역이므로 본 마을을 참고하여 경관이 좋은 돌담으로 정비할 경우에도 경관보전직불제의 지원이 필요함

- 대상지역의 논둑이 돌로 되어 있어 경관이 좋은데 일부 허물어진 곳이 있으므로 돌로 된 논둑을 보수하여 아름다운 농지경관을 연출할 경우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검토가 필요함

□ 경관 조성 및 유지·관리 등 사업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경관지역주민의 경관작물에 대한 이해도 및 재배기술 부족으로 인한 파종상태가 불량한 경우가 종종 발생 하므로 경관 작물 재배 매뉴얼 등을 통한 경관보전사업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매뉴얼 제작배부, 교육이 필요함

□ 농촌환경문화경관보전 활동까지 확대할 경우 적지 여부

- 본 마을은 자운영을 재배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여 체험마을을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좋은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마을내 친환경 돌담, 마을앞의 역사전통을 가진 정자 폐교를 활용한 예술촌 등과 함께 다양한 자원을 지니고 있으므로 농촌환경문화경관보전 활동까지 경관보전적 불제를 확대할 경우 적지라고 사료됨

※ 이 마을에는 일봉사라는 절이 있는데 일봉사에서는 실버타운을 운영함 인원은 100여명으로 공직 퇴직자, 고향 출신 등이 들어와 있으며 처음에는 5-6천만원이면 들어갈 수 있었으나, 지금은 7-8천만원이 있어야 한다고함. 의료시설은 가까운 의령읍에 노인요양병원을 설립하여 일봉사 실버타운에서 위독하면 노인요양병원으로 옮겨 입원을 시켜 치료를 함 이 마을의 실제 인구수는 38명 정도 밖에 되지 않으나 실버타운 노인들도 이마을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주민등록상으로 약150명에 달함. 실버타운 노인들에게 아름다운 경관농업은 정신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5) 관련 현장사진



예동지구 자운영



예동지구 자운영

27.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1) 사업 추진현황

대상지 현황

지구명	작물명	계획면적 (ha)	소요사업비				지급단가 (천원/ha)	비고
			합계	국비	도비	군비		
북천직전	유채 ('08 개화)	20.81	52,026	24,764	13,631	13,631	2,500	
	메밀, 코스모스 ('07 개화)	20.81	93,645	24,764	13,631	55,250	4,500	군비추가 지원

경관작물 파종 및 수확현황

- '07 사업추진계획 수립 : '06. 11. 09.
- '07 봄작물(유채) 파종 : '06. 10. 말
- '07 봄작물(유채) 개화 : '07. 4. ~ 5.

지자체 추가지원 현황

- 지급단가 : 2,500천원/ha(자운영 1,700천원)
 - 국비지원기준 : 1,700천원/ha(국1,190(70%), 도255(15%), 군255(15%))
 - 도비추가지원 : 800천원/ha(도400(50%), 군400(50%))
 - 도비지원사업 : 2,500천원/ha(도1,250(50%), 군비1,250(50%))
 - 북천 가을개화 작물(메밀,코스모스)은 군비 2,000천원/ha 추가지원

사업추진관련 주민활동 상황 (재배관리 및 경관관리활동)

- 경관보전직불대상면적 습해방지를 위한 배수로 관리철저
- 마을민 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동작업실시
- 추진위원회 구성으로 인한 선도 지도자들의 솔선수범

※ 북천 직전마을 현황

- 가구수 : 78호(농가 62호, 비농가 16호)
- 인구수 : 146명(남 68명, 여 78명)
- 농지면적 : 53.3ha(논47.6ha, 밭3.7ha, 과수원2ha)
- 산림면적 : 730ha
- 마을공동체 활동 : 회원수 262명
 - 영농회 63, 부녀회 63, 청년회 21, 노인회 61, 농악단 21, 메밀작목반 33

※ 마을의 자원현황

가. 마을의 역사

- 직전마을은 조선왕조 12대왕인 인조(1625년)때 현 너뱅이들 옆에 널븐 바위(네븐바위 : 현재 유실됨)에 한 도사가 동지를 데리고 쉬면서 현마을 동쪽편의 원터를 가르키며 "동자야 너도 보았느냐?" 하고 물었는데 도사가 그 곳은 『"피"가 잘 자라서』 즉 곡식이 잘되어 흉년이 들지 않고 배고픔을 모을곳이라 하여 "피밭" 즉 직전(稷田)이라 하였음
 - 지금의 동래는 숙종5년 (1679) 지금부터 330여년전 문헌상이 처음으로 이사하여 정착 하였고 현재는 강성문씨와 청주한씨의 집성촌임

나. 마을의 자연경관과 환경

- 수려한 산세와 어우러진 자연환경 및 청정계곡이 세인의 눈길을 끌고 있으며 3km의 계곡과 개울이 어우러져 흐르는 맑은물은 특급수로서 산천어가 서식하는 곳으로 향락객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
- 마을내 300년(추정)된 소나무 숲은 산림청 지정 숲으로 지정되어 2001년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음
- 유서깊은 역사와 문화·관광자원이 풍부함
- 주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벼농사의 밤, 감,고사리,녹차등의 작물을 재배하고 있음
- 마을내 번덕거리 폭포, 벼락바위, 흔들바위, 학성대, 말바위등이 소재하고 있는 청정계곡, 그 외 곳곳에 관광 자원이 풍부하여 향락객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
- 마을내 1800년대의 전통가옥 2동과 전통 돌담 100m가 있어 우리 조상들 지혜를 엿볼 수 있음
- 우리나라 의류산업의 큰 변혁을 일구어낸 삼우당 문익점선생의 업적을 기리고자 후학들이 세운 세운 추모비가 마을입구에 세워져 있음

2) 사업 만족도

□ 사업추진 주민(대표) 의견

- 이 지역은 경관보전직불금을 지원받아 코스모스와 메밀을 식재하여 많은 관광객들의 방문을 유도함으로써 코스모스등 꽃을 테마로 하는 지역특화 관광지로 육성되어 가고 있으며 향후 농가소득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지급단가에 있어서는 코스모스의 경우5월말에 식재하여 10월에 꽃을 피움으로서 하절기 소득작목을 경작할 수 없어 소득손실이 크게 발생하므로6월 이전에 파종 및 식재를 하는 코스모스등과 같은 작목은 지원단가를 대폭 올려주기를 바람
- 이 지역은 코스모스, 메밀, 조롱박,유채 등 꽃단지를 육성, 체험행사를 실시하여 전국적으로 유명한 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에 있으므로 체험행사를 위한 부대시설 설치 등 행사경비에 있어서도 지원을 해주기를 바람
- 올해의 경우 관광객이 많이 와서 방문차량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 어려움을 많이 겪었으므로 주차공간, 화장실, 쉼터(원두막), 산책로 의자시설 등 편의 시설에 대해서도 지원이 요망됨

□ 지자체 담당자 의견

- 군자체 사업의 경우 읍·면간 경쟁적 사업신청에 따른 사업의 집중성 및 효율이 떨어지고 지급단가가 낮아군자체예산 확보에 애로가 있음
- 2007년도 9월말에서 10월초순까지 축제를 개최했는데 축제행사기간이 지난후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와 1달정도 농특산물판매가 진행되었음
- 올해 유채는 작년 가을에 심었는데 늦가을에 서리가 닥쳐 싹이 전부 죽었음. 그래서 올 2월에 다시 유채를 파종하여 5월에 개화가 되었음. 재파종을 함에 따른 비용이 증가되고 개화시기가 늦어 봄 관광객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유채를 심지 않고 청보리를 심을 계획에 있음. 유채는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겨울에 동사할 가능성이 많아 이 지역에서는 잘 안되는 것으로 생각됨
- 유채는 이 지역 특성 때문에 잘 안맞는 것 같아 다른 작목으로 전환할 계획에 있으며, 청보리를 재배하면 경관효과도 높일 수 있고 한우 축산농가의 사료

- 로도 제공할 수 있어 경관조성에 의한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한우사료 확보로 축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됨
- 이 지역에서 경관보전직불사업은 국비, 도비, 군비 합하여 연간 ha당 700만 원을 지급하는데, 그래도 주민들은 작다고 생각함
 - 영농에 대한 책임은 전부 농가에서 지고 영농작업을 하고 있으며 경관보전 직불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농가 자체적으로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음
 - 2007년도 축제기간에 1,686백만원의 직간접효과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농 특산물을 판매하여 거둔 수익은 5억정도에 달함
 - 농특산물판매 내역을 보면 고구마 1,500박스정도 1,500만원정도 수입, 밤, 메밀국수, 메밀묵, 된장, 하동녹차, 호박입, 고추 등 지역특산품을 약 1달간 판매하여 약 5억정도의 수입을 올렸음
 - 작년에 행사주관을 면에서 했지만 올해부터는 행사주관을 군에서 할 계획임
 - 작년 축제행사시에 군에서 500만원정도 지원을 받았고 7080콘서트, 국악공연 등은 하동신문사, 군 문화관광과 등의 협찬을 받아 시행하여 큰 비용은 들어가지 않았음
 - 행사기간에 방문객들이 너무 많이 오니 주차장이 가장 큰 문제였기에 임시주차장 3,000평, 학교 운동장 활용 등으로 해결을 했음
 - 축제행사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방문객들의 욕구에 맞는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이 지역에서는 아름다운 코스모스 메밀 경관이 있고 지역특산물이 있기 때문에 축제행사가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됨
 - 경관보전직불금은 100% 각 농가 계좌로 입금이 되고 각자가 경관보전직불 위원회에 참여하여 협력해서 면에서 지도하는 방향으로 영농을 함
 - 위원회는 경관보전직불추진위원회와 축제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있음
 - 경관보전직불추진위원회는 경관작물 식재, 재배, 관리에 노력하고 축제위원회를 군, 면,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여 축제를 책임지고 추진을 함
 - 올해는 문익점 비 있는데 4-5백평 정도에는 목화를 재배할 계획임 종자는 농가에서 구할 수 있음. 목화는 다년생 작물이라 매년 식재를 하며 코스모스 개화기에는 목화 솜이 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방문객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 경관보전직불제의 추가 지원은 축제행사비, 방문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조성비 등에 지원되면 좋겠음
- 올해는 작년보다 10ha 늘려 30ha에 꽃경관을 조성할 계획임
- 이 마을은 2007년도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이 되어 올해부터 체험관 건립 등의 사업을 할 계획임
- 하동군은 재정이 열악한 시군이므로 많은 면적에 경관보전직불금을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여건이 되지 않으므로 국비 지원 비율을 높여주고 경관직불대상 지역도 확대해 주길 요망
- 코스모스 및 메밀, 유채 등을 식재하여 꽃단지를 조성하고 체험행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정자, 체험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가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지원해주길 바랍

3) 사업시행 효과

□ 경관조성 및 농촌어메니티 증진효과

- 이 지역에서 경관보전직불로 재배하는 코스모스는 전국에서 특화된 브랜드를 형성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금년에는 방송 및 신문 등에 많이 홍보되어 도시민들에게는 옛날의 향수를 자아내게 하고 학생들에게는 심미적 교육 효과를 거양하는 효과가 있어 대규모 집단화된 코스모스로 창출되는 경관효과는 많은 관광객들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음
- 이 지역은 코스모스뿐만 아니라 메밀 조롱박, 목화 등 지역특성을 살릴수 있는 전통적인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한국적 꽃작물을 재배할 계획에 있고, 이러한 집단화된 꽃단지 경관은 방문객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정신적 피로감을 해소하는 어메니티 증진 효과가 발휘되어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여가문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삶의질 향상 도모에 기여할 것임
- 경관보전직불로 재배하는 이 지역 특유의 꽃경관형성은 아름답고 조화로운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재배작물을 활용한 가공상품과 농특산물은 친경관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정신적 건강과 육체적 건강과의 연동성을 심리적으로 관광객들에게 느끼게 하는 효과가 있는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 도시민들에게 신뢰도 구축에 기여할 것이므로 농산물의 판매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

□ 공동체의식 함양 및 지역활성화 효과

- 경관직불제 시행으로 코스모스와 메밀을 경작함으로써 이 지역이 꽃단지 마을로 알려지는데 경관보전직불제가 크게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이 지역은 코스모스 및 메밀 유채 등 꽃단지를 방문할 관광객을 유치하여 농특산품의 판매, 체험행사, 음식판매 등을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지역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메밀 수확 및 꽃단지의 테마로 한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홍보로 소득증대 계기가 마련될 것임
- '07년도에는 꽃단지 체험행사 기간에 44만명정도의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북천 경관작물재배지역 직 간접적 경제효과가1,686백만원 정도 나타난 것으로 추정됨

□ 경관작물 관련 축제 시행성과 축제개요 관련사진

- '07년 북천 코스모스 메밀축제
 - 행사기간 : '07. 9. 28 ~ 10. 7
 - 장소 : 북천면 직전리 일원
 - 경관직불제 작물 : 20.8ha
 - 주요행사 : 꽃밭음악회, 7080콘서트, 국악공연, 품바공연등
 - 주요시설 : 먹거리 및 체험장, 부대시설,관광시설등

4) 제도개선 및 사업확대 방안

□ 지급단가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 이 지역은 코스모스와 메밀을 재배하는 지역으로 코스모스의 경우에는5월 말에 코스모스를 파종하여 9월초에서 10월중순까지 코스모스가 개화됨으로서 개화시기가 한달 반이나 되고 재배기간도 약 개월이나 되어 코스모스를 재배할 경우는 여름작목 즉 벼등을 재배할 수 없어 기대소득에 있어서 손실이 크게 발생하므로 이러한 손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보전이 필요
- 하동군 북천면 경관보전직불대상지역과 같이 기존에 벼를 재배하는 논에 코스모스, 메밀 등의 경관작물을 재배할 경우는 지급단가를 상향으로 지원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즉, 밭지역에 경관작물을 재배할 경우와 논지역에 하절기 작물을 재배할 경우 논지역에 동절기 작물을 재배할 경우 등으로 지급단가를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업대상지역 적합성 및 확대방안면적기준 등)

- 본 지역은 기존에 벼를 재배하는 지역으로서 도로변에 위치하여 지리산을 관광하려는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코스모스 메밀, 유채 등을 재배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하여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여 농산물 판매, 경관작물을 테마로 하는 지역축제 등을 개최하여 농외소득증대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에 적합한 지역임
- 본 지역에서는 조롱박 등 박 종류도 재배할 계획에 있어 다양한 경관작물을 개발하여 전국적인 꽃단지로 육성할 계획에 있으므로 조롱박 등에 대해서도 경관작물로 인정하여 경관직불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경관작물 다양화 방안

- 이 지역은 목화씨를 우리나라에 처음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문익점선생이 성장한 지역으로서 목화도 재배할 계획에 있음 현행 제도하에서 목화는 경관작물로 편입되어 있으나, 다양한 경관작물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경관작물 선정의 재량권과 지원단가에 대한 추가지원에 대한 재량권 등을 위임하는 방안도 경관보전직불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마을 경관향상 방안

- 마을의 경관향상을 위해서는 작물재배에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마을 경관 조성을 위한 돌담정비 등에도 지원이 필요함
- 현행 경관보전직불제는 농지에 소득작물대신에 소득이 되지 않는 경관작물을 재배함에 따른 소득손실부분을 지원하여 경관창출을 통하여 관광객들에게 심리적 즐거움을 제공함으로써 관광객을 유인하여 농촌관광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동시에 농가소득보전을 도모하는 정책으로서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현실적이고 적합하다고 판단됨
- 경관보전직불금을 농업경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한다는 비판이 있으나 직불제의 큰 범주에 경관보전직불제가 있으므로 직불제의 큰 방향에 따라 경관보전직불제도 시행되는 것이 타당함.

- 이 지역에서도 경관보전직불금으로 테마공원조성 숲 공원화사업, 주변 산 등산로 및 삼림욕장 조성사업 등에도 경관보전직불금을 지원되기를 희망을 하나, 이러한 부분은 별도의 사업을 만들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함 양군의 경우 마을공원조성사업을 위해 민간보조로 지원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참고하고,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존마을정비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 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농촌마을과 관련한 지역개발사업 메뉴가 있으므로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한 경관보전직불제를 추진해 나간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임
- 그리고, 경관보전직불제를 평가하여 잘 추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예산을 지원하여 원두막 정자, 소공원, 주차시설, 음식판매장 등 농촌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해나가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경관 조성 및 유지·관리 등 사업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파종하면 50% 지급하고 나머지 개화정도 배수로설치 및 탐방로 설치 등에 따라 추가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급율을 결정하기란 쉽지가 않음 성장 및 개화는 기후변화에 따라 민감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기후여건에 따라 개화가 잘 되느냐 못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작업일지에 의해 성실하게 경작작업을 이루어진 것이 증명될 시는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농촌환경문화경관보전 활동까지 확대할 경우 적지 여부

- 경작지경관, 마을내 및 주변경관, 역사문화경관 등이 조화를 이루는 사업을 동시에 할 경우 반응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됨

5) 관련 현장사진



28.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1) 사업 추진현황

대상지 현황

구분	지구명	작물명	계획면적 (ha)	소요사업비				지급단가 (천원/ha)	비고
				합계	국비	도비	군비		
국비사업	악양평사	자운영 ('08개화)	4.0	6,800	4,760	1,020	1,020	1,700	시범사업

경관작물 파종 및 수확현황

- '07 사업추진계획 수립 : '06. 11. 09.
- '07 경관직불제 국·도비사업 신청 : '07. 4. 2.
- 자운영은 '07년 시범사업으로 경남도 3개소 선정 : 악양 4ha
- 자운영파종 : 10월 중순
- 자운영개화 : '08년 4월하순~5월중순

사업추진관련 주민활동 상황(재배관리 및 경관관리활동)

- 경관보전직불대상면적 습해방지를 위한 배수로 관리철저
- 추진위원회 구성으로 인한 선도 지도자들의 솔선수범

2) 사업 만족도

사업추진 주민(대표) 의견

- 경관보전직불제 지급단가가 군비 지원 수준이 매우 낮아 없이는 소득손실을 충분히 보상할 수 없으므로 최소한 쌀소득을 보전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지원단가가 필요함
- 자운영 개화 시기에 병충해 피해로 인한 개화기간이 짧아 경관작물의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자운영 영농작업 지도가 필요함

□ 지자체 담당자 의견

- 자운영은 녹비작물이자 경관작물이므로 경관조성을 위해서는 개화 시기에 농약살충제로 해충을 방제하고 개화기간 연장이 필요하며 국비, 도비 등 보조지급단가가 낮아질 경우 군자체예산 확보에 애로 발생 및 농가의 호응도 약화가 우려됨

3) 사업시행 효과

□ 공동체의식 함양 및 지역활성화 효과

- 경관작물재배지역과 연계한 최참판댁 방문관광객의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방문객에 대한 지역농특산물 판매로 농가소득제고에 기여하고 있음

□ 경관작물 관련 축제 시행 성과

- 본 지역은 악양면 평사리 최참판댁 일원내에 위치하여 토지문화제가 개최되는 지역으로 토지문화제 기간이 10월 중순경임을 감안할 때 유채경관은 축제와 관련이 적으나, 메밀 및 코스모스 등을 식재하여 축제시기와 연계를 할 수 있어 이러한 작물에 대해 경관보전직불제의 확대시행이 필요함
- 이 지역에서 개최되는 토지문화제에 대해 기술하면 다음과 같음

※ 토지문화제

- 기 간 : 2008. 10. 10~10. 12(3일간)
- 장 소 : 악양면 평사리 최참판댁 일원
- 관람예상인원 : 10만명
- 주최/주관 : 하동군 · 토지문화제추진위원회
- 소요예산(백만원)

계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기타	비고
110		50	40		20	

○ 세부행사내용

- 전국 최대규모의 허수아비 콘테스트 개최

- 다양한 주제로 볼거리제공 및 포토존 형성
- 계절과 지역성에 맞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밤줍기, 가을걷이 농촌 체험행사, 섬진강 나룻배 타기 등 이벤트개최
- 전국 단위 문학 토론회 및 심포지움 개최: 야외문학공원 조성
- 코스모스 메밀꽃 축제와 연계한 단위행사개발: 기차타고 꽃과 함께 문학 소녀되어보기, 토지연극 등

○ 축제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

- 지역경제 활성화(전통적 물품, 특산품 등)
 - 전국의 문인 및 사진작가 관광객 대거방문으로 지역·관광·특산물 홍보 효과 극대화
- 수익성 : 7만명×50,000(1인 평균국내여행지출경비)= 3,500백만

4) 제도개선 및 사업확대 방안

□ 지급단가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 벼 재배지역에 연간 지속적으로 경관보전직불제를 시행할 시에는10a당 연간 700천원정도는 지급되어야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경관보전직불제 지원금은 친환경 농업 지력증진으로 품질 향상을 위해 토양개선을 위한 유기질 비료등 농자재 토양을 살릴 수 있는데도 지원되면 농산물의 경쟁력제고 및 농촌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임

□ 사업대상지역 적합성 및 확대방안(면적기준 등)

- 지급단가 상향시 주민 호응도가 높으므로 지원단가 상향조정 및 면적확대가 요구됨

□ 경관작물 다양화 방안

- 청보리등 사료작물과 밀등의 재배확대로 사료값 상승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애로해결 및 지역특산물화와 연계가 가능하므로 청보리에 대한 수요가 높으므로 청보리 면적의 확대가 요망됨

□ 마을 경관향상 방안

- 마을의 경관향상을 위해서는 작물재배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마을 경관조성을 위해 돌담정비 등에도 지원이 필요함

□ 경관 조성 및 유지·관리 등 사업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경관보전직불제 지급단가가 군비 지원 수준이 매우 낮아 없이는 소득손실을 충분히 보상할 수 없으므로 최소한 쌀소득을 보전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지원단가가 필요함
- 자운영 개화 시기에 병충해 피해로 인한 개화기간이 짧아 경관작물의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자운영 영농작업 지도가 필요함
- 자운영은 녹비작물이자 경관작물이므로 경관조성을 위해서는 개화 시기에 농약살충제로 해충을 방제하고 개화기간 연장이 필요하며 국비, 도비 등 보조지급단가가 낮아질 경우 군자체예산 확보에 애로 발생 및 농가의 호응도 약화가 우려됨

□ 농촌환경문화경관보전 활동까지 확대할 경우 적지 여부

- 경작지경관, 마을내 및 주변경관, 역사문화경관 등이 조화를 이루는 사업을 동시에 할 경우 반응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는 지역으로 사료됨

5) 관련 현장 사진



29.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오천리

1) 사업 추진현황

대상지 현황

- 위 치 : 백전면 오천리 양천마을 일원
- 사 업 자 : 하고초 꿀 영농조합법인(대표 : 정진상)
- 대상농가 : 양천마을 17농가(토봉 1,300군)
- 하고초 재배단지조성 : 11 ha

경관작물 파종 및 수확현황

- 파종시기 : '05. 7월말 ~ 8월초
- 하고초 개화 : '06. 6월

지자체 추가 지원 현황

- 경관작물 ha당 지원비 : 2,500천원
- ※ ha당 국·도비 지원액 : 국비 1,190천원, 지방비 1,310천원

사업추진관련 주민 참여 현황

- 하고초꿀 축제
 - 시기 : '07. 6. 1 ~ 6. 10(10일간)
 - 축제시 주민 공동으로 하고초원액, 하고초꿀, 농특산물 판매(방문객 6천여명)

2) 사업 만족도

사업추진 주민(대표) 의견

- 하고초꿀의 특화와 농촌관광과의 연계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품개발과 농촌관광기반시설을 설치할 연계하여 추진해야 시너지 효과가 있으므로 경관보전직불제의 확대 지원이 요망됨
- 올해에는 경관보전직불마을로 홍보하기 위해 하고초꿀 축제를 '07년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열었는데, 방문객이 6천여명이 다녀갔음. 2006년도 750여명이었으나, 약 10배 정도의 폭발적으로 관광객이 증가하였음

- 파종과 관리 작업은 인력으로 하고 있으며 하고초는 다년생 작물이라 매년 씨를 뿌리지 않아도 다음해에 하고초가 자라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성장 상태가 좋지 않아 경관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매년 종자를 뿌리고 가꾸어 군락을 조성함으로써 좋은 경관을 연출하여 방문객이 많이 올 수 있게 함
- 하고초를 파종하고 관리 및 수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11ha에 약 3,500만원에서 4,000만원이 소요되며, 김매기에 소요비용의 3분의 2, 수확시에 3분의 1의 비율로 비용이 듦.
- 하고초꿀의 생산 및 판매 현황을 보면, 연간 꿀은 5000되가 생산되어 1되에 7만원을 받고 있으며, 총 3억 5천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음. 꿀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는 17농가임.
- 꿀 생산 및 판매에 드는 비용으로는 포장대 택배비, 인건비 등으로 1되당 25천원이며, 순수익은 한 되당 45천원이 되어 17농가 순수익은 225백만원으로 한 농가당 약 13백만원 정도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음.
- 경관직불제 시행으로 하고초 생산량도 증가하고 하고초꿀의 품질이 좋아졌으며, 방문객에게 좋은 경관을 제공함으로써 관광객이 많이 찾아옴.
- 하고초는 기관지 및 천식에 좋아 약용으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건강에 좋은 웰빙 상품으로 알려져 아름답고 좋은 경관 창출로 전국적인 유명 마을로 발돋움하고 있음.
- 방문객들에게 경관보전직불제 정책에 대한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설명함으로써 방문객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음.
- 이 지역에 대해 경관보전직불금의 지원으로 하고초밭이 전국적인 유명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하고초밭을 가꾸고 육성해나갈 계획에 있으므로 경관보전직불금의 확대 지원이 요망됨.

□ 지자체 담당자 의견

- 활발한 홍보 및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꿀 생산량 전량판매하고 있음
- 현재 고품질 꿀 생산을 위해 꿀 생산을 한정하고 있으며 차후 하고초 확대재배 필요
- 매년 일손부족과 예산부족을 제초작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효과적인 제초작업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필요

3) 사업시행 효과

□ 농가소득 향상효과

- 이 마을은 하고초꿀이 연간 5,000되나 생산되어 총 3억 5천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인건비, 포장대, 택배비 등을 제외하면 225백만원의 순수익을 거두어 한 농가당 13백만원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음
- 하고초를 재배하기 전보다 꿀생산량이 크게 증가했으며 꿀의 질도 나아지고 하고초꿀 브랜드를 확립함으로써 높은 판매가격으로 하고초꿀을 판매할 수 있어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었음
- 하고초밭의 경관효과 창출로 올해는 작년에 비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이 지역을 방문한 방문객이 부근의 음식점에서 음식값으로 지출함으로써 이 지역으로 인해 부근의 지역도 경제적 효과를 높일 수 있었음

□ 경관조성 및 농촌어메니티 증진효과

- 경관보전직불금 지원으로 하고초밭을 잘 가꾸어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함으로써 도시민들에게 심리적 즐거움과 여가문화 공간을 제공함
- 아름답고 조화로운 휴식 공간 제공으로 이 지역 농산물의 친환경 브랜드를 높임으로서 농산물의 가공 판매에 기여함
- 건강식품, 약용식품으로서의 하고초 브랜드를 아름다운 경관과 더불어 이 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친환경 웰빙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서 이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 증대를 유도하여 도시민의 관광지출을 촉진시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

□ 공동체의식 함양 및 지역활성화 효과

- 이 지역의 아름다운 경관은 많은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고 하고초꿀의 생산과 하고초밭을 관리하는 작업을 공동으로 실시함으로써 전 주민의 참여 의식을 함양시켜 공동체 의식 함양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마을발전계획을 마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역량함양에 기여함
- 이 지역은 생산된 하고초꿀을 가공한 건강식품개발을 마을주민 공동으로 추진하여 하고초꿀을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마을의 자생력을 길러 마을의 활력증진에 이바지함

□ 경관작물 관련 축제 시행성과

- 2007년도 하고초 축제 성공적인 개최
- 축제기간은 6월 1일에서 6월 10일까지
- 방문객은 약 6천명 정도(2006년도에는 약 750여명)
 - 올해(2008년도)는 연인원 1만명, 판매소득 1억목표
- 축제기간 하고초꽃 판매액은 약 6천만원
- 음식판매 약 7백만원
- 주요 프로그램
 - 하고초 음식 판매, 사진공모전
 - 꽃따기 체험, 먹거리 행사

4) 제도개선 및 사업확대 방안

□ 지급단가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 이 지역은 하고초꽃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 하고초를 재배하는 지역으로 하고초꽃의 생산량 증대에 기여하고, 아름다운 경관조성으로 많은 방문객을 유도할 수 있어 경관보전직불금은 지역의 활력 증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하고초는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종자를 수확하여 파종하고 관리를 해야 하며 병충해 예방 및 잡초제거를 위해 많은 관리비가 소요되므로 경관보전활동 지원금의 지원이 요망됨

□ 사업대상지역 적합성 및 확대방안(면적기준 등)

- 이 지역은 하고초마을로 육성·발전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면적이 참여하면, 뛰어난 경관 창출로 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
- 하고초꽃을 이 지역의 특유한 브랜드로 육성하고 있으므로 하고초는 이 지역의 경관보전직불 대상작목으로 적합하여 본 제도의 홍보와 효과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임.

□ 경관작물 다양화 방안

- 이 지역은 하고초라는 브랜드를 확립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경관작물에 대한 추가적으로 검토하기 보다는 하고초밭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마을 경관향상 방안

- 이 지역은 하고초를 테마로 하여 지역축제를 계획하고 있으므로 지역축제에 소요되는 비용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역축제를 통하여 경관보전직불제의 홍보효과가 한층 올라갈 수 있어 농촌관광이 활성화되므로 경관보전직불제를 잘 추진하는 마을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인센티브로서 지역축제에 소요되는 비용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 경관 조성 및 유지·관리 등 사업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이 지역은 하고초를 재배하여 하고초꿀의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여 많은 방문객을 유인할 수 있어 경관직불의 효과가 높음
- 하고초꿀의 생산과 동시에 관광객 증대로 농산물의 판매 음식 판매, 숙박 등으로 지역활성화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므로 지역주민들의 의욕적인 사업추진으로 인해 많은 지역 발전이 기대됨.

□ 농촌환경문화경관보전 활동까지 확대할 경우 적지 여부

- 본 마을은 하고초 꿀을 재배하여 하고초꿀과 원액 등을 상품으로 개발 축제와 연계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올해만 6천명의 방문객이 축제기간에 방문하여 하고초경관을 만끽하고 특산물을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으므로 마을내 문화경관 정비 활동도 함께 지원하면 경관직불제의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사료됨

□ 참고 : 하고초

- 여러해살이풀
- 개화기 ; 5~7월, 결실기 ; 6~8월
- 용도 : 식용·관상용·밀원용·약용 (전초)
- 채취시기 : 여름에 이삭이 절반쯤 시들때에 채집하여 햇볕에 말려 약으로 함.
- 특 성
 - 다년생 초본으로 높이 20~30cm, 산야지 및 길가풀밭에서 자란다. 원줄기는 네모지고 전체에 백색털이 있고 꽃은 자주색으로 꽃이 밀착함
 - 잎은 마주보며 장원형으로 가는 톱니가 있음. 꿀풀의 변종 식물로서 흰색꽃이 피는 것을 흰꿀풀, 적색꽃이 피는 것을 붉은 꿀풀, 원줄기가 밑에서부터 바로서고 가는 줄기가 없으며 짧은 새순이 원줄기 밑에 달리는 것을 두메풀이라고 함.
 - 꿀풀의 꽃 또는 쏠대를 건조한 것을 한약으로 사용함.
 - 한방과 민간에서 고혈압, 자궁염등에 약재로 쓰이고 밀원 방향성 식물임.
 - 석구, 연면, 맥하초, 내동초, 철색초, 금강소초, 하고두, 양호초, 봉두초, 하고구, 꿀방망, 꿀방맹이, 가지꿀나물, 두메꿀풀, 제비꿀풀 등으로 불리는 길가풀숲에 흔히 나는 풀임.
 - 우리나라에서는 부드러운 새싹과 잎은 나물로 먹고 꽃이삭 꽃차례는 이뇨제로 널리 쓰임. 줄기와 잎은 나력, 자궁병, 혈을 통하게 하고 눈병 등에 효과가 있음.
 - 여름이면 말라서 죽는다는 뜻에서 이와 같은 생약명이 만들어졌음.
 - 夏枯草는 옛날부터 消炎, 利尿藥으로서 부종, (두부임파선 結核) 및 淋病의 치료약으로서 사용되어 왔음.
 - 중국에서 한약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식이 우리나라에 전해져서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약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음.

5) 관련 현장사진



작 목 : 하고초	파 종 : 7월말 ~ 8월초 개 화: 6월
면 적 : 11ha	위 치 : 함양군 백천면 오천



작 목 : 하고초	파 종 : 7월말 ~ 8월초 개 화: 6월
면 적 : 11ha	위 치 : 함양군 백천면 오천

Ⅲ. '08년 하계작물 모니터링 보고서

1.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2.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3.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4.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5.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6. 전라북도 고창군 공음면
7. 전라북도 익산시 함라면
8.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9. 전라남도 곡성군 겸면
10.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면
11.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12.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13. 경상북도 상주시 이안면
14.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15.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16.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17.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모니터링 보고서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서패리-
-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유동리-
-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구와우리-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봉평리-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탑동리-

2008. 12.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 농촌환경자원과
김 상 범

1.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서패리

1) 사업 추진현황

대상지 현황

- 경관보전직불제 신청현황

시도	시군구	읍면	지구	농가수	면적(㎡)	예산(천원)			경관 작물	연계프로그램
						계	국비	지방비		
경기	파주시	교하	서패	33	107,512	18,277	12,794	5,483	메밀 코스모스	돌곶이꽃마을축제

경관작물 파종 및 수확현황

- 파종시기를 놓쳐 시행하지 않음

지자체 추가지원 현황

- 해당사항 없음

사업추진관련 주민활동 상황 (재배관리 및 경관관리활동)

- 해당사항 없음

2) 사업 만족도

사업추진 주민(대표) 의견

- 파종시기를 놓쳐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포기함

지자체 담당자 의견

- 파종시기를 놓쳐 주민과 상담 후 시행안함

3) 사업시행 효과

농가소득 향상효과

- 해당사항 없음

경관조성 및 농촌어메니티 증진효과

- 해당사항 없음

공동체의식 함양 및 지역활성화 효과

- 해당사항 없음

- 경관작물 관련 축제 시행성과
 - 해당사항 없음

4) 제도개선 및 사업확대 방안

- 지급단가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 해당사항 없음
- 사업대상지역 적합성 및 확대방안(면적기준 등)
 - 해당사항 없음
- 경관작물 다양화 방안
 - 해당사항 없음
- 마을 경관향상 방안
 - 해당사항 없음
- 경관 조성 및 유지·관리 등 사업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해당사항 없음
- 농촌환경문화경관보전 활동까지 확대할 경우 적지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경관작물 재배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분석(10a당)
 - 해당사항 없음

5) 관련 현장사진



<파주대상지역 풀베기 작업>

2.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유동리

1) 사업 추진현황

□ 대상지 현황

- 위 치 : 포천시 일동면 유동리(포천 뷰식물원 일원)
- 사업기간 : 3월~10월
- 사업량 : 25,633㎡(논19,689 밭5,944)
- 사업비 : 4,357,610원
- 신청인 : 이학철 외 5명(참여농가 6농가)
- 경관작물 : 야생화(버베나, 가우라, 코스모스 등)

□ 경관작물 파종 및 수확현황

- 사업신청·확정 : 2008. 3월
- 작물파종 : 2008. 4월 ~ 8월(가우라 4월, 코스모스·버베나 8월)
- 이행여부점검 : 5월~10월(점검자 시군)
- 보조금지급예정 : 2008. 11월

□ 지자체 추가지원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추진관련 주민활동 상황(재배관리 및 경관관리활동)

- 뷰식물원을 중심으로 6농가가 계절별로 꽃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경관보전직불제 4년째 접어들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새로운 초화류를 도입한 경관조성을 시도하고 있으나 토양 기후 등의 이유로 재배가 수월하지 않음.
- 특히, 야생화는 봄, 가을 년 2회가 적절하여 동계, 하계작물 경관보전직불제를 신청하여 올해 처음 시작하였으나 토질과 식물생태 그리고 3,000원 이상의 경비가 문제임.

- 초기비용이 많이 들지만 관리가 용의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다년생 야생화를 선정할 수 있게 해준다면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일년초를 적절히 배치하여 경관적 색채를 꾸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고령화된 농업인에게는 매우 적합하다고 함.

2) 사업 만족도

□ 사업추진 주민(대표) 의견

- 비료, 유가 등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이 약 10-20% 정도 증가하였는데 경관보전직불제의 지불단가는 그대로 이고 매우 낮은 수준으로 야생화를 재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여건을 이용하여 축제는 매우 성공적으로 방문객 수도 증가 하고 있으나 매년 다양한 경관을 제공해야하는 부담과 비용이 큰 문제이다.
- 야생화의 경우는 작년에는 약 900원/㎡(종자 약 450원/㎡, 관리 수거 약 450원/㎡)의 비용이 들어갔으나 올해는 10-20%가 증가하여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다른 수입원을 감안하더라도 직불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 수도권과의 가까운 거리와 경관조성과 축제 등으로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어 마을사람들의 직불제에 대한 이행의지는 매우 높다.

□ 지자체 담당자 의견

- 류식물원을 중심으로 활동이 활발하여 1년차로는 상당히 성공적 이였고 특히 서울로 가는 국도변에 위치하여 꽃이 만개할 때 장관을 이루고 있어 식물원을 찾는 관광객이 많아서 주민들이 참여하고자하는 의사가 매우 높다.
- 하지만 야생화는 일반 작물과는 특성이 달라서 재배가 매우 힘들고 어려워서 재배방법이나 관리방법에 대한 매뉴얼, 지도가 필요하다. 대상지의 집산화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를 해결해야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최소한 단일종에 1.5 ha정도가 되어야 지역 경관으로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3) 사업시행 효과

□ 농가소득 향상효과

- 직불제를 통한 농가소득보다 축제를 통한 방문객의 먹거리, 농산물 판매가 대부분이고 뷰식물원은 관람료에 의하여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

□ 경관조성 및 농촌어메니티 증진효과

- 그 동안 뷰식물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계절별 야생화 경관은 서울로 이어지는 국도변을 통과하는 관광객들에게 인기 높은 요소로 도·농교류 및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 공동체의식 함양 및 지역활성화 효과

- 계절별 꽃을 주제로 축제를 통하여 지역의 아름다운 이미지와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가꾸어 마을주민 및 방문객들의 호응도는 매우 높다.

□ 경관작물 관련 축제 시행성과

- 뷰식물원의 방문객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매년 3-4만명을 유지하고 있다. 축제기간에 먹거리, 농산물 판매로 소득을 올리고 있고 주민들은 주변환경 정비활동을 하고 있다.
- 축제개요

4) 제도개선 및 사업확대 방안

□ 지급단가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 야생화 재배는 종자, 작업비가 많이 드는 작업으로 지급단가의 조정이 필요하며 약 900원/㎡(종자 약 450원/㎡, 관리 수거 약 450원/㎡)이 1종에 소요된다.
- 올해는 물가 상승으로 10-20%비용이 더 증가 하였으나 농산물가격과 기타 서비스요금은 동결되어 수익이 많지 않다.

□ 사업대상지역 적합성 및 확대방안(면적기준 등)

- 1종류의 야생화가 6-7개월 관리가 필요하므로 경관유지를 위해서는 2종의 야생화를 재배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 적어도 10ha 정도는 되어야 경관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생육상태가 유지된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는 임대농지, 소작인, 야생화 사업인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 Garden way 같이 뷰식물원으로 오는 길목마다 유희지를 활용하여 작은 Garden을 만들어 연계하는 산책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사업비와 토지문제로 쉽지 않다. 경관보전직불제지역을 연계되는 공간까지 포함하여 넓게 선정하면 가능할 것이다.

□ 경관작물 다양화 방안

- 구절초, 국화, 바늘꽃, 양귀비, 꽃창포, 안개초, 코스모스 등이 고려되고 있다

□ 마을 경관향상 방안

- 집단화를 이루어 계절별 야생화를 1ha 정도씩 재배하여 포천의 명품마을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등의 자체사업과의 연계를 검토하고 있다.

□ 경관 조성 및 유지·관리 등 사업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현재 경관보전직불제 절차는 서류가 많고 복잡하여 개인농가가 신청하기에는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 하고 단체가 신청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하며 고령자가 쉽게 정서적 안정과 취미를 병행할 수 있는 야생화를 권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현실화가 필요하다.
- 경관보전직불제를 신청하는 사람 중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야생화의 경우 연작이 비용절감에 절대적 요소로 임대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 농경활동으로 화훼류를 포함하고 있지만 실제 농지원부를 만드는 경우 경관작물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사업확대에 문제가 있다.

- '일동뿐만 아니라 인접하고 있는 화현면과도 경계지역에서의 경관보전 직불제를 통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연계 행정구역 상에서 공동경작이 가능해야한다. 화훼류의 경우 소규모 면적도 연계할 수 있도록 면적 완화 및 지역 선정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 또한 다양한 야생화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야 경관의 획일화를 피할수 있으며 지원금의 합리적 개선도 가능하다.
- 수도권은 경관보전직불제가 다른 지역보다 적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요인들로 인해 이 경관보전직불제를 꼭 해야만 하는지 의구심이 생기게 된다. 면·시·도에서 요구사항이 많고 까다로워서 꼭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불만이 생긴다. 토지 소유자와 면사무소간의 갈등(임대료, 세금 등)이 있다.
- 입지조건과 상황이 곳에 따라 다른데 정부가 기준하나 가지고 적용시키려고하니 불만이다. 지역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행정의 필요하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전에 수요조사 한번하고 거기에만 맞추라고 하니 힘들다.
-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에 따른 보상금보다 규제나 벌금 등 간섭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융통성있게 개선하지 않으면 직불제를 활성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한 지역을 넓게 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씩 드문드문 하는게 훨씬 이쁘고 구경하는 시민들에게 더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경관보전직불제의 목적은 논농사를 탈피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 것이지만 정부나 관련부서가 인구과밀지역인 경기북부지역에 신경을 안 쓰는 것이 불만이다.
- 주변여건을 활용하여 가든웨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함. 면적의 60~70%는 꽃을 심고, 나머지는 주차장을 만들고, 특산품 판매점을 만들어서 지역소득을 활성화 시키자는 의견이다.
- 경영체·조합 보다는 기업주식회사단위의 운영이 더 좋다. 지분에 의한 발언권과 의결권 등을 차등화가 필요하다. 협동조합이나 작목반 시스템으로는 의견 조율이 힘들어 곤란하고 마을단위로만 사업을 하려는 점도 문제이다.
- 제도를 기획할 때 현장사람들의 의견을 참조해야 한다. 만들어 놓고 별 관련도 없고 관심없는 사람을 관리자로 맡겨놓으면 그 사업은 실패한다.

□ 농촌환경문화경관보전 활동까지 확대할 경우 적지 여부

- 정원, 꽃길 등을 가꾸는 활동과 연계하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다만 토지이용문제가 큰 걸림돌로 생각된다.



< 국화원 >

5) 관련 현장사진



베베나와 가우라



구절초



꽃 축제 관람객 탐방로

3.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1) 사업 추진현황

□ 대상지 현황

- 위 치 :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구와우마을(구와우 해바라기농원)
- 사업기간 : 3월~9월
- 사업량 : 73,360m²
- 사업비 : 12,471천원
- 신청인 : 김남표
- 경관작물 : 해바라기

□ 경관작물 파종 및 수확현황

- 사업신청·확정 : 2008. 3월
- 작물파종 : 2008. 5월 ~ 6월(2회)
- 이행여부점검 : 5월~10월(점검자 시군)
- 보조금지급예정 : 2008. 11월

□ 지자체 추가지원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추진관련 주민활동 상황 (재배관리 및 경관관리활동)

- 8월초 꽃이 터지기 시작하여 8월 16일~17일쯤 꽃이 만개하였음. 농장은 3.2Km의 탐방로가 모두 100% 흙길로 운동화/등산화를 착용하셔야 온전히 즐길 수 있으며 약 1시간이 소요된다..
- 올해 4회째를 맞이하는 해바라기 축제는 7년 동안 계획하였는데 해바라기 재배 3년, 홍보 4년을 한 결과 지금은 태백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잡음.
- 작은 꽃밭(1만평) 규모와 갖가지 야생화가 어우러진 부지와 큰 밭은(4만평 규모)을 나누어 파종하여 해바라기를 볼수 있는 시기를 늘렸으며 경관직불제 대상지를 포함하여 전체 규모는 18만평으로 자연스러운 흙길과 풀 한 포기도 자연스럽게 자라도록 유도하고 있다.

- 농약이나 제초제 화학비료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 곤충, 잠자리, 나비 등을 많이 볼 수 있으며, 전나무 생태숲길은 좋은 산책코스로 제격임. 특히, 화려함을 사랑하는 100만 송이 해바라기 꽃은 탄성을 지르게 하는 규모이다
- 주변 마을주민들은 축제기간에 농산물 판매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축제 후에는 해바라기씨를 무료로 채집할 수 있음. 인건비 등으로 해바라기씨를 아직은 전부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자유로이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사업 만족도

□ 사업추진 주민(대표) 의견

- 예산 집행을 초기에 해주고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면되는 데 집행이 너무 늦고 축제는 일반인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다
- 사진전, 공연,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어 '07년 23,000명에서 올해 53,000명 내년에는 70,000명 이상을 예상하고 있다.
- 지역에 사람들이 북적거리서 활기를 띠고 실제로 주변 마을 등에 경제적인 혜택이 돌아오니까 매우 효과가 크다.

□ 지자체 담당자 의견

- 서류간소화가 필요하다. 추진위원회의도 중요하지만 경작지와 대표자가 확실하다면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좀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 임대차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면 장기적 경관조성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다.

3) 사업시행 효과

□ 농가소득 향상효과

- 경관보전직불제로 직접적인 소득은 없으나 관광객이 농산물구입, 식사, 민박, 해바라기 정원 관람료 등의 수입이 있다.
- 향후에 해바라기씨를 활용한 소득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매년 20톤 정도의 해바라기씨가 생산되지만 인건비가 비싸서 채취를 못하고 있다. 기계

화가 된다면 바이오 연료 등으로 활용할계획이지만 현재로서는 판로가 없고 탈곡 등의 문제가 있다.

- 해바라기는 일반농민들이 수익을 얻으려면 적어도 6-7년 동안 투자를 해야 하는 작목이기 때문에 경관보전직불제를 현실화하고 생산물을 활용할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면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경관조성 및 농촌어메니티 증진효과

- 국내 최대의 해바라기경관을 조성하고 있어서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것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태백을 대표하는 경관의 하나로 손 꼽히고 있어 지역이미지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공동체의식 함양 및 지역활성화 효과

- 해바라기 축제는 이제 태백의 축제로 자리잡았으며 주민들도 매우 자랑스럽고 산골짜기에 펼쳐지는 해바라기의 장관을 보러오는 방문객들이 넘치는 8월이면 주변마을도 방문객을 맞이하려는 준비로 매우 활기차게 바뀌었다.

□ 경관작물 관련 축제 시행성과

- 해바라기 축제기간은 약 1달간으로 8월이 가장 방문객이 많고 '07년 23,000명에서 올해 53,000명 내년에는 70,000명 이상을 예상하고 있음.
- 1인당 평균 7천원 정도를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경제제적 효과를 계산해보면 '07년 161백만원 올해 371백만원 내년에는 490백만원 이상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음.
- 산골짜기에 8월이면 많은 외지인들이 방문하고 주변마을 또한 방문객을 맞이하려는 준비를 시작하여 매우 활기차게 바뀌었다.

4) 제도개선 및 사업확대 방안

□ 지급단가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 경관보전직불제의 지급단가는 물가 상승분만큼 반영해 주어야하는데 현재 170만원/ha을 적어도 400원/ha 수준으로 올려주어야 한다.

- 비료가격, 씨앗가격, 인건비 등 올해는 상승폭이 너무 커서 대단위가 아니면 버티기 힘들다. 그나마 올해는 해바라기 작황이 좋았고 축제도 성공적이라 다행이다.

□ 사업대상지역 적합성 및 확대방안(면적기준 등)

- 임대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올해 5만평이상 신청하려고 하였지만 임대차 문제로 2만 5천평밖에 하지 못했다.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진 경관을 조성하려면 경관조성을 위한 부지확보에 대한 제도적 보안이 필요하다

□ 경관작물 다양화 방안

- 현재 해바라기와 더불어 야생화를 재배하고 있어 경관작물로 야생화를 고려하고 있으며 자연적인 야생화와 이국적인 해바라기가 매우 잘 어울린다.

□ 마을 경관향상 방안

- 현재 해바라기 축제장을 보안하기위해서 필요한 것은 진입로 확장 화장실 설치이다. 몇 만명이 다녀가는 곳으로 입구가 비좁아 주변경관을 정비하기가 힘들고 화장실이 적어 환경적으로 좋지 않다.
- 마을주민들이 주변 청소나 길안내 등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나 많은 관람객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형편으로 축제장 부근에 그치고 있다.

□ 경관 조성 및 유지·관리 등 사업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신청할 때에 면적, 접근로가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이를 해결하기에는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고 신청서류가 복잡하여 개인이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쉽게 하기에는 힘들다.
- 경관보전위원회의 구성도 좀더 현실적이고 현장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동비를 더 지원한다던가하는 대책이 필요하고 보조금 지급은 초기에 80% 정도 재배후에 20%를 인센티브 혹은 페널티의 개념으로 지급하는 것이 초기 자금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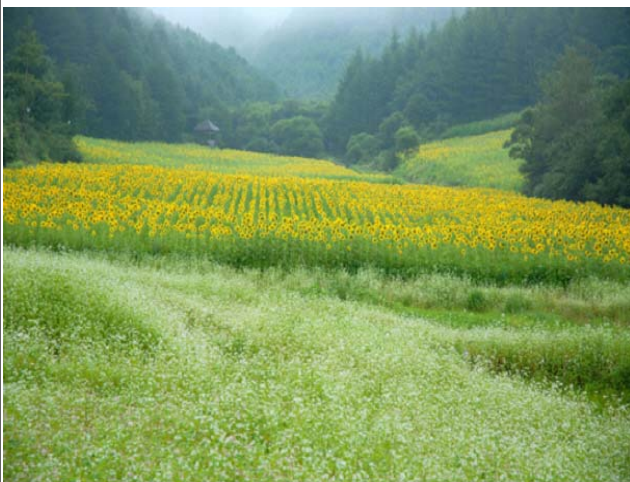
□ 농촌환경문화경관보전 활동까지 확대할 경우 적지 여부

- 위치가 골짜기 안에 있어 시설중심의 경관보전활동 보다 주변길이나 청소 등 환경정비활동이 바람직하다.

5) 관련 현장사진



8월 03일 경



8월 23일 경



9월 30일 경



야생화와 벤치



배수로와 산책로

4.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봉평리

1) 사업 추진현황

□ 대상지 현황

- 경관보전직불제 신청현황

시도	시군구	읍면	지구	농가수	면적 (㎡)	예산(천원)			경관 작물	연계프로그램
						계	국비	지방비		
강원	평창군	봉평	봉평	31	425,080	72,264	50,585	21,679	메밀	효석문화제

□ 경관작물 파종 및 수확현황

- 사업신청·확정 : 2007. 3월신청, 2007년 5월 확정
- 파종시기 : 2008. 07월중~08월 초(메밀)
- 파종면적 : 78ha(메밀)
- 이행여부점검 : 5월~10월(점검자 시군)
- 수확량 : 약 62t(평균 10a당 80kg)
- 보조금지급예정 : 2008. 11월

□ 지자체 추가지원 현황

- 효석문화제지정사업 일환으로 효석문화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변의 메밀 재배지에 대해서는 경제적 지원으로 군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1㎡ 당 455원의 보상을 해주고 있다.
- 작년에는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 및 경관작물에 대하여는 추가로 편성된 군 예산은 없었다.
- 그러나 현재 경관보전직접지불제 대상지에 대하여 국고 70%, 도비 10%, 군비 20%가 지원되고 있다.
- 평창군자체지원사업 : 가산 메밀꽃단지 지원사업 33ha에 150,000천원 지원이 되고 있다.

□ 사업추진관련 주민활동 상황 (재배관리 및 경관관리활동)

- 경관보전 직불제가 4년째 접어들면서 예년보다는 경관보전직불제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진 상태이며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경관보전직불에 대한 지역경관관리를 계획하고 시행하는 4개 추진위원회 구성하여 농가별 식재 및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 봉평지역은 꾸준히 경관보전직불제 초기 시행단계서부터 현재까지 4년동안 꾸준히 경관보전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봉평지역에서 생산한 메밀을 영농조합에서 4,000원(평균 2,500~3,000)에 지속적으로 수매하고 있기에는 상태이다.
- 현재 경관보전직불에 대한 주민인지도가 높아지면 동계 작물 재배에 신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형태이며, 강원도 지형, 기후 등의 지역 환경조건에 맞는 적절한 동계 작물 선정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다
- 매년 10월 행사로 펼쳐지는 효석문화제 축제 개최시 마을 주민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경관자원조성 및 제공 및 자원봉사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다.

2) 사업 만족도

□ 사업추진 주민(대표) 의견

- 비료, 유가 등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이 약 20-30% 정도 증가하였다. 특히 유류비 같은 경우 일례로 150원 하던 것이 200원으로 올라 지불단가에 대한 재배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유동적이지 못한 관리비 지급은 경관보전직불제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농민까지 이탈하게 할 수 있으므로 유동적인 관리비용 지급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작물은 기후 및 기상조건에 따라 작황 상태가 결정된다. 작황이 잘 안되었을때 패널티가 적용되는 것은 좋은 취지이나 자연의 힘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자연재해, 기후변화 등)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 지자체 담당자 의견

- 농지법과 상충된 임대차 경영농(96 이후 취득농지에 대한 임대차 금지)의 경관보전 직불제 선정 및 지급방안의 명확한 지침 제시가 필요하다

- 지급단가가 낮음으로 인하여 재배면적 확대의 어려움이 있다.
- 봉평은 수도권과 다소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있고 오대산 등 주변 자연 경관 지역과의 연계 등으로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마을 사람들은 직불제에 대한 이행의지는 매우 높다.
- 강원도는 다른 지역과는 기후 및 지형이 달라서 작물선택에 대한 제한이 많다. 경관작물이 소득화되는 것이 경관보전직불제 취지와 맞지 않는 점에 동의는 한다. 그러나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경관작목의 다양화 및 자율성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하였지만 지역 기후 및 지형에 맞는 작목을 선정하였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작목에 대한 전문지식이 미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다시 문의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따라서 전문성을 가진 연구 집단의 결과물 등 각 지역 기후 및 지형 특성을 고려한 선택 작목에 대해 다시 정의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사업시행 효과

□ 농가소득 향상효과

- 경관작물(메밀)식재와 더불어 효석문화제 개최로 내방객이 증가(2006년 60만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나, 효석문화제 추진주체가 농가가 아닌 이유로, 실질적인 소득은 지역내 상가가 독점하고 있으며, 농가에 돌아오는 소득은 지역농협 및 영농조합에서 kg당 4,000원 수매금액 및 경관직불금이 전부이며, 이는 타 작물재배시 소득보전의 70% 미만이다.
- 단순한 경관작물식재로써 농가소득 창출은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며, 경관작물식재와 더불어 농가가 주체가 된 축제 및 이벤트전개, 경관작물과 연관된 특산품개발 및 브랜드화가 농가소득창출에 중요한 요소이다.

□ 경관조성 및 농촌어메니티 증진효과

- 평창군의 경관조성사업(메밀식재)은 전체적인 성과로 볼 때 지역 농촌의 어메니티자원을 활용하는 동시에 이효석이라는 문화적 소재와 연계하여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이로 인하여 내방객수가 60만명 이상 방문한 해도 있었으나, 지속적인 메밀식재로 인하여 연작피해가 발생하고, 또한 축제개최로 인한 실질적 소득은 지역내 상가가 수혜를 봄으로써, 메밀(경관작물)식재 주체인 농가들에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소득증대 효과는 미미하여 식재면적이 줄어들고 있으며 생육상태가 고르지 못하여 효석문화제 내방객수가 2006년도를 기점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었다.

□ 공동체의식 함양 및 지역활성화 효과

- 2008년도 효석문화제 축제기간 방문인원 5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내방객을 끌어드리는 주요한 요인이 메밀꽃밭의 아름다운 경관으로 볼 수 있다
- 또한 이효석의 소설 '메밀꽃 필무렵'의 배경지라는 봉평지역의 문화적 자원과 연계 효석문화제를 개최하면서 문화재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한 공동체의식 증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였다.

□ 경관작물 관련 축제 시행성과

- 축제개요, 관련사진
- 내방객수가 60만명 이상 방문한 해도 있었으나, 지속적인 메밀식재로 인하여 연작피해가 발생하고, 또한 축제개최로 인한 실질적 소득은 지역내 상가가 수혜를 봄으로써, 메밀(경관작물)식재 주체인 농가들에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소득증대 효과는 미미하여 식재면적이 줄어들고 있으며 생육상태가

고르지 못하여 효석문화제 내방객수가 2006년도를 기점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태로 올해는 30만명 방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4) 제도개선 및 사업확대 방안

□ 지급단가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 지급단가의 적정성을 위하여 일반전작기준 평균 소득창출액을 산정하여 각 경관작물별 지급단가의 세분화가 필요 → 일괄적인 지급단가 지양

□ 사업대상지역 적합성 및 확대방안(면적기준 등)

- 이효석문화제를 이용하여 봉평의 메밀밭 경관은 매우 성공적이며 방문객 또한 “봉평=메밀” 이라는 수식이 어느정도 정착이 되었다. 지역을 대표하는 작물이 메밀된 만큼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집단화된 지역만을 선정하는 것이 아닌 적정한 면적이면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로 선정하는 완화된 정책도 필요하다고 본다.

□ 경관작물 다양화 방안

- 강원도는 고랭지 농업의 대표격으로 주목받아왔고 현재도 그렇게 주목받고 있다. 경관로써 적당할지는 모르겠지만, 무꽃을 활용한 경관대상지의 경관 조성을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경관을 연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무꽃은 무꽃이 피면 무를 먹을수 없는 점이 있으므로 경관작물이 소득 수단이 되는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처럼 경관을 연출하되 꽃이나 경관을 연출한 이후에 소득 보전 수단이 되지 않는 작물을 발굴해 내는 것이 경관작물을 다양화 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 마을 경관향상 방안

- 황토흙 토담, 담쟁이 넝쿨, 토종 유실수식재(돌배나무, 살구, 복숭아 등), 마을안길정비(꽃길조성), 마을회관경관조성, 전통정원 가꾸기 사업, 아름다운 서낭당 가꾸기, 마을소공원 조성, 전통 우물문화 복원, 아름다운마을계곡 가꾸기(쉼터, 정자설치 등)등의 종합적인 마을단위의 사업이 필요하다.

□ 경관 조성 및 유지·관리 등 사업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협약체결 및 보조금 지급관련과정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협약체결약정서, 신청서, 청구서류 등의 과정 및 부가서류 과다로 농가들의 신청서 작성 및 사업추진의 어렵다.
- 작물 식재 후 재배관리를 위한 활동 소요 일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겠다. 시비, 잡초제거, 논, 밭두렁 등 탐방로 정비 등의 소요일수는 각 작목마다 다르며 메밀의 경우 약 150일 정도의 재배기간이 소요된다.

□ 농촌환경문화경관보전 활동까지 확대할 경우 적지 여부

- 평창은 우수한 자연조건을 활용한 유실수식재(돌배나무, 살구, 복숭아 등), 마을안길정비(꽃길조성), 마을소공원 조성, 마을계곡가꾸기(쉼터, 정자설치 등)등의 사업이 가능하다.

5) 관련 현장사진



이효석 축제 행사장



메밀 꽃밭



메밀꽃밭

5.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탐동리

1) 사업 추진현황

□ 대상지 현황

시도	시군구	읍면	지구	농가 수	면적 (㎡)	예산(천원)			경관 작물	연계프로그램
						계	국비	지방비		
강원	평창군	진부	탐동	3	20,587	3,500	2,450	1,050	도라지	녹색농촌, 산촌 생태마을

□ 경관작물 파종 및 수확현황

- 사업신청·확정 : 2008. 3월신청, 2008년 5월 확정
- 파종시기 : 2008. 06. 04.
- 파종면적 : 1.2ha(도라지)
- 개화시기 : 10월 말경(서리 등으로 개화 불투명)
- 수확량 : 2-3년 후 수확
- ※ 개화가 미진하여 10% 예산 미지급 예정

□ 지자체 추가지원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추진관련 주민활동 상황 (재배관리 및 경관관리활동)

- 봉평면 메밀 경관보전직불제 영향을 받아 진부면에서도 경관보전직물제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진 상태이며 경관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다.
- 산저 구릉지에 메밀꽃 이외 다른 작물인 도라지를 식재하여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경관을 연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도라지 꽃이 가지고 있는 보랏빛 꽃과 흰색꽃의 조화는 초화류와는 다른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재배면적을 확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 또한 강원도 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산지가 많은 전형적인 산지형 농촌마을 형태로 식물 생육 환경상 산채 식물과 약초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장점을 가진바 도라지를 활용한 경관작물 재배는 적재적소에서 생산되는 국산 산약초로 큰 각광을 받고 있어 높은 단가로 거래되고 있어 경관보전+농가소득이라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어 도라지 재배면적을 확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 다만, 경관작물 작물은 경관 이외의 소득자원으로 활용할 수 없으나 지역 축제와 연관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원칙이 있다. 따라서 축제와 연계하는 방법으로 강원도 산약초 축제 혹은 강원도 산채 축제(가칭)등으로 새로운 축제들을 계획하여 축제 연계를 통한 경관작물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소득작물로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을 모색해보고 있다
- 지금 현재 경관보전직불제 지역으로 도라지가 식재된 해당 조사지역은 농촌체험마을 혹은 주말농장과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개화시기인 8월 에는 경관작물로 작물 수확시기에는 농사체험의 한 부분으로 도라지 수확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2) 사업 만족도

□ 사업추진 주민(대표) 의견

- 작목 선정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였다고 하지만 전문지식이 모자라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태이다. 따라서 작목을 파종하는 시기를 놓치기도 한다. 경관작물은 파종시기가 개화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관계자들이 혼선으로 인한 파종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 경관보전직불제의 취지를 알지만 현재 농촌에는 나이든 분들이 대체로 많아 경관에 대한 기본적 개념이 부족하며 돈이 되지 않는 비경제적 행위는 하려고 하지 않는다.
- 도라지가 경관작물 목록에 포함되는 확신은 서지 않지만 꽃이 예쁜 장점이 있는데다가 2~3년 재배후 시장에 내어다 팔면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작목으로 경관보전직불 작목으로 자연스럽게 확대 되리라 판단된다.

- 농촌체험마을 혹은 주말농장과 연계하여 개화시기에 경관작물로 작물수확 시기에는 농사체험으로 도라지 수확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다.

□ 지자체 담당자 의견

- 강원도 지역 경관작물의 다양화를 위해 메밀 이외의 지역특성에 맞는 많은 작목들을 생각해 보았다 예로 호프, 무, 청보리 등을 생각해 보았으나 경관작물을 관리하는 농민들은 경관작물=농외소득으로 연결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작목들을 기피하려 하고 있어 작목의 일관성의 문제가 들어났다. 또한 청보리 같은 경우는 경관작물=농외소득과 연결되므로 경관보전직불제 취지와는 상반되는 작목들이었다.
- 일단은 작목 선택의 문제 보다는 가장 근본적인 농지법과 상충된 임대차 경영농(96 이후 취득농지에 대한 임대차 금지)의 경관보전 직불제 선정 및 지급방안의 명확한 지침 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강원도 일대의 토지는 대체로 지역농 보다는 동계올림픽 개최 등의 품에 힘입어 토지가 외지사람들에 의한 소유가 많으므로 적합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할 수 있는 적지임에도 불구하고 농지법과 상충된 문제로 인하여 경관작물재배가 이루어지지 못한 지역이 다소 많이 발생하는 편이다.
- 사업추진 농민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요즘 농민들은 경제성이 높지 않거나 비경제적인 행위는 되도록 기피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지급단가가 낮음으로 인하여 재배면적 확대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3) 사업시행 효과

□ 농가소득 향상효과

- 도라지는 다른 지역에서 경관작물으로써 재배된 예가 없는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뿌리식물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농가소득 향상 효과는 아직 모르는 상태이다.
- 다만 최근 중국에서 많은 물의를 일으켰던 멜라닌 사태에 힘입어 우리나라 국민들은 수입농산물보다는 안전한 국내 농산물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

며, 도라지를 활용하여 강원도 산채 축제를 연계한다면 여름에는 경관작물로 결실기에는 국산 산채 작물로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경관조성 및 농촌어메니티 증진효과

- 도라지꽃이 흰색과 보라색으로 물들어진 경관은 매우 아름답고 기존사업과의 연계로 마을주민들이 거는 경관적 소득적 기대가 크고 협조적이다.

공동체의식 함양 및 지역활성화 효과

- 아직 축제를 개최한 실적은 없으나 내년에 계획 중에 있으며 도농교류 단체와 연계하여 기존 사업의 성공을 지속시킬 생각이다.

경관작물 관련 축제 시행성과

- '09년 산채축제를 계획 중에 있다.

4) 제도개선 및 사업확대 방안

지급단가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 각 작목별 지급단가가 모두 비슷하게 적용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단가로 인한 작목선정이 제한되어 소득을 고려한 획일화된 경관이 연출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사업대상지역 적합성 및 확대방안(면적기준 등)

- 강원도는 산지형 농지가 많고 기후도 다른 지역과 다르므로 작목 선택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그 지역 기후와 풍토에 맞는 작목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확대해 준다면 사업대상지역은 확대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또한 경관보전직불 지역을 집단화 하면서 발생하는 임대농지 소작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할 것이다.
- 강원도 산약초 축제 혹은 강원도 산채 축제(가칭)등의 새로운 축제들을 계획 구상중이다.

□ 경관작물 다양화 방안

- 평창군의 경관조성사업(메밀식재)은 전체적 성과로 볼 때 지역 농촌의 경관과 이효석이라는 문화적어 메니티자원을 활용한 연계로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 따라서 지역 경관을 가장 잘 나타내고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작목을 선정하고 이를 보전하고 가꾸기 위한 활동에 중심을 둔다면 작물은 확대되어 다양한 경관연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마을 경관향상 방안

- 강원도의 지형적 특성을 잘 극복하고 기후적 특성을 고려하여 경사지를 활용한 경관연출과 다른 지역과 개화기가 틀린 점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 이를 위해서는 마을주민 참여를 통한 다양한 경관보전활동이 필요한데 이 지역은 공동작업을 통한 대상지 관리가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 경관 조성 및 유지·관리 등 사업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신청상의 간소화가 필요하고 페널티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한다. 행정처리, 기후변화, 재해 등 농민들보다 외부적 요인이 있는 경우는 감안해 주어야한다.
- 최소 재배기간을 정리한다면 경관보전불제 기간의 합리적 배분이나 개화시기를 예측한 모니터링이 가능 할 것이다

□ 농촌환경문화경관보전 활동까지 확대할 경우 적지 여부

- 오대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이 많이 있고 현재는 마을환경가꾸기 활동을 하고 있다.

5) 관련 현장사진



< 도라지 파종 6월 4일 >



< 경관보전직불지구 10월 10일 >



< 대상지 도라지 개화 10월 10일 >

※ 개화를 시작하였으나 서리가 내릴 경우 전체적 개화 불투명함

모니터링 보고서

- 전라북도 고창군 공음면 선동리-
- 전라북도 익산시 함라면 소룡리-
-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고부리-
- 전라남도 곡성군 겸면 칠봉리-
-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면 몽강리-
-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선학동-

2008. 12.

한국농촌공사
윤진욱

6. 전라북도 고창군 공음면 선동리

1) 사업 추진현황

□ 대상지 현황

- 위 치 : 전북 고창군 공음면 선동리 일원
- 참여농가 : 7호
- 참여면적 : 67ha
- 경관작물 : 메밀, 해바라기

□ 경관작물 파종 및 수확현황

○ 파 종

- 메밀 : 식재면적 64ha

- 메밀은 파종한 뒤 1개월 후 개화하므로 개화시기에 맞추어 파종함.
- 08년에는 4차례로 나누어 파종함으로써 약 50일간 지속도록 함.
- 수산물축제(9월 17일~19일)를 중심으로 9월초~10월 중순까지 개화가 지속됨.

- 해바라기 : 식재면적 3ha

- 해바라기는 파종한 뒤 2개월 후 개화하며 6월~10월 중에 어느 때건 개화가 가능하므로, 개화시기를 고려해 2개월 전 파종하면 경관효과 볼 수 있음.
- 90 kg(전년도 자가채종한 것을 재파종한 것임)

○ 수확현황

- 메밀

- 수확량 : 38,400kg (600kg/ha)
- 작물소득 : 115,200천원 (38,400kg×3,000원, 3,000원/kg)

- 해바라기

- 해바라기 : 240kg

□ 지자체 추가지원 현황

- 고창군에서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지는 않음
- 대상지구내 원두막은 전남도청에서 청정농업지역 지원에 의해 2003년 600 만원을 들여 조성한 것임.

□ 사업추진관련 주민활동 상황

- 메밀농장 주변에 코스모스를 식재하여 변화감 있는 경관을 조성함.
- 방문객이 경관지구내 산책 및 탐방을 할 수 있도록 탐방로 조성
- 메밀 및 해바라기를 이용해 고창 경관농업특구 내 수산물축제와 연계하여 개화시기를 조절함으로써 축제기간 내내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함.
- 선동지구 진입로 길가에 코스모스 식재로 꽃길을 조성함으로써 메밀꽃밭 까지 이어지게 함
 - 코스모스 꽃길은 공음면에서 지원하여 조성한 것임

2) 사업 만족도

□ 사업추진 주민(대표) 의견

- 경관직불제와 같은 정부지원 없이 영농활동을 하는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데 농가 입장에서 경관직불제도가 큰 도움이 되고 있음.

□ 지자체 담당자 의견

- 고창군의 경우 경관농업특구로서 대단위 면적의 영농에 따른 경관조성 효과를 나타내야 하고 경관농업과 관련된 직접적 지원이 필요한데 경관직불제로 지원하고 있어 큰 도움이 되고 있음.

3. 사업시행 효과

□ 농가소득 향상효과

- 공음면 선동지구(경관농업특구)의 경우 하계작물로 해바라기와 메밀을 재배하고 있으며 그 중 메밀은 kg당 3,000원에 판매되고 있음.
- 실질소득
 - 생산비 : 3,000천원/ha
 - 작물소득 : 1,800천원/ha
 - 경관직불금 : 1,700천원/ha
 - 실질소득 : 1,800천원+1,700천원- 3,000천원 = 500천원/ha
 - 500천원 × 64ha = 32,000천원
- 축제(청보리축제, 메밀꽃축제) 등과 연계하여 경관농업을 추진함으로써 브랜드(청보리움)이미지 향상으로 소매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음.
 - '08년에 메밀꽃 축제를 개최하지 않았으나, 수산물축제와 연계하여 경관 조성시기를 조절함으로써 약 20만 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함
 - 메밀농장 내 농산물 판매소에서 약 40,000천원의 판매소득을 올림.
 - 일부 농가에서 별도로 농산물을 판매하여 올린 소득은 집계 불가

□ 경관조성 및 농촌어메니티 증진효과

- 아름다운 고창 경관을 조성하여 외부 관광객 방문으로 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창군 이미지 향상에 큰 효과를 얻고 있음.
- 선동지구의 경관작물에 의한 경관조성 뿐 아니라 선동지구로 진입하는 도로변에 코스모스 등을 식재하는 등 지역 전체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려는 의지가 향상되고 있음.
- 경관직불제 시행과 함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비슷한 시기에 추진되면서 지구내의 농업시설물, 가로시설물 등에 대해서도 지역경관을 고려해 설치되어 어메니티가 증진되고 있음.

□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지역 활성화 효과

- 경관직불제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공동으로 농작업 및 주변가꾸기를 추진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이 함양되고 있음.
- '08년에 별도의 메밀꽃 축제를 개최하지는 않았지만 제13회 고창수산물 축제 기간과 맞추어 대규모 메밀꽃밭이 펼쳐는 불거리와 지역농산물로 만든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외부관광객들이 고창에 보다 오랜시간동안 머물고 즐기도록 유도함.
- '08년 봄 청보리축제 방문객이 약 55만 명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큼.

※ 고창수산물 축제

- 고창지역 생산 수산물의 홍보 및 판매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목표로 해마다 개최
 - 풍천장어, 전어, 대하, 바지락 등 수산물과 복분자주 등 고창 농특산물 판매촉진으로 농어가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함.
- 불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배울거리를 고창군내 뿐 아니라 인근 지자체와 연계한 관광축제 추진
 - 선운산 꽃무룻과 갯벌, 어촌체험장과 학원농장 메밀꽃 등 다양한 불거리 즐길거리 제공
 - 영광, 함평의 꽃무룻 축제와 서남권(부안, 정읍, 고창) 및 광역권(순창, 장성, 담양, 정읍, 고창) 등 주변지역과 연계한 관광벨트화 축제 추진
- 고창 수산물축제 개요
 - 축 제 명 : 제13회 고창수산물축제
 - 주 제 : 도솔천 아름다운 꽃무룻과 함께 21세기 최고의 웰빙축제로...
 - 기 간 : 2008. 9. 19(금)~ 9. 21(일)
 - 장 소 : 주 행사장-선운산도립공원 일원, 제2행사장-만들 어촌체험마을

4. 제도개선 및 사업 확대 방안

□ 지급단가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 유가 인상 및 농작업비 상승으로 지원 단가 개선이 필요함
- 동계작물 지원단가도 하계작물 지원단가와 동일하게 적용해 주어야 함
- 하계작물의 지원을 현행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것 검토바람.
 - 현재 동계작물과 하계작물로 구분하여 년2회 지급하지만 재배 기술상 하계작물의 경우 2회까지 재배가 가능함. 그러므로 경관농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하계작물의 지원을 2회로 늘렸으면 함.

□ 사업대상지역 적합성 및 확대방안

- 고창군 공음면 선동지구는 하계 67ha, 동계 70ha를 경관보전직불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특히 경관특구지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고창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으므로 사업대상지로 적합함.
- 경관특구 진입로 주변의 지역까지 대상지를 확대함으로써 경관농업 고장의 특성화 추진을 강화할 수 있음.

□ 경관작물 다양화 방안

- 현재 경관보전직불제 지침에 초화류로 지정되어 있는데 향후 꽃이 피는 과수(복숭아, 배, 사과, 산수유, 매실 등)로 확대를 요구함.
 - ※ 과수작목은 고소득 작물이므로 과수로까지 작물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마을 경관 향상 방안

- 진입로, 농장 주변에 꽃이 피는 수목을 식재하여 보다 변화감 있는 경관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임.
- 대상지내 경관작물 다양화로 계속해서 꽃이 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관 조성 효과 극대화 가능

□ 경관 조성 및 유지·관리 등 사업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경관작물(보리) 재배시 수매 물량 약정에서 제외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음.
 - 경관특구지역에서 재배되는 전량에 대하여 경관직불제 지원 요망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수매약정 금지 조항을 완화해 주기 바람
- 각종 인건비 및 농자재비 등의 인상에 따른 직불금 인상 필요
 - 동계작물도 하계작물과 같이 m²당 100원 ⇒ 170원으로 인상 바람.
- 경관직불금 지급을 연 2회로 한정함에 따라 연중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있음.
 - 선동지구의 경우, 계절별로 연간 3회(보리 - 해바라기 - 메밀 및 코스모스) 재배에 따른 경관직불금 지급시 관광산업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에 따른 쉼터 등 편의시설 확대 설치 및 활용 가능성 증대 기대됨.
- 해바라기 재배시 인력으로 수확해야 함에 따라 인건비 부담 가중 및 다량 동시 수확 불가
 - 수확용 기계 지원 및 수확된 해바라기 판로 개척 필요(수매 등)
 - 해바라기는 수확을 해도 껍질을 벗기지 않으면 상품가치가 없으므로 영농 지원 차원에서 해바라기 탈피기 지원을 검토바람.
- 경관보전직불제 관련 읍면담당자를 대상으로 agrix교육 및 경관보전직불제와 관련된 교육이 실시되었으면 함.
- 읍면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효율성이 떨어지는 바,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분기별 신청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주기 바람

□ 농촌환경문화경관보전 활동까지 확대할 경우 적지 여부

- 선동지구의 경우 경관작물 경작지와 마을이 바로 인접하여 있지는 않으나, 녹색농촌체험마을과 연계하여 담장정비 등 경관형성이나 관리활동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 선동지구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인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관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경관보전 활동으로 확대 가능한 지역임.

5) 관련 현장사진



-선동지구 메밀꽃 만개 현황



-선동지구 해바라기 만개 현황



-메밀꽃밭 탐방로



-해바라기꽃밭의 탐방로와 원두막



-해바라기꽃과 원두막



-주변에 코스모스 식재로 경관효과 강조

7. 전라북도 익산시 함라면 소룡리

1) 사업 추진현황

□ 대상지 현황

- 위 치 : 전북 익산시 함라면 소룡리
- 참여농가 : 3호
- 참여면적 : 31,256m²
- 경관작물 : 구절초, 산국, 벌개미취, 꽃무릇, 수선화, 옥잠화, 샤프스타데이지, 해바라기, 비비추, 백련 등 야생화류

□ 경관작물 파종 및 수확현황

- 파종 및 식재현황
 - 다년생 야생 초화류로서 주로 분얼에 의한 식재를 함
 - 경관직불제 사업은 2008년 처음 참여하는 것임.
 - 2006년 전통테마마을(아홉마디 풀향기)로 지정되어 31,256m²에 구절초를 비롯한 야생화를 파종 및 식재함.
 - 해바라기만 종자 파종을 하는 작물이고 기타 야생화는 대부분 분얼로 식재한 것임.
 - 식재면적 : 10여 가지의 다양한 야생화를 31,256m²에 나누어 식재하고, 생장에 따라 보식 등 변동이 있어 작물별 정확한 면적구분 어려움.
- 수확현황
 - 꽃차의 재료로 수확
 - 구절초, 산국, 감국, 차꽃 등을 위주로 꽃차 재료 수확
 - 30g씩 1,000여포 (평년에는 3,000개 까지 가능, 올해는 꽃필 때 가뭄 현상으로 개화 부실로 수확량 감소)
 - 꽃차소득 : 30,000천원 (30,000원×1,000포, 30g 1포 당 30,000원)

- 모종분양과 종자판매

- 한해 동안 식재·관리한 야생화를 이듬해 봄 모종과 종자로 판매
- 모종 및 종자판매 수익 약 30,000천원

□ 지자체 추가지원 현황

- 익산시에서의 추가지원은 없음.

□ 사업추진관련 주민활동 상황

- 외부방문객들이 대상지 내 산책 및 탐방·농촌체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탐방로 조성
- 소룡지구에서 꽃씨와 모종을 소룡마을에 나누어 주어, 대상지 진입로 및 소룡마을 내 꽃길가꾸기 등을 실시하였음.
- 식재관리활동은 참여농가를 위주로 파종, 식재, 제초작업 등을 공동으로 하고 있음.

2) 사업 만족도

□ 사업추진 주민(대표) 의견

- 2003년부터 대상지에 야생화단지를 개장하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한데다 해마다 식재관리에 비용이 들어가는데, 경관직불제도 지원에 의해서 식재관리비 정도의 도움이 되고 있음.

□ 지자체 담당자 의견

- 소룡 지구는 구절초 등 야생화를 테마로 하는 전통테마마을사업을 시행하는 지구로서 경관직불제 시행에 따른 추가지원으로 도농교류 활성화 등 시너지효과를 나타내고 있음.

3) 사업시행 효과

□ 농가소득 향상효과

- 지난 5년간 지속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08년은 어느 정도 기반이 조성된 상태인데다 경관직불제의 지원이 도움이 되어 실질소득에 도움이 됨.
- 실질소득
 - 2008년 투자비 : 11,800천원
 - 백련모주/수선화 구근 구입 : 3,300천원
 - 논밭갈기 등을 위한 장비임대료 : 3,500천원
 - 제초작업 : 100만원 × 4회 : 4,000천원
 - 거름주기 등 시비관리 : 1,000천원
 - 실질 소득 : 54,800천원(각종 소득 - 투자비)
 - 꽃차수확 및 판매:30,000천원 (30,000원×1,000포, 30g 1포 당 30,000원)
 - 모종분양과 종자판매로 판매
 - 모종 및 종자판매 수익 : 약 30,000천원
 - 체험활동비 5,000천원 (체험자 500명×1만원, 체험비 10,000원/인)
- 현재의 야생화단지를 중심으로 주변 농지의 참여면적을 확대함으로써 꽃차의 재료를 더 많이 확보하면 마을 전체의 소득향상과 연계될 수 있음.
 - 2008년은 구절초 등 주요 꽃차로 쓰이는 국화류의 생산량이 가뭄으로 인해 부족한 상황임.
 - 꽃차는 30g 1포에 2~3만원(소매 3만원, 도매 1만 5천~2만원)으로 판매되고 있고 올해 생산량은 1,000 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 2007년의 경우 3,000포 생산 및 판매
 - 야생화단지 운영자가 함께 참여하는 마을주민들의 농지에서 생산되는 구절초 등의 꽃차 재료를 수매해 건조시켜 판매 수익을 나누어 주므로 참여면적이 늘어나면 생산량 증대와 함께 마을주민의 소득향상에 직접적 도움을 줄 수 있음.

□ 경관조성 및 농촌어메니티 증진효과

- 소룡지구의 경관작물은 야생화이므로 경관조성 효과가 뛰어나. 특히 구 절초나 산국이 대량으로 피어있는 풍경은 가을의 정취를 나타내고 있음
- 단, 야생화의 생육 특성상 어느 정도의 그늘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야 산에 식재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단번에 경관을 인식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닐 수 있음.

□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지역 활성화 효과

- 소룡지구는 야생화단지를 중심으로 마을주민들과의 공동체 의식이 커져 가고 있음.
 - 경관직불제 참여 농가들이 자주 만나면서 소룡마을 가꾸기 등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마을에 꽃씨나 모종을 나누어 주는 등 함께 하려는 의식이 높아지고 있음
- 야생화단지 운영자는 경관직불제 참여 농가의 국화류를 수매 수확하여 꽃차로 생산·판매함. 야생화의 경우 고소득 작목이어서 참여 농가에 경제적 도움이 되고 있음.
- 야생화 체험 방문객이 2008년 4~5,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다소 늘었고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 야생화를 이용한 꽃차나 꽃씨, 모종 등의 판매 외에도 지역 농특산물의 판매와도 연계하는 등의 방안마련을 통해 지역 전체의 활성화 매개가 될 수 있을 것임.
- 야생화 체험 방문객은 소룡지구 야생화단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함라초당'을 통해 온라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 일회성 체험이나 판매가 아닌 지속적인 방문과 생산품 판매로 이어지고 있음(그림 1).
- 인터넷 쇼핑몰 운영을 통해 야생화 관련 생산품을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어 연중 지속적인 소득과도 연계되고 있음.

- 소룡지구 야생화단지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꽃씨, 야생화 화분 등 일차적 생산품과 야생화 가공품인 구절초 꽃차, 감국차, 야생화 비누를 판매하고 있고, 꽃차 관련 용품도 판매하고 있음.
-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지역 농산물도 판매한 바 있음. 쇼핑몰 이용자의 주문이 있을 경우 농가를 연결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나, 물품 발송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현재는 중단된 상태임.

4) 제도개선 및 사업 확대 방안

□ 지급단가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 야생화의 경우 제초제나 화학비료를 쓸 수 없어 인력으로 제초작업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제초작업에만 연간 4,000천원 이상 소요되는 등 식재관리활동 비용이 많이 들어 지급단가의 상향조정이 필요함.

□ 사업대상지역 적합성 및 확대방안

- 소룡지구는 사업대상지인 야생화단지 운영자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마을경관 가꾸기와 소득화 방안 등 공동체 의식을 통해 추진하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지역으로서 사업대상지로 매우 적합하다고 판단됨
- 소룡지구는 현재 야산에 야생화단지를 조성한 상태이므로 마을 외곽에서 한눈에 보여지지는 않음. 따라서 마을 입구 및 대상지와 연결한 농지의 참여 확대에 시각적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경관작물 다양화 방안

- 현행 제도는 목본류를 제외하고는 경관작물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 지자체별로 지역특성에 적합하거나 목적에 맞는 경관작물을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08년부터 경관작물 대상을 보리와 밀까지 확대한 것은 오히려 경관직불제가 추구해야 할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임.
 - 메밀의 경우 곡물생산 작목이긴 하나 메밀꽃이 주는 경관형성 이미지가 강해 적합하나, 청보리로 확대 시행했을 때 경관형성에 대한 보조금보다는 생산보조금으로 인식될 소지가 큼.
 - 따라서 보리나 밀까지 경관직불제에 포함시키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마을 경관 향상 방안

- 마을 전체를 야생화 주제에 맞게 연중 계속 꽃이 피도록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꽃마을의 이미지와 경관개선을 꾀할 수 있음.
- 현재 마을주민 참여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을 주민 전체가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마을내 및 외부경관이 향상될 수 있는 지원방안 필요

□ 경관 조성 및 유지·관리 등 사업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현재 신청 대상지를 농지로 한정하고 있어 야생화를 작목으로 신청할 시는 애로사항이 있음.
 - 야생화의 경우 농지보다 야산 등의 임야에 적합한 품종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 바람.
-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의 주요 목표를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조성에 두는 것도 좋지만, 경관작물이 농산물 가공으로 연계되어 주민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람.
 - 경관직불제로 지원 가능한 범위 외에 경관작물 생산물의 가공 및 판매와 관련된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교육도 필요함.
- 보리나 밀을 경관직불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생산보조금으로 오인시킬 소지가 크므로 경관직불제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별도의 생산보조금 정책을 마련해 주었으면 함.

- 청보리를 경관직불제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동계작물 지원금을 ha당 100만으로 낮춘 것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생산 및 관리에 따르는 비용을 감안할 때 최소한 170만원/ha 이상으로 지원되어야 함.

□ 농촌환경문화경관보전 활동까지 확대할 경우 적지 여부

- 소룡지구의 경우 야생화단지과 마을이 바로 인접해 있어,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에 의한 농촌체험을 강화하면 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음.
- 소룡지구는 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관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있고, 특히 구절초를 중심으로 한 야생화를 테마로 도농교류를 지속할 수 있음.
- 경관직불제의 확대로 마을경관 관리활동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면, 야생화를 테마로 한 마을가꾸기 활동으로서 마을내 화단조성, 관찰로 조성 등을 추진하고 주민들의 경관관련 공동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임.
- 소룡지구는 경관보전직불제 신청시 마을단위 협약에 의한 경관조성을 목적으로 시작한 것임.

5) 관련 현장사진



-함라지구 벌개미취 만개 현황



-꽃무릇



-감국



-꽃차를 만들기 위해 채취한 구절초



-야생화 종류 체험학습



-꽃차마시기 체험

8.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고부리

1) 사업 추진현황

□ 대상지 현황

- 위치 : 전북 정읍시 고부면 고부리
- 참여농가 : 7호
- 참여면적 : 80,192m²
- 경관작물 : 메밀

□ 경관작물 파종 및 수확현황

- 파종 및 식재현황
 - 파종시기 : 2008. 8. 9 산파
 - 개화시기 : 08. 9. 12 경 ~ 10월 초(파종 후 약 30일 후 개화)
- 수확현황
 - 10월 중순 이후로 예정

□ 지자체 추가지원 현황

- 국비 지원 : ha 당 170만원(국비 70%, 지방비 30%)
- 지방비(시비) 추가지원 : ha당 80만원 추가지원
 - 80,192m² × 250원 = 20,048천원(국비 48%, 지방비 52%: 국비 9,769천원, 지방비 10,279천원)

□ 사업추진관련 주민활동 상황

- 참여농가(7농가)의 공동작업에 의한 파종 및 비배관리
- 2008. 9. 12~9.15(4일간) 축제행사를 대비하여 참여농가 공동작업으로 탐방로를 개설하고, 주차 광장을 조성하여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 및 행사공간을 확보함
- 지구내에 경관감상 및 휴게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원두막을 주민들이 자체

- 적으로 4개소 제작을 하여 설치하고, 연자방아, 허수아비 등을 설치하여 행사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
- 지구의 북측경계에 마을숲(소나무숲)이 있어 메밀꽃과 어우러지는 경관을 형성할 뿐 아니라 산책, 휴식 장소로 사용되는데, 이 곳에 코스모스를 식재하여 다양한 경관을 조성하고자 노력함
- 축제행사에 농특산품 직거래장터를 개설하여 공동운영함.

2) 사업 만족도

□ 사업추진 주민(대표) 의견

- 경관직불제 및 지자체 확대지원에 따라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됨.
 - 경관직불금으로 ha당 250만원을 지원받는 것과 작물수확 판매에 따른 소득 등을 감안할 때 350 ~ 400만원의 소득을 얻고 있음.
- 경관농업 조성지역에 대한 농산물체험 및 농업관련시설 지원으로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음.
- 작물재배로 경관조성을 한다는 것에 참여주민들이 활력을 얻고 있을 뿐 아니라 청정메밀축제 기간에 방문한 도시민들에게 농산물 및 음식판매로 실질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에 대해 매우 만족함.

□ 지자체 담당자 의견

- 경관직불제지원을 통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경관지구 집단화조성 및 경관지구를 활용한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고, 이를 통한 도농교류 촉진으로 농특산품 판매 등 농촌경제 활성화와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농업을 정착시킬 수 있음.
 - 경관지역 소규모 및 이용(활용)실적 저조지역 경관직불금 지원을 배제하여 실적 우수지역은 지원을 확대코자 함.
- 특히 두승지구를 포함한 인근 지역에 무농약 농업을 시행하고 있고 250ha 면적에 대해 친환경 인증을 받았음. 쌀, 보리, 메밀에 대해 무농약

인증을 받음으로서 친환경농업지역의 이미지 구축과 함께 메밀 경작에 따른 경관조성에 의해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음.

3) 사업시행 효과

□ 농가소득 향상효과

○ 경관직불제 지원과 정읍시의 추가지원 그리고 작물수확에 따른 판매소득 메밀꽃 축제로 인한 부가적 효과로서 지역 농산물 판매 등 소득향상에 파급적 효과를 주고 있음.

- 경관보전직불제 지원금 : 170만원/ha

- 정읍시 경관농업 추가지원 : 80만원/ha

- 메밀수확에 따른 작물소득 :

· 메밀 수확량 : 추정치 약 8,000kg(1,000kg/ha)

· 메밀 판매소득 : 08년 수확이 끝나지 않아 추정만 할 수 있고, 올해의 경우 가뭄으로 작황 수준이 낮음.

※ 메밀 생산은 강원도 봉평과 계약재배를 하여 전량 봉평농협에서 하한가 2,500원/kg 보장 조건으로 수매해 가는데, 3,000원/kg의 수준에서 판매하고 있음.

- 기타 농산물 판매 소득 :

· 메밀 생산면적에 보리를 재배하고 있음. 무농약 보리를 전남 보성의 ○○산업과 계약재배를 하여 전량 납품함. 수매업체는 서울의 학교 급식용으로 친환경농산물을 납품하고 있음

· 울금(강황, 카레원료), 연근가루, 고구마(10,000원/10kg) 등의 판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경관조성 및 농촌어메니티 증진효과

○ 메밀꽃으로 일차적 경관조성을 하고 축제 등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변 경관을 부가적으로 가꿈으로써 지역 전체의 경관향상 효과

를 나타냄.

- 진입부 휴게공간 조성과 지구내 코스모스 식재, 소나무숲 관리, 지구내 경작지 청소 등 다각도의 경관가꾸기 활동을 통해 어메니티가 증진되고 있음

□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지역 활성화 효과

- 기존의 농업방식으로 작물재배 만으로 소득을 얻던 농가들이 경관직불제를 통해 참여농가들이 공동작업에 의한 농업과 경관조성을 추진함으로써 주민들간의 관계가 돈독해 지고 있음.
 - 메밀꽃 조성효과와 축제를 풍성케 하기 위해 원두막, 연자방아, 박터널, 허수아비 등을 주민들이 모여 제작·설치하는 과정에서 농촌지역 삶의 정취를 회복하는 계기가 됨.
 - 축제기간에 꽃마차 운행을 하는 등 찾아온 방문객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즐기는 계기가 되었음.
 - 축제 때 다녀간 도시민들의 요청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함으로써 소득증대 효과를 얻고 있으며, 인근 지역에서 재배하는 연을 가공한 연근가루를 비롯해 농특산물 개발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등 모임이 많아지고 있음
- 두승 메밀축제 개요
 - 축제명 : 제2회 두승산 청정메밀축제
 - 주 관 : 고부 메밀축제 추진위원회
 - 일 시 : 2008.9.12 ~ 2008.9.14(추석절/3일간)
 - 장 소 : 고부면 고부리 두승 경관농업조성지구
 - 축제행사비 : 10,000천원(보조8,000, 자부담2,000)
 - 참여인원 : 20,000명 (지역인사, 지역주민, 향우회원, 관광객 등)
 - 행사내용 : 농촌체험행사(연자방아, 꽃마차 등), 메밀음식체험 및 농특산물 직판행사(농협), 기타 부대행사 등
 - 경제적 효과 : 약 200백만원 추정
 - 농협을 통한 농특산물 판매실적 20백만원(메밀, 찰보리, 흑미, 잡곡류)

을 비롯해 고부리 농가별 생산농산물 판매, 정읍한우 판매, 행사시
음식 판매 등

- 고부면 면민의 날 행사와 병행 실시함으로써 주민화합의 분위기 조성 및 애향의식 고취
- 두승지구 인근의 농산물 판매효과 뿐 아니라 정읍시를 대표하는 지역특산물로서 정읍한우 판매 및 홍보에도 기여를 하는 등 지역 전체의 활성화에 기여함.

4) 제도개선 및 사업 확대 방안

□ 지급단가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 경관농업 하계작물의 경우 직불금을 벼농사기준의 산정지급 희망
 - 경관농업 확대를 위해 정읍시에서 추가지원을 하는데 따른 지자체의 부담이 있으며, 경관직불제 참여농가가 늘어날수록 부담이 늘어나게 되므로 국고지원을 올려주었으면 함.

□ 사업대상지역 적합성 및 확대방안

- 무농약 농업 인증으로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있고 생산메밀의 안전성을 인정받는데다 메밀꽃밭 조성으로 축제행사와 함께 지역농산물 수익증대로 이어지는 지역이므로 사업대상지로 매우 적합함.
- 현재의 두승지구를 포함해 경관농업지구를 확대 조성할 계획이므로 도로변 및 인근 두승산 일부의 주변 농경지 참여를 유도함 (현 80,000m² ⇒ 200,000m²).

□ 경관작물 다양화 방안

- 국도변 주변농경지에 메밀과 개화시기가 맞는 코스모스 및 해바라기 등의 식재로 벼농사지역 경작지와 조화로운 경관 조성

□ 마을 경관 향상 방안

- 마을의 경관향상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
 - 재배면적확대 및 경관 조성지 주변 볼거리 및 농산체험시설 확대
- 마을주민 참여를 통한 경관보전활동 강화
 - 지역 농민회가 중심이 되어 공동재배 및 관리로 운영 활성화
 - 두승지구 경계부의 마을숲(소나무숲)을 보전 관리해야 함.
- 주변 마을의 입구나 안길 정비 등을 통해 마을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경관향상 필요

□ 경관 조성 및 유지·관리 등 사업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경관조성 대상지 선정시에 최소 도단위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 조사 후 대상지 적합성을 판정했으면 함.
- 경관보전 직불금(보조금) 지급시기 : 경관농업 이행 완료 후가 적합
 - 사업비산정기준 및 이행면적에 의거하여 사업완료시(작목별 개화기 이후) 지급액을 결정하여 경관지구별 및 농가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관작물식재 및 파종후 발아상태등을 점검하여 최대 30% 까지 지급하고, 이후 지급요건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나머지 보조금을 지급

□ 농촌환경문화경관보전 활동까지 확대할 경우 적지 여부

- 두승산(해발500m) 및 주변 문화재(고부읍성, 남북리 5층 석탑 등)를 연계한 경관 지역 확대조성으로 도농교류 촉진 및 농촌경제 활성화 가능지역임.
- 두승지구 참여농가를 비롯해 고부리 마을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이 높으므로 농촌환경문화경관 보전 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판단됨.
- 두승지구 마을숲 등과 같은 경관자원의 중요성 인식과 이의 보전관리활동에 대한 활동비 지원이 필요함.

5) 관련 현장사진



- 두승지구 진입부에 조성된 휴게공간



- 지구내 탐방로



- 두승 메밀꽃축제 개막식(08.09.12)



- 만개한 두승지구 메밀꽃



- 메밀꽃밭과 북측경계부의 소나무숲



- 축제기간 허수아비 설치

9. 전라남도 곡성군 겸면 칠봉리

1) 사업 추진현황

□ 대상지 현황

- 위 치 : 전남 곡성군 겸면 칠봉리
- 참여농가 : 7농가
- 참여면적 : 56,111m²
- 경관작물 : 목화, 연(목화 : 1ha, 연 : 4.6ha)

□ 경관작물 파종 및 수확현황

○ 파종 및 식재현황

- 목화 : 4월 중순경 직파, 40kg/ha

- 아욱목 아욱과 한해살이풀
- 종자에 밀납질의 솜털이 수분흡수를 방해하므로 황산처리-석회수 중화 과정을 거쳐 파종
- 재배초기에 목포의 목화시험장에서 종자 및 재배기술을 지원받아 시작함. 현재는 수년간의 재배경험을 통해 발아율 등의 재배기술이 오히려 높아져 타지역에서 사례조사를 오는 정도임.
- 현재는 재래종 보전 차원의 품종을 재배하고 있으나, 수확량증산 품종을 도입해 유기농 생산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음

- 연 : 4월 말 ~ 9월 중순 중에 농가별 생산시기를 고려해 자율적 식재

- 다년생 근채류(채소류)에 속함 (종근으로 식재, 4,500kg/ha)
- 가을에 수확하면서 종근을 새로 심거나 일정부분을 남겨두었다가 심기 전 10일 전에 채취하여 정식하는 방법으로 식재
- 연작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연 식재 전년도에 자운영 히어리페치 등 녹비작물을 식재함. 현재 자운영 등의 식재는 경관직불제 지원없이 시행

○ 수확현황

- 목화 : 1ha의 면적에서 생산되는 목화의 양은 정확히 집계된 바 없으며 07년 기준으로 700만원/ha의 소득을 올렸음.

- 연 : 82,800kg(18,000kg/ha) 수확

□ 지자체 추가지원 현황

- 곡성군에서는 추가지원을 하되 작물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하고 있음
 - 목화재배는 추가지원을 하고, 고소득 작목에 속하는 연 재배에 대해서는 추가지원을 하지 않음.
 - 목화재배 추가지원 : 13,700천원(퇴비 및 비닐피복비)
 - ※ 메밀(오곡 창동지구) : 25,250천원을 추가지원
- 주변 하천변 진입 도로변에 이팝나무, 개나리 등의 꽃피는 수목 식재와 계절별로 코스모스 등의 꽃길 가꾸기 지원

□ 사업추진관련 주민활동 상황 (재배관리 및 경관관리활동)

- 공동작업으로 파종·식재 및 배수로를 정비하고, 경관작물 안내 표시판 등을 설치(플래카드 등)
- 경관작물 재배지 내에 탐방로를 개설하고, 경관직불제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상지 및 인근지역의 청소를 수시로 실시함.
- 목화공원 인근의 점면천에 연을 식재하여 칠봉리를 방문하는 도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함.

2) 사업 만족도

□ 사업추진 주민(대표) 의견

- 목화의 경우 재배가 쉽지 않은데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수확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가공생산 과정이나 상품화에 기술지원과 자금투자가 장기적으로 필요한데 우선 경관직불제 지원은 농가에 도움이 됨.
- 연과 목화를 재배하면서 재배 및 생산기술 등의 필요에 따라 단체로 타지역 방문을 하거나 공동작업 활동을 많이 해 오고 있지만, 경관직불제를 통해 경관조성에 관심을 갖게 됨으로써 주민 공동체 의식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 지자체 담당자 의견

- 농업을 하면서 경관을 가꾸고 이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긍정적이나, 지원단가가 낮은 수준임.

- 특히 곁면의 목화재배는 주민들이 무농약 재배, 생태농업, 유기농 면제품 생산 등을 해보려고 추진해 왔으나 아직 미약한 수준이고, 관련 축제비용 등 지자체 입장에서 어려움이 많음.

3) 사업시행 효과

□ 농가소득 향상효과

- 목화의 경우 아직은 농가소득에 큰 도움이 되는 작목이 아님.
 - 국내에 거의 남아있지 않은 토속작물 재배에 뜻을 두고 재배하고 있음
목화생산은 2차 가공하여 제품으로 연결되어야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개발 및 판로를 개척하는 수준임.
- 연의 경우 연근, 연실(열매) 등으로 생산되며 비교적 고소득 작목에 속하는데다 경관직불제 지원이 추가되어 농가에 활기를 더해 주고 있음.
 - 연근 수확 및 판매
 - 연근수확량 : 약 82,800kg(18,000kg/ha)
 - 식용으로 판매할 시 : 5,000원/kg
 - 종근으로 판매할 시 : 6,000원/kg
 - 연실 판매
 - 식용으로 판매 : 15,000원/kg
 - 연잎 판매
 - 연음식 재료로 판매 : 약 5,000kg(3,000원/kg)

□ 경관조성 및 농촌 어메니티 증진효과

- 전국적으로 목화재배가 흔치 않아 특색있는 경관을 형성하며 이웃하는 연재배단지와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고 있음.
- 하천(곁면천, 섬진강줄기)변을 따라 이팝나무, 개나리 등의 수목과 계절별 초화류 식재로 사계절 꽃이 피는 마을로 가꾸고 있음.
- 진입 도로변 꽃길 가꾸기(일부구간은 코스모스 일부구간은 목화)로 어메니티 향상 및 지역이미지 고취
- '도로변 꽃길 - 목화·연 재배단지 - 하천 - 목화공원'이 연계되어 곁면 일대가 농업과 공원이 어우러진 생태공원의 역할을 하고 있음.

□ 공동체의식 함양 및 지역활성화 효과

- 겸면 칠봉지구는 목화공원과 인접해 있어 연 5만의 방문객이 찾는 곳이며, 사라져 가는 토속작물을 재배함으로써 도시민 뿐 아니라 지역민의 호기심을 유발하여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음
- 목화재배 및 연재배 관련 농업기술의 정보 공유와 방문객들과의 교류를 위해 다음 카페를 개설하여 특히 목화축제 기간에 홍보 및 농산물 판매코너 등을 운영함(그림 1).

□ 경관작물 관련 축제 시행성과

- 매년 가을 목화축제 개최를 통해 유기농 목화생산 및 지역 알리기 행사
- 겸면 목화축제 개요
 - 축제명 : 제7회 겸면목화축제
 - 기 간 : 08. 9. 20(토) ~ 21(일)
 - 장 소 : 곡성군 겸면 목화공원(약 20,000m²) 및 칠봉지구 일대
 - 비 용 : 5,000만원(군 지원4,000만원, 출향인사 및 면민 기부금 1,000만원)
 - 주 최 : 겸면(겸면목화축제추진위원회 주관)
 - 주요행사 : 농작업 체험, 겸면천변 생태체험. 목화 이용한 실짓기, 목화 다래 골프대회, 목화제품 만들기, 목화전시장 관람, 마당극(심청전), 난타공연, 지역 음식체험 등
 - 농특산물 판매 : 목화제품, 쌀, 콩, 땅콩, 포도, 사과 등
- 축제시행 성과
 - 방문객 : 행사기간 50,000 명 방문 추정
 - 목화축제장으로 사용된 목화공원 및 폐교를 주차장으로 활용
 - ※ 목화공원 : 2004년 군에서 지원하여 조성
 - 농산물 판매 등 소득효과 : 주로 개별 농가 판매여서 집계 불가

4) 제도개선 및 사업확대 방안

□ 지급단가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 농업인 고령화로 농기계 없이는 경관조성 추진이 어렵고 인력으로 추진

- 할 시 인건비 부담이 커 이를 감안하면 지급단가를 더 높여야 함.
- 동계작물 중 자운영은 벼 입모상태에서 공동파종을 실시하기 때문에 별도의 파종비가 필요치 않으나 유채, 목화, 연 파종 시에는 현행의 경관작물 단가로는 추진이 어려우므로 별도의 추가예산이 필요함.
 - 곡성군의 경우 전체 72ha에 대해 2억 7천만 원의 추가 지원을 하였음.
- 하계 경관작물도 단가가 높지 않은데다, 동계 경관작물(자운영 제외)은 국고지원 단가가 더 낮아 지자체 추가지원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함.

□ 사업대상지역 적합성 및 확대방안(면적기준 등)

- 목화 및 연 재배단지는 경관조성 효과가 뛰어나고 칠봉지구의 경우 목화와 연 재배단지가 인접하고 있어 대상지로 적합함.
- 사업대상 지역을 확대하여 추진함이 타당함. 인근에 농촌체험학교, 외가집 체험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등이 있어 다수의 방문객이 찾고 있으므로 농촌에서만 볼 수 있는 경관조성과 그 면적을 확대해야 함.

□ 경관작물 다양화 방안

- 현행 지침 수준의 경관작물의 종류로 지자체 자율적 선정을 통해 다양한 경관조성이 가능할 것임.
- 경관작물 선정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일년생 및 다년생 초화류나 작물 등 다양한 예시를 해 주었으면 함. 지자체나 일반 농가들이 농작물 외에는 꽃피는 식물에 대해 잘 알지 못하므로 지역별 가능한 작물 예시 필요

□ 마을 경관향상 방안

- 마을의 경관향상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사항
 - 고령화에 따른 위탁대행사업비 추가 지원
- 09년도에는 겸면천 양안을 따라 더 많은 양의 연을 식재하여 경관조성 뿐만 아니라 수생생태계의 회복을 도모하려 함.
 - 하천내 연 식재는 경관직불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경관조성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임.

□ 경관 조성 및 유지·관리 등 사업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대상지 선정 및 협약체결 등 지자체 주도적인 행정으로 진행되어 주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사업시행 전 주민들과 시·군, 면사무소 담당자 등이 워크숍 등을 통해 사전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경비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함
- 경관직불제에 제도적으로 지자체 행정경비를 별도로 세워 중간점검 또는 전산정리에 필요한 지원이 포함 되었으면 함. 경관직불제를 앞으로 계속 확대해 시행해 나갈 경우 신청 대상지가 늘어날 것이고, 이에 따라 점검·추진하는 업무가 가중되고 있음.
- 비료, 농기계 임차료 등이 급상승해 경관직불제 대상지 조성을 위한 파종 시비, 관리 등의 초기 투자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고는 농가의 참여를 유도할 수가 없음
 - 곡성군의 경우 08년 72ha의 면적에 대해 2억 7천만원의 비용(평균 370/ha)을 초기비용을 들였음.
 - 대상지 조성을 위한 초기비용 지원으로 자발적인 농촌경관 조성이 추진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해 사업비 정산방식 도입을 검토해 주기 바람.
- 목화와 연의 재배가 다른 작물에 비해 고소득 농업이긴 하나, 판로 개척이나 특산물로의 가공생산 등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개발기술 또는 교육이 필요함.

□ 농촌환경문화경관보전 활동까지 확대할 경우 적지 여부

- 칠봉지구의 목화밭은 경작지경관으로서 특색있는 풍광을 연출하고 있고 목화와 연을 무농약으로 재배하는 등 생태농업을 의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임
- 지역주민들이 대상지 진입로와, 하천변, 목화공원 등을 가꾸는 일에 적극 참여하고 있어, 경관보전 활동을 적극 해낼 수 있을 것임.

5) 관련 현장사진 :



- 연 재배단지 전경



- 면실 1



- 면실 2



- 목화단지 및 탐방로 조성 현황



- 목화공원(약 20,000㎡)



- 목화공원내 목화체험관

10.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면 몽강리

1) 사업 추진현황

□ 대상지 현황

- 위치 : 무안군 몽탄면 몽강리 일원
- 참여자수 : 10명
- 참여농가수 : 10농가
- 참여 면적 : 20,130m²
- 경관 작물 : 해바라기

□ 경관작물 파종 및 수확현황

- 경관작물 파종 : 4월 말경 멀칭작업 후 해바라기 종자 및 모종 식재
 - 식재량 : 약 10kg(504g×20포, 50,000원/포)
 - 인근 종묘상에서 종자구입 시 해바라기 종자를 수매해 조건으로 종자를 판매함.
- 개화시기 : 7월 10일경 ~ 8월 10일경 까지
 - 1개월 후 개화(재래종 1개월 후 개화, 미국 왜성종은 1개월 이내 개화)
- 수확현황 : 약 4,800kg(240포/20kg)
- 판매현황 : 약 20,000천원(kg당 4,000원~ 4,500원)
- 해바라기는 장신 작물이어서 잡초 성장을 이기므로 제초제가 필요치 않고 따라서 친환경농업이 가능한 작목임.

□ 지자체 추가지원 현황

- 지자체 추가지원금은 없음.
 - 국고 70%, 도비 10%, 시군비 20%
- 2005년 ~ 2006년 '아름다운 무안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해바라기 식재 전 부지조성을 위한 농기계작업 등의 지원을 해 주었으나 올해는 지원하지 못함.

□ 사업추진관련 주민활동 상황 (재배관리 및 경관관리활동)

- 해바라기 파종 및 식재와 작물생육에 양호한 토양 수분 조건 유지를 위한 용수공급 및 적절한 시비 및 제초작업을 공동으로 실시함.
- 이장단, 청년회, 부녀회 등 단체별로 해바라기 경작지 주변 풀베기와 마을 청소 등을 실시함.

2) 사업 만족도

□ 사업추진 주민(대표) 의견

- 해바라기는 성장속도가 빨라 경관조성이 빠르데다 식물의 키가 크고 꽃도 아름다워 독특한 농촌경관을 형성함.
- 농업작물로 경관조성을 하고 이에 대해 직불금이 지원됨으로써 농촌경관 가꾸기와 농업소득이 연계될 수 있는 사업임.
- 해바라기의 경우 모종을 심기 전 잡초를 제거하고 나면 이후 제초작업이 거의 필요 없어 친환경농업이 가능함.
 - 성장속도가 빠르데다 잎이 커 잡초의 광합성에 필요한 햇빛을 가려 버리므로 잡초가 자랄 수 없고 따라서 제초제와 같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 생산을 할 수 있는 작목임.
 - 해바라기 경작지와 인접한 논이 결실기에 새로 인해 입는 피해를 줄이는 효과도 있음.
- 해바라기는 종실생산으로도 경제성이 있어 경관농업 작목으로 육성가능하나 아직 소득으로 연계되지 않아 소득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해바라기 씨앗을 수확은 해 놓았으나 농산물로서의 판매 가치를 갖기 위해서 껍질을 제거해야 함.
 - 해바라기 껍질을 제거하는 탈피기는 약 8,000~9,000만원 수준이어서 농가에서 구매하기 어려우므로 국가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모색해 주었으면 함.

□ 지자체 담당자 의견

- 농촌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공익적 기능을 증진할 뿐 아니라 도농교류 및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장을 마련함.
- 무안군은 주요 도로변 약 150km를 따라 꽃길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무안 가꾸기’를 시행하였는데, 몽탄면 몽강리의 경우처럼 경관직불제 지원이 되는 경우 큰 도움이 됨.
- 무안 연산업축제(7월 25일-29일)와 연계되어 노란 금계국, 조생 코스모스를 도로변에 식재
- 해바라기는 경관작목 및 밀원용, 사료용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최근 건강 식품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있어 농업소득으로도 좋은 작목임.

3) 사업시행 효과

□ 경관조성 및 농촌어메니티 증진효과

- 몽강리 신촌마을 앞의 도로변을 따라 농지에 해바라기를 식재함으로써 약 150m 높이의 해바라기 특성상 꽃터널과 같은 효과를 주었고 색다른 경관을 형성함.
- 구 호남선 폐선부지 2km를 따라 해바라기 포토단지를 조성하고 조롱박 등을 심어 다양한 볼거리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함.

□ 공동체의식 함양 및 지역활성화 효과

- 주민들 스스로 마을 경관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동으로 식재 및 관리를 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지역활성화 효과를 가져 옴.
- 해바라기의 식물 특성상 빠른 성장과 개화기에 찾아드는 방문객들을 맞이하면서 주민들이 경관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었고 일부 농산물 판매와 음식 판매가 이루어졌으나 그 수준이 미미하고 이에 대한 집계는 없음.

□ 경관작물 관련 축제 시행성과

- 몽강지구는 2008년 경관직불제 사업을 처음 신청하였고 경비 문제로 축제를 시행하지 못함.
 - 몽강지구 해바라기 식재는 2004년 철로변 독길을 없애고 2005년부터 시작하였으며 2007년 경관직불제를 신청하려 하였으나 당시 철도청부지의 임대계약서 문제로 신청을 하지 못함
 - 2007년 마을주민들이 400만원의 자금을 만들어 축제를 시행하였으나 다양한 준비를 하지 못해 뚜렷한 소득효과를 보지는 못했음
 - 2008년에는 축제자금 마련을 하지 못해 축제시행도 하지 못함
 - 그럼에도 도로를 따라 이어진 해바라기 경관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온 방문객들이 사진촬영을 하거나 인근 유치원 등 단체방문이 이어지면서 마을이 축제를 치르는 것과 같았음.
- 몽탄리 인근에서 7.24~29일까지 개최된 '연산업축제' 기간과 해바라기의 개화시기가 달라 연계 효과가 크지는 않았으나 개화기간 동안 약 2,000명의 관람객이 찾아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고 감.
 - 동양 최대의 백련 자생지인 회산의 무안연꽃축제는 1997년 8월 제 1회 축제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음.

4) 제도개선 및 사업확대 방안

□ 지급단가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 해바라기의 경우 종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고 다른 작물에 비해서 가격이 높아 작물별 지급단가에 차등을 두는 등의 개선이 필요함.

□ 사업대상지역 적합성 및 확대방안(면적기준 등)

- 대상지 위치상 연산업축제와 녹색농촌체험마을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장소로 적합하며 면적을 확대해서 사업을 할 경우 투자대비 효과도 클 것

이라고 예상됨.

- 사업대상지를 농지로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도로변 공한지 또는 폐선 철도부지 등도 대상으로 포함해 주기 바람.
- 현행 면적기준에서 최소 0.5ha의 면적 이상에 대한 이격거리 허용기준이 30m 인데, 이격거리 100m 이내이면 연속경관 효과가 있으므로 100m 이내의 이격거리를 인정해 주었으면 함.

□ 경관작물 다양화 방안

- 해바라기와 코스모스를 시기적으로 이어지도록 식재하여 경관형성을 하고 축제와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 필요

□ 경관 조성 및 유지·관리 등 사업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경관작물 재배 후에 사후 관리 또는 작물 재활용방안 마련 요망
- 경관직불제를 통해 지역활성화나 경관가꾸기, 농업소득화 등의 선도적인 사례를 소개해 주고, 마을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교육이나 연수가 필요하다고 봄.

□ 농촌환경문화경관보전 활동까지 확대할 경우 적지 여부

- 마을과 주변경관이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고 있고 주민들 스스로 마을경관관리에 대한 의지가 강하므로 사업을 확대할 경우 효과가 크게 나타날 지역으로 사료됨.
- 특히 전 호남선 철도역인 몽탄역을 문화경관 차원에서 리모델링하는 등의 자원화와 마을경관 개선을 통해 독특한 농촌경관 형성 및 보전이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됨.

5) 관련 현장사진



-몽강리 도로변의 해바라기 1



-몽강리 도로변의 해바라기 2



-해바라기를 관찰 중인 방문객



-해바라기꽃 촬영에 여념이 없는 방문객



-몽탄역



-해바라기 열매수확 현황

11.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선학동

1) 사업 추진현황

□ 대상지 현황

- 위 치 : 전남 장흥군 회진면 선학동
- 참여농가 : 27호
- 참여면적 : 125,000m²
- 경관작물 : 메밀

□ 경관작물 파종 및 수확현황

- 파종 및 식재현황
 - 시기 : 2008. 7. 28 ~ 8. 6 기간 중에 산파
 - 파종량 : 80~90kg/ha(07년 자가 채종한 것임)
 - 07년에 5,500/kg의 가격에 60kg을 구입하였음.
- 수확현황
 - 08년 수확현황은 07년보다 작황이 좋으나 참여농가 30호가 각기 수확하여 정확히 집계되지는 않았음.
 - 07년은 2,000kg을 수확하였으며, 수확 직전 태풍의 피해가 컸고 메밀을 첫 해 시도하면서 파종량을 60kg/ha 로 적은 양을 파종하였기 때문에 수확량이 현격히 줄어든 것임. 08년은 훨씬 많은 양을 수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지자체 추가지원 현황

- 경관직불금의 지자체 추가지원은 없음.
- 간접적 지원으로서 군에서 2,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금은 산저지구 내 원두막 2개소와 계곡부 구름다리를 놓는데 활용되어 방문객 편의를 도모함(그림 1, 2).

- 당초 행정안전부 사업인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사업(마을당 2,000만원 지원)’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나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지 못하자 군에서 별도로 2,700만원을 전액 지원하여 추진한 것임.

※ 지자체 지원내용 : 원두막 2개소, 구름다리 1개소, 특산품판매점, 다목적작업장(230m²), 등산로정비

- 면사무소 지원에 의해 선학동을 포함한 일대에 가로수로 먼나무를 식재하여 산저지구 진입로를 독특한 가로로 조성함.

□ 사업추진관련 주민활동 상황 (재배관리 및 경관관리활동)

-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의 메밀꽃 경관을 보기 위해 이 지역을 찾는 사진작가 및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탐방로를 개설하였고, 재배지역내 원두막을 보수하여 관광객 쉼터를 조성함.
- 대상지내 메밀, 유채 재배지역의 작물이 잘 생육하여 좋은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위원회 자체적으로 마을 경관관리를 실시하여 시비 및 제초작업을 하고 작물생육에 양호한 토양 수분조건 유지를 위하여 관개 및 배수작업을 실시함.

2) 사업 만족도

□ 사업추진 주민(대표) 의견

- 지역별로 특색있는 경관작물을 선택해 집단재배를 함으로써 농촌다운 독특한 경관을 창출하고 지역축제 (할미꽃 축제, 전어축제 등)와 연계하여 상생 효과 얻고 있음.
- 경관작물 재배로 농촌경관 유지 및 개선을 통해 주민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 파급 효과가 있어, 2007년 시범사업 당시 1개 지구(20.8ha)이었던 것이 2008년에는 7개 지구(88ha)로 증가함.

□ 지자체 담당자 의견

- 대상지는 소설가 이청준 선생의 작품인 「선학동 나그네」의 배경, 감독 임권택 선생의 100번째 영화 「천년학」의 촬영 세트장으로 사용되었고, 한반도에서 제일 먼저 봄이 찾아오는 정남진의 이미지에 부합되어 봄철의 유채꽃과 가을의 메밀꽃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줄을 잇고 있음.
-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으로서 유채, 메밀을 재배하여 지역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역축제(봄철 할미꽃 축제, 가을철 전어축제)와 연계하고, 문화자원(천년학 소설 배경, 천년학 영화 세트장)과도 연계하여 이곳을 찾는 관광객 및 사진작가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3) 사업시행 효과

□ 농가소득 향상효과

- 대상지내 작물 재배에 따른 지원금 외에 부녀회에서 나물(메밀, 유채)을 채취하여 시장 판매함으로써 부녀회 기금 500만원을 조성함.
- 마을내에 설치된 70여평 규모의 다목적작업장을 메밀수확 및 가공·저장에 이용하고 있음.
- 경관직불제 지원금 외에 수확메밀을 5,000원/kg에 판매하고 있어 ha당 약 3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됨(대부분 전남지역에 판매).
 - 경관직불제 지원금 : 170만원/ha
 - 수확메밀 판매 : 130만원/ha

□ 경관조성 및 농촌어메니티 증진효과

- 휴경논, 다랭이논을 경관작물 재배지역으로 유도, 집단화시키고 지역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이곳을 찾는 관광객 및 문학작품의 배경지를 찾는 문학탐방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함.

- 초봄의 유채꽃 만개시의 할미꽃축제 가을의 메밀꽃과 관련해 전어축제를 개최하면서 지속적인 경관관리를 하게 되고 마을 및 주변지역 어메니티가 향상되고 있음.

□ 공동체의식 함양 및 지역활성화 효과

- 경관직불제 시행을 위해 거의 매일 마을회의를 하면서 작물재배 및 관리를 위한 작업을 공동으로 추진함.
- 주민 공동으로 마을 진입로 및 마을안길에 꽃을 심거나 청소를 실시하고 (그림 1, 그림2), 메밀꽃을 보러 오는 방문객을 맞이하는 태도 등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역할을 나눔.
 - 경관직불제를 통해 주민들이 자주 만나는 계기가 되었으며, 서로 도와 농업을 추진하려는 공동체 의식이 더욱 높아짐.
- 2007년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 당시 이곳을 찾는 방문객이 10,000여명 정도이었고, 2008년은 봄 유채꽃 축제를 시작으로 약 20,000여명이 이곳을 방문하였음.
- 계단식 다랭이 논처럼 되어 있는 이곳의 유채를 배경으로 하여 작품사진을 찍으려는 사진작가들 차량이 줄을 이었음.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대형 버스를 타고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함.
- 2008년 봄 유채 만개시에는 SBS프로그램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일지매'의 방송 촬영지로 이용되었고 방문객들의 각광을 받았음.
- 추진위원회 자체적으로 인터넷상의 카페를 개설하여 대내적으로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하고, 대외적으로 마을을 안내하고 홍보하는 매개체로 활용하고 있음(daum 카페명 - '선학동마을').
 - 다음 카페의 온라인 상의 '선학동마을'을 통해 특히 선학동 출신의 도시 거주자들은 수시로 고향의 소식을 접할 수 있고, 자신의 직장이나 거주지에 고향의 농산물을 소개 또는 직접 주문을 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실제적으로 돕고 있음.

○ 카페 '선학동마을'의 주요내용

- '우리마을 선학동' : 마을 소개, 마을 사진, 마을 소식, 출향인 소식 등
- '경관작물 일자' : 경관작물제 시행을 위한 작업과정을 사진과 함께 신고 있어 주민, 방문객(온라인, 오프라인), 지자체, 출향민 등에게 흥미를 주고 지속적 관심과 방문을 유도하고 있음.
- 마을생산 특산품 코너 운영

□ 경관작물 관련 축제 시행성과

- 아직 메밀꽃 축제를 별도로 시행하지는 않으나, 메밀꽃 만개시기를 추석기간(08. 9. 12 ~ 15)에 맞추어 파종함.
 - 기간 중 방문객들이 농산물 및 해산물을 구매하였으나 집계 자료 없음.
- 전어축제 개요
 - 관저지구 인근 회진항을 중심으로 축제를 개최하며, 이 때 인근 볼거리로 메밀단지와 연계함.
 - 축제명 : 2008년 전어 축제
 - 축제기간 : 2008. 10. 3 ~ 5((3일간)
 - 장 소 : 회진면 회진항 물양장
 - 주 최 : 장홍군
 - 주 관 : 회진면 청년회
 - 주요내용 : 전어 낚시대회, 특산품 판매 등
- 할미꽃축제 개요
 - 국내 최대의 자생 할미꽃 군락지(약 30,000㎡)인 한재공원을 오르는 길목에 관저지구가 위치해 있어 할미꽃이 피는 절정기인 3월 하순~4월 말경 유채꽃도 절정을 이루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
 - 기 간 : 2008. 4. 5 ~ 4. 27

4) 제도개선 및 사업확대 방안

□ 지급단가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 현재
 - 동계작물 : ha당 100만원, 하계작물 : ha당 170만원 지원
- 개선
 - 작물 재배시 필요한 경운작업, 시비 및 제초작업, 병해충 방제작업, 배수로·탐방로 설치 등 재배 관리비가 예상외로 많이 소요되어 경관작물 재배지역의 소득손실을 감안하여 재배농가의 안정 재배 및 확대를 위하여 지급단가의 현실화가 요구됨.

□ 농촌환경문화경관보전 활동까지 확대할 경우 적지 여부

- 산저지구는 어촌의 해안 풍경과 농촌 경작지, 선학동마을, 영화 '천년학' 촬영장소 등 다양한 문화경관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
- 마을이장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경관보전직불제와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등을 추진하면서 경관에 대한 인식과 공동체 의식이 고조되어 있어 경관보전 활동 확대시 적극 추진할 것으로 판단됨.
- 마을내 전통돌담 보전, 마을안길 가꾸기 등의 경관개선 및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을 원함.

5) 현황사진



- 선학동마을과 메밀꽃 만개 모습



- 우리나라 지도형상의 선학동메밀밭



- 메밀단지내 조성된 탐방로



- 메밀꽃 탐방객



- 전어축제 모습



- 메밀 수확 모습

모니터링 보고서

-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임기리-
- 경상북도 상주시 이안면 지산리-
-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신전리-
-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두모리-
-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오천리-

2008.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 주 영

12.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임기리

1) 사업 추진현황

□ 대상지 현황

- 위치: 봉화군 소천면 임기리 감전마을 일대
 - 국도 31호, 35호, 36호선이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
 - 영동선 철도(환상선 단풍열차, 눈꽃열차)가 연접, 현동역 10분 거리
- 경관보전직불제 신청자수 및 참여자수: 18명
- 경관보전직불제면적: 38.1ha
- 감전마을 일대 메밀 재배 농가수: 24명
 - 마을에서 경관보전직불금을 재분배함. 재분배 대상 농가수
- 감전마을 일대 메밀 재배면적: 45ha
 - 소천면 전체 메밀 재배면적은 55ha 정도
- 경관작물: 메밀
- 2006년부터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지원 받음.

□ 경관작물 파종 및 수확현황

- 파종현황: 8월 중하순경 기계화 직파
- 개화시기: 2008년 9월 초 ~ 10월 초 (9월 15일~20일 만개)
- 수확현황: 10월 말경
 - 2007년 32톤 수확
- * 메밀 파종과 수확 작업은 대부분 기계화 가능

□ 지자체 추가지원 현황

- 전년도(2007년)에는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경관보전직불제 대상면적이 17.9ha에 불과하여 봉화군에서 추가로 17.1ha를 지원하였으나, 올해(2008년)에는 경관보전직불제 대상면적이 38.1ha여서 추가 지원하지 않음.

- 소천메밀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체험시설단지 확충 지원(2008년)
 - 사업비: 4,400만 원(군비)
 - 사업내용: 메밀밭 주변에 물레방아, 연못, 조경 등
- 2007년도에는 사업비 1억 5천만 원(군비 80%, 자부담 20%)으로 메밀 전시장 1동(100m²), 정자 1동이 조성됨.
 - 자부담 20%(3천만 원)는 2007년 수확한 메밀 판매액으로 충당함. 남은 액수를 소천면 전체 메밀 농가에 배분한 결과 5만 원 가량 돌아감.

□ 사업추진관련 주민활동 상황

- 재배관리
 - 경관작물의 생육활성화를 위한 토양 비약도 촉진
 - 개화시기의 일원화를 위하여 파종시기 조절(8월 중하순경 주민들이 일자를 통일하여 파종)
 - 경관작물의 재배 촉진을 위한 영양 공급 및 배수관리
- 경관관리활동
 - 마을의 가장 큰 장점인 낙동강 수질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 정화활동 추진
 - 코스모스 등의 식재를 통해 마을 도로변 꽃길 조성
- 축제 주관
 - 마을의 메밀 재배 농가들로 구성된 청옥산메밀작목반(경관보전직불추진 위원회)에서 주관하여 메밀 개화 시기에 축제를 개최

2) 사업 만족도

□ 사업추진 주민(대표) 의견

- 규제완화를 통한 지원 대상 면적 확대 희망
 - 현재 소천면 전체 메밀 재배면적은 거의 55ha 정도임. 국고(농림부) 지원면적이 2007년 17.9ha에서 2008년 38.1ha로 확대되었으나, 전체 재배면적에는 미달됨.

- 마을 주민간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해, 38.1ha에 달하는 경관보전직불금을 전체 마을의 메밀 재배 농가(55ha)에 배분하고 있음.
- 특히 연접 기준 때문에 제외되는 농가가 많음.
- 현재로서는 경관보전직불금의 일부를 마을공동기금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경관보전직불제에서 제외된 농가에게도 직불금을 나눠줌으로써 마을 주민간 화합이 가능하였음.
 - 각 개인별로 돈이 돌아가야 불협화음이 없음.

□ 지자체 담당자 의견

- 마을을 지역 내 여러 관광자원들과 연계한 거점으로 육성 계획
 - 소천면 임기리 감전마을 일대는 봉화 지역에서도 가장 청정지역이며, 자연자원을 관광인프라로 연결시키기에 최적지임.
 - 메밀꽃 개화와 비슷한 시기에 열리는 봉화군의 송이축제와 마을 경관자원의 연계가 가능하여, 낙동강 및 태백산 권역 관광의 한 코스로 마을을 발전시킬 잠재력을 지님
 - 소천 메밀 브랜드 이미지가 더욱 부각될 수 있도록 군 차원에서도 지원할 계획임
 - 향후 메밀관광열차 연계 운행 등을 통해 메밀꽃 축제를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는 축제로 육성해갈 계획임.
- 경관보전직불제사업 농림부 지원면적이 38.1ha보다 실경작면적(53ha)은 더 많아 확대 지원되길 바람.
 - 지원 면적을 확대하여 농가의 안정적 재배기반을 확보하고 소천면 임기지구 를 메밀을 소재로 한 특색 있는 관광마을을 조성하는 데 초석이 되길 희망함.

3) 사업시행 효과

□ 농가소득 향상효과

- 경관작물의 식재를 통한 농외소득 향상 효과는 미비함.
 - 경관을 즐기고 사진을 찍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기는 하나 농외소득

으로 이어지지 않는 못함.

- 메밀묵 등을 제조하기는 하지만 2007년의 경우 축제 참여자들에게 무상으로 접대하였음. 수요는 상당히 있음. 2009년도에 메밀묵 제조를 위한 설비 등을 마련할 계획임.
- 2007년 메밀 전시장 1동이 건립되었으나, 아직까지 내부 설비 등이 이뤄지지 않아 제대로 활용하지 못 하고 있음. 독채를 20만 원에 5-6회 임대하여 준 것이 전부임

○ 경관작물 재배와 직불금 지원으로 인한 농가 소득 효과

- 메밀 재배비용(종자비, 파종비, 비료대, 수확에 드는 비용 등)은 경관보전직불금 정도 수준
- 메밀 작황이 연도별로 변동이 심하기는 하지만 직불금으로 비용을 충당하고 나면 조수입이 모두 농가 소득으로 귀결됨.
- 특히 담배 등의 후작으로 농사가 가능하므로 경관작물 재배와 경관직불 지원으로 인해 큰 액수는 아니라도 농가 소득 보전의 효과가 적지 않음.
 - 일부 농가의 경우는 작황이 좋았던 2006년의 경우, 메밀 재배로 1800만 원의 조수입 중 1000만 원 가량 소득을 올림.

□ 경관조성 및 농촌어메니티 증진효과

- 마을 전체적으로 55ha 가량의 메밀꽃 군락 경관 형성
 - 낙동강 상류를 따라 양편으로 메밀밭이 군락을 이루고 있어 경관 형성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됨. 담배 등의 후작으로 메밀을 재배해 오긴 하였지만, 전체적으로 메밀꽃 군락의 경관이 형성된 데는 경관직불제 지원의 영향이 무엇보다 컸음
- 경관작물을 통한 경관 형성 외에 다른 경관 및 어메니티 요소를 발굴하고 가꾸는 노력은 출발단계
 - 경관작물 외에 주변 산, 강, 마을 경관 등 좋은 경관 및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하여 경관직불제 지원의 효과를 높일 필요성에 대해 주민들의 인식은 높아지고 있음.

- 메밀 전시장과 정자가 2007년 조성되었고, 2008년에 주변 조경작업과 물레방아, 연못 조성 등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임.

□ 공동체의식 함양 및 지역활성화 효과

○ 마을 주민간 화합, 공동체 의식 함양

- 주민 협의를 통해 경관보전직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를 포함하여 마을의 메밀 생산 가구 전체에게 경관직불 지원금을 재배분하고 있음.

- 38.1ha 대상 직불금을 마을의 전체 메밀 재배 농가(55ha 면적에 25호)에게 배분. 이를 위해 각 가구별 재배 면적을 기준으로 작목반 자체적으로 지원 금액을 재산정함.

- 마을 주민간 화합이 잘 되는 편

○ 소천메밀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방문객 증가. 하지만 지역활성화로 이어지지 못 하고 있는 실정

- 대규모 메밀밭이 조성되어 있다보니, 입소문이 나서 개화시기에 마을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증가함.

- 메밀 개화시기(9.10~25)에 방문객이 거의 2만여 명정도로 추정됨.

- 하지만 아직까지 방문객의 증가가 농외소득 증가 및 지역경제활성화로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음. 방문객을 대상으로 메밀 가공품이나 농특산물 판매, 체험프로그램 제공을 해야 하나, 그러한 일들을 나서서 할 만한 인력이 없는 상황

- 방문객들이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는 단계까지는 아직 요원한 편 볼거리 외엔 방문객들이 즐길만한 거리가 제공되지 않다보니, 쓰레기만 남기고 가는 실정

□ 경관작물 관련 축제 시행성과

○ 2008년 제3회 소천메밀축제는 7월 집중호우 피해관계로 취소됨.

○ 2007년 제2회 축제 당시, 축제 당일인 9월 19일 하루 동안 5천여 명의 관광객들이 메밀 축제장을 다녀감. 하지만 메밀묵 등을 무상으로 접대하여 경제적 수익은 없었음. 다만 소천메밀을 알리고, 지역의 아름다움을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음 덕분에 2008년에는 축제를 개최하지 않았지만 개화시기에 많은 방문객들이 찾음

4) 제도개선 및 사업확대 방안

□ 지급단가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 현재의 지급단가(ha당 170만 원)는 적정한 것으로 평가
 - 담배 등의 후작으로 메밀을 재배하고, 경관보전직불금으로 메밀 생산비용은 충족하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판단됨
 - 경관보전직불제 이전에도 후작으로 메밀을 재배하여 왔음. 그래서 직불금 지원을 고맙게 생각하는 농가들이 많음.
 - 직불금 자체의 상향 조정보다는 더 많은 농가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사업 지구 확대를 더욱 희망하고 있음.

□ 사업대상지역 적합성 및 확대방안(면적기준 등)

- 주민 만족도, 사업 성과 등이 긍정적으로 경관직불 지원 대상으로 적합
 - 낙동강변을 따라 양편으로 메밀밭이 형성되어 경관 형성 효과가 큼.
 -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만족하는 편이고, 향후 참여 의지도 높은 편. 마을 전체적으로 메밀밭이 조성된 면적이 45ha(소천면 전체는 55ha정도)로 현재 경관직불 대상지 면적(38.1ha)보다 넓음. 다만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 선정 기준 가운데 연접 기준 때문에 확대가 어려운 상황임.
 - 지자체에서도 경관작물을 기반으로 한 주요 관광 거점으로 사업지구를 육성하고자 구상 중이며, 자체적으로 관련 기반시설을 지원해주고 있어 경관직불 지원의 파급효과가 향후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됨.
- 사업대상지역 확대방안
 - 메밀작목 사이에 타작물이 식재되어 있어 연접 거리조건에 벗어나 사업대상지에 포함되지 않아 메밀을 재배하면서도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음. 중간에 타작물이 식재되어 있어도 크게 경관을 해친다고 보이지 않음. 사과나무 등의 과실이 경관을 더 아름답게 보이기도 함

- 마을에 일정 면적 이상의 집단화가 이루어져 있다면 마을 내 전체 재배지를 경관직불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을 개선하는 것이 마을의 공동 경관관리활동에 도움이 될 것임.

□ 경관작물 다양화 방안

- 메밀 이외 타 작물의 도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
 - 마을 농가들이 메밀 수매 등으로 어느 정도 수입을 얻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민들은 타 경관작물의 본격적인 도입을 고려하지는 않고 있음.
 - 작물소득에 기여하는 경관작물이여야 하기 때문에 메밀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단순히 경관조성 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농가입장에서 실익이 없음.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이나 음식 판매 등은 크게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음
- 탐방로나 메밀밭 주변 경관가꾸기 목적의 작물 식재는 검토 가능
 - 방문객들을 위해 산책로 주변이나 메밀 단지 사이에 경관작물이나 꽃을 식재하여 꽃길을 조성하는 등의 활동 가능
 - 현행 경관보전직불제에 의한 경관작물 식재와 병행해서 이러한 주민 자율적인 경관관리 활동이 진행될 경우 향후 별도의 조건을 두어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마을 경관향상 방안

- 감전마을을 알릴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
 - 소천면 감전마을 일대는 도로변과 연결한 지역이 아니어서 방문객 등 초행길에 찾아오는데 어려움이 많음.
- 지속적인 강 수질 정화 활동 필요
 - 메밀 재배단지 가운데에 낙동강이 흐르고 있어 청정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수질 정화 활동이 대단히 중요
- 전반적인 메밀밭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요소에 대한 관리 필요
 - 메밀밭 사이에 고추밭 등 전반적인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경관요소가 분포하고 있음. 메밀집단지배단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경관형성 노력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현재에는 농가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타 작물 재배 활동에 대해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음.

- 마을주민 참여를 통한 경관보전활동

- 경관작물 재배활동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음. 담배, 봄감자 후작으로 8월 중순경에 통일적으로 메밀 파종. 로타리, 비료살포, 종자구입, 추수 등도 작목반 전체가 합동으로 추진
- 그 외에 마을공동기금을 적립하여 경관보전활동을 펼치기에는 아직 주민 의식이 따라주지 않음. 주민간 화합은 잘 되는 편이나, 돈과 관련해서는 어려움이 있음

- 경관 조성 및 유지·관리 등 사업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약체결은 3년단위로 했으면 함. 현행은 1년마다 체결함
- 보조금지급시기는 작물을 추수하는 10월말경 이후에 지급했으면 함.
- 경관작물 재배 외에 다른 경관관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을 공동 기금 지원이 필요. 특별히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마을개발사업이나 각종 단위사업을 연계하거나 별도의 경관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농촌환경문화경관보전 활동까지 확대 가능

- 경작지 경관이 대단히 우수하며, 경관을 해치는 유해 환경이 별로 없음.
- 마을 내 주민 화합이 비교적 잘 되고 있고 무엇보다 메밀을 소득자원화 하려는 마을 주민들의 강한 공동체 의식이 결집되었음. 경관 보전과 관련한 의식도 상당히 높아졌음. 농촌환경문화경관보전 활동으로 확대하여 지구단위 경관협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5) 관련 현장사진



감전마을 개화기



개화기

13. 경상북도 상주시 이안면 지산리

1) 사업 추진현황

□ 대상지 현황

- 위치: 경북 상주시 이안면 지산리 63번지 외 44필지
- 경관보전직불제 신청자수: 백련 22호, 해바라기 22호
- 경관보전직불제 참여 농가수 및 참여자수: 22농가 22명
- 경관보전직불제면적: 115,586㎡(백련 105,267㎡, 해바라기 10,319㎡)
- 경관작물: 백련, 해바라기
- 2007년부터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지원 받음.
- 2009년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
- 5분 거리 공금면에 위치한 공검지(공갈못)에도 백련과 홍련을 식재하고 있어 관광 루트를 연계할 수 있음.
- 공검지는 삼한시대에 축조하였다고 하며 제천의 '의림지', 김제의 '벽골제'와 함께 3대 저수지로 꼽힘.

□ 경관작물 파종 및 수확현황

구 분	백 련	해바라기	비 고
파 종 량	36,000kg(2007년식재)	15kg	
파종시기	2007. 4. 10	2008. 5. 20	백련은 다년생
개화시기	2008. 7. 20 ~ 8. 10	7월 말	
수 확 량	2,500kg(연잎),900송이(꽃)	100kg(종자)	

- 개화 시기에 방문객들에게 연꽃, 연잎 등을 일부 수확하여 판매
- 연근은 겨울이나 봄에 종근으로 일부 수확. 홍련과 달리 백련은 뿌리가 굵지 않아 식용으로 판매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음.

□ 지자체 추가지원 현황

○ 백련단지 기반 조성 및 관광 연계 등을 위한 제반 지원 사항

- 2007년부터 백련단지 기반 조성을 위하여 편의시설과 주차 공간 정비 등 다양한 지자체 지원이 이루어짐.

- 단지조성(중근 및 비료대 등): 210,000천 원
- 가공시설(건조기 외 3종): 26,600천 원
- 편의시설 설치(컴터 1개소): 20,000천 원
- 주차장 주변정비: 20,000천 원
- 가공공장: 80,000천 원
- 편의시설(음용수대, 화장실, 천막, 의자): 25,000천 원
- 주차 공간 및 환경정비: 35,000천 원

* 2007년 10월 모니터링 당시와 비교할 때 주변 공간 정비가 상당히 이루어졌음. 공가를 정비하여 주차장으로 확보하고 음용수대와 울타리, 천막, 의자, 화장실, 원두막 등이 조성되었음.

- 2008년에는 20,000천 원을 지방비로 지원함.

- 관광투어로드 개발지원사업(원두막, 그늘막 등): 12,000천 원
- 친환경농업체험(도농교류) 행사지원 사업: 2,000천 원
- 경관작물 재배 제반 비용(비료, 제초비용 등): 6,000천원

□ 사업추진관련 주민활동 상황

○ 삼백백련연구회 구성과 백련의 소득화를 위한 노력

- 삼백백련연구회(2007년 1월 결성, 회원 22명)를 중심으로 경관작물 재배 및 주변 환경 정비
- 연잎차, 연꽃차, 연밥, 연비누 등 가공품 생산
- 관광객의 요청에 의하여 연꽃, 연잎 등을 일부 수확하여 판매

- 초기에 연꽃 개당 5천원 판매하다가 3개에 1만원 판매
 - 작목반에서 참여농가의 면적에 따라 연꽃과 연잎을 할당·수매하여 판매함.
 - 연밥은 농가에서 개인적으로 판매하도록 함.
- 경관작물 재배를 위한 주민 공동활동과 단지 주변 경관관리
- 논두렁 조성, 논갈이, 담수, 정지작업, 종근 식재, 제초작업, 논둑보호 덮개 설치, 유기질비료 시비, 병해충 및 진딧물 방제, 자재공동 구입
 - 마을주민 자율로 관상식물(수세미, 호박, 초롱박, 별꽃) 식재로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

2) 사업 만족도

□ 사업추진 주민(대표) 의견

-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FTA협정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에 적극 대처할 수 있음.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로 선정되어 농가소득 향상 기여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음.
- 벼 대체작목으로서 연을 재배하는 상황이라 소득 창출이 관건이지만, 사업 초기여서 아직까지는 소득을 올리는 데 어려움이 많음.
 - 많은 초기 투자가 필요하고 제초작업에도 많은 노동력이 소요됨
 - 대규모의 개성 있는 백련단지가 조성됨으로써 관광객에게 독특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도농교류에도 기여를 하였음
 - 2008년에는 해바라기를 추가로 식재하여 연꽃과 어우러지는 다양한 경관을 제공하였음. 조롱박 터널도 잘 어우러진 것으로 판단됨.
- 현재는 논농사 수입과 비슷한 정도이나 백련의 효능을 알리고, 백련단지를 홍보하여 보다 높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 노력할 것임
- 벼 대체작목으로 연을 재배하는 만큼, 벼 이상의 소득을 올려야 함. 게다가 친환경재배라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어 애로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벼 농사 수준의 소득을 올리고 있음.
 - 2-3년 뒤 정도면 어느 정도 소득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지자체 담당자 의견

- 경관작물을 식재하여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볼거리를 제공함과 아울러 도농교류에는 상당한 효과를 가져옴 상주 지역 홍보와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함.
 - 웰빙시대에 부응하는 기능성 식품 개발 먹거리 제공 및 관광자원화 기여
- 하지만 농가 소득과 연계된 테마(먹거리, 숙박, 기념품 등)가 미비하여 직접적인 농가 소득으로 연계는 어려움이 있음.
 - 2009년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과 연계하여 이 같은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상주시 축제(2008년 10월 8일~12일, 상주시민운동장)나 중소기업행사(2008년 10월 23-24일) 등에 백련 가공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3) 사업시행 효과

□ 농가소득 향상효과

- 경관작물의 식재를 통한 농외소득 향상 효과는 미비함.
 - 경관을 즐기고, 사진을 찍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기는 하나 농외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
 - 연 관련 제품(연비누, 연국수, 연잎차) 개발 홍보, 판매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농가소득과 연계되는 데 미흡한 실정
 - 연 가공품으로서 연잎 가루(식재료 활용), 연꽃 차, 비누 등이 있음. 이 중 연꽃 국수, 비누 등은 현재 OEM 방식으로 생산함.
 - 2008년 연제품 판매실적: 5백만원
 - 시에서 추진한 도농교류체험행사를 통해 200명이 다녀갔으며, 시에서 200만원 지원받음.

- 경관작물 재배와 직불금으로 인한 농가소득 효과는 미흡
 - 백련은 다년생 초본으로 2007년에 단지 조성(종근, 기반조성)을 하여 올해는 단지 조성비가 소요되지 않았다고 하나, 제초 및 수확을 하는 데 연간 10a당 87만 원 가량이 소요되는 등 비용이 많이 들어 경관보전직불금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움
 - 백련 생산·재배 기반이 갖추어지면 3.3㎡당 1천 원 매출 예상(조수입)
 - 다른 일반 연근(홍련)을 통한 수익은 3.3㎡당 1만 원 정도이나, 백련의 경우는 홍련에 비해 연근 수량이 적음.
 - 하지만 영양과 맛은 더 뛰어나므로 소포장 제품 개발과 고부가가치화 등을 통해 활로를 찾고자 함.

□ 경관조성 및 농촌어메니티 증진효과

- 백련재배단지(국내 최대 규모)와 함께 해바라기를 재배함으로써 특색있는 경관을 형성함.
 - 백련단지에서 연잎과 연꽃을 감상할 수 있으며, 대규모 재배지가 연결해서 분포하므로 마을 전체적인 경관 형성 효과가 있음.
 - 경관작물 재배와 함께 주위의 공기를 정비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등 주변 환경 정비도 동시에 이루어져 마을 전반적인 경관 향상에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됨
 - 사진 촬영을 목적으로 하는 방문객들이 다수 찾고 있다는 점은 이 지역이 경관적으로도 특색 있고 빼어남을 알려줌.
- 조롱박 덩굴, 쉼터(정자, 원두막), 천막, 의자 등 방문객을 고려한 시설을 꾸준히 설치하고 있음. 향후 방문객 증가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시설 설치가 필요함
 - 방문객 동선이 기존 농로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단조로운 감이 있음. 내년도에 데크나 전망대 등의 시설 설치를 구상중임.

□ 공동체의식 함양 및 지역 활성화 효과

- 2007년 국내 최대 규모의 백련재배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이 크게 함양되었음.
 - 벼농사를 대체할 소득작목을 개발하고자 논에 백련을 심었으며, 경쟁력 확보

를 위해 최대 규모로 조성하게 됨.

- 주민들이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최대 규모의 백련단지를 조성할 수 없었을 것임.
- 이 일대에 농지를 소유한 가구는 모두 백련단지 조성에 참여하였음.
- 경관작물 식재를 계기로 대상지를 찾는 방문객이 늘어나는 등 마을이 새롭게 변화할 계기를 맞게 됨.
 - 경기 침체와 유가 상승으로 방문객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백련 개화시기에 1만 명 이상이 방문한 것으로 추정됨.
 - 농가소득 향상으로 직접 연계되지는 못하고 있으나, 마을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1만 명 이상 있다는 것은 향후 농가소득 증대에 충분한 잠재력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음.
 - 경관작물 재배 이전에는 별다른 방문객이 없었다는 데에 주목해야 함.
 - 무농약으로 연을 재배하다보니 최근 살이 통통하게 찌고 큰 미꾸라지가 번식하여 새로운 소득원으로 부상함.
- 백련 제품 개발 및 상품화로 부가가치 제고
 - 아직 상품 개발 및 홍보 등에 있어 초기 단계로 매출액이 많지 않지만 관련 제품 가공은 부가가치를 상당히 높일 수 있는 방법임.
- 지역 홍보 및 이미지 제고
 - 신문, TV, 라디오 등 여러 대중매체에도 백련단지가 소개되어 지역 홍보에 기여함
 - 최근에는 인터넷 블로그에 마을 방문 후 찍은 경관 사진을 올려놓는 경우가 많아 홍보 효과가 큼.

경관작물 관련 축제 시행성과

- 마을 자체적으로 경관작물과 관련한 축제는 시행하지 못 함

4) 제도개선 및 사업확대 방안

지급단가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 백련 재배 비용이 타 경관작물에 비해 높기는 하나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므로 직불금 단가를 그에 맞추어 올려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높은 비용을 감안할 때 농가 소득 확보를 위해서는 직불금 액수 상향조정보다 궁극적으로 소득작물이 될 수 있도록 제품을 개발하고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 우선 과제임

- 백련을 활용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다양한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 조성 등이 요구됨.
- 마을 단위 체험관광마을개발 사업 등과 연계하는 방안 모색

□ 사업대상지역 적합성 및 확대방안(면적기준 등)

- 백련단지를 육성하려는 지자체의 지원 의지가 있고, 주민들의 사업 참여 의향도 높은 등 경관직불 지원 대상지로 적합
 - 당초 경관보전직불제를 겨냥하여 백련 재배를 시작한 게 아니라 벼 대체작목으로 추진하다 보니 주민들의 참여 의지가 높은 편임.
 - 대상지구는 백련이 집단화된 군락을 이루고 있고 해바라기가 함께 어우러져 있어 경관 형성 효과도 뛰어나.
- 현재의 대상지역 면적 유지, 백련 외의 경관작물 재배면적을 넓히거나 다른 경관관리 활동을 하도록 유도할 필요
 - 백련 잎, 꽃 판매나 관련 가공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면적은 그리 넓지 않음. 특히 백련은 생산비용이 높아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하면 면적을 넓히는 것이 유리하지 않음. 최대 규모의 백련 재배지로서의 홍보, 관광 효과를 겨냥한 것으로서, 현 단계에서는 면적을 더 확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경관작물 다양화 방안

- 2007년도에는 백련만 식재하다가 2008년도에 추가로 면적을 신청하여 해바라기를 식재하였음.
- 메밀도 농촌경관을 더욱 아름답게 유지·개선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함.
- 터널을 조성하여 관상식물 식재(수세미, 호박 등)

□ 마을 경관향상 방안

- 마을의 경관향상을 위해 매주 1회 이상 청소 실시
 - 2007년에 비해 올해 모니터링시 주변 환경이 깨끗하게 개선되었음.
 - 방문객들이 쓰레기를 남기고 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할 필요
- 백련과 해바라기의 개화(만개) 시기를 맞추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듯함.
 - 해바라기의 경우 파종 시기에 따라 개화시기 조정이 쉬움

□ 경관 조성 및 유지·관리 등 사업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주민들의 작물 식재와 재배 관리 등의 활동도 무리 없이 진행됨.
- 백련 재배 단지의 경우 제초작업을 3회 가량 실시해야 하는 등 관리에 많은 노동력이 소요됨. 농촌일손돕기 등을 활성화하여 어느 정도 도움을 줄 필요가 있음.
- 조성된 경관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농가소득과의 연계가 대단히 중요. 즉 연 제품 홍보가 대단히 중요함. 연 제품 판매 홍보를 위한 전문요원을 양성하여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여 농가에게 직접적인 소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농촌환경문화경관보전 활동까지 확대 가능

- 삼백백련연구회를 중심으로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뿐 아니라 연 제품 홍보 및 판매도 이루어지고 있음. 대부분이 마을 주민으로 이루어져 농촌환경문화경관보전 활동까지 확대하여 추진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주민들 스스로가 소득을 창출하고자 노력하는 의지가 강함.
- 지산마을은 경작지 경관과 주변 경관 역사문화경관(안룡저수지, 함창 향교, 명주 박물관)등이 조화를 이루어 지구단위 경관 협약이 가능한 지역임.

5) 관련 현장사진



연 재배지 전경



해바라기 재배지 전경

14. 경상북도 안동시 북후면 신전리

1) 사업 추진현황

□ 대상지 현황

- 위치: 안동시 북후면 신전리 마우실마을 일대
 - 학가산 등산로 입구
- 경관보전직불제 신청자수: 14호, 14명
- 경관보전직불제 참여자수: 10호, 10명
 - 기후변화로 인해 사과 재배지역이 북상하면서 사과로 작목을 전환한 농가가 발생
 - 사과 나무 식재 1-2년까지는 메밀을 재배할 수 있으나 3년차가 되면 메밀 재배가 불가능함.
- 경관보전직불제면적: 8.6ha
 - 직불제 대상 면적으로 지정된 면적은 8.6ha이나 메밀 대신 다른 작목을 식재한 농가가 4호 있음. 이로써 5.6ha 정도가 직불금을 받게 될 것임.
 - 마우실마을 전체 메밀 재배면적은 16-17ha 정도
- 경관작물: 메밀
- 2005년부터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지원 받음.
- 2009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학가산권역)에 일부 포함됨.
- 안동시 북후면은 산약(마)마을특구임.

□ 경관작물 파종 및 수확현황

- 파종시기: 8월 10일 ~ 8월 20일
 - 종자소요량(10a당)- 24kg
- 개화시기: 9월 10일 ~ 9월 25일(만개 9월15일경)
- 수확시기: 10월 20일 ~ 10월 31일
 - 수확량(10a당)- 120kg(2가마/60kg)
 - 2007년 16톤 수확, 60kg당 16만 5천원-16만 8천원 선에 거래

- 일부는 농협 수매, 봉평 가공공장에 직거래. 판로 문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음.

- 메밀 파종과 수확 등은 기계화가 가능하여 비교적 농사일이 쉬운 편

□ 지자체 추가지원 현황

- 지자체의 추가지원 없음.
- '메밀꽃마을' 안내 간판 설치(2006년): 5,000천 원(시비)

□ 사업추진관련 주민활동 상황

- 학가산 등산로와 연계하여 탐방로 설치
- 꽃길조성 및 주변 숲 정리
- 2007년부터 경관보전직불금 수령 후 전액 모은 후 마을 전체 재배농가(20여 농가)에게 재배면적에 따라 재분배하고 있음. 이로써 마을의 공동체 의식이 더욱 결집하게 되었음.

2) 사업 만족도

□ 사업추진 주민(대표) 의견

- 기준 완화를 통한 지원 대상 면적 확대 희망
 - 대상지의 집단화를 위한 연접 기준으로 인해 직불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가가 상당히 있음. 마을 전체적으로 메밀을 재배하는 면적은 16-17ha 정도임. 하지만 중간중간 과수로 전환한 경우가 있어서 연접 기준을 맞추기 어려움
 - 사과와 같은 과수나 벼 농사 경관도 메밀밭과 어울려 상승효과가 있다고 생각함. 학가산 권역 전체로 확대되었으면 함.
-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어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 메밀은 담배 후작으로 재배하며, 경관보전직불금과 메밀 수매 금액을 더 하면 수익률이 높아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 지자체 담당자 의견

○ 관광자원으로서 높은 가치 형성

- 북후면 마우실지구는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시범사업부터 4년 연속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등산코스로 유명한 학가산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 관광자원으로 효과가 큼.
- 메밀꽃이 만개하면 등산객과 사진작가와 화가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웰빙 시대에 부응하여 메밀묵 또한 상품성이 큼. 앞으로 안동의 새로운 명소로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기준 완화를 통한 지원 대상 면적 확대 희망

- 연접 기준 등으로 인해 직불금 지원에서 제외된 농가들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었으면 함. 한 눈에 들어오는 권역이라고 하면 굳이 집단화 되어 있지 않더라도 경관형성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봄.

3) 사업시행 효과

□ 농가소득 향상효과

○ 경관작물 재배와 직불금 지원으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

- 메밀은 담배 후작으로 재배하며 재배기간이 짧고 일손을 많이 요구하지 않아 재배가 용이함.
- 경관보전직불금으로 재배비용은 충당할 수 있어, 메밀 수확분은 농가소득으로 귀결됨.

○ 경관작물의 식재를 통한 농외소득 향상 효과는 미비함.

- 학가산에 등산객이 많으므로 메밀묵을 제조하여 판매하면 농외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관련 시설이 필요할 뿐아니라 인력 문제도 있어서 실천하지 못하고 있음
- 개인이 운영하는 메밀음식점이 있기는 하나 평상시에 방문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말에만 운영하고 있음.

□ 경관조성 및 농촌어메니티 증진효과

- 마을 전체적으로 16-17ha 가량의 메밀꽃 경관 형성
 - 메밀꽃은 9월 중순에 만개하며 농촌의 가을 풍경과 어우러져 농촌 경관 형성에 크게 기여
- 메밀꽃과 과수, 벼 등이 가을 농촌 경관을 풍요롭게 함.
 - 경관작물로 직불금을 지원받는 것은 메밀꽃이지만, 기존의 농촌경관과 어우러지며 다채로운 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면서 경관 보전 및 농촌어메니티 자원 발굴에 대한 의식이 증대하는 계기가 되었음.

□ 공동체의식 함양 및 지역활성화 효과

- 경관보전직불금을 계기로 마을 공동체 의식이 결집되었으나 기후변화로 인해 사과재배지역이 북상하면서 일부 농가에서 메밀 대신 사과를 재배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음.
- 학가산 등산로와 연계하여 2,000여명이 방문하였으며 방문객 수는 매년 증가 추세
- 방문객들에게 지역 농산물(사과, 산약 등) 홍보 기회가 됨.
 - 하지만 아직까지 방문객의 증가가 농외소득 증가 및 지역경제활성화로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음. 방문객을 대상으로 메밀 가공품이나 농특산물 판매, 체험프로그램 제공을 해야 하나, 그러한 일들을 나서서 할 만한 인력이 없는 상황. 대부분 농촌마을의 공통적인 어려움.

□ 경관작물 관련 축제 시행성과

- 학가산 등반 대회(2007년)
 - 방문객 500여명, 등산코스 종료지점에 메밀묵, 메밀국수 판매
 - 지역 홍보 차원의 행사로 진행됨.
- 북후면은 산약(마)마을 특구로 지정되어 산약 관련 축제를 개최하고 있음. 면 차원에서 축제를 2개나 개최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마을 자체적으로 축제를

개최할 역량은 부족한 편

- 경관작물 관련 축제는 시행하지 않음.

4) 제도개선 및 사업확대 방안

□ 지급단가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 일부 참여농가에서는 직불금 지급단가가 ha당 300만 원으로 확대 지원 된다면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응답함.
 - 왜냐하면 메밀보다 소득이 높은 과수로 작목을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임. 이로써 마을 전체적으로 메밀 경관을 집단화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함. 특히 연접 규정 때문임.
- 담배 후작으로 메밀을 재배하는 농가의 경우는 직불금 이전에도 메밀을 재배하여 왔기 때문에 직불금 지원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음.
 - 직불금 자체의 상향 조정보다는 더 많은 농가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사업 지구 확대를 더욱 희망하고 있음.

□ 사업대상지역 적합성 및 확대방안(면적기준 등)

- 북후면 마우실 마을은 기후조건과 토양조건이 적합하여 메밀의 최적재배단지로서 주변 경관이 수려하여 경관직불제사업 단지로 조성되면서 관광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음.
 - 하지만 상대적으로 수익이 높은 사과 등으로 작목을 전환하는 농가가 생기면서 집단적인 메밀꽃 군락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게다가 경관보전직불제 연접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가 다량 발생하게 됨
- 사업대상지역 확대방안
 - 메밀작물 사이에 타작물이 식재되어 있어 연접 거리조건에 벗어나 사업대상지에 포함되지 않아 메밀을 재배하면서도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음. 중간에 타작물이 식재되어 있어도 크게 경관을 해친다고 보이지 않음.

사과나무 등의 과실이 경관을 더 아름답게 보이기도 함

- 마을에 일정 면적 이상의 집단화가 이루어져 있다면 마을 내 전체 재배지를 경관직불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을 개선하는 것이 마을의 공동 경관관리활동에 도움이 될 것임. 앞으로 면적을 더욱 확대하여 20ha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할 계획임.

□ 경관작물 다양화 방안

- 메밀 이외 타 작물의 도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
 - 기후조건과 토양조건을 고려할 때, 메밀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경관보전직불제 이전에도 담배 후작으로 메밀을 재배해 옴.
- 해바라기, 연꽃 등의 경관작물 식재로 다양한 볼거리 제공 고려
 - 현행 경관보전직불제에 의한 경관작물 식재와 병행해서 이러한 주민 자율적인 경관관리 활동이 진행될 경우 향후 별도의 조건을 두어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경관 조성 및 유지·관리 등 사업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참여농가가 고령농이 많은 이유로 재배관리가 소홀한 경우가 있음.
 - 직불금 상향 지급으로 젊은 농업인의 관심 유도 필요
- 보다 효과적인 경관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한 교육 필요
 - 우수 경관보전직불제 시행 사례 확대와 경관 관리 인식 제고를 위하여 우수 사례지역에서 워크숍 개최
 - 타 지역의 우수 사례를 직접 보고 배우며,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필요
 - 추진위원장 외에도 참여 농가들이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음.

- 이미 농로가 형성되어 있어 굳이 탐방로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음.
다만 보다 다양한 동선 확보와 방문객 만족도 증대를 위하여 메밀밭에 포토존이나 탐방로 등을 설치할 필요는 있음. 0.5ha 이상 필지에 탐방로를 설치해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10% 감액하는 등의 규정은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임.

□ 농촌환경문화경관보전 활동까지 확대 가능

- 방단형 석탑, 광흥사, 애련암 등 전통역사적 자원이 있어 경관작물 재배와 연계한 농촌환경문화경관보전 활동 가능
- 경관보전직불제 시행 경험이 있으므로 마을공동기금에 기반한 농촌환경문화경관보전 활동 추진을 위한 지구단위 협약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5) 관련 현장사진



15.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두모리

1) 사업 추진현황

□ 대상지 현황

- 위치: 남해군 상주면 두모리 드무개마을 일대
 - 80호 가구 가량 거주
- 참여농가수: 31호
- 경관보전직불제면적: 60,949m²
- 경관작물: 메밀
- 2005년부터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지원 받음.
 - 2005년에는 동계작물인 유채만 식재
- 해당 경지에 동일 면적으로 동계작물인 유채도 식재하여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을 받고 있음. 유채축제 개최
- 2005년 녹색농촌체험마을 대상지로 선정됨(2억 원 지원).
 - 체험프로그램 진행 중
- 2008년 환경부 생태우수마을로 선정(3년간)
 -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자연생태우수마을 지정서와 인증표지판을 받음
 - 인센티브로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과 환경기초시설 등 국고사업을 우선 지원받게 됨.

□ 경관작물 파종 및 수확현황

- 파종 시기
 - 메밀: 2008년 5월 5일 ~ 5월 10일
 - 8월에도 추가로 파종
- 개화 시기
 - 2008년 9월 초순~ (9월 15일~20일 만개)

- 수확현황: 10월 말경
 - 메밀에 이어 동계작물(유채) 재배도 하므로 작물 간에 수확과 파종 시기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필요함.
 - 유채는 수확하여 기름만드는 데 사용, 수익이 되지는 않음.
 - 메밀은 kg당 3,000원에 수매. 제작년의 경우 200만원의 수익을 얻음.
 - 올해 작황은 작년(2007년)보다 나은 편. 기후도 작년보다 좋았고, 비료 등 토양 비옥도 관리에 힘쓴 결과임.

□ 지자체 추가지원 현황

- 현재 드무개마을에는 메밀 재배활동에 대해 농식품부의 경관보전직불금과 경남도 및 남해군의 지원금까지 합해서 ha당 총 230만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경남도에서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는 타 사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초의 경관보전직불금 170만원에 대한 추가분 60만원은 도비와 시·군비로 각각 절반(30만원)을 부담함.
 - * 2007년에는 추가분 80만원(도비와 시·군비로 반반씩 부담)을 더하여 ha당 250만원이 지원되었음.
- 2005년 농식품부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되어 관련 체험프로그램을 운영중임.
- 농식품부의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을 통해 사무장 월급 지원(월 90만원)
- 2008년 행안부의 참살기좋은마을로 선정(사업비 1,900만원)

□ 사업추진관련 주민활동 상황

- 경관작물 재배 관리
 - 다락논이라 제초 등 경관작물 재배 과정에 어려움이 있으나 주민들이 합심하여 재배 관리에 힘씀.

- 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주민 소득화 활동 추진
 - 경관작물로 식재한 유채와 메밀을 수확하여 유채기름 메밀묵 등을 생산·판매함. 음식 판매는 부녀회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함.
 - 마을의 80호 가운데 44농가가 체험프로그램에 참여중임.
- 정기적인 마을 정화 활동
 - 관광객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아 정기적으로 마을 정화 활동을 벌임
-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 <http://du-mo.co.kr/>
 - 마을 홍보 및 체험프로그램 예약 등이 가능함. 관련 사진들이 게재되어 있음.

2. 사업 만족도

□ 사업추진 주민(대표) 의견

- 2005년 처음 경관보전직불제를 시행한다고 했을 때 평생 논농사만 짓던 어르신들의 반대가 심했음. 그래도 그냥 휴경지로 방치해두는 것 보다는 논에 꽃이라도 심으면 보기 좋지 않겠느냐고 설득함.
- 다락논이라 경관작물 재배에 상당한 애로가 있음. 게다가 노령 인구가 많아서 일부 협조가 안됨. 향후 협조가 안되는 논은 구입을 하여 집단화된 경관 형성을 꾀할 생각임.
-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직불금 단가 산정 필요
 - 농사 여건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평야 지역에는 직불금 단가가 크게 낮지 않겠지만, 다락논으로 구성된 우리 지역의 경우 현행 직불금 단가로는 농가들의 추진 의지를 분돋우기 어려운 실정임.
- 우리 마을의 경우 농촌과 어촌이 어우러져 있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음. 경관보전직불제를 계기로 경관작물 식재를 통한 볼거리를 제공하게 된 데에 만족도가 높음.

□ 지자체 담당자 의견

- 정책적으로 사업 취지는 대단히 좋으며, 경관 형성이나 방문객 증가로 인한 지역활성화 등의 효과를 얻었다고 판단함. 하지만 직불금 단가가 낮고 농가 소득향상에 직접적인 효과를 주지는 못함.
 - 특히 동계작물의 경우 단가가 100만원/ha으로 낮아져 참여농가의 만족도가 저하됨.
-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이 올해부터 본 사업으로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탐방로와 배수로 설치, 작황에 따라 보조금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관리 기준이 엄격해졌음. 반면 방문객들이 늘어남에 따라 편의시설 등의 조성이 시급한데 이러한 데에 대한 지원은 없어 사업의 외연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보조금을 10% 감액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음. 특히 기상악화나 천재지변, 조류 등의 피해로 작황이 안 좋은 것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음.

3. 사업시행 효과

□ 농가소득 향상효과

- 경관보전직불금과 경관작물 수확·가공 판매로 농가소득 향상
 - 하계작물 메밀 재배를 통해 농식품부 경관보전직불금(170만원/ha)에 경남도 추가 지원금(60만원/ha)을 더하여 ha당 230만원을 지원받으며, 동계작물 유채 재배를 통해 농식품부 경관보전직불금(100만원/ha)에 경남도 추가 지원금(30만원/ha)을 더하여 ha당 130만원을 지원받음. 즉 경관보전직불금으로 ha당 330만원을 받음.
 - 메밀을 수매하여 2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림. 유채는 수확하여 기름을 만드나 큰 소득은 되지 않음.

- 경관작물 재배를 통한 볼거리 제공, 축제 개최, 체험마을 운영 등 관광수익이 상당히 증가하였음. 마을 특산품 판매도 증가함.
 - 방문객이 여름 한철에만 200여 명 남짓하던 것이 2007년도에는 7,100명이나 다녀감. 숙박료와 음식 판매금으로 3천만 원의 소득을 올림.
 - 마을에서 친환경으로 재배한 마늘과 쌀을 판매해 각각 7천6백만 원, 3백30만 원의 소득을 올림.

□ 경관조성 및 농촌어메니티 증진효과

- 두모마을은 다락논과 갯벌이 넓게 펼쳐져 있는 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으로 경관작물과 어우러지면서 특색있는 경관을 형성함
- 마을의 경관자원을 개발하고 어메니티를 증진시키려는 시도를 하기 시작함
 - 체험프로그램이 확대되면서

□ 공동체의식 함양 및 지역활성화 효과

- 경관작물 재배에 참여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농촌 경관관리 활동을 통한 지역 활성화의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게 되면서, 관련 체험프로그램 등에 마을 전체적으로 나서고 있음.
 - 대상지가 원래 논이었기 때문에 벼 대신 경관작물을 심는다고 했을 때 어르신들의 반대가 심했음. 경관작물 재배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주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음.
 - 하지만 경관보전직불제와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을 연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여 마을의 농특산물을 구매하고, 체험프로그램을 즐기고 가면서 자연스레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됨.

□ 경관작물 관련 축제 시행성과

- 하계작물인 메밀과 관련한 축제는 시행하지 않음.
- 동계작물인 유채 개화시기인 4월에 맞추어 만발한 유채꽃과 바닷물이 드나드는 갯고랑에서 조류를 따라 그물 안으로 들어온 물고기를 맨손으로 잡는 전통어법인 '개매기'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유채꽃 개매기 축제'를 마련
 - 2008년 4월 5일 개최, 4월 한 달간 4만 여명 가까이 방문
- 널리 지역을 홍보하는 기회가 됨
 - 2008년 2월 20일, 'KBS 6시 내고향' 방송
 - 2008년 4월 24일자, 뉴시스신문

4. 제도개선 및 사업확대 방안

□ 지급단가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 이 지역은 지급단가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주민과 공무원 모두 개진함 다락논이라 타 지역에 비해 경관작물 생산에 어려움이 많다고 주장함. 지역 여건(생산비용의 차이 등)에 따라 지급단가에 차등을 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직불금 단가를 상향하기 보다는 경관자원이 농가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에 필요한 시설 등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연계 지원하는 방안 필요
 -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컨설팅, 교육 등 소프트웨어적 사업 필요

□ 사업대상지역 적합성 및 확대방안(면적기준 등)

- 다락논과 갯벌이 한 데 어우러져 자연경관 자체도 대단히 우수한 지역임. 환경부 생태우수마을로 선정되었을 정도로 생태환경이 깨끗함.
- 경관작물을 식재함으로써 특색있는 경관창출에서 나아가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지역임. 경관보전직불제 소귀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여짐

- 일부 농가에서 경관작물재배 대신 벼농사를 짓는 경우가 있음 이로써 연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메밀꽃과 벼도 어우러질 수 있으므로, 좀 더 유연한 적용이 필요함.

□ 경관작물 다양화 방안

- 앵두나무 등 과실나무를 식재하여 특색있고 다양한 경관을 창출할 뿐 아니라 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하면 좋을 듯함
- 논둑에 코스모스를 식재하거나 마을 안길에 해바라기를 식재하여 경관을 다양화하는 방안 고려
- 마을 진입로에 꽃이 피는 수목을 식재하여 보다 변화감 있는 경관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임.
- 일부 경관작물 재배지와 연접하여 친환경 벼농사를 짓고 있음. 흑미를 중간에 식재하여 문양을 넣어 특색있는 경관을 형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마을 경관향상 방안

- 현재 농로를 중심으로 경관재배지역 탐방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음. 메밀밭 사이로 구불구불한 산책길을 조성하는 등 방문객 동선을 좀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메밀밭 중간에 포토존이나 전망대 등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
-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되어있어 마을을 돌아보고 나오도록 되어있으므로, 마을 경관에도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마을 안길 및 텃밭에 꽃을 심거나 지붕색을 통일하고, 생울타리를 조성하는 등의 노력 필요
- 불충분한 기반시설 등에 대해서도 더 많은 투자가 요구됨
 - 특히 화장실, 식수 음용대, 쉼터 등의 편의시설이 필요함.

□ 경관 조성 및 유지·관리 등 사업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약체결은 3년단위로 했으면 함. 현행은 1년마다 체결함
- 경관작물 재배 외에 다른 경관관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을 공동 기금 지원이 필요. 특별히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마을개발사업이나 각종 단위사업을 연계하거나 별도의 경관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경관보전직불제 관련 읍면담당자 등 공무원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수 사례 교육 등 경관직불 관련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관련 담당자들이 교육과 컨설팅을 자주 할 수 있도록 교육비나 행정비 등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음.

□ 농촌환경문화경관보전 활동까지 확대 가능

- 두모(드무개) 마을은 자연 그대로의 다랑이 논과 갯벌이 넓게 펼쳐져 있는 등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인 솔개와 히어리 군락, 천연기념물인 팔색조 등이 관찰되는 등 보호가치도 높은 곳임.
- 주민들은 자연환경과 전통문화를 활용해 갯벌·농촌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 도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유채꽃과 메밀꽃 단지를 조성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생활과 자연 보전에 노력하고 있음.
- 농촌환경문화경관보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 지구 협약을 통해 사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5. 관련 현장사진



16.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1) 사업 추진현황

□ 대상지 현황

- 위치: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직전마을 일대
 - 경전선 기차길과 국도 2호선 옆에 위치
- 신청농가수: 67호
- 참여농가수: 49호
 - 2007년 30호였던 것과 비교할 때, 크게 증가하였음.
- 경관보전직불제면적: 30.3ha
 - 메밀: 14.4ha, 코스모스: 15.9ha
- 경관작물: 메밀, 코스모스
- 2006년부터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지원 받음.
 - 경관보전직불제 참여면적 점차 증가(2006년 14ha → 2007년 21ha → 2008년 30.3ha)
- 메밀, 코스모스 개화 시기에 맞추어 개최하는 '북천면 꽃단지행사가 경관직불 참여 농가 및 지자체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활동임.
 - 올해(2008년)로 2회째 행사
- 해당 경지에 동일 면적으로 동계작물인 유채도 식재하여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을 받고 있음.
- 2008년 녹색농촌체험마을 대상지로 선정됨(2억 원 지원).
 - 메밀체험장 등 체험기반시설 조성

□ 경관작물 파종 및 수확현황

○ 파종 시기

- 코스모스: 2008년 6월 1일 ~ 10일
- 메밀: 2008년 7월 25일 ~ 8월 5일

○ 개화 시기

- 2008년 9월 중순~10월 중순
- 배수로와 토양 비옥도 관리에 심혈을 기울인데다 기후도 적합하여 올해는 작황이 대단히 좋음.

○ 수확현황: 10월 말경

- 메밀, 코스모스에 이어 동계작물(유채) 재배도 하므로 작물 간에 수확과 파종 시기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필요함.

□ 지자체 추가지원 현황

- 직전마을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에는 하계작물인 메밀, 코스모스와 동계작물인 유채 재배에 대하여, 농식품부 경관보전직불금에 경남도 추가 지원금과 하동군 지원금을 합하여 ha당 700만 원이 지원됨.

단위: 만 원/ha

구분		계	국비	도비	군비
하계작물	농식품부 직불금	170	119	25.5	25.5
	경남도 자체 추가지원	60	-	30	30
동계작물	농식품부 직불금	100	70	15	15
	경남도 자체 추가지원	30	-	15	15
하도군 자체 추가지원(하계, 동계)		340	-	-	340
총계		700	189	85.5	425.5

- 2007년의 경우 경남도 지원금은 ha당 250만원을 기준으로 함. 원래의 170만원에 대한 추가분 80만원에 대해 도비와 시·군비로 각각 절반(40만원)을 부담

2008년에는 하계작물의 경우 ha당 230만원을 기준으로 함. 원래의 170만원에 대한 추가분 60만원에 대해 도비와 시·군비로 각각 절반(30만원)을 부담함. 동계작물의 경우 ha당 130만원을 기준으로 농식품부 직불금 단가 100만원에 대한 추가분 30만원을 도비와 시·군비로 각각 절반(15만원)을 부담함

- 이에 더해 하동군에서는 북천면 사업지구의 경관작물에 대해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ha당 34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기반조성 및 코스모스·메밀꽃 체험행사를 위하여 8천 7백만 원 지원
 - 이 가운데 2천만 원은 농촌축제지원사업비(국비)
- 꽃단지과 500m 떨어져있는 경전선 북천역 이름을 북천 코스모스역으로 개칭하고, 꽃단지 축제 기간 중 공휴일과 주말에는 1편의 특별관광열차를 추가 운행함
 - 평상시에는 직원 1명이 근무하며 하루 이용객이 10여명에 지나지 않는 평범한 시골 역이나, 축제기간에 하루 2000~4000여명이 이용해 진주역에서 7~8명의 직원이 파견돼 업무 지원
- 관련 정부 사업 집중 국비 지원
 - 농식품부 녹색농촌체험마을 2008년 대상지로 선정: 2억 원
 - 농식품부 농촌축제지원사업: 2000만 원
 - 행안부 참살기좋은마을: 3500만 원
 - 지자체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메밀 가공공장 조성: 1억 4천만 원(농협과 군에서 반반씩 부담)

□ 사업추진관련 주민활동 상황

- 경관작물 재배 이외에 꽃단지 행사와 연계하여 다양한 경관관리 활동에 주민들이 참여함.
 - 메밀밭 사이를 거닐 수 있는 산책로 조성

- 메밀단지 사이 농로 150m 구간을 조롱박 터널을 조성함. 농기구 전시관으로 쓰이는 하우스 역시 조롱박, 수세미 등으로 터널 가꾸기 작업도 하였음
- 개울가 쉼다리 조성, 전망대 설치 등의 활동에 주민들이 손수 노력과 기술을 동원함으로써 보다 적은 사업비로 공사가 가능했음.
 - 쉼다리는 매년 새로 설치해야 함.
- 축제 운영 과정에 주민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발휘함.
 - 행사장에 조성된 음식 판매 부스 30개 중 3개 부스를 마을의 메밀작목반에 우선적으로 배정(임대)하여 운영함.
 - 농경지 가운데 있던 비닐하우스를 농기구 전시관으로 조성하였으며 마을 주민들이 기증한 농기구를 전시물로 이용함.
 - 자율방범대나 해병전우회 등 지역 주민 중 봉사단체도 축제 지원에 나섬.

2) 사업 만족도

□ 사업추진 주민(대표) 의견

- 마을의 농경지 여건상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할 수 있는 농가들은 거의 모두가 사업에 신청하여 직불금 지원을 받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대단히 높음.
 - 현재 경관작물 식재 대상지는 원래 쌀농사를 짓던 곳이며, 경지정리가 이루어진 우량농지였음. 이를 경관작물 재배 용도로 대거 전환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메밀, 코스모스 등을 이용해서 농촌관광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이루겠다는 데 많은 주민들이 의견을 함께 하고 있음.
- 특히 군 차원에서 쌀 농사 조수입의 90% 수준에 근접한 직불금(700만 원, 농식품부와 경남도 추가 지원 포함)을 지원해 줘서 더욱 만족도가 높음.
 - 게다가 많은 방문객이 찾아와 메밀묵, 메밀국수 등을 소비하여 농가소득 향

상에 도움을 주고 있음.

- 마을 주민들이 대부분 연로하여 큰 행사를 치루는 데 어려움이 많음. 하지만 하동군청과 북천면사무소 등 담당 공무원들이 경관작물 재배 관리에서부터 축제 준비를 위한 조롱박터널 등 조성에 많은 지원을 한 결과 무사히 축제를 마무리할 수 있었음.
- 주말 교통정리에만 공무원 50~60명씩 동원됨.

□ 지자체 담당자 의견

-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는 직전마을 외에도 많이 있음. 단 직불금 단가를 직전마을과 같이 ha당 700만 원으로 지원 받을 경우임. 하지만 군 재정상 군내 다른 지역에 똑같은 지원을 하기는 부담이 큼.
- 하동군에서는 북천면 경관직불 대상지구가 지역활성화의 거점이 되도록 직불금 지원과 관광 기반 조성을 위한 관련 사업 연계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 꽃단지 행사 개최도 전임 북천면 부면장이 처음으로 아이디어를 내는 등 해당 지구를 지역 활성화의 거점으로 육성하려는 구상을 지자체 차원에서 구체화시키고 있음.
 - 꽃단지 행사의 반응이 기대 이상으로 좋아 군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축제를 육성하고자 하면서, 축제 준비 과정 및 행사 기간 중에 하동군청과 북천면 공무원들이 전폭적인 지원을 하게 됨.
 - 기본적으로 경관작물의 작황이 좋아야 행사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재배 관리 단계에서부터 지자체에서 많은 지원을 함
- 꽃단지 행사를 지역축제의 위상을 갖도록 육성하고자 함.
 - 2007년 50여만 명이 다녀간 데 이어, 2008년에는 행사가 끝난 이후에도 많은 이들이 방문하여 꽃이 질 때까지 100만 명 가량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이로써 2008년 지역활성화 효과는 7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함.

- 2008년도에는 직전마을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참살기좋은마을로 선정하여 지원하는 등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연계시키고 있음.
-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에 관한 지자체 담당자의 몇 가지 의견
 - 직전마을에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꽃단지 행사를 진행할 것이므로 보다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협약 체결 기간을 3년 이상으로 충분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조류 피해(황새, 비둘기, 참새 등)나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작물 발화율 저하와 작황 부진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러한 불가피한 상황이 일어날 경우 경관작물 재배 관리 등에 농가가 최선을 다해왔다고 판단된다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경관보전직불제 우수 사례 홍보와 경쟁을 위하여 성과가 우수한 지역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모색하여야 함.
 - 경관작물 재배 매뉴얼을 작성하여 전달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교육을 통하여 기술을 전파하는 것 보다 효과가 현저히 낮음. 담당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고 이를 전파할 수 있도록 행정비와 교육비를 경관보전직불제 사업비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3) 사업시행 효과

□ 농가소득 향상효과

- 하동군에서 지원하는 직불금 단가는 ha당 700만 원으로 벼농사 조수입(약 780~800만 원)에 그다지 뒤지지 않는 액수임. 또한 재배한 메밀은 메밀작목반에서 수매(kg당 2800원 정도)해 주므로 판로 걱정이 없음.
- 2008년에는 작황이 좋아 수확량이 상당할 것으로 기대함.
- 농가에 충분한 소득은 못 되지만 마을 작목반에서 메밀을 수매해줄 수 있는 것은 꽃단지 행사 때 메밀국수 및 메밀묵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하기 때문임.

□ 경관조성 및 농촌어메니티 증진효과

- 31ha에 이르는 대규모 면적에 메밀꽃 군락과 삼색 코스모스 군락이 펼쳐져 뛰어난 경관을 형성함. 아울러 산책로, 원두막, 물레방아, 덩굴터널 등 경관작물 식재 외에 다양한 경관이 조성됨.
- 꽃단지 군락지와 인접하여 벼가 심어져 있는 곳에는 흑미를 심어 문양을 내는 등 다양한 경관을 창출함.
- 경관직불 지원을 계기로 지역의 다양한 어메니티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주민들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
 - 쉼다리를 설치한다거나 물레방아, 원두막, 농기구 전시관 등을 조성하여 농촌어메니티를 증진함.
- 저수지 등을 활용하거나 마을의 어메니티 자원과 연계한 탐방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개발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현재는 경관작물 재배 지구 감상과 식사가 방문객들의 주 활동임.

□ 공동체의식 함양 및 지역활성화 효과

- 경관작물을 재배하고, 관련 축제 등의 행사를 진행하면서 마을 주민들은 농촌 경관관리 활동을 통한 지역 활성화 효과에 대해 인식하게 됨.
 - 북천면 대상지는 원래 논이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경관작물 재배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주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으나, 2008년 경관보전직불제 참여 농가가 67호(직전마을 80가구 남짓)에 이르는 등 대부분의 주민이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고 있음.
- 경관작물이 잘 재배되고, 방문객들이 쉬고 즐길 수 있는 산책로, 쉼터, 휴식공간 등이 조성되어야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을을 방문하고 이로써 농가소득이 향상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이 보다 강화되었음.
- 경관작물 식재로 인해 주민들이 메밀작목반을 구성하여 새로운 경제사업을 벌이게 되었음.

- 2006년에 구성된 메밀작목반은 현재 49농가가 참여하고 있음. 메밀 생산과 수매·가공 등 경제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축제 음식점 운영 등에도 참여하고 있음
- 현재는 메밀 생산과 가공 과정이 수작업에 의존하여 생산성이 극히 낮은데 향후 메밀 탈곡기나 분쇄기 등의 기계가 도입되면 작목반 활동의 범위도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또한 2008년 녹색농촌체험마을 선정을 계기로 관련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그 범위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업자를 맡겨서 축제를 기획·진행하지 않고 각종 행사나 시설 조성을 지자체에서 직영해서 추진하였음. 그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각종 경비 절감이 가능했으며,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도 강화함.

□ 경관작물 관련 축제 시행성과

- 제2회 '2008 북천 코스모스메일 축제' 개최
 - 행사기간: 2008. 9. 19 ~ 9. 28 (10일간)
 - 부스운영: 9. 13 ~ 10. 5일(23일간)
 - 사업비: 304백만원(경관직불제 217백만원, 기반조성 및 행사비 87백만원)
- 행사기간 중 방문객수: 70만 명

합 계	일 반(승용차)	열 차	관광버스	비 고
700,000	639,000	41,000	20,000	

- 평일에 관광객이 2만여 명, 주말과 휴일에는 10만 명씩 방문
- 행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꽃이 질때까지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 총 방문객은 100만 명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
- 축제 개최에 따른 직·간접적인 효과: 70억 원 수준
 - 하동군에서 집계한 결과에 의하면 직접적인 경제효과로 13억 6천만 원, 간접적인 효과로 35억 원에 하동의 홍보효과 22억을 더하면 70억 가량의 파급효과가 있었음.

- 행사장에 설치한 부스에서 음식을 판매한 금액이 12억 원에 달하였음. 축제 부스에 들어와 있는 30개 업체 모두 하동 관내 업체임.
- 간접효과는 방문객 1인이 사업지구 이외에 하동군 관광지에서 소비한 금액을 5천 원이라 가정하고 추정한 것임

<경제적 효과 추정>

단위: 백만 원

합계	행사장 직접효과				하동군 간접효과	관광하동 홍보효과	
	계	음식판매	농특산물 판매	염색 및 체험			기타
7,115	1,365	1,260	50	5	50	3,500	2,250

4) 제도개선 및 사업확대 방안

□ 지급단가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 하동군에서 자체적으로 직불금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대규모 단지에 특색있는 경관을 조성할 수 있었음. 벼농사에 대체하여 경관작물을 식재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농식품부 지급단가는 부족할 수 있으나, 전국적인 지원 기준임을 감안할 때 단가 인상보다는 우수 사례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등의 수단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 궁극적으로 도농교류 등에 기반한 메밀 가공품 등의 판매로 농가소득 증대를 이루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하여 꽃단지 행사시 임대부스에서 의무적으로 지역 메밀 가공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사업대상지역 적합성 및 확대방안(면적기준 등)

- 북천면 사업지구는 도로 접근성이 빠어나 방문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으며, 열차로도 접근 가능하여 경관작물 식재의 효과가 매우 큰 지역임.
- 2006년 14ha를 조성하였다가 국도 2호선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지금에 이르렀음

- 지자체 차원의 지원 의지도 높으며,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되어 관련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농교류를 지속적으로 할 경우 농가소득 증대 등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화개, 악양 등 인근의 명소와 연계한 개발이 가능한 점도 장점임.
- 그동안 관광객들이 지역 내 유명 관광지에 접근하면서 농촌을 통과하기만 했는데, 마을에 발길이 머무르도록 하는 효과를 낳는다는 점도 경관직불제 지원의 근거가 됨.
- 다만 향후 사업 파급효과 확대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음.
 - 현재 농가 민박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저수지나 마을 숲 등 내세울 만한 어메니티 자원이 있지만 그와 연계한 탐방 프로그램은 미비함 향후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 등과 연계하여 관련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경관작물 다양화 방안

- 메밀과 코스모스로만 이루어진 경관이 단조로울 수 있어 경관직불 지원 대상이 아니라도 농로 등에 다양한 모습으로 개화하는 식물들을 식재하는 것이 필요함
- 올해에는 수세미와 조롱박, 뱀오이 등이 늘어진 덩굴터널을 조성하여 색다른 경관을 형성하였으며, 벼가 식재된 논에 흑미로 문양이나 글자를 새겨넣는 등 특색있는 경관을 형성하려는 노력을 보임.

□ 마을 경관향상 방안

- 보다 운치 있고 매력적인 경관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더욱 세부적인 측면까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올해 특색있는 경관 창출로 손꼽힌 덩굴터널을 확대(현재 1개소 150m → 500m 확대(H자 형))
- 직전마을 건너 산에 등산로(산림욕) 및 전망대 설치
- 야간 경관을 향상시키고자 조명등을 보완하는 방안 고려
- 일부 탐방로가 조성되어 있으나 방문객 동선을 좀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불충분한 기반시설 등에 대해서도 더 많은 투자가 요구됨
 - 올해에는 가변차로를 확보하여 주차난 해소에 일정부분 기여하였으나, 방문객 증가에따른 주차공간과 편의시설이 여전히 부족하였음
- 마을 안길에 꽃길, 꽃밭을 조성하고 규칙적인 정화 활동을 펼쳐야 함.

□ 경관 조성 및 유지·관리 등 사업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경관 조성 및 유지·관리 등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후원이 뒤따름으로 인해 문제없이 추진됨. 다만 하동군의 재정 열악으로 현재와 같은 수준의 직불금이 지원되지 못할 경우 직불제 사업에서 빠지려는 농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중앙정부에서는 현행 경관보전직불제 지원금이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3년이나 5년 이상 안정적인 협약을 맺도록 하고, 여타의 농촌개발 사업이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 우선적으로는 지자체의 사업 의지가 바탕이 되어 각종 투자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지구를 장기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안을 지역 차원에서 다듬고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함.
 - 이러한 전제 하에 중앙정부 차원의 마을개발사업 등과 연계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 북천면 사업대상지구는 경관작물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거양한 우수 사례이므로 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하여 보다 파급효과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활동도 대단히 중요함.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비 등의 지원이 요구됨.

□ 농촌환경문화경관보전 활동까지 확대 가능

- 현재 마을 주민 대부분이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고 있어 농촌환경문화경관보전 활동까지 확대하여 추진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마을 주민들의 경관관리 및 공동체 의식이 고양되어 농촌환경문화경관보전 지구단위 협약 및 활동이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됨.

5) 관련 현장사진



꽃단지 전경(1)



물레방아



꽃단지 전경(2)



조롱박 터널

17.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오천리

1) 사업 추진현황

□ 대상지 현황

- 위치: 함양군 백전면 오천리 양천마을 일대
- 경관보전직불제 참여 농가수: 13호
- 경관보전직불제면적: 10,799m²
- 경관작물: 하고초
- 2006년부터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지원 받음.
- 양천마을은 하고초를 밀원식물로 하여 꿀을 생산하는 토종꿀마을로 자리잡고 있음
 - 마을에서 원래는 2-3가구만 양봉을 했고 다른 농가들은 주로 쌀이나 잡곡 등이 주 작목이었는데, 하고초를 본격적으로 재배하고 토종꿀을 생산하는 일에 많은 농가가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토종꿀마을로 알려지게 됨

□ 경관작물 파종 및 수확현황

- 파종시기: 7월 말~8월 초
 - 다년생 식물(2-3년)로 매년 파종할 필요는 없음. 2008년에는 파종 안 함. 하지만 군락지가 제대로 형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군데군데 경지를 갈아엎고 새로 파종을 하기도 함.
 - 축제가 끝나면 6월 중 종자를 채취한 후 꿀을 베어내고 7-8월 중에 다시 파종함. 그리고 파종한 후에는 월동을 하여 이듬해에 다시 개화함
 - 현재 하고초는 하계작물로 분류되어 있으나 6월 개화를 위해 한 해 전부터 파종 및 작물 관리가 필요함. 따라서 하고초를 재배하는 농경지에서는 타 작물은 심지 못하고 연중 하고초 생산에 매진해야 함
- 개화시기: 5월 하순 ~ 6월 중순(만개 기간은 6월 1일~10일)
 - 보라색 꽃이 군락지를 이루어 개화함.

○ 수확시기

- 하고초는 밀원식물로 파종을 위한 종자만 채집할 뿐 따로 수확하지 않음.

- 하고초는 다 자랐을 때 높이가 20~40cm 가량밖에 되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김매기를 하지 않으면 잡초 때문에 제대로 성장할 수 없음. 게다가 밀원식물이니 제초제나 농약 등을 쓸 수가 없어, 손수 풀베기를 해야 함. 따라서 하고초의 생산비는 매우 높음.

□ 지자체 추가지원 현황

- 현재 양천마을에는 하고초 재배활동에 대해 농식품부의 경관보전직불금과 경남도 및 함양군의 지원금까지 합해서 ha당 총 230만 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경남도에서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는 타 사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초의 경관보전직불금 170만 원에 대한 추가분 60만 원은 도비와 시·군비로 각각 절반(30만 원)을 부담함.

* 2007년에는 추가분 80만 원(도비와 시·군비로 반반씩 부담)을 더하여 ha당 250만 원이 지원되었음.

- 올해(2008년) 양봉구조개선사업(도비, 군비)의 일환으로 별통이 배정되었으며, 비료·퇴비지원 사업의 수혜도 있음.

- 마을의 경관 및 기초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이 지자체 지원으로 추진 중임

- 2008년도에는 오지개발사업을 통해 마을에 필요한 기초시설을 조성하고 있음
특히 마을 방문객을 위한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마을안길이 협소하여 불편한 문제를 개선코자 주민들은 마을안길 확포장과 공중화장실 설치 등이 이루어짐
- 그 밖에도 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원두막 3-4개와 목재데크 등이 조성됨.

- 하고초 축제에 운영비 차원으로 500만 원(군비)이 지원됨.

□ 사업추진관련 주민활동 상황

- 하고초꿀영농조합법인을 중심으로 하고초 재배 및 주민 공동체 활동 추진
 - 2003년 11월 하고초꿀영농조합법인 출범, 2008년 현재 조합원 12명
 - 2003년에 일부 농가에서 하고초를 처음으로 심었으며 본격적인 꿀 생산은 올해(2008년)로 5년차임.
 - 농사 여건이 어렵고 불투명해지면서 과감하게 쌀농사를 포기하고 대체소득원으로 토종꿀 생산을 본격화하자는데 주민 합의가 모아지면서 주민들이 마을 차원에서 하고초 단지를 조성하여 꿀 생산을 본격화함
 - 하고초꿀영농조합법인이 경관작물 재배와 꿀 생산 및 가공 유통, 판매, 마케팅 등에 이르는 제반 활동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대다수 농가가 영농조합법인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 따라서 마을 경관 가꾸기나 축제 개최 등 마을 공동체의 각종 사업 역시 영농조합법인을 중심으로 진행됨.
- 경관작물 개화 시기에 맞추어 축제를 개최하여 마을을 알리고 하고초 꿀제품의 차별화와 판매 확대를 도모함.
 - 하고초 만개 시기에 하고초 꽃축제를 개최함 2008년에는 5월 23일부터 6월 8일까지 개최
 - 행사는 작목반 기금으로 진행되며, 부녀회에서는 음식 장만 등의 활동을 하는 등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마을 행사가 되고 있음.
- 마을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축제 기간 중 다양한 관련 단체에서 방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작업을 함.
 - 하고초 사진공모전(2008년 5월 23일~6월 20일) 등을 통해 사진작가 등이 양천마을을 방문해 사진을 촬영하도록 유도함.
 - 사진공모전을 통해 대상 1명 등 총 21명에게 시상함. 상품으로 하고초꿀 시상
-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및 관리(www.하고초.com)
 - 영농조합법인에서는 제품의 판촉 목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하고초 꿀의 효능과 우수성을 알리고 있으며 온라인 주문도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축제 홍보 등 마을을 알리는 용도로도 이를 활용하고 있음.

2) 사업 만족도

□ 사업추진 주민(대표) 의견

- 마을 전체적으로 하고초를 재배해 경관도 조성하고 꿀을 판매해 소득을 올리는 데에 경관보전직불제가 결정적 계기를 제공하였음 주민 대부분 직불제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 하고초 재배에는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들어 어려움이 있으나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을 받아 어느 정도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음. 이로써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됨.
 - 마을 경관 형성으로 인한 제품의 간접 홍보효과 등을 감안하면 경관보전직불제의 성과는 더욱 높게 평가됨.
 - 현재 마을에 경관작물 재배가 가능한 가구는 모두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고 있을 정도로 주민들의 호응이 높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경관보전직불 지원을 받기를 기대함.
- 다만 하고초 재배는 특히 생산비용이 많이 들고, 친환경 재배를 하고 있으므로 차별적으로 지원해 주었으면 함.
 - 하고초의 경우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사례이므로 타 경관보전 직불제 대상 작물과 차별하여 지원하여 주면 좋겠음.
 - ha당 300만 원 수준으로 올려주면 좋겠음.
- 마을 축제 등을 계기로 주민들의 경관관리 활동 의지가 높아졌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마을 가꾸기 사업의 연계 요구가 높음

□ 지자체 담당자 의견

- 하고초 꽃 축제를 통해 함양군의 풍부한 관광 자원을 외부에 알리고 지역의 다른 자생약초를 홍보하는 데도 기여하는 등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음
- 다른 경관보전직불제 지역과 차별적으로 하고초를 생산함으로써 특색있는 경

관을 창출하였을 뿐아니라 꿀생산을 통해 농가소득이 증대되는 등 사업 효과가 대단히 큼.

- 함양군에서도 하고초 꿀 홍보를 통한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을 방문객 편의시설 조성 및 마을 경관 가꾸기 관련 활동에 대해 지원하고 있음
 - 지자체 자체 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 등을 통해 마을 안길 확포장, 주차장 및 편의시설(정자 등), 공중화장실 등을 조성함.
 - 그러나 함양군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사업비가 많지 않아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3) 사업시행 효과

□ 농가소득 향상효과

- ha당 230만 원의 경관보전직불금 수령과 함께 마을에서 연간 5천 되(1되=2.4kg)의 꿀을 한정 생산하여 총 3억5천만 원 규모의 매출액을 올림.
 - 꿀의 품질 관리를 위해 연간 5천 되 한정 생산
 - 꿀 큰 병(2.4kg)은 개당 7만 원, 작은 병(1.2kg)은 3만7천 원에 판매됨.
 - 경관직불과 연계하여 하고초 꿀 브랜드를 홍보한 결과마을에서 생산한 꿀을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판로를 확보하게 됨.
- 높은 하고초 생산 비용을 경관보전직불금으로 어느정도 충당함.
 - 전체적으로 11ha 면적을 재배하는 데 2008년의 경우 8천만 원 가량이 소요됨. 이를 ha당 비용으로 환산하면 약 727만 원임.
 - 하고초는 다 자랐을 때 높이가 20~40cm 가량밖에 되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김매기를 하지 않으면 잡초 때문에 제대로 성장할 수 없음. 3월부터 6월 사이에는 한번에 300-400명 가량 인력이 투입되는 김매기 작업을 5-6회 가량 실시해야 함.
 - 상당수 작업은 생산 농가에서 직접 담당하지만 일손이 많이 필요한 김매기나 제초 등의 작업은 인력을 사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게 됨

- ha당 230만 원씩 제공되는 경관직불 지원금으로는 이러한 생산비를 감당할 수는 없지만, 꿀 판매로 얻는 소득까지 감안할 경우 경관보전직불금이 농가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되고 있음.
- 꿀 생산과 판매, 수익 배분 등의 제반 사항은 영농조합법인에서 관리하며, 전체 매출액 중 생산·포장·운송 및 마케팅 등에 드는 제반 비용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농가에 배분하고 있음.
- 영농조합에서는 꿀 1병(7만 원)당 포장대(5천 원), 택배비(4천 원) 등의 비용과 홍보 및 판촉 비용, 각종 관리운영비 등을 제한 후 1병당 약 3만8천 원 내지 4만 원의 수익금을 영농조합 참여 농가에 배분함(매년 농가에 배분되는 몫은 영농조합에서 책정한 각종 경비 수준에 따라 달라짐).

□ 경관조성 및 농촌어메니티 증진효과

- 하고초 군락지는 국내에서 유일한 경관임 다락논에 심어져 있어 경관이 더욱 우수함.
- 당초 하고초 재배는 밀원 조성 목적에서 시작한 것이지만 경관직불 지원과 연계된 결과 군락지를 이루도록 재배하면서 특색 있는 경관을 조성하게 됨
- 분산된 소규모 밀원 조성을 통해서도 꿀 생산을 할 수 있었겠지만, 그 경우 마을 단위의 대규모 경관 형성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임. 따라서 직불금 지원을 조건으로 하여 경관작물 군락지 조성을 유도한 것이 마을 경관 형성에 많은 기여를 함.

□ 공동체의식 함양 및 지역활성화 효과

- 마을 영농조합을 중심으로 하고초를 재배하고 꿀을 생산함으로써 자연스레 공동체의식이 함양되고, 공동체 차원의 활동을 하게 됨.
- 영농조합의 꿀 생산을 위해서는 마을 공동의 밀원을 관리하는 활동이 요구되는데,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을 받으면서 밀원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게 되었음

- 아울러 경관작물과 연계한 마을 축제 개최를 통해 주민들이 하고초 꿀 브랜드를 공동관리하는 활동에 동참하도록 유도함.
- 경관직불제 지원은 마을 주민들이 농촌 경관관리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됨.
 - 경관작물 재배에 그치지 않고 산책로, 쉼터, 휴식공간 조성 등을 주민 스스로 구상하는 등 전반적으로 마을 경관 가꾸기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증대함.
 - 내년부터 체험프로그램을 연계할 구상도 갖고 있음.
- 하고초 군락지라는 독특한 경관 창출과 마을 축제를 통해 많은 방문객들이 마을을 찾고, 꿀 등을 구입해 가는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함.
 - 영농조합법인에서는 꿀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마을에서 생산한 키토산 옥수수를 보내준다거나, 봄나물 등을 나눠주는 등 고객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음.

□ 경관작물 관련 축제 시행성과

- 제4회 하고초 축제 개최: 2008년 5월23일부터 6월8일
- 마을 공터에서 행사를 함.
 - 올해는 1만 명 가량이 방문한 것으로 추정됨. 2007년에는 5천 명 가량이 마을을 방문한 데 비하면 2배 가량 방문객이 증가하는 등 행사의 외형이 커지고 있음.
- 축제 내용
 - 하고초 재배지 체험 행사
 - 떡거리: 하고초꿀, 하고초엑기스, 하고초전, 하고초튀김, 하고초동동주, 하고초비빔밥
 - 아마추어 사진전
 - 하고초밭에서 사진찍기

- 축제 개최의 경제적 효과
 - 축제 기간 중 꿀과 음식물 등 판매소득 8천만 원 달성
- 하고초축제를 계기로 한 마을과 지역 홍보
 - 축제 기간 중 한국생약협회나 사진작가 등 외부 방문객들이 마을을 찾으면서 하고초축제가 주요 중앙 일간지나 방송에도 보도됨 양천마을에 대한 소개와 함께 함양군의 여타 관광자원이나 특산물, 음식 등을 홍보하는 기회가 됨.

4) 제도개선 및 사업확대 방안

□ 지급단가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 하고초 생산비용만 고려한다면 지급단가가 낮은 편임. 경관보전직불제로 지원받는 타 경관작물과 비교해도 생산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편임
 - 하고초는 풀이 낮게 자라므로 김매기 등에 많은 노동력과 비용이 들어가며 연중 관리가 필요한 작물이어서 경관직불 지원금보다 생산비가 훨씬 높게 나타남
 - 생산비가 많이 들 때는 ha당 700만 원까지 들며, 평균적으로 잡아도 440~528만 원 가량 소요되므로 현 직불금 규모로는 생산비를 충당하기 어려움
- 직불금 지원이 없어지거나 현재보다 줄어든다면 영농조합 운영에 큰 차질이 있고 참여하려는 농가도 적을 것임. 따라서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서는 향후에도 경관보전직불금이 지속적으로 지급되고 지자체의 추가 지원도 당분간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사업대상지역 적합성 및 확대방안(면적기준 등)

-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을 통해 하고초 군락지를 형성하게 되었고 특색있는 경관창출에서 나아가 꿀 생산, 마을 축제를 통한 지역 홍보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지역임. 경관보전직불제 소귀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여짐
 - 경관작물과 마을 특산품 연계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꾀한다는 점에서 정책 목표와 부합함.

- 마을 주민들은 하고초라는 특색있는 밀원식물로 꿀을 생산한다는 점을 큰 장점으로 부각시키고 있음. 하고초는 4대 향암약초로 선정되었음.
- 경관직불 대상 농경지 확대는 하고초 꿀의 생산량 증대와도 연관이 있는 부분으로 영농조합의 향후 사업 계획과 마을 여건을 감안하여 지자체와 마을 차원에서 타당성을 판단해야 할 것임.
- 현재 하고초 재배면적 11ha에서 꿀 5,000되를 한정 생산하고 있는데 이는 약 40㎡당 꿀 1되로서 꿀의 품질 관리를 위해 결정한 것임.
- 꿀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하고초 재배지 확보가 필요함 하지만 마을에 더 이상 자경 농지가 없어 현재 면적보다 밀원을 확대하려면 농지를 임대해서 하고초를 재배해야 하는데 임대료 부담 때문에 어려움. 임대료가 10a당 30~40만 원에 달하므로 현재의 직불금 수준에서는 임대가 여의치 않음
- 임대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할지 여부는 사업 전망이나 주민 의지, 신규 참여 수요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와 영농조합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임.

□ 경관작물 다양화 방안

- 하고초 꿀 생산으로 마을이 차별화되어 있으므로 향후에도 그것을 바탕으로 하되 흰색 꽃이 피는 신하고초 등을 도입하여 기존의 품종과 조화를 이루도록 식재하고자 주민들이 추진 중임.
- 하고초 이외에도 밀원 조성 목적으로 메밀이나 자운영이 일부 식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필요함.
- 축제 때 경관작물이 하고초로만 이루어져 단조로우므로 논두렁이나 유희지에 키가 작으면서 꽃이 계속 피는 식물을 식재할 필요가 있음.
- 하고초 성장에 영향을 안 주도록 그들이 안 지면서 다른 잡초가 못 자라도록 하는 식물 품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를 하고초 군락지들을 연결하는 유도 효과를 주도록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경관 조성 및 유지·관리 등 사업전반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하고초 꿀 생산이 마을 주민의 주 소득원으로 밀원 조성과 관리 측면에서 경관직불 협약 이행 등도 무리없이 이루어지고 있음. 경관 조성 및 유지·관리 등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 과정에서 별 문제가 없음.
- 다만 마을 일대 어메니티 자원을 발굴하여 마을 개발에 연계할 수 있는 기반 및 주민 자체 역량은 부족한 편으로, 이를 위한 컨설팅이나 교육 등이 필요함.

□ 농촌환경문화경관보전 활동까지 확대 가능

- 영농조합법인을 중심으로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고, 마을 축제를 개최하는 등 공동체 활동 경험이 있으므로 마을공동기금에 기반한 농촌환경문화경관보전 활동 추진을 위한 지구단위 협약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5) 관련 현장사진

